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부산구술문화총서 1

# 동부산 문화권 설화( I )

기장군 편

박경수 · 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2



# 일러두기

## 1. 구성과 체제

-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 서부산 문화권, 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1차로 각 권역별 구비문화를 설화 2권, 민요 1권의 체제로 전체 9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제1권으로 동부산 문화권 중에서도 기장군 설화만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 (3)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되었다. I. 현장조사 설화를, II. 기존 현장조사 설화를, III. 문헌 소재 설화를 각각 읍·면 단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4) I은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한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설화 자료들을 제목, 제보자(이름, 성별, 출생년도), 채록 시기, 조사 장소, 본문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 (5) II는 이 책의 편집자들이 2010년 이전에 별도의 사업과제로 현장 조사한 자료를 보고 또는 출판한 것으로, 당시 원전의 서술체계와 서술 방식을 그대로 따랐으며, 각 설화 자료의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단,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 (6) III은 기존에 발행된 문헌에 수록된 설화를 엮은 것으로, 동일한 설화의 경우 가장 먼저 출판된 설화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설화라도 이야기 전개 방식이나 표현이 다르면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아 함께 수록하였다. 각 설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혔으며, 동일한 설화가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각주를 붙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7) 이 책의 끝에 구술자, 설화 제목의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 2. 표기 원칙

-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①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는 소괄호 ( )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책 이름은 겹낫표 『 』, 작품명은 낫표 「 」, 혼잣말은 작은따옴표 ‘ ’, 대화는 큰따옴표 “ ”로 표시하였다.
- (3) I.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구연 상황은 대괄호 [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표기하였다.
- (4) II. 기존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원전의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 (5) III. 문헌 소재 설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수정하였다.

### 각/권/별/편/제

-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Ⅰ) -기장군편- / 2012년 발간
-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해운대·수영·남구편- / 2013년 발간예정
-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 / 2014년 발간예정
- 제4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 -강서구편- / 2015년 발간예정
-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 -북·사상·사하구편- / 2016년 발간예정
- 제6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 / 2017년 발간예정
- 제7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 -금정·동래·연제구편- / 2018년 발간예정
- 제8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Ⅱ) -부산진·동·중·영도·서구편- / 2019년 발간예정
- 제9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 / 2020년 발간예정

# 목 차

## 일러두기

### I. 현장조사 설화

#### 1. 기장읍 설화

|                                    |    |
|------------------------------------|----|
| 콩 많이 먹지 못하게 한 말 .....              | 3  |
| 시집살이 흥 못 본다 .....                  | 3  |
| 부인에게 거짓말 해서 부모 봉양하게 한 아들 .....     | 4  |
| 흰 학이 날아갔다는 백동마을 .....              | 5  |
| 야속한 사촌형 .....                      | 5  |
| 저승 갔다 온 사람 .....                   | 6  |
| 두꺼비 살려주고 부자 된 영감 .....             | 6  |
| 지극한 염불로 극락 간 시어머니 .....            | 8  |
| 외도한 구렁이를 혼낸 선비 .....               | 8  |
| 구렁이와 결혼한 막내딸 .....                 | 9  |
| 맞돈 주고 두부 먹는 돼지 .....               | 11 |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               | 11 |
| 보리밭 매러 간 세 동서 .....                | 12 |
| 거지보다 못한 선비 .....                   | 13 |
| 개에게 밥을 안줘 죽게 된 며느리 .....           | 14 |
| 상객 가서 실수하여 죽은 사돈 .....             | 15 |
| 도사와 두 과부 .....                     | 16 |
| 쌀이 나오다 물이 나온 사리암의 바위 구멍 .....      | 17 |
| 도둑으로 몰려 형무소에 갇힌 울산 사돈과 김해 사돈 ..... | 18 |
| 바보 사위 .....                        | 18 |
| 달래고개의 내력 .....                     | 19 |
| 새끼 서 발로 부자 된 바보 .....              | 20 |
| 딸 보러 가다 호식 당한 할머니 .....            | 22 |
| 길고도 좋은 이야기 .....                   | 23 |
| 아직도 구르는 수박 .....                   | 23 |
| 시랑대와 제동당 .....                     | 24 |
| 기생과 시랑대 .....                      | 25 |

|                             |    |
|-----------------------------|----|
| 배서낭 모시기 .....               | 26 |
| 배서낭 정하기 .....               | 27 |
| 배에서 할 수 없는 말 .....          | 27 |
| 그것도 잔치라고 술이 생기네 .....       | 28 |
| 약효가 있는 참샘 .....             | 28 |
| 아들 낳게 하고 귀신 나온다는 용소골 .....  | 29 |
| 호랑이도 놀라 도망간 호랑이 그림 .....    | 29 |
| 단지를 뒤집어 쓴 개 .....           | 30 |
| 저승 갔다 영감 만난 할머니 .....       | 31 |
| 아버지 편지 쓰고 있다 .....          | 32 |
| 병어리로 오해 받은 며느리의 시집살이 .....  | 33 |
| 마을에서 모시는 최영 장군 .....        | 34 |
| 당제를 잘 못 모셔 당한 화 .....       | 34 |
| 바다에 잠기지 않은 아홉산 간뎀이 .....    | 35 |
| 전봇대에서 나는 소리 듣고 지은 시 .....   | 36 |
| 정승의 권세를 꺾은 꼬마 .....         | 37 |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           | 38 |
|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메웠던 약물샘 .....  | 39 |
| 귀 떨어진 처자 나온다는 은행나무 .....    | 40 |
| 요령바위가 있어 곳을 잘 하는 교촌마을 ..... | 41 |
| 서로 혼사를 하지 않는 이웃마을 .....     | 41 |
| 꼬부랑 이야기 .....               | 42 |

## 2. 일광면 설화

|                                     |    |
|-------------------------------------|----|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 .....           | 43 |
|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 .....                 | 43 |
| 용이 솟아 오른 산수곡 용천 .....               | 45 |
| 해일이 일어 물이 들지 않은 달음산 봉우리 .....       | 46 |
| 은혜 깊은 두꺼비 .....                     | 47 |
| 저승사자에게 고한 착한 일 .....                | 48 |
| 현 것에서 새 것 나왔다 .....                 | 49 |
| 자식 죽여 시아버지 병을 고친 효부[산삼동자 이야기] ..... | 50 |
| 소변 보다 게에게 물려서 낭패 본 며느리 .....        | 51 |
| 꽃감을 무서워한 호랑이 .....                  | 52 |

|                        |    |
|------------------------|----|
| 피를 내어 부인 호강시킨 남편 ..... | 52 |
|------------------------|----|

### 3. 장안읍 설화

|                                 |    |
|---------------------------------|----|
| 시집살이로 참았던 며느리의 방귀(1) .....      | 55 |
| 내 방귀 달지요?(1) .....              | 55 |
| 저승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애운애기 .....    | 57 |
| 본처 딸을 구박한 의붓어미 .....            | 58 |
| 바보 신앙의 하룻밤 경험 .....             | 60 |
| 원효대사가 공부한 척판암 .....             | 60 |
| 산이 솟아오르다 멈추어 큰절이 못된 장안사 .....   | 61 |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1) .....    | 62 |
| 내 방귀 달지요(2) .....               | 63 |
| 재치로 주인 과부와 혼인한 머슴 .....         | 64 |
| 처녀들이 바람나는 방모산 호양바위 .....        | 65 |
| 죽은 혼신의 아들과 의형제 맺은 사람 .....      | 66 |
| 척판암 물을 먹고 유명하게 된 원효대사 .....     | 69 |
| 도승이 꼽은 지팡이가 자란 당산나무 .....       | 70 |
| 빈대 때문에 망한 옛날 백련암 .....          | 71 |
| 용이 머리를 박아서 만들어진 용소 웅덩이 .....    | 71 |
| 산의 맥을 끊었다 즉사한 사람 .....          | 72 |
| 빨당골 떡진바위와 빈대가 끊어 망한 절 .....     | 72 |
| 책판을 던져 스님들을 구한 원효대사와 척판암 .....  | 73 |
| 처자를 덮쳐 깔고 앉은 용소 자라바위 .....      | 73 |
| 달음산·삼각산·방모산의 이름 유래 .....        | 74 |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2) .....    | 74 |
| 용이 올라간 송등웅덩이 .....              | 75 |
| 시집살이로 참았던 며느리의 방귀(2) .....      | 76 |
| 은혜 갠 두꺼비 .....                  | 76 |
| 내 방귀 달지요?(3) .....              | 77 |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부인이 모시게 한 남편 ..... | 78 |
| 여자 말에 득천하지 못하고 멈춘 마이산 .....     | 79 |
| 사람들 말에 산에서 내려오다 멈춘 자라바위 .....   | 79 |

#### 4. 정관면 설화

|                                  |     |
|----------------------------------|-----|
| 달음산과 매남산의 유래 .....               | 81  |
| 쌀 나오는 구멍과 스님의 욕심 .....           | 81  |
| 송곳대 놀이 .....                     | 82  |
| 아들 덕분에 좋아진 부부 사이 .....           | 82  |
| 어머니나 자식보다 더 좋은 사람 .....          | 83  |
| 아버지 낭패를 해결한 재치 있는 아들 .....       | 84  |
| 닭소리 흉내로 만나려다 낭패 본 부부 .....       | 86  |
|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죽음을 면한 사람 ..... | 86  |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            | 88  |
| 백여우가 나오는 고개 .....                | 88  |
| 도깨비불 .....                       | 89  |
| 솟을산·달음산·백양산의 이름 유래 .....         | 90  |
| 시아버지 새장가 들인 며느리 .....            | 90  |
| 욕쟁이 할아버지 .....                   | 91  |
| 시집살이로 참았던 며느리의 방귀 .....          | 92  |
| 도깨비 떼기 .....                     | 92  |
| 범 잡은 토끼 .....                    | 93  |
| 책 읽는 선비와 강피 훑는 아낙 .....          | 94  |
| 도라지꽃 유래 .....                    | 95  |
| 내 복에 산다 .....                    | 96  |
| 도깨비를 물리친 아이 .....                | 98  |
| 며느리 방귀는 복 방귀 .....               | 100 |
| 버릇 없는 늣둥이 길들이기 .....             | 102 |
| 도깨비에게 잡아 먹힌 사람 .....             | 103 |
| 선녀가 배를 짠 베틀바위 .....              | 104 |
| 정관의 산 이름 유래 .....                | 104 |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            | 105 |
| 배가 불러 가다가 죽은 총각 .....            | 106 |
| 봉사 덕에 목숨 건진 이수자 .....            | 106 |
| 봉덕이의 원한과 예밀레종 소리 .....           | 109 |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                | 110 |
| 지네 장터 은혜 값은 두꺼비 .....            | 110 |
| 스님을 바쳤던 뱀사골 .....                | 111 |



|                              |     |
|------------------------------|-----|
| 남의 아내를 빼앗아 죽게 된 선장 .....     | 112 |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 .....    | 113 |
| 주인 덕에 신선으로 환생한 개 .....       | 114 |
| 주인 목숨을 구한 개 .....            | 116 |
| 제사를 일찍 지내 밥 못 얻어먹은 귀신 .....  | 117 |
| 하늘이 내려준 명당 .....             | 118 |
| 비만 오면 우는 참깨구리 .....          | 118 |
| 피가 많은 토끼 .....               | 119 |
| 이야기 소리에 놀라 도망간 도둑 .....      | 120 |
| 사람으로 환생해 원수 갚은 벌레 .....      | 120 |
| 시어머니 꾀로 남편과 합방하게 된 며느리 ..... | 121 |
| 두 처의 공덕으로 목숨구한 영감 .....      | 123 |

## 5. 철마면 설화

|                                     |     |
|-------------------------------------|-----|
| 장수가 세운 입석마을 선돌 .....                | 125 |
| 빈대가 많아 망한 산곡 절[빈대 절터] .....         | 125 |
| 비만 오면 보이는 도깨비불 .....                | 126 |
| 황토섬에 귀향 갔다 살아서 돌아온 성주 .....         | 126 |
| 불을 꺼서 주인 구한 개와 개좌산 .....            | 128 |
| 구림마을 효자 서홍과 정려각 .....               | 129 |
| 생거북바위와 망하게 된 집안 .....               | 130 |
| 열녀 월성 김씨와 열녀각 .....                 | 132 |
| 삼형제바위와 남근바위, 그리고 자궁산 .....          | 133 |
| 토끼의 떡을 뺏어먹은 영리한 두꺼비 .....           | 135 |
| 누나집에서 배불리 대접받은 가난한 동생 .....         | 136 |
| 팔자는 못 속인다 .....                     | 137 |
| 베짜는 날을 알아맞히는 점쟁이 .....              | 137 |
| 사주 따라 부잣집 사위가 된 머슴 .....            | 138 |
|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운문사 사리암 .....          | 140 |
| 홍류정에서 웅천까지 울리는 돌과 석길마을의 탕주나무골 ..... | 140 |
| 호랑이가 빠져 죽은 한탄강 .....                | 141 |
| 거미가 앓을 만큼 자리가 남았던 거문산 .....         | 142 |
| 왜병을 겁주기 위해 세운 철마(鐵馬) .....          | 143 |
| 백길마을의 두 당산나무 .....                  | 143 |

|                                  |     |
|----------------------------------|-----|
| 석길마을과 탕자나무골 유래 .....             | 144 |
| 바위를 깨뜨려 망한 집(1) .....            | 145 |
| 남의 밋자리에 물을 부어 대신 쓴 조상 묘 .....    | 146 |
| 갈치제의 유래(1) .....                 | 147 |
| 처녀할매와 당산할배를 모신 백길마을의 당집 .....    | 148 |
| 불개미 잡아 주인 딸과 혼인하고 부자된 머슴 .....   | 150 |
| 당일 천석하는 달음산 밋자리 .....            | 152 |
| 혀 짧은 사람의 보리타작 노래 .....           | 154 |
| 불을 꺼서 주인 살린 개와 개좌골(1) .....      | 155 |
| 삼을 갈았던 절 아랫동네 마지마을 .....         | 156 |
| 자신의 살을 떼어 봉양한 효부 월성 김씨 .....     | 156 |
| 미역이 열렸다는 미역바위 .....              | 157 |
| 부자가 많이 사는 철마 .....               | 157 |
| 불을 꺼서 주인 살린 개와 개좌골(2) .....      | 158 |
| 산의 음양을 보고 묘를 쓴 해주 오씨 .....       | 159 |
| 빈대 때문에 망한 절과 범어사 .....           | 159 |
| 과객 끊어지게 하자 빈대가 나와 망한 절 .....     | 160 |
| 김씨네 집성촌인 임기에 다른 성씨가 들어온 사연 ..... | 162 |
| 시아버지 위에 묘를 쓴 효부 며느리 .....        | 163 |
| 범을 잡은 남장사와 선돌을 가져온 여장사 .....     | 164 |
| 비오면 우는 울바위 .....                 | 165 |
| 피를 내어 명당(明堂)을 차지한 이방 .....       | 165 |
| 까치를 구한 토끼 .....                  | 166 |
| 은혜 값은 까치 .....                   | 168 |
| 사등마을 유래 .....                    | 170 |
| 빈대 절터 .....                      | 170 |
| 영동할매의 심술 .....                   | 171 |
| 바위를 깨뜨려 망한 집(2) .....            | 171 |
| 호랑이를 데리고 다닌 할아버지 .....           | 172 |
| 범불(훈불) 이야기 .....                 | 173 |
| 삼정자 유래(1) .....                  | 173 |
| 옷나무가 많은 구칠리(1) .....             | 174 |
| 바위를 깨뜨려 망한 집(3) .....            | 175 |
| 삼정자 유래(2) .....                  | 176 |

|                                 |     |
|---------------------------------|-----|
| 곳바위와 점현마을 유래 .....              | 176 |
| 옷나무가 많은 구칠리(2) .....            | 177 |
| 갈치재의 유래(2) .....                | 177 |
| 소금장수와 금씨 .....                  | 178 |
| 노루골·용곡실·매바위의 유래 .....           | 178 |
| 불을 꺼서 주인 구한 개와 개좌골(1) .....     | 179 |
| 불을 꺼서 주인 구한 개와 개좌골(2) .....     | 180 |
| 거무산·칠마산·범산의 유래 .....            | 180 |
| 바위를 깨트려 과객이 끊긴 집 .....          | 180 |
| 함박산·달음산의 유래 .....               | 181 |
| 장사와 바위 .....                    | 181 |
| 충견 때문에 목숨 구한 서흥과 개좌산의 개무덤 ..... | 182 |
| 자손이 성한다는 백자 산소 .....            | 184 |
| 장사 정장군 .....                    | 185 |
| 백여우 이야기 .....                   | 185 |
| 주인을 구한 충견과 개좌산의 개무덤 .....       | 186 |
| 바위 깨어 망한 집 .....                | 187 |
| 사람을 해치지 않는 호랑이 .....            | 189 |

## II. 기존 현장조사 설화

### 1. 기장을 설화

|                                  |     |
|----------------------------------|-----|
| 이도재 어사가 놀았던 어사바위 .....           | 193 |
| 잘못된 보고를 바로 잡은 이도재 어사 .....       | 195 |
| 매바위를 없애서 망한 집안 .....             | 197 |
| 매바위를 깨어 과객이 끊어진 부자집 .....        | 199 |
| 조심을 해도 무심결에 푸는 방귀 .....          | 200 |
| 몰래 푸는 며느리의 방귀 .....              | 201 |
| 메주콩 많이 먹으면 호랑이가 잡아 간다 .....      | 203 |
| 용소골 애기소에서 본 귀신 .....             | 204 |
| 용이 아이를 낳은 시랑대와 안적사까지 연결된 샘 ..... | 206 |
| 저승 갔다 살아온 할머니 .....              | 209 |
| 저승 갔다 살아온 점쟁이 .....              | 210 |
| 집까지 안내해 준 호랑이 .....              | 211 |

|                             |     |
|-----------------------------|-----|
| 귀신에게 홀려서 밤새도록 돌아다닌 사람 ..... | 212 |
| 권적이 낙향하여 놀았던 시랑대 .....      | 213 |

## 2. 일광면 설화

|                                   |     |
|-----------------------------------|-----|
| 두 동네가 한 동네가 된 며느리 .....           | 215 |
| 집에서 쫓겨난 두 며느리 .....               | 216 |
| 줄방귀를 뀌던 며느리 .....                 | 217 |
| 아이를 물고 간 호랑이 .....                | 218 |
| 달음산의 유래 .....                     | 220 |
| 나물 캐러 여럿이 가는 이유와 호랑이의 호식 습성 ..... | 220 |
| 용천과 회룡마을의 지명 유래 .....             | 222 |
| 도깨비와 싸운 영감 .....                  | 224 |

## 3. 장안읍 설화

|                               |     |
|-------------------------------|-----|
| 시집에서 쫓겨난 며느리들 .....           | 225 |
| 시동생 망신시키려다 남편 망신시킨 이야기 .....  | 226 |
| 지혜로운 딸(사돈집에 가서 실수한 이야기) ..... | 227 |
| 뱀 이야기 .....                   | 228 |
| 두 동네가 한 동네 된 이야기 .....        | 229 |
| 호랑이의 보은 .....                 | 230 |
| 시어머니의 지혜 .....                | 233 |
| 효자와 산신령 .....                 | 234 |
| 봉오골에 박힌 쇠말뚝 .....             | 236 |
| 도깨비 이야기 .....                 | 237 |
| 가마등 전설 .....                  | 239 |
| 도깨비와 도깨비불 .....               | 240 |

## 4. 정관면 설화

|                                     |     |
|-------------------------------------|-----|
| 아가씨 귀신과 놀았던 총각 .....                | 242 |
| 시아버지에게 딸을 시집보낸 며느리 .....            | 243 |
| 똑똑한 할아버지와 이야기 내기하여 이긴 똑똑한 할머니 ..... | 245 |
| 달음산과 매남산의 유래 .....                  | 246 |
| 묘를 잘 써서 부자 된 정관 사람 .....            | 248 |
| 도깨비불에 놀란 사람 .....                   | 249 |

## 5. 철마면 설화

|                                    |     |
|------------------------------------|-----|
| 과객 말대로 해서 결혼한 총각 .....             | 251 |
| 바위 머리를 깨서 손님이 끊어진 집안 .....         | 253 |
| 과객 말만 듣고 이장을 해서 망한 집안 .....        | 254 |
| 바위를 깨자 장가 못가는 동네 총각들 .....         | 256 |
| 어머니의 재치로 문둥이를 피한 아이 .....          | 257 |
| 생거북바위 목을 잘라 화적떼를 쫓은 정씨 .....       | 258 |
| 삼형제가 힘겨루기로 가져온 바위[삼형제바위 이야기] ..... | 260 |
| 주인을 살리고 죽은 충건과 개좌산 .....           | 262 |
| 자궁 모양 산에 묘를 쓴 여산 송씨와 해주 오씨 .....   | 264 |
| 삼형제가 힘겨루기로 가져온 돌과 삼정자 .....        | 265 |
| 개 덕분에 목숨을 구한 효자 서홍과 개좌산 개무덤 .....  | 267 |
| 거북바위를 깨뜨려 망한 부자집 .....             | 269 |
| 자기 살을 베어 먹여서 시어른을 살린 효부 .....      | 271 |
| 미역이 걸린 미역바위 .....                  | 272 |

## Ⅲ. 문헌 소재 설화

### 1. 기장읍 설화

|                            |     |
|----------------------------|-----|
| 시랑대(侍郎臺) .....             | 277 |
| 시랑대 전설(侍郎台 傳説) .....       | 278 |
| 옥녀직금(玉女織錦) .....           | 279 |
| 원앙대의 용녀 .....              | 280 |
| 원앙대의 비련 .....              | 282 |
| 동부리 회나무 .....              | 283 |
| 매바위(鷹岩) .....              | 284 |
| 충의 정팔동(忠義 鄭八同) .....       | 285 |
| 충의 최개똥(忠義 崔介同) .....       | 286 |
| 보은의 호랑이와 최장군 .....         | 286 |
| 어사암에 얽힌 설화 .....           | 289 |
| 의적(義賊) 정봉서(鄭鳳瑞)와 마누라 ..... | 290 |
| 의적(義賊) 정봉서 .....           | 292 |
| 사라의 선바위 .....              | 294 |
| 무곡의 약물샘 .....              | 294 |

|                 |     |
|-----------------|-----|
| 안적사와 원효대사 ..... | 295 |
| 소정의 매바위 .....   | 296 |
| 저주받은 석공 .....   | 297 |
| 당사리의 천석바위 ..... | 298 |
| 매바위와 학바위 .....  | 299 |
| 용천강의 황룡 .....   | 300 |
| 기장산의 용신 .....   | 301 |
| 용소바위와 장사 .....  | 303 |

## 2. 일광면 설화

|                            |     |
|----------------------------|-----|
| 일광산(日光山) .....             | 307 |
| 일광산(日光山)의 쌍암(雙岩) .....     | 308 |
| 학리의 학송 .....               | 309 |
| 학리(鶴里) 학송(鶴松) .....        | 310 |
| 칠암리의 옷바위 .....             | 311 |
| 칠암 옷바위 .....               | 312 |
| 신평마을의 옷관대(擲柶臺) .....       | 312 |
| 원리의 장사바우 .....             | 313 |
| 옥천사(玉井寺)의 옥천(玉泉) .....     | 314 |
| 월명사의 전설 .....              | 315 |
| 달음산 산삼 .....               | 316 |
| 용천 이무기 .....               | 317 |
| 원리 팽나무 .....               | 317 |
| 현감과 좌수 .....               | 318 |
| 차양사의 전설 .....              | 319 |
| 양장구 .....                  | 320 |
| 범난골(虎出谷) .....             | 321 |
| 보름새 .....                  | 322 |
| 길흥사를 접지해 준 여우 .....        | 324 |
| 해창(海倉)의 전설 .....           | 326 |
| 효자 옥종손(玉從孫) .....          | 327 |
| 효자(孝子) 옥종손(玉宗孫, 玉從孫) ..... | 327 |
| 효자(孝子) 옥종손(玉從孫) .....      | 328 |

### 3. 장안읍 설화

|                      |     |
|----------------------|-----|
| 척판암(擲板庵) .....       | 329 |
| 척반암(擲盤庵)의 유래 .....   | 330 |
| 척판암 설화 .....         | 331 |
| 차암(車岩)의 유래 .....     | 332 |
| 선암마을의 신선암(神仙岩) ..... | 333 |
| 좌동리 포구나무(팽나무) .....  | 334 |
| 장안사의 청룡등 .....       | 334 |
| 북면의 오룡(五龍) .....     | 335 |
| 불운곡의 빈대절 .....       | 336 |
| 빨멍골(佛堂谷)의 빈대절 .....  | 337 |
| 삼각산의 기우제 .....       | 338 |
| 아홉 공주가 쌓은 왕릉 .....   | 338 |
| 판곡마을의 여수바우 .....     | 340 |
| 개천마을의 굴바위 .....      | 341 |
| 임랑리의 굴바위 .....       | 342 |
| 용소리의 용소 .....        | 342 |
| 두명리의 용천산 .....       | 343 |
| 덕산마을의 오도대(烏島臺) ..... | 343 |
| 매곡마을의 느티나무 .....     | 344 |
| 덕전마을의 탑골사 .....      | 345 |
| 병산리의 베틀바위 .....      | 346 |
| 금수동의 명필 .....        | 346 |
| 청룡등 절단에 얽힌 전설 .....  | 348 |
| 여근바위 .....           | 349 |

### 4. 정관면 설화

|                        |     |
|------------------------|-----|
| 반월성(半月城)의 전설(傳說) ..... | 351 |
| 송씨집 글공부 이야기 .....      | 352 |
| 장군대와 진계등 .....         | 353 |
| 두명리의 용천산 .....         | 355 |
| 덕산마을의 오도대(烏島臺) .....   | 356 |
| 매곡마을의 느티나무 .....       | 357 |
| 덕전마을의 탑골사 .....        | 357 |

|                       |     |
|-----------------------|-----|
| 병산리의 베틀바위 .....       | 358 |
| 옥녀(玉女)와 선비의 사랑 .....  | 359 |
| 용천산과 사기점 .....        | 361 |
| 당대에 천 석한 신희(辛禧) ..... | 364 |
| 조가보 도랑 .....          | 365 |
| 경주 손(孫)씨와 삼치 .....    | 365 |
| 반월성(半月城) .....        | 366 |

## 5. 철마면 설화

|                          |     |
|--------------------------|-----|
| 철마(鐵馬) 이야기 .....         | 369 |
| 철마산(鐵馬山)의 철마(鐵馬) .....   | 369 |
| 생거북바위(구림마을) .....        | 371 |
| 개좌산(開佐山)의 전설(傳說) .....   | 372 |
| 개좌고개의 항구 .....           | 373 |
| 옥서계(玉書契)의 망령(亡靈) .....   | 374 |
| 옥서계의 유령 .....            | 375 |
| 울바우(안평리) .....           | 377 |
| 송정리의 송정자 .....           | 377 |
| 석길마을의 자석바위 .....         | 378 |
| 선바위와 거북바위 .....          | 379 |
| 선바위 .....                | 380 |
| 자래바위(거북바위) .....         | 382 |
| 미역덤(이곡마을) .....          | 382 |
| 비음골(와여마을) .....          | 383 |
| 삼정자(三亭子)와 삼장사(三壯士) ..... | 384 |
| 선돌(입석마을) .....           | 385 |
| 범바위굴 .....               | 385 |
| 열녀 김씨(烈女 金氏) .....       | 386 |
| 열녀 김씨(宋尙德 夫人) .....      | 387 |
| 열녀 김씨(연구리) .....         | 388 |
| 효자 김순적(金順迪)(1) .....     | 389 |
| 효자 김순적(金順迪)(2) .....     | 390 |
| 효자 김봉의(金鳳儀) .....        | 391 |
| 효자 김상제(金商濟) .....        | 392 |



|                           |     |
|---------------------------|-----|
| 효자 서홍인(徐弘仁)(1) .....      | 392 |
| 효자 서홍인(徐弘仁)(2) .....      | 393 |
| 효자 서홍인(연구리) .....         | 393 |
| 효부 강(姜)씨와 효자 김련(金練) ..... | 394 |
| 효자 김련과 효부 강씨(임기리) .....   | 395 |
| <br>                      |     |
| <b>참고문헌</b> .....         | 397 |
| <br>                      |     |
| <b>제 보 자</b> .....        | 398 |
| <br>                      |     |
| <b>찾아보기</b> .....         | 401 |



# I. 현장조사 설화

1. 기장읍 설화
2. 일광면 설화
3. 장안읍 설화
4. 정관면 설화
5. 철마면 설화



## 1. 기장읍 설화

[기장읍 설화1]

### 콩 많이 먹지 못하게 한 말

이묘숙(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1리 교리1리경로당]

옛날에는 여 여 메주를 끓인(끓인), 콩이 이래 경상도는 콩이 기럽거든(귀하거든). 기럽으이, 메주콩을 구수하이 솥에 삶으로 구신내가 살무시(살짝) 나이카네, 그 한 움큼 얻어묵을라고 아 어른 없이 마이(많이) 오거든.

그래 나만(나이 많은) 사람이 콩 거 묵는 걸 아깝아가지고, 마이 무뎀(먹으면) 설사를 해가. 오딩치,<sup>1)</sup> 오딩치가 너거러(너희들을) 물러온다고, 못 무우러 하이카네. [조사자 : 아- 마이 못 무라꼬.] 어이. 마이 못 무라꼬.

[기장읍 설화2]

### 시집살이 흉 못 본다

이묘숙(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1일 채록  
[교리1리 교리1리경로당]

시누부가(시누이가) 시집살이로, 온신 올케가 시집 오이 모른다고 충달을<sup>2)</sup>하고 있으니, 지가 나가 많아 시집을 가이카네, 시집을 그때는 이전에는 삼 년을 살다가 보이, 그래 시집갔다 떡 오이카네, 올케가,

“시금시금 시누부야 시집 가이 어떻더노?”

그래 인자 시누부가 하는 말이,

1) 호랑이나 도깨비, 또는 괴물을 일컫는 말로 짐작됨.

2) ‘험담을’이란 뜻인 듯함.

“도리도리 도리판<sup>3)</sup>에 수지(수저) 놓기 어렵더라. 추밭추밭 추밭,<sup>4)</sup> 옥추밭에 밥 담기도 어렵더라. 중우 벗은 시아주바심(시아주버니) 말하기도 어렵더라.”

이래 인자, 고 말 안 해주마, 인제 을매나(얼마나) 시누부가 올케가 시집 오이 못 한다고 추태로 해놓이, 인자 올케가 다 감정 있다가 시집 갔다 삼년 살다 오이카네 그래 묻는 기라. 그래 물으니까네 지도 시집 가이 그렇더란다.

[기장읍 설화3]

### 부인에게 거짓말 해서 부모 봉양하게 한 아들

최말년(여,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 소정2구마을회관]

옛날에 못 살아서 인자 남편이 배를 타러 가고, 인자 엄마가, 눈봉사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인자 아들이 참 엄마를 두고 갈라 카이 그거 하거든. ‘아 뭐로 먹이가지고(먹여가지고) 우리 엄마 내 올 때까지 살리 겠노.’ 저거 마누라한테,

“지렁이를 파가지고 하루에 한 그릇씩 마 해주면은 엄마가 빨리 죽는다.”

그래갖고 인자, 아들이 인자, 지렁이가 좋다고 몸보신을 해주는 건데, 저거 마누라한테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거 마누라가 열심히 지렁이를 파가지고 그래 인자 국 끓이쫘어(끓여주었어). 끓이주놓이카네, 저저 저저 신랑이 돌아오이카네, 마 얼굴이 저거 엄마 얼굴이 보양거든.

“와이고 당신 너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 했길래 엄마가 이래 좋고 눈을 떴노?”

이래가 인자 저거 아들이 피를 부리가 그랬어, 저거 마누라한테, 일찍 죽으라고. 그랬는데, 기 저거 엄마를 위해서 헨, 헨 짓이라. [조사자 : 아 아 남편이 인자 일부러 그래 알고.]

---

3) 두리반. 여럿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크고 둥근 상.

4) 주밭(周鉢). 못쇠로 만든 밥그릇.

그렇지. 남편이 마누라한테 그랬는 거라. [조사자 : 아, 그래 오히려 봉양을 잘 했네.] 예. 봉양 잘 했다고 마누라한테 그래 치사를 했답니다.

[기장읍 설화4]

### 흰 학이 날아갔다는 백동마을

최말년(여,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 소정2구마을회관]

여기가 백동(白洞)이었거든요, 옛날에. 백동이라 했거든요. 요 지금 백동길 몇 번 이래 나옵니다. 지금 새, 이 번지가요. 그래 나오는데 저저쪽 아홉산이가 뭐고? 그 우에, 제일 높은 산, [청중과 조사자에게] 그 어텐교? [조사자 : 아홉산.] 예. 아홉산에서 학이, 흰 학이 날랐답니다.

거기서. 흰 학이 날라갔기 땀에 그걸 백동이라 했다 그러더라고. 흰 학이라서 여서 날라갔기 때문에 백이라 카는 동네를 백동이라고 지었다 이러더라고.

[기장읍 설화5]

### 야속한 사촌형

최말년(여,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내리 소정2구 소정2구마을회관]

절, 재 넘어 인자 저거 사촌언니가 살거든. [웃으며] 사는데 인자 좌천장에 그거를 보러 왔어, 장을 보러 왔어. 예를 들어서 좌천장이라 치고, 장을 보러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거든, 갈라 카이께네. 장을 한 짐씩이고 가는데, 저거 사촌동생이 그 밑에 살아.

그래서 인자 동생 집에 떡 갔어. 가가지고 인자 밥을 안 주는 기라. 그래 마 보냈어. 가면서 어찌 배가 고파가,

“성아성아 사촌성아 쌀 한 움큼(움큼) 안줬으면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그 술에 누룽지는 니 개 주지 내 개 주나. 그 술 씻은 꾸중물은 니  
소 주지 내 소 주나. 성아성아 사촌성아 야속하다 야속하다.”  
카고 가더란다.<sup>5)</sup>

[기장읍 설화7]

## 저승 갔다 온 사람

김복수(여, 1934년생) 구술  
2011년 2월 23일 채록  
[청강리 덕발1리 덕발노인정]

우리 사돈 할매가 떡 아파가 인자 참말 마 숨이 갔잖어. 삼일만에 인  
자 곱에 영을라고 이래 있는데, 그래가지고 곱에 안 넣고 인자 삼일만에  
딱 깨는데,

“아이구야꾸 엄마 어데 갔다, 언제 어떻게교?”

카이카네,

“한 군데는 가이카네, 이래 막 큰 나무가 이래 서가 있는데, 젓꼭지에 나  
무에 젓꼭지가 짜서 아들이(아이들이) 주렁주렁 달리 젓을 빨아먹고 있고.”

시끄럽더란다 그래. 그래가 인자, 한 군데는, 또 한 고개 또 넘어가이  
카네, 꽃이 만발해가 너무 좋더란다. 그래, 그래 인자, 또 인자 한 군데는  
강을, 인자 강을 건너가, 요동 요돈강(요단강) 건너가야 저승 갈 건데,  
강에 가이카네,

“니는 아직 올 때 안 됐다.”

카매 탁 밀어뿌더란다. 고래 삼일만에 깬어.

[기장읍 설화8]

## 두꺼비 살려주고 부자 된 영감

---

5) 이야기의 내용은 사촌언니가 동생 집에서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지만, 이야기 중에 들어  
있는 노래를 기준으로 제목을 '야속한 사촌형'으로 붙였다.



강무순(여, 1917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내가 저 아랫방 할매가 있었는데, 놀러로 가니까네, 이바구를 하는데, 그 미쳐가지고 한 사나흘 저녁 땡기며 내도록 놀았는데, 그래 인자 앞집에는 풍수가 뢰터(묘터) 보러 땡기매(다니며) 잘 살고, 저거 영감은 뢰터 보러 문(못) 땡겨 노니 막 문 살았는데. 그래 할매가 베로 짜가지고,

“이걸 좌천장에 가서 팔아 오소.”

이래 놓으니 팔리갔는데. 팔아가 올라오이카네, 못뚝물에서 아들이 우물물을 덜바다보고(들여다보고) 이래 샀거든. 그래,

“느그(너희들), 뭐 하노?”

이래카니, 두꺼비 한 마리 잡아다 놓고 그거 인자 서로 가를라꼬(가르려고) 이래 샀는 거로 그래,

“느그, 그래 하지 말고 그거는 살라주고, 그래 내가 베 판 돈을, 이걸 갈라 줄끼니까 살라주라.”

이카니까네, 그래 인자 돈으로 가지고 저거가 가르고, 영감님 지는 뭐 베 팔아 빈손 들고 두꺼비를 살라줘뵈거든(살려줬거든). 그래서 오니 뵈이 있나, 할마이 오니 돈이 있나 뵈이 있나. 이래서러 그래 인자 또 앞집에 풍수 집에 가서로 그래,

“패철 하나 주소. 우리 영감 가(가지고) 땡기거로.”

하거든. 마 부잣집 영감이 죽었는데, 마 모두 다 뢰터를 잡으러 땡긴다고, 마 큰 마을에다가 큰 좋은 사람들이 땡겨도 다시 뢰터를 못 맞춰 뵈으러, 그래 인자 지는 하기로,

“나는 조랑말에 다가서로(조랑말에다) 기중 마부도 조랑마부 요런 걸 하나 줄라고.”

이라니, 그걸 몰고 어데 가니까네, 그걸 빌려 뵈어. 패철로 줘서로(줘서), 그래 가보니까네 뢰터가 하나 있거든. 그래,

“내가 요걸 하나 잡아왔다.”

이라이까네, 그래 이제 그걸 뢰터를 가지고 뢰를 섰단 말이다. 부잣집 영감 뢰로 쓰니까네, 마 돈을 많이 주더란다.

이래가 그래 잘 살더란다. 그래 마부가 두꺼비라. 뿔물예(뿔물예) 살라준(살려준) 두꺼비. 더럽은 마부에다가 두꺼비가 뽀터를 맞차줘(맞추어줘) 가지고 그래 살았단다.

[기장읍 설화9]

### 지극한 염불로 극락 간 시어머니

강무순(여, 1917년 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대변리 무양마을 무양마을회관]

중이 와서 염불로 하거든.  
“며늘아, 중이가 뭐라 카더노?”  
이래카이까네, 염불하더라 말 안하고서로 시어마이가 뽀어서로(미워서),  
“저 건너 정침지, 저 건너 정침지. 정침지.”  
이라니까네, 그러캐도 그기가 지극하게 하니까네, 극락을 가더란다. 그래 며느리 이전에 못돼서 바로 안 갈차(가르쳐) 주더란다.

[기장읍 설화10]

### 외도한 구렁이를 혼낸 선비

이순자 (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옛날에 선비님이 그래 참 길산가(길사인가) 흉산가(흉사인가) 모르지. 그래 가다가 언덕 밑에 가다가 보니, 옛날 도마뱀이하고 큰 진대(구렁이)하고 두 마리가 혈래를 붙고 있더라. 교미를 붙고 있었어. 그래가 인자 그 선비가 지내가매 담배를 뽑는(피는) 담뱃대로 가지고, 그래 그 구렁이 대가리를 때렸다 캐.

“어디 이리 큰 짐승이가 작은 이런 짐승하고 이런 짓으로(짓을) 하나?”  
카매(하며), 머리를 때리고 갔어. 그래가 인자 자기 할마이잔데(할머니한테) 저녁에 가가,

“할멈, 할멈, 오늘 내가 지나가는데 너무 신기해서로, 내가 그래 인자 구렁이를 머리를 때려주고 왔다. 도마뱀이 하고 혈래를 붙어서로.”

이 구렁이가 인자 또 자기 큰 남자 구렁이 짝에(곁에) 가가지고 전달로 하기를,

“그 선비님이 지나가매 날로 갖다가 머리를 때리고 그래 갔다.”  
이러니까 숫구렁이가 들으니까 분하거든. 그래가 문에 와가 딱 붙어 서서, 선비님 직일라꼬(줄이려고) 와서, 그래 오가지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즈그 암구렁이가 잘못했거든. 그래가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네, 마 문에서 똑, 쓸, 한 두르마기 나가는데 섬기가(섬광이) 나고 나가더러요. 해치도 안하고. 그래가 인자 잘못했다 하는 거로 저거 암구렁이로, 이 사람이 발두렁이를(발두렁에) 가다 보니 죽여 놔드라데, 숫구렁이가. 못된 짓 했다고.

[기장을 설화11]

### 구렁이와 결혼한 막내딸

이순자(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그래 저 딸을 다섯이라 카던가 몇 이를 낳는데, 그래 그 집에 아로(아기를) 낳는데, 들여다 보이까 구렁이로, 큰 구렁이를 낳았더러요. 그 딸, 언니들이 전부다 가가 보고 구렁이를 낳았다고 하고, 막내딸이 보더만 옥당 신선부를 낳았다 카더러요, 막내이 딸이가.

그래, 그래가 인자 무슨 그거를 옛날에 그렇더라, 가리를(가루를) 묻혀가 간장독에 빠지면 허물로 벗는다 카네. 그래 허물을 벗어 옥당 신선불이 됐으러 과게(과거)하러 갔는데, 그래 그 허물로 이 막내딸 짝에(막내딸한테) 간직하라 하더란다.

“이거를 태워 뿌면, 노랑내가 나면 내캉 당신캉 못 만나니까네, 그래

일절 이걸로 단디(제대로) 간수를 하라.”

하고 갔는데, 마 언니들이 깨살을(질투를) 지기가, 그 신랑이 잘나노니, 용심이 난다 아이가? 태와뻘어(태워버렸어) 마. 불에 태와놔노이(태워 놓으니) 이 사람이 노랑내가 나서러 못 만나러 오는 기라, 과거는 했는데. 못 만나러 와가, 그래 인자 가가는 그 중간에서러 부잣집 딸강 결혼을 하게 됐다 이 사람이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인자 잔칫날로 저 들에 가니까네 새로 흘는(쫓는) 사람도,

“후여, 오늘만 까먹고, 내일은 까먹지 마라. 아무꺼이 장계(장가) 가는데 구경하러 간다.”

이래 되고. 그래 그 아가씨가 인자 전부 바랑 째어지고 고갈 쓰고 이래가지고 동냥을 하러 땡기는데, 그래 그래캐서러,

“그 집이 어데고?”

물었어. 물으니,

“저 기와집 몇 채 있는 저 집이다.”

고, 그래 그 집에 떡 더갔어(들어갔어).

“동냥 즐라고, 절에서 왔다.”

고, 그래 인자 줍쌀을 주더라요, 거 가니깐에. 아니 쌀을 가져 와서로,

“우리 절에 그래 부처님은 줍쌀만 먹는다.”

고, 이래가 밑 없는 자루가 가져 가가 쏟아뻘다(쏟아버렸다) 아이가? 그래,

“언제 썰어(쓸어) 담아 갈라 카노?”

부처님께 바칠 낀(것이기) 때문에 재를(젓가락을) 가지고 주와 담아가야 한다는 거야. 재로 담으려면 세월이 없다 아이가? 그래 인자 이 사람이 못 가가 자게가(자게) 됐다 그 집에. 떡 자는데,

“그래 방이 없으면 마구간이라도 저로 주면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이라 하니, 마 그래 마구간에 자고 있으니, 달이 하당청 같이 밝은데 옥당 신선불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요.

“저게 있는 저 달은 저거 아무꺼이(아무게) 보건마는, 지는 못 본다.”

고, 즈그 신랑이라. 알고 보니깐에. 그 사람이 만났다고 들었어. 옛날에, 옛날이야기가, 그리 언니들도 그마땅(그만큼) 깨암을(질투를) 지기고, 형제간도 소양이(소용이) 없어.

[기장읍 설화12]

## 맞돈 주고 두부 먹는 돼지

김말복(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옛날에 정마수라고 하는 선비라 할까? 곡괭이(괘과리) 치는 할배가 살았는데, 이집 저집 땡기면서 술로 자꾸 외상 묵을라 카고, 자꾸 이래 이야기를 해놓이까네, 술집에서로 마 새벽부터 술로 또 외상 즐라 하거든, 그 선비가. 즐라 하니까네, 외상을 안 주거든.

“안 준다.”

카고, 물동이를 이고 마 물 일러 가뻐어. 그 선비가 가만히 생각하니 칸에 보골이(화가) 줌 나는 듯 해가지고, 그래가 인자 저 돼지 키우는데, 돼지막에 가가 문을 열어 뵈버렸어. 돼지가 와- 나와 가지고, 그 술집이 되다보니까(들여다보니까) 두부로, 안주 해가 판다고 수북하게 놔놨는데, 돼지가 나와 그 두부로 멀키(모두) 다 먹어버렸거든. 그래 주인이 오가지고,

“아이고, 돼지가 와 이렇노? 두부로 다 먹노? 집에 있으면 이거로 안 후쳐주고요, 줌 멀리 안 보내뿌고 보고 있었노?”

카거든.

“나는 돼지는 맞돈 주고 먹는다고. 술은 외상이고, 맞돈 주고 묵는다고 가만 놔 뵈다.”

카더란다.

[기장읍 설화13]

## 봉사와 벅어리 부부의 대화

김말복(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옛날에 저 산 밑에, 산 밑에, 저 외딴 데 집을 지아(지어) 놓고, 봉사강  
버버리강(병어리와) 사는데, 그래 버버리강 봉사강 이래 돌이가 살고  
있는데, 그래 마 어데서 불났다고,

“불이야!”

이라거든. 그래 영감이 봉사고, 할머니는 버버리가 되놓으니까네, 그래  
인자 마 버버리가 말로 못한다 아이가? 가만히 영감이 있으니까네,

“불이야, 불이야.”

카이까네, 몰라가 이래 있으니까, 할마이가 더덤어가(더듬어) 보고 봉사  
입을 쪽 맞추거든 영감 입으로. 봉사 입을 쪽 맞추니깐에,

“아빨사, 임시오 집에 불났구나.”

이래 하거든. 임시오 집에 불났다 하거든. 그래 가가 불로 끄고 왔다.  
끄고 와가지고 그래,

“우째다가, 뭐 한다고 불났던고?”

하니까네, 영감 불알로 꼬작 꼬잡으면서 요래 해뿌싸이(해놓으니),

“수지비 하다가 불났구나.”

이라거든. [일동 웃음]

“수지비 한다고 불났구나.”

캐가지고, 그래 마,

“얼매(얼마) 마이(많이) 탔는가? 어쨌는가? 재산이 얼매 마이 탔는가?”  
이라니, 영감 손을 끄다가(끌어다) 지 요다 [손으로 음부에 올려놓으며]  
떡 갖다 얹으니,

“아빨사, 십만 원치 재산 피해가 났구나.” [웃음]

카더란다.

[기장음 설화14]

## 보리밭 매러 간 세 동서

손정조(여,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예전에 2월 달이 떡 됐는데, 삼 동서가 보리등을 매러 갔어. 이거 해가 소문 나면 우짜노. [웃음] 밭에 매러 가니까네, 그래가 보리밭을 매이까네, 웃 눈에 총각이 소를 가지고 눈을 갈매(갈며),

“이라, 씹 한 번 주면 소 한 마리(마리) 주지. 씹 한 번 주면 소 한 마리 주지.” [일동 웃음]

켰다. 그라이까네, 이놈의 저게 큰동서는 큰동서라고 체면에 못 가겠고, 중간 동서는 중간 동서라고 못 가겠고, 그래가 인자 저 막내이 동서로 갔어, 할 수 없어.

“막내이 동서 니가 가라. 소 한 마리 별이구로 니가 가라.”

카이, 그래 이 놈이 인자 떡 가가 두룩(논두렁) 밑에서 한번 했어. 하고 그래 마 중구말로 걸머지더니(움켜 잡고) 마 두룩에 마 두굴두굴 구르면서 배 아프다 죽는다고 하거든. 배 아파 죽는다고. 소는 주도 안 하고, 배가 아파 죽는다고 두굴두굴 구르니,

“와 이렇는교? 와 이렇는교?”

이러이,

“씹을 쉰 거로 묵어서 그렇다.”

하거든.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저게 인자 동서한테 온다. 오니,

“동서야, 와 소를 안 얻고 그냥 오노?”

이카이,

“아이고, 형님요, 씹을 쉰 거로 묵어가 배가 아파 죽는다고 두룩 밑에 내 구르고 절단 났습니더.” [웃음]

“그기 와(왜) 쉬노?”

이랬더니,

“아무개 댁에 아레 잔치라서 그 집에 가가, 구덕(화덕) 밑에 앉아가 있으니 방이 어찌 뜨겁던지, 마 그서 쉰 거 같습니다.”

이라더란다. [일동 웃음]

[기장음 설화15]

## 거지보다 못한 선비

손정조(여,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저- 어떤 참 선비가 말로 타고 옷을 좋게 입고 떡 가니까네, 두룩  
밑에 웃음소리가 짜다라(많이) 나셨거든. 그래 인자 종으로 가가지고,  
“보래이, 보래이, 저 두룩 밑에 저 뿔이 있건데 저체이(저렇게) 웃어  
셨노? 우리는 이 말로 타고 이 좋은 옷을 입고 가도 웃음이 안 나오는데,  
저 두룩 밑에 뿔이 있는고 한번 가봐라, 저체이 웃음소리가 나이까네.”  
그래 종이 팽하니 가니까네,  
“누가 있더노?”  
이카니,  
“아이고, 어르신네요, 저 걸뱅이가(거지가) 밥을 얻어다 놓고 자숙을  
보고, 자숙 밥 묵는 걸 보고 그래 웃어 샀습디더.”  
카거든. 그래,  
“아, 내가 이래가 살아도 걸뱅이만 못하다.”  
카더란다.

[기장읍 설화16]

### 개에게 밥을 산쥐 죽게 된 며느리

손정조(여,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저- 가니깐에 아주 부잣집에 살았어. 부잣집이 인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래 머슴도 데리고 며늘도(며느리도) 보고 이래 샀는데, 이놈의  
며느리, 개로(개를) 한 마리 먹이는데, 생전에 개로 밥을 안 주는 기라.  
밥을 안 쥐가지고, 그래 시아바씨가(시아버지가),  
“개 밥 줘나?”  
카이,



“예, 아버님 뵈었습니다.”  
하고, 또,  
“밥 뵈나?”  
카이,  
“예, 아버님 밥 뵈었습니다.”  
그러고로(그렇게) 그러고로 있으니까 개가 마 알곳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야 야, 니 암만(아무리) 캐도 안 되겠다. 저 니가 오늘 어데 숨어야 되겠다. 안 된다.”  
카이까네, 그래 인자 옛날에 장독간에 가면 큰 독이 안 있나? 그 독에다가 인자 며늘을 숨카가(숨겨서) 놔놓으니까네, 그 개가 웃달 밑에서 그거로 득천을 해가지고, 화를 해가지고, 구렁이가 되가, 그 며늘로 밥 안 주고 내(늘) 지 묵고 뵈다 칸다고, 거짓말 칸다고, 그래 마, 단지에 칭칭 감아가 그래가 녹카가(녹여서) 죽였다 한다. 그것도 죄라. 얼마나 죄고, 밥을 안주고 내 뵈다 카이.

[기장을 설화17]

### 상객 가서 실수하여 죽은 사돈

손정조(여,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그 나박김치를 담아가 뵈던 모양이라. 그놈의 김치가 어찌 맛있는지 상각(상객, 上客) 이 인자, 상각을 안 가나? 아바씨가(아버지가) 상각을 가가지고, 어찌 맛있는지, 김치 꺼내 무러(떡으러) 떡 가가지고 두 손은 쭈시(쭈셔) 넣어가지고 김치를 널라거라니(꺼내려고 하니), 요그만한 아가리에 나오나? 그래가 그렇거든. 마, 한 쪽 손가(손으로) 마 걸치내면(굽어내면) 될 낀데, 두 손 넣었다고 두 손을 암만 내도 안 되가지고, 그놈의 김치단지를 가지고 [웃음] 지 상각 주는 방에 간다는 기 안사돈 방에 가뵈어. 안사돈 방에 가가지고 마 김치단지를 들고 떼리쳐(떼려 쳐) 놓으니 안사돈이 다 덮어씨고. [웃음]

그래가 이 사람이 영겁질에 나와가 갈 데가 없어가 감남계(감나무에) 올라갔어. 감남계에 올라가서, 빨가벗고 떡 올라서가 있으이까네, 앞아가 있으이, 막 불로 캐가 도둑놈 찾는다고 짜다라 찾아사니까네, 그래가 숫사돈 불알이 축 쳐져 있어 노니 감 따는 흘갱이로 가지고 불알로 흥시라고 잡아 땡기가지고, [웃음] 마 숫사돈이 아파가 죽어뿌더란다.

[기장을 설화18]

## 도사와 두 과부

손정조(여,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그래 저- 산골에, 어느 아주 첩첩산중에 참 과부가 둘이가 여게 하나 살고, 저게 하나 사는데. 그래 인자 도사 중이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 과부한테 자꾸 좀 재워 달라 고라니(그렇게 하니) 과부가 안 된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저게 시끌 밑에 헛간이라도 재워 달라 하니, 그 과부가 스님으로 방에다가, 자기는 윗목에 있고 스님은 뜨신 데 구들 밑에 재와주고.

그래가 인자 날로 재와주고 나이, 스님이 간다고 잘 잤다고 인사를 한다고 가니, 참 때까리가(때거리가 즉, 끼니가) 없어서 목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가니까네, 자고 가니까네, 어찌어찌 고맙아서, 재워준다고, 술에 바가치에 쌀이 소북히(소북이) 담어져 있더란다. 그걸 또 먹고 나니 또 소북히 담아놓고, 도와주가. 또 고고 먹고 나니 자꾸 있고 해가. 고라고 고라고, 인자 과부가 부자가 됐어. 그래놓으니 저그 밑에 과부가,

“아이고 나는 어째가 부자 됐노? 나는 어째가 부자 됐노?”

캐싸이까네, 그래,

“어떤, 해가 저물어가 가는데, 어느 도사 스님이 재워 달라 캐가 재워 주노이, 그래 이래 그걸 주더라. 도와주더라.”

카거든. 그놈의 과부는 해만 지면 길가에 나서가 있네, 중 가는가 싶어서 불든다고. 그래가 인자 내 인자 있으니, 어느 날 해가 저무니 도사 중이

떡 하나 가져든. 막 우리 집에 자고 가라 하거든. 자고 가라 캐가 자는데, 요년의 과부가 스님이 좋다 카면, 중 좋다 카면, 복이나 더 많이 줄까봐, 내(계속) 요래 깔그작 깔그작 했어. [웃음]

그 이야기는 인자 고까지(그기까지) 하고 안 할란다. [조사자: 그 사람은 못 받았지예?] 응, 성불로 못 받고. 그래 자고 나니까네, 술에 가가, 쌀 넣어났다고 좋다고, 도사 중 가고 마. 술에 가이, 술에 뭐가 막 한 술 재이가(채워져) 있더란다. [조사자: 뭐가 재이가 있던가예?] 이런 기 [웃으면서 손으로 남근 모양을 만들어 보이자] [청중: 고추가 한겨(가득) 있더란다.] [조사자: 욕심 부리면 안 되지예?] 그래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진심으로 살아야 복을 주지. 그래 하면 복을 주나? 지가 더 부자 될라고 자꾸 스님을 깔그작그렸어, 자는데. [웃음]

[기장읍 설화19]

### 쌀이 나오다 물이 나온 사리암의 바위 구멍

손정조(여,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사리암 절에는,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안 날 때, 그 사리암 절에 참 방구(바위) 밑에, 이래 해가 전부 방구 밑에 절이고 이래 있는데, 방구 밑에 그 정지(부엌)라. 정진데, 고계 쌀이 토닥 토닥 나와가 인자, 하리(하루) 묵고 나면 또 자고 나면 하리가 나오고, 또 하리 묵고 나면 하리가 나오고 이라니까네, 그래 인자 어느 스님이 욕심 많아가 폭 쏘시면 많이 나온다고 그걸로 폭 쏘시니 마, 물이 ‘좌르륵’ 쏟아지더라 카대.

그래가 지금은 쌀로 안 나오고. 그 물 쏟아질 때 첫물에 나병환자가 그 물로 묵고 하나 고쳤단다. 나병환자가 고 물로 묵고 고쳐가지고. 요새 물이 나와, 가면 방구 밑에 물이 나와. 그래 욕심이 많으면 실물로 거둔다고. 사리암, 그래가 그 절이 사리암이라.

[기장읍 설화20]

## 도둑으로 몰려 형무소에 갇힌 울산 사돈과 김해 사돈

정임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옛날에 울산 사돈하고 저 김해 사돈하고 둘이 인연이 돼 사돈이 되었는데, 행미소로(형무소에) 가가 갇혔어 둘이.

“아이구, 우야꼬, 사돈은 어째 왔는교?”

하니까네,

“아이고, 질로 가다가 썩은 새끼가 하나 있어가 주와가 왔더니만은, 그 썩은 새끼에 송아지 한 마리가 딸리 와가지고 그래 저 도둑으로 몰려가 내가 이래 행미소에 그래 한다고, 갇혔다.”

고 이라고, 그래 또,

“아이고, 울산 사돈은 어째 여 왔는교?”

이라니까네,

“아이고, 사돈요, 나도 봉채 뜨러 가가지고, 봉채로 갖다가 뜨고 돈을 안 주고 외상이라 하고 왔더니만은, 그걸 도둑으로 말아가지고(몰아가지고) 그래 날로 이래, 경찰소 그걸 헤가지고, 이래 행미소 왔다.”

하거든. 마 그 이야기뿐이다. 그래서 억수로 서로가 마 마 그래놓으니, 울산 사돈 김해 사돈 둘이 전부 도둑놈이 되가지고, 그래 그서 또 뭐, 사돈끼리 붙어가 아로 낳았다 하네. [일동 웃음] 그래 아를 하나 내놓으니, [청중1: 숫사람이 섞여 있었던 값다.] [청중2: 봉채 뜨러 간 사람은 안사돈이고, 소 몰고 온 사람은 수사돈이라 안 카나.] 소 몰고 온 사람은 숫사돈이라 카더라 참. 그래 숫사돈 암사돈끼리 한 방에서 그래가 마, 아를 하나 낳았다.

[기장읍 설화21]

## 마보 사위

정임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아이고, 이전에 어떤 사람이 딸이 셋인데. 사위로 서이로(셋이) 봐나  
놓으니까네, 사위 중에 하나치 바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 어데 장에  
소금 팔러 보내놓으니까네, 소금을 지고 오다가 무겁아가지고(무거워서),  
저 오다가 물 밑에다 숨기 놓고, 방구로(바위로) 눌러 놓고 오더니만은,  
저그 집에 가가지고 장모가,

“와 소금을 팔러 가가 소금을 안 지고 오노?”

캐더니,

“저 방구 밑에 숨가 났다.”

카거든. 이튿날 지러 가니까네, 가마니만 똥똥 떠가 있고 소금은 없어가,  
그래 잤다 오니,

“와 이래 또 빈 걸로 또 이래 오노?”

캐더니,

“아따, 그 놈의 도둑놈 참 유명하대. 물 밑에 숨겨 놓 소금가마니를 갖  
다가 그것도 내가고 가마니만 떠아났다(떠워놓았다).”

카거든. [청중 웃음] 그래 놓으니,

“아이고, 참말로 축구다(바보다) 축구다. 떡같이 벌어 놓은 장사를 어찌  
그리 못하노?”

카니까네, 나발로 사가지고 불고 온 집안에,

“떡떠리리, 떡떠리리”

나발을 불고 땡기더란다. 나는 그 뿐이다. [웃음]

[기장읍 설화22]

## 달래고개의 내력

모소순(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동생이 앞에 가고 오빠가 뒤에 가는데, 안 와서로 기다렸다 카대. 그래가 이리 가는데, 한 고개 넘어가고 두 고개 넘어가는데 비가 소낙비가 마 쭈주룩 따루더란다(내리더란다). 따루는데, 그 얇은 옷을 입었던 모양이라 동생이가. 비를 맞으니까 딱 붙는단 말이다. 요새같이 부라자(브레지어)가 있나? 옛날에는 좀 그렇다 아이가. 그래도 마 우리도 많이 오마 땡기고 땡겼지만.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한 고개 넘어가지고 딱 돌아보니까네, 동생이가 안 오거든. 오래비가 안 온다 캬나? 오래비가 안 오거든. 오래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이래 안 오는고?’ 싫어서, 동생이가 다부 되돌아 내려갔어. 내리가니까네, 오빠가 죽어가 있더란다. 그래가 죽어가 있어서러. 그래 마 오빠가 마 무단히 동생 그거를 보니까네, 육체를 보니까네, 마 마음이 이상해졌던 모양이라.

암만 내 형제간이라 해도. 이상해져가지고 마 꼬치로(남근을) 마 들 위에다 얹어가지고 콕콕 찍어가 죽어버렸더란다. ‘내가 왜 동생한테(동생한테) 이런 땡이(마음이) 드노? 이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노?’ 싫어가지고 꼬치를 찍어가 죽었더란다. 그래 동생이 울면서 카더란다.

“오빠, 오빠, 달래나 보지.”

그기 달래고개라.

[기장읍 설화23]

## 새끼 서 발로 부자 된 바보

지순애(여, 1925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1리 동부1리마을회관]

옛날에 아를 하나 낳아 놓으니까네, 아들이 바보라. 바본데, 암만 뭐를 하라 해도 안 하고, 나무를 해라 캐도 안 하고, 궁양만(궁리만) 하고 내 있다가, 언제 한 날을 보니까, 새끼로 사흘로 꼬니까, 서 발밖에 못 꼬는 기라. [웃음]

“그걸로 꼬아가 우짤라 카노?”

카이,

“그걸로 꼬아가 알 수가 있다.”

이라 카고. 그 서발로 가이고, 어테라고 어테라고 가이까네, 옹기 진 사람이 옹기를 한겨(잔뜩) 지고 가며, 빼거덕 빼거덕 하이 엉클어지거든. 그래,

“그 새끼 그걸로 날로 채주면(빌려주면) 동우(동이)를 하나 줄끼간에 채주라.”

카거든. 그래 그 새끼 서 발 채주고 사기 동우, 예전에 동우 얼마나 비싸노? 그거를 하나 얻어가 간다. 어디라고 가니까네, 이상한 처이가(처녀가) 물 이러 나와 가지고, 마 그 동우로 마 깨버렸거든, 동우를 깨뿌거든. 동우를 깨뿌니간에,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그 동우를 날 채어주면(빌려주면) 내가 쌀로 한 말 갖다 줄끼카네, 동우를 채줄라.”

카거든. 동우를 채어(빌려) 주니까 쌀로 한 말 갖다 주거든. 그 쌀로 지고, 어테라고 어테라고 가니까네, 그 죽은 말로 초상을 친다고,

“이차, 이차.”

하고 치거든. 죽은 말로 초상을 치는데,

“아이고 보소, 보소. 이 쌀, 이걸 가지고 밥을 해 묵고, 그 말로 날로 주소.”

그 카거든,

“이거 가가(가져가) 뭐 할라꼬?”

이라니까네,

“마, 그런 일이 있다.”

그 말로 해가, 떡 지고 가가, 해는 꺼무리해가(어두워져서) 주막집에 떡 갔다. 가니까네, 말로 근근이 우다가지고(형체가 훼손되지 않게 감싸가지고) 수채 구녕(구멍) 앞에 떡 세와 놓고 탁 이레가 있으니까네, 저녁에 나와가 웬 처녀가 머리로 감고 물로 후다닥 솔아버리니 깬에, 말이 후다닥 넘어졌거든.

“와이구, 내 말 다 직있다. [웃음] 내 말 직있다. [웃음] 마, 몰아(몰러) 내라. 저거 누가 그랬노? 그 사람이 몰아 내라.”

아무것이, 처이가 그 서넛이 된 모양이라.

“니가 했으이 니가 가라. 니가 했으이 니가 가라.”

서이(셋이) 이래 샀다, 그 집 큰딸이 마 내띠서가(나서서) 오는 기라. 총각 따라 간다. 어디라고, 그래가 인자 어데라고 가니깐에, 좋은 처이로 떡 세워가 가이까네, 어데 못 독에 줌 이래 가니까네, 비단 한겨(잔뜩) 진 사람이 있으니까네, 그래 인자, 저 비단 진 사람이 그 처이가 탐이 나가지고,

“그래 수리젓간으로(수수께끼로) 해가지고 내강. 내가 못 이기면 이 비단을 다 주고, 니가 못 이기면 그 처이를 날로 줘야 된다.”  
이라거든.

“그럼, 그래 하자.”

내기를 했다.

“그럼, 누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까?”

하이까네,

“사흘 역사 새끼 서 말, 동우 하나에 쌀 서 말, 죽은 노새 산 처자 봤소? 카이까네, 그 세상 모르거든. [일동 웃음] 지는 해가 오는 역산데, 해놓으니까네, 세상 모르니까네, 이 비단장사가,

“졌다.”

비단 한 짐 지고, 처녀 좋은 거 하나 데리고 저그 집에 가니,

“저 바보 머슴아 저기 나가더니만은 부자가 돼 왔네.” [일동 웃음]

새 식구 있지, 비단 한 짐하고 이리 지고 오니까네. 그래 혼사로 해가 잘 살더란다. [웃음]

[기장읍 설화24]

## 딸 보러 가다 호식 당한 할머니

강영열(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옛날에 떡 인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딸로 등 너메다(너머에) 떡 치와났는데(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보고 싶어 가지고 묵과 떡을 한겨(잔뜩) 해가 딸네 집으로 간다고 한등 넘어간다. 할매가 한등을 넘어가니



까네, 호랑이가 나와가,  
“할맘, 할맘, 니 떡 한 쪽이 주면 안 잡아 묵지.”  
이래가지고, 떡을 한 쪽이 줬다. 또 그래가 한 등을 또 넘어가니까네 또,  
“떡 다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래가 또 주고. 늦가는(나중에는),  
“니 팔 하나 비주야(베어줘야), 비가(베어) 날로 주면은 날로 안 잡아  
먹지.”  
결국은 할매가 딸네 집에도 못 가고, 가다가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리 가  
고, 딸은 할머니 오도록 내 기다리다가, 그래 딸은 지치고 고런 거도 있고.

[기장읍 설화25]

### 길고도 좋은 이야기

강영열(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채록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우리가 인자 이야기 할라 하면,  
“내 좋은, 길고도 참 좋은 이야기 할께.”  
이라거든. 무슨 이야기 할란고 싶어가지고 딱 기다리면,  
“임마들아, 아저씨들이 길고도 좋은 이야기로 하나 해줄께.”  
이라거든. 무슨 이야긴고, 가만히 있으면,  
“진(진)- 장대에다가 좋은 조래(일본어 ‘조오리’로 신발을 말하는 뜻함)  
를 걸어놓고, 길고도 좋더란다.”

[기장읍 설화26]

### 아직도 구르는 수박

강영열(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17일  
[동부2리 동부2리노인정]

이전에는 이거 텔레비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야기 들으러 가면, 또 이래,

“할머니가 시장 갖다오다가 수박을 딱 한 덩이(한 덩이) 사와. 어찌 무겁운지 쉰다. 쉬다가 오다가 마 돌 우에 얹어가 구불러 간다.”

그래 마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 그래 이야기 해라고 조르면,  
“임마들아, 안죽(아직) 구불러 간다.”

[기장을 설화27]

## 시랑대와 제동당

노명준(남,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시랑리 동암마을 마을 슈퍼]

시랑이라는 거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신라시대 권적이라는 정승이 있었는데, 그 분이 하야를 해가지고 기장 고을 원으로 왔어요. 원으로 오가고(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만날 학자들만 뎁고(테리고), 친구들만 뎁고 와가 시랑대 여 와가 낚시질로 했어. 고기잡이 낚시질을 하니 까, 여기는 고기가 잘 물고 이랬어. 이래가지고 자기 호가 뭐냐면 신라시대 자기 벼슬이 시랑이라. 저 사나이 랑자(郎字), 모실 시자(侍字) 이래. 이 시랑이라는 자기 이름, 벼슬 호로 인자 시랑이라고 이래 만들어가지고 시랑이라.

이래 가지고 거게 가면 지금은 거기에, 예전에 보면 글도 많이 지어가 많이 있어, 학사암이라는 것도 있고, 시랑대라는 것도 있고, 제동당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어. 이리 있는데, 예전에 중간에 해방되고 구들장 깬다고 그 가면, 딱 돌이 구들장뎀키로(구들장처럼) 좋습시다. 그 예전에 구들장도 배로 해가 깨가고 이랬는데, 그래 많이 깨 나갔어요. 지금이라도 그 보면 시랑대라고 학사암이라는 그런 큰 글이 있습니다.

제동당이라고 하는 그게는(그곳에는) 널편하게(널찍하게) 이래 있는데, 기장 고을에 비가 안와서 무제(舞祭)를 지내던지 이라면, 무제가 기우됩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거기 오가고(와서) 지내고. 고을원이 여기 와서

노다 가면 일찌기 안 가고 늦게 가면, 우리 사람들이 인자 햇불로 들고 이래 가가 서암까지 있으면, 서암에서 그 사람들이 또 받아가지고 그런 체를 지냈고. 여기에 뒷뜸이라고, 오랑대는 까마귀 오자(烏字) 즐길 락자(樂字) 그도 대자(臺字)거든요. 여기가 시랑대, 오랑대 대자가 두 난데. 거기서 그래 놀고 그랬다고.

[조사자: 시랑대에는 전설이 있다던데요.] 전설은 예전에 그계 저 용왕이 애를 낳아가지고 이래 안고 안태를 끌고 갔다고 이래 가지고, 제법 먼 데서 보면 빨가무리하이(빨강계) 선이 그이가(그어져) 있습니다.



시랑대 전경

마 그냥 보면 모르는데, 저기 조령다 이라고 이래 보면, 고기 그래 빨가무리하이 선이 끼가 있고. 가면 또 뭐냐면, 아이 낳을 적에 산모가 꿰어앉아 가이고 아이를 낳아다 해서, 가위를 낳은 자리도 있고, 가위자리도 있고. 거기에 샘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샘이가. 바다 이래 물이 와가 폭 닿고 나가고 이라는데. 거기는 그 전설에 의하면 그 기가 안적사 절까지 뚫려 있다. 여기에서 파도가 치면 쿵하면, 안적사 절에서 앉아가 있으면 말이지 울리는 소리가 난다 이라고.

[기장읍 설화28]

## 기생과 시랑대

김성관(남, 1951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시랑리 동암마을 마을 슈퍼]

시랑대, 저계는 그 책자로 보면은, 옛날 군인인가 장군이 뭐 그리 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장군하고 그 시랑이라는 그 기생 이름이랍니

다. 내가 들었을 때. 거게 가면은 시랑대, 바위에 시랑대라고 적히기 있 거든. 바위 보면 작은 글자로 한문으로 적히기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학 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라고 했는 건데.

그게 가보면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기생이라는 분이 얘기를 낱아가 지고, 그 뭐 그런 그기 있더라고 얘기를 놓을(낱을) 때에 윈 무릎을 꿇은 자리가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얘기 놓으면은 뭐 목욕시키는 목욕 탕 맨키로 이래가 똥그란 윈이 그기 형성돼가 있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 고.

그 절벽을 보면은 텃줄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 부분만 보면은 빨간 텃줄이 있었거든. 있었는데, 빨간 그 부위가 바위라도 빨간 색깔이라. 그 부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자 군부대가 길을 닦다 보니 그 흔적은 없도 록 만들어서 만들고. 그 밑에 보면은 기생들이 놀고 장군하고 놀고 있고 장기(장구)맨키로 형체가 이리 돼가 있고, 텃줄을 꿇은 가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가위맨쿠로 이래 되가 있어 거기. 그 밑에 절벽을 보면은 바 다에 굴이 있는데, 그는 깊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무도 안 들어 가봤 기 때문에 모른다고.

[기장읍 설화29]

## 배서낭 모시기

노명준(남,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시랑리 동암마을 마을 슈퍼]

서낭에 남신, 여신이 있어요. 그거는 신이 들린 사람은 구별을 하는데, 신이 안 들린 사람은 모르는데. 뭐 여신은 배가 사업이 잘 되고 남신은 사업이 좀 잘 못되고 그렇답니다.

[조사자가 배서낭제에 대해 묻자] 여게 기만 달고 명태 곁은 거, 술 같 은 거, 이래 이래하고 그렇습니다. 명태 그거하고 실하고 처음에 할 때는 한지로 싸가지고 흰 실하고 같이 해가이고 서낭한테 나(놓아) 놓고 그랍 니다.

[기장읍 설화30]

## 배서낭 청라기

김성관(남, 1951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시랑리 동암마을, 마을 슈퍼]

남서낭, 여서낭 나오는데, 우리가 배를 건조로 한다 아닙니까? 배를 일차 건조를 할 적에, 마 솔직한 말로 우리가 마 건조를 할 적에, 마 내가 저- 저 집 아이를, 참 고은 아이로, 맑은 아로 인자 배에 실어가, 배 첫 진수식을 할 적에 그 애를 실으면 그게 여서낭이고, 그 배가 여서낭이고. 남자애를 실으면, 첫 배 진수식할 때 실으면은 남서낭이고 그렇거든요. 그래 돼가 있어요.

[기장읍 설화31]

## 배에서 할 수 없는 말

김성관(남, 1951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시랑리 동암마을 마을 슈퍼]

배에서는, 옛날에 옛날에는 바다서 우리가 배를 가지고 저 산에 같은데 불을 보면은 불을 보면은, 불을 보면,  
“꽃이 났다”  
이라거든. 꽃이, 불이라 안 하고, 불이라 하면 나(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욱 태바가지로 들어요. ‘꽃났네’ 이라거든요. ‘저 어데 대변에 꽃났네.’ 이라면, 보면은 뭐 이렇거든요. 우리 어릴 적에 배를 떠울 적에,  
“[큰 소리로] 아버지, 저기 불났습니다.”  
“이 놈의 자숙, [혀를 차며] 쫓.”  
마 이라거든요. 그러면 암말도(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시킨다고 그는 ‘꽃’이라 한다 배에서는.

[기장읍 설화32]

## 그것도 잔치라고 술이 생기네

김말순(여,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1일 채록  
[대라리 사라마을 사라경로당]

그래 옛날에 영감 할마이강(할머니와) 한 방, 주욱 이래 한 방에 자는데, 영감은 여 자고 할마이는 이제 저 자고 잤던 모양이라. 그래 잠이 들었다고 인자 그 영감이 인자 할마이 생각이 나가 실 가서, 술로 인자 이쪽 구석에 해영어놔는데(해서 넣어놓았는데), 그래 이래 마 영감이 가다가 마 술단지를 건드리 쏘았뽀거든. 그래 아가 덮어씨가이고,

“에이 씨발, 그것도 잔치라고 술이 생기네.”

카고, 그래 술단지를 덮어쓰고 쏘아뿌고 이래쌓고.

[기장읍 설화33]

## 약효가 있는 참샘

김정숙(여,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그기 여름에는 너무너무 찻어가(차가워서) 아들 땀띠기 나고 예순날에(옛날에) 약이 있었습니꺼? 거가 췌기몬 마 낮어예.

그라고 겨울에 그서 짐이(김이) 올라오가, 물도 뜨뜻하고 그랬습니더. 그래 옛날에 거 다 우리 물 내려오는 그거 줄기로 먹고 살았어예.

지금은 인자 못을 만들고 공굴(콘크리트를) 해서 못 먹지만, 우리 늦그릇에 퍼다 먹고 살았습니더. [조사자 : 그 약효가, 효험이 있네예?] 예. 그 애들 땀띠 나몬 거 췌기몬 마 낮어예.

[기장읍 설화34]

## 아들 낳게 하고 귀신 나온다는 용소골

김정숙(여,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자기가 철마서 인제 이래 여어 철도공무원으로 통근을 했거든요. 그래 새복 일찍이 오니까 거기에 그라모 우리 둘 던지몬 아들 놓는다 카는 데 안 있습니까? [칭중: 와 아이래.]

그 그 밑에 바윗돌 있고 물이 이래 내려오는데, 인제 하-안 소복 입은 사렘이 있더라예. 그래가지고 마 어-째 겁이 나가지고, 참말인지 거짓말 인지는 그거는 몰라예,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그래 뒤도 안 돌아보고, 대기 우리 할배가 장 심이(힘이) 썩너. 그래가지고 마 담말라가지고(달리기를 해서), 지금은 마 못둑 택이지(못 둑에 해당되지), 거 와가 돌아와 보이카네 안 돌아보고 돌리카네 없더랍니다. 내- 생각에 자꾸 따라오는 거 같더라예. 예, 거 그래 봤다 카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거 지금 그 사람, 귀신 나왔다 카는 그 장습너(장소입니다). [조사자 : 거 어디가, 거기가 용소골입니까?] 예예, 거 우리 옛날에 글로(그곳으로) 땡기몬 돌을 던지가 쪽 들어가몬 아를 놓는다 쿠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조사자 : 아, 그런 자리가예.] 예. 예. [조사자 : 옛날에, 그 머누가 던지가 아를 낳았는가예?] 그거는 모르제, 우리가 지내땡기매(지나다니며) 던져봤어예.

[기장읍 설화35]

## 호랑이도 놀라 도망간 호랑이 그림

노차선(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호랭이 내리오는 이리 길이 있었어요. [조사자 : 산 밑에?] 산 밑에.  
[청중 : 산 길에.]

그래이 인자 이 할배가 마 호랑이, 딱 호랑이맨쿠러(호랑이처럼) 기리  
가지고 그 호랭이 내리오는 그 거다가 딱 시아놓고(세워놓고) 바램 불문  
딱 오는 거맨쿠로( 것처럼) 이래 흔들흔들 흔들하고. 또 가마- 사람이 얼  
른거리몬 잡아묵을 듯이 이래이래이래 이래 들시가지고(들어가지고) 이  
래가 서가 있고 이라더란다. 그래가 호랭이가 마 영금영금 내려오다가,

“앗다 내카마 더 무스분(무서운) 놈이 저 또 한 놈 있네.”

이라매 마 산으로 올라가뿌더랍니다.

호랑이걸이 기리가지고 고 오는 실목(길목)에다가 딱 시아놓은, 바램이  
부리카네 딱 끄떡끄떡 오는 거맨쿠로 이렇고, 그래 저저 그 할배가 인자,  
저놈의 호랭이가 저래 내려 오가 옛날에는 아 다 물고 갔다고, 산 밑에 사  
는 사람을. 저래가 ‘내가 후쳐야되겠다’ 싶어가 그래 딱 만들어가 시아 놔  
놓고, 바램이 부리카네 딱 내려오는 거매쿠로 흔들흔들하고, 그래가 무슨  
소리가 나리카네, 딱 어짜이 또 이가 마 이래 웅덩시가 호랑이가 자아묵는  
(잡아먹는) 거매쿠로 이래 하고, 그래 한다 카는 거는 내가 들었거든.

[기장읍 설화36]

## 단지를 뒤집어 쓴 개

노차선(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3일 채록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인자 우리 큰시누부(큰시누) 집에 개가 마 키와농이(키워농으니) 소안  
치만하이(송아지만큼) 이래 컸는데, 옛날에는 목을 기 없었다 아입니껴.  
옛날에도 아이다 짜다라(많이).

그래 인자 그 이부지(이웃) 할배가 절로, 암자로 조깅쿠로(조그맣게)  
시아놓고 있어. 고서 마 인자 절에 불공 드리고 머 하고, 밥이 남아가지  
고, 가지고 내리와가 요런 단지다 딱 담가놓고 담아놓고 물로 봐냈거든  
(부어놓았거든) 풀 할라고. 그래 우리 시누부 개가 마 소안치만한 기 가



만 들바다보이(들여다 보니) 밑에 밥이 있거든. 우에는 물이 막 각 들어  
가 있고. ‘야 내가 저거를 건지 무야 되겠다.’ 싶었께나 그래, 마 머리로  
거다 단지 거다 그 쪼매는 요런 데다 머리를 쑥 영으카네 쑥 들어갔어.  
그래가 마 밥도 못 묵고, 눈도 안 비고, [웃으며] 코도 안 비고.

옛날에는 전 돌담 아인교? 우리가 거계(그곳에) 인자 뭐 하러 간다고  
올라가이카네, 그 개가 단지를 하나 마 입에 이만하이 달아가지고 얼렁  
얼렁얼렁 그 집에서 나오데요. 나와가 암만(아무리) 봐도 우습운데, 그  
할매가 또 대기 우습은 소리로 잘 하거든.

“하이고, 아무것아 너거 개가 우리 단지 물고 덮어 썩고 간다.”

그래 저저 보이카네, 물고 지는 사람소리는 나는데 짐승이라도, 이래  
흔들고 눈이 안 비니카네 나오이카네 돌담 기퉁이(귀퉁이) 거다 툯 받아  
뽀어. 받아뿌가 마 단지가 탁 깨졌부고, 조디(주둥이) 고기 목태로 딱  
[일동 웃음] 해가지고 멍기이카네 주인 할매도 마, 단지 옛날에는 단지도  
올매나 기럽노(귀하노). 그래 단지 쫘다고 머라카지로(야단치지도) 못하  
고 할매가 웃어가지고 꾸부러지고, 내내 그 이야깁니다.

[기장읍 설화37]

### 저승 갔다 영감 만난 할머니

최상연(여,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저거 아버지 체사카네 다 와가 있지. 이랬는데, 그래 영감 체사 지낸다  
고 있다가 살끔 잠이 들었는데, 마 사람이 가물어졌뽀더라네(정신이 가  
물그러졌더라네), 자식들이 보이. 그래, 그래 인자 보니까 할마이는 영감  
제상에 거젠데, 음식 마큼(모두) 담아가더라네. 담아가면서 자기가 죽었  
어 그래가.

“그래 가몬 어데 가는교?”

카이카네,

“응, 저 간다.”

카이커네, 열매만침 가다가 새경이 하나 나와가,

“아이고 이자(이제) 오는교?”

이라커네,

“이이.”

그래 짚어지고 가던 짐을 내라놓고,

“그래 어데 가는교?”

카이커네,

“이 사람 더부다 주고 오께.”

이라면서, 그래 가다가 할마이, 본할마이로 테꼬 가다가 어데 그릉걸은 (개울같은) 데서 밀어뿌더라. 밀어뿌이 인제 깨어나는 기라. 그래가 그라고 나서 영감제사로갓다 잘 안 지낸다 카더라.

[기장읍 설화38]

## 아버지 편지 쓰고 있다

김소순(여, 1934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옛날에는 방이 단칸방에 자йка네, 이래 아도, 우리는 우리 친구들도 그라더라고. 나는 막내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르는데, 잠만 자йка네 엄마 아버지 관계 하는 거로 더러(더러) 봤다 카네. [웃음] 안다 카는 기라. 아는데, 그래 인자 한 번은,

“아버지, 아버지 엄마 배 위에서 뭐하노?”

“응, 편지(편지) 씬다”

이래 됐어.

편지 쓴다. 편지 쓴다 이렇게 헛드만 가다가 개가 떡 인자 교미를 붙어 있으카네,

“아버지, 아버지, 저 편지 써고 있다.” [일동 웃음]

[기장읍 설화39]

## 병어리로 오해 받은 며느리의 시집살이

김소순(여, 1934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옛날에 귀 어둡어 삼 년, 눈 어둡어 삼 년, 인자 귀 어둡어 삼 년. [조사자 : 병어리.] [말을 바꾸어] 야, 병어리 삼 년, 세 삼 년을 살고 나가 들랑 말하고. 그래 눈을 감고 살아 이래 됐어. 인자 참고 사라 이 말이 지.

그래 살았는데, 그래 인제 말로 인자 삼 년을 안 하니카네, 버버리라고 (병어리라고) 덩고(데리고) 가는 기라 신랑이가. 데려다 주라 캐가 데꼬 가이, 그래 인자 꿩이(꿩이) 한 마리 푸득득하이 날라가이카네,

“저 꿩 한 마리 잡아다가 허허 터는 날개는 시아버님 드리시고, 인자 그거 발, 살짝 까리비는(꼬집거나 긁는) 발톱어는 시누부 주고, 손목도 내불통으는 시엄마 드리시고.”

시엄마시하고 시누부하고 역수로 인자 시불렀어(잔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주고. 저 시아버지는 훌 털어뿐다꼬 날개를 주고 이러카더라네. 그라이 신랑이가 다부(도로) 가자꼬 텨고 왔어.

“그래 와 덩고 왔노?”

카이께네,

“가다가 말로 그래 하더라.”

이러카이까네, 그래 시집 왔다고. 옛날에 이제 말로 못하라 캐노이 그마 이. [조사자 : 말도 안하고 있어가.] 야. 버버리라 카고, 버버리 되고, 눈 어둡어 삼 년, 귀 어둡어 삼 년, 말 몬해 삼 년, 세 삼 년을 그래 살고. [청중 : 참고 살라 켜다.] 야. 참고 살라 캐노이,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기장읍 설화40]

## 마을에서 모시는 최영 장군

신태근(남,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청강리 무곡마을 무곡마을회관]

아니 우리 마을에서도 정확한 그거는 모르는데, 인자 옛날부터 최장군님을 모신 게 아니냐. 그 당시 그때 그 이 근처에서 장군으로서는 최영 장군 말고는 없었으니까. 그분이었을 거다.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옛날 어른들이 죽 그렇게 믿고 왔고, 지금 우리 마을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그 뭐 제사라든가 이런 걸 엄숙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뭐 하루도 다른 마을에 못지않게 굉장히 ‘우리 할아버지는 좀 엄하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다루질 못하고 철저히 해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기장읍 설화41]

## 당계를 잘 못 모셔 당찬 화

신태근(남,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옛날에 인제 우리 어른들 계실 땐데, 그 지금부터 그러면 한 오륙십년 전이 되겠네. 내가 태어나고 나서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육십 몇 년 쯤 됐을 때, 그때는 홍역손님 카는 게 많았어요, 전염병이. 요즘걸음으로 그 뭐 장질부사(장티푸스) 그런 계통이 났겠지.

홍역, 와 손 이런 게 많았는데, 그 해는 뭐가 잘 안 될라고 그랬는지 제사를 저희 모친이 모셨는데, 그 운이 없을라 그러니까 그 시장 보러 가면서 주머니를 집에 두고, 그냥 기장 여는 걸어서 가니까, 기장까지 가셨는 거라. 가다가 다와가다가 찾으니 줌치가 없어. 그래 다시 와서 그걸

가지 오니까 정신이 인자 좀 부실하게 된 거지.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래 했는데도, 그 제를 지내고 나니까 마을이 안 풀릴라 하니까 잘 안 됐는가 봐. 그 당시에 또 우리 밑에 여계 할아버지를 모셨던 작은 산봉우리서 모셨다가, 옛날에 저 높은 산에 있으니까,

“너무 머니까 밑을 내려서 모시자.”

그래 동네 어른들이 인자 의결을 해서 내라가(내려서) 모셨는 거라.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인자 그 당시에 마을에 애기들 수물 네 명인가 마 딱 쓸어뿌렸어. 그래 내도 우리 형이 세 분 있었는데, 일곱 살, 다섯 살, 두 살 이래 묵는 사람이 서이가 쫄, 그래 그때는 뭐 일곱 살 카몬 바다 낚시도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잘 했는데, 건강했는데, 그 인자 손님 흥진 그런 걸 하니까, 열병을 하니까, 갑자기 마 하루 저녁에 마 한 사람 죽고, 고 다음 날 또 하나 죽고, 다음 날 또 하나 죽고, 내리 죽고, 거기 마을 전체에서 죽은 애기들이 수물 네 명인가 뭐 그렇다 그래요. 수물 일곱 명인가.

그래 인자 제를 잘 못 지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믿음을 저 거 하고. 우리 어른들도,

“여계는 절대 제당에 대해서 함부로 가지 말아라.”

아부지가 그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같이 뭐 좀 반대의사도 하고 이래 했던가 봐. 그래 그런 원인이 아이였겠느냐, 그리카네 제당에 거는 함부로 근접을 못하는 데니까 꼭 무슨 필요하지 않거든 가지 마라. 그도 우리 집사람이 부녀회장을 뭐 근 삼십 여년 가까이 맡으면서 삼십 년 가까이 계속 뭐 안 갈라 캐도 안할 수가 없어.

[기장을 설화42]

## 바다에 잠기지 않은 아홉산 간뎨이

신태근(남,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옛날에 지금 여서 보며는 그 최고 높은 산 조기(저기) 꼭지가 간뎨이

(간더미)라 그러는데, 우리 여서 시골서는 간땀이라 부르거든. 그 장산 입구 거긴데. 거기 바다 속에 전부 잠기고, 옛날에 송정마을 이게 소금꾸이(소금구이) 하는, 그 짝옥 요 안에 내리, 지금 내리는 안까지 들어와서 바다가 잠기가 있어가지고 소금을 끓였다 하거든, 바닷물을 이용해서. 그 당시 이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게 지금 천지가 전부 바다가 됐어.

그래 이제 산꼭지가 조금 보일랑말랑 간 한 덩어리처럼백이 안보이니 까 간땀이라 하는데, 실지 거기 가보며는 바다 거 굴 같은 거, 굴 껍지. 그런 기 바위에 많이 붙어있대요. 그래서 이 근처에는 전부 바다가 아니었느냐, 그래 이제 꼭지만 조금 남아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 육지가 생기고 그제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인제 마을이 생기고 이런 거라. [조사자 : 그 아홉산에?] 그 아홉산에 거기 간땀이라고 해.

[기장읍 설화43]

## 전봇대에서 나는 소리 듣고 지은 시

신태근(남,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그 과거를 시험 보러 갈 때, 거 과거 출제, 저기 인자 짐대 도(棹)자를 하나 해가지고 시를 지어라 읊어라 그랬는데, 그래 인자 어린 사람이 인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여게 전주(電柱, 전봇대) 저게 있었는지 모르겠어.

‘불해동남(不海東南)에 군도립(群棹立)하니 무화천지(無花天地)에 중봉행(衆蜂行)이라’, 불해 하는 거는 바다 아닌 동쪽 남쪽에, 못 전봇대가 안자 샷대가 배 거 샷대처럼 그런 샷대가 섰으니, 불해동남에 군도립하니, 인자 짐대가 많이 섰다, 섰는데 군도립하니, 무화천지에 꽃 없는 하늘 땅아래 못 별 소리가 나구나. 우리가 어릴 때 전주에 가서 이래 들으며는 전주에 웅- 하는 별소리처럼 나요. 그런 걸 써가지고 과거에 입선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대.

[기장읍 설화44]

## 정승의 권세를 꺾은 꼬마

신태근(남,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옛날에는 정승들이 많았는데, 정승의 세도가 하도 세니까, 그런 저거 묘를 써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묘를 써 낳은 자리에 정승이 그 더 좋은 묘를 자기네들 돌아가시거나 하면 쓸라고 파내라고 인자 거명을 했는 거라. 그래 이 집에 인자 없는 집에서는 자기 인자 조상이 있는 묘를 없애고 자기네들 정승에서 묘를 쓸라고 파내라 카니까, 어른들이 걱정을 내해서 죽을 적인데, 일곱 살 먹는 아들이,

“아버지 왜 자꾸 걱정을 하시느냐?”

“그래 뭐 고민이 있어도 너거인대는 이야기할 기 못 된다.”

자꾸 물으니까,

“그래 아무게 어느 정승이 할아버지 산소를 파내라 칸다. 이장 하라 칸다. 그래 자식 된 도리로 파낼 수도 없는 입장, 권력이 저거 이용되서 파내라 카니까 안 팔 수도 없다.”

하이카네, 애가, 개가 벌써 났어. 그래,

“엄마 내 쪼그만한 옷 한 벌 해서 누룽지좀 사서 해도. 내 그 정승 찾아가꼬마.”

“가몬 안 된다.”

고 마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나는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 바랑 하나 짊어지고 쪼맨한 일곱 살 묵는 애가 찾아갔는 거라. 그래가 인자,

“이봐라.”

카고 인자 하이까, 안에 있는 종들이 쪼그만한 꼬마 애기가 와가지고 어이 자꾸 불러내니까 인자 희한했었다.

“야 임마, 니 여어 뭐 하러 왔냐?”

카니까,

“내 정승 만나러 왔다. 좀 만나게 해도.”

이런 싱겁은 소리한다 카면서 막 가라고 야단을 치는 기라. 비를 맞고 이래 있는데도, 자꾸 가라 해도 안 되니까, 인자 이 사람 나와가지고, 뭐라 인자 야단을 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운동차우(雲登遮雨)하는 날에 소기원장 웬일고. 구름은 날으고 구름 운자, 운동치우 오를 등자, 구름이 올라서 비를 막고 하고 있는데, 소기원장 붙일 소, 기 이, 내가 기를 담 밑에 붙이고 서가지고 정승을 부르는 게, 이런 일이 어데 있느냐?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나놓으니까 벌써 꼬마가 그런 글을 다 읽히니까 낫는 거라.

그래 아이 그 대감이, [말을 바꾸어]

“애기가 와서 그런 소리 합니더.”

“그럼 들오라 캐라.”

거 들어와가지고 인자 대감 앞에서 문을 가, 문에다가 창문이니까 옛날에는, 손을 푹 찢러 넣어가지고,

“대감님, 다른 이야기는 할 께 없고, 이 손이 대감님 손입니까, 내 손입니까?”

그래 대감이 가마이 생각하니까, ‘이놈이 회한한 놈이다’ 창문에다가 손을 밀어 넣어봐놓고,

“밖에 있는 손은 내 손입니까, 대감님 집에 들어갔으니까 대감님 손입니까?”

“니 손이지.”

“그렇죠. 내 땅에 내 조상님 모시고 있는데 내 손은 내가 가지고 가야죠. 내 땅에 있는 묘를 내가 관리를 하는데 왜 정승이 치우라 합니까. 못 치웁니다.”

“알았다. 가라, 가라.”

그 사람이 다음에 커가지고 정승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장읍 설화45]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신태근(남,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15일 채록  
[석산리 석산마을 석산경로당]

옛날에 인자 그 아주 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효자가 인자 고려장이 설치되고 나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등에 짊어지고, 인자 때가 돼서 칠십이 되니까 칠순이 와서 산에 가서 버틸라고 인자 가져 갔는 거라. 산에 가져 가서 인자 움막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돌을 입구 조그맣게 해가지고 쌀강 전부 넣어주고는 나오면서 돌을 막아가지고 지계를 짊어지고 인자 올라 카거든. 그래 인자 따라간 손자가 보니까 지계를 아버지는 다 했다고, 자기 아버지만 가서 안에 여봐놓고(넣어놓고) 물어봐놓고, 지계를 입구에 놔놓고 오니까, 아들이,

“아버지, 지계를 왜 두고 갑니까?”

“야야, 인자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저다 버리야 될 꺼 아입니까?”

그러니까, 저 그 아버지가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아들이 벌써 나를 버릴라 카는데, 낸들 아버지를 저 물어봐 놓고 어찌 가겠느냐. 지계를 차라리 없애뿌리고 뿌사버리고(부셔버리고) 안 가는 게 안 맞나.’

그래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파내서 묻질 안 하고 그냥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 카는 동양 이야기가 있더라고.

[기장읍 설화46]

###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메웠던 약물샘

김원수(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21일 채록  
[청강리 무곡마을 무곡마을회관]

이 마을 사람은 그 약물로 씻거몬(씻으면) 별 효과를 못 보는데, 탄 마

을사람은 씻거문 피부병은 그때 잘 낫는다 그랬어요. 조 밑에 약물. [조사자 : 지금은 안 쓰고?] 지금은 지하수를 파이카이카네 물이 안 나요. [청중 : 뭐뭐, 무곡마을 약물샘이는 요즘(요즈음) 치모 기장군 전체가 다 안다. 다 알고 우리 철마서도.] 손이 많이 오이카네, 그래 이 부락 사람이 너무 손이 많이 와서 약물을 메왔다(메웠다) 카는 말도 있어요. [조사자 : 그 정도로? 하도 다른 마을에서 많이 와가지고?] 그래 이 부락(마을)에 한지서(외지서) 자고 씻고 가이까네, 손을 너무 많이 치니까, 약물을 하문 메왔다 카는 말도 있어요.

[조사자 : 그러니까 아주 피부병은 다 나았던 모양이죠?] 예, 피부병은 딴 마을에서 오면은 효과를 많이 봤어예. [조사자 : 그럼 지금은 언자?] 지금 신약이 나오고 그 후부터는 뭐.

[조사자 : 아, 지금은 그 약물샘도 다 메까?] 메카지는(메워지는) 게 아이라 지하수를 뽑으니까 약물이 그 옛날에 그 자리는 약물이 솟았거든요. 솟았는데, 안 솟아나니까 자연적으로 메워지는 거지. 그러니 그 자리에 빠이프만 하나 묻어가 표를 해놔으면 해나 물이 솟아 나올란다. 물구덩이 있지요, 요만한 그런데 물이 거서 땅 밑에서 솟구라요(솟아나요) 쪼맨. 솟구라가지고 그 물은 약효가 있고 일년 내내 마르지를 안했어요. 그래 그 뭐 미꾸라지도 다 잡아먹고 뭐 이러지. [조사자 : 그걸 어찌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그러게 옛날부터, 우리도 모르지만 옛날부터 그래 효과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 알기 전에 버 그런 소문이 다 있었다고, 이 맛에 다 왔지요.

[기장읍 설화47]

## 귀 떨어진 처자 나온다는 은행나무

김원수(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21일 채록

[청강리 무곡마을 무곡마을회관]

우리 여 옛날 말이 여 은행나무가 여기 있어요. 은행나무가 여 한, 그러니까 내가 말 듣기로는 은행나무가 하나 크는데, 오륙십 백가리를 개

리웠다가(쌓아두었다가) 불 나가지고 은행나무가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그 순이 나가지고, 순이 나가지고 네나가 이런데, 몇 백년 된 큰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옛날부터 은행은 암수, 암나무 숫나무가 있어야 결실은 안합니까? 근데 우리 여는 암나무는 있는데, 숫나무는 어데인지는 모른데 결실은 해요. 하는데, 그 우리 애릴 때, 인자 그 밤중에 나가몬 귀 떨어진 처자 나온다 카는 말이 있는데, 귀 떨어진 처자 받 사람은 없고. [조사자 : 귀신이다 그죠?] 응,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라. [조사자 : 그 은행나무 밑에?] 은행나무 인데 나가몬 귀 떨어진 처자 나온다. 처자 나온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그라 그런데 받 사람은 [웃으며] 안중(아직) 없고요, 그런 말이뿐이라.

[기장음 설화48]

### 요령바위가 있어 곳을 잘 하는 교촌마을

정옥숙(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1일 채록

[청강리 무곡마을 무곡마을회관]

옛날에 교촌마을에 요래 소구리(소쿠리)같이 요렇게 푹뻥한(둥그랗게) 생겼거든요. 옛날,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퍼져가 그렇지만은도. 그런데 요래 딱 마주보면 저게 마주 보는 산 저 꼭대기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요랑겉이(요령겉이) 생겼어요. 요랑, 소 요랑, 말하자면 인자. [칭중 : 안변서 안자서.] 야. 안자서 가는 먼데이(꼭대기) 거게.

그래가 그래서러 교촌마을에는 그래 곳을 잘 한 대요. 그 요랑바위가. [조사자 : 요랑바위가 있어가.] 요랑바위가 있어서. 그래 그 이야기는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어.

[기장음 설화49]

### 서로 혼사를 하지 않는 이웃마을

정옥숙(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1일 채록  
[청강리 무곡마을 무곡마을회관]

그리고 또 안평마을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역동네(‘옛동네’로 들을 수 있다. ‘ 좋지 않은 동네’라는 뜻이다)라 안 카나 그제. 역동네라 카는데, 거는 바위가 또 뭐 좀 이상하게 이래 생겼는데.

[조사자 : 남자 것처럼 생긴.] 남자 꺼 곁이 생겼다 카든가 여자 꺼 처러 뭐 이래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서러 뭐 호양, 옛날에 그라대, 호양질(화양질)로 많이 하고 역동네라 카대.

[조사자 : 바람이 많이 났는가?] 바람이 마이 나. 옛날 말로 호양이라 카거든요. 호양질이 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평, 교촌하고는 절대로 경계가 되가 혼사걸은 거 하모 쫓기 나가요. 교촌사람들하고 안평사람하고 혼사하면은.

[조사자 : 길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데도.] 예. 요쪽에 있고 요쪽에 있고 그런데, 절대로 혼사가 안 되요. 혼사했다 카몬 동네서 쫓기 나가요.

[기장음 설화50]

## 꼬부랑 이야기

정옥숙(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1일 채록  
[청강리 무곡마을 무곡마을회관]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짝지를 짚고, 꼬부랑 산길로 갔거든.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똥이 내렵아서러 [웃으며] 꼬부랑똥이 누이까네, 그래 꼬부랑개가 와가지고 꼬부랑똥을 조와묵었거든. 그래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짝지로 가 탁 패이까 꼬부랑 꺽꺽 꼬부랑 꺽꺽 하고 도망갔단다 카이.

## 2. 일광면 설화

[일광면 설화1]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

김윤덕(여, 1936년생) 구술  
2011년 3월 13일 채록  
[원리 상리마을 상리경로당]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은 어디 돈 벌이러 가뿌고, 없어가지고, 시어머니를 고기를 사다 줄 돈이 없어가지고, 가만 생각커이 ‘시어른 고기를 사다 줘야 될근데’, 그래 어데 가 지렁이 그걸 파가지고 그걸 삶아 주어,  
“야야, 뭇이 이처러(이렇게) 맛있노?”

이러이까네,

“어무이 께깁니다(고기입니더). 잡수이쇼.”

그래 켜테기를(건더기를) 또 인자 또 삼자리(뚝자리) 밑에다 또 영고, 또 삼자리 밑에다 영고, 그기 그래 맛있더람더. 그래가지고 또 삶아 주고 또 삶아 주고 난중에는 그렇커이 눈을 펴뜩 떴부더람더. 그거를 묵고, 그리 지렁이 그기 그마이(그만큼) 사람잔테 보하더람더(보신이 되더랍니다).

[일광면 설화2]

###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

안옥남(여, 1941년생) 구술  
2011년 3월 13일 채록  
[원리 상리마을 상리경로당]

아부지가 인자, 우리가 설명절 되고 이러면은, 그때는 안가(安哥)라고는 우리 집 한 집 뿐이었어요, 우리 동네 여계. 우리 집 한 집뿐인데, 그

때는 또 명절 때 되면은, 설 되면은 정월 초엿흘까지는 여자들은 바깥에 (밖에) 마실을 못 나가고, 보름 되면은 설에는 열흘, 보름은 오일, 요기 인자 집안 여자들이 그거 그냥 휴가 받는 걸로 이렇게 그때는 날짜가 이래 정해져가 있어. 그럼 정월 초하룻날 아무 때고 우리 할무니하고 인자 우리 인자 형제들하고, 그래 아버지자테,

“아버지, 긴 이야기 하나 해주소.”

우리가 내 인자,

“아버지, 제일 긴 이야기 해주소. 제일 긴 이야기 하나 해줄라고.”

이러이카네 그럼 긴 이야기를 두 자루를 하겠대요. 그래 아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앉아놔놓고, 할무니까지 앉아놔놓고, 저 앉아,

“아버지, 이야기 해주소. 옛날이야기 해주소.”

이라면은, 내가,

“긴 이야기를 갖다가 좀 짧게 하지 말고 긴 이야기로 해주소.”

카이카네, 그래 긴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복판에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데 무당이 이쪽 동네 무당이 저쪽 동네 곳을 하러 가야 되는 거라. 곳을 하러 갈라 카이카네,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 얼음이 얼어갖고 도저히 인자 마 아무 배도 못 띄우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인자 곳 하고 그 곳거리하는 남자하고 이래가 인자 이쪽 동네서 저쪽 동네로 건너가 곳을 하러 간다고 가는데, 강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다 안 되겠다 싶어가, 징에다가, 징에다가 무당을 태아가(태워서), 태아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마 힘껏 밀었는 거라. [웃으며] 이쪽 끝에서저쪽 끝으로 힘껏 미이카네, 이기 징이 가다가, 얼음물 숨구멍이라 카는 기 있잖아요, 거 가다가 풍 빠져뵈는 기라. 징이 풍 빠져갖고 그 징이 인자 강 복판에 들어가 풍 빠져뵈은카네, 인자 밑에 줄줄줄줄 인자 강 밑으로 이래 내려가는데, 그래 아직까지 내려간다 카는 기라.

우리는 아직까지 그 무당이 어찌 됐는가 싶어,

“아버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이러이카네,

“가만히 있어라. 아직까지 내려간다. 아직까지 내려간다.”

이러더만은, 또 그래, 또 내가 막 이래,

“아버지, 그 다음에는 어예 됐는데? 어예 됐는데?”

이라이카네 또 하는 말이,

“그 한 복판쭝 내려가다가 고기들이 그 징을 갖다, 내려오는데, 고기들이 막 그 징을 가지고 뿌드리고 놀다가, 고기들이 그 징을 뿌드리고 놀다가 고기들이 확 가뿌니(가버리니), 또 내려간다.”

카이, 그래 거기 긴 이야기가, 거기 긴 이야기 한 자리고.

또 한 가지는 인자 저 산에 인자, 산에 큰 우리 달음산매리(달음산처럼) 저리로 높은 산에 거게 산에 온갖 짐승들이 전부 다 인자 회의를 했는 거야. 그래 회의를 떡 해갖고, 무슨 회의가 났나 하면은,

“우리 이래 하지 말고 저 밑에 마실로 내려가자 장에 가갖고 시장을 봐가 회의를 할라 카몬, 인자 이래 잔치처럼 음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 거 시장을 봐가 오자.”

이래가 범, 토끼 막 전부 다 이래 합해가, 그 동·식물들이 전부 다 합해가 시장 보러 내려왔는데, 내려와 시장을 봤는데 그 시장 보는 도중에 제일 큰 기 호박을 사가 올라왔는 거라. 호박을 떡 사가, 다른 짐승을 전부 다 각기로 올라가는데, 호박 갖고 간 이는 인자 호랑인가 뭐 곰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많이 그때 그러 그게 그 호박을 갖고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조금만 올라가몬 되는데, 여서 마 잘못하몬 구불러 졌잖어. [웃음] 그래갖고 이게 마 구불러 내려가놓이, 여게 흰 인자 그 짐승이 빨 보고 있는데, 저걸 어찌 따라내려 갈라 카이 못 따라 내려가겠고, 아직 구불러 내려간대요. 그래갖고 이래 내려가 아직까지 구불러 내려간대요. 그래 인자 그래가 또 그러몬 범이 와서 빨리 내리왔고 그 거 가지고 또 올라가는 장면이 또 나와야 돼. 그거 보고 내내,

“아버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카이 카네,

“아직까지 구불러 내려간다.”

[일광면 설화3]

### 웅이 솟아 소른 산수곡 웅천

유봉님(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용이 그 물에서, 물에서 솟았기 때문에, 솟았기 때문에 안자 용천이라. [조사자 : 그기 어디, 어느 마을?] 이 마을 밑에, 밑에, 저 밑에서 올라오  
문 물고물이라고, 옛날 이름이 물고물이라고, 고 안에, 고 안에 이리 올  
라가 아래 산수곡이 있었어. [조사자 : 산수곡?] 산수곡, 산수곡서 조금  
들어와가지고 용천, 산수곡도 용천이고, 고서부텨 이까지 용천. 야, 야.

[조사자 : 용천, 용이 인자 솟아올라갔다고.] 야. 용이 안자 그 물에서,  
그 물에서 솟아, 그래 용천, 이름이 용천.

[일광면 설화4]

### 해일이 일어 물이 들지 않은 달음산 봉우리

유봉님(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달음산 정상 모습

인자 달음산이 저래 있  
었는데, 우리 동네가 다 생  
기고, 달음산이 있고 이랬  
는데 옛날에 해일로 해가  
지고, 지금 일본에 지금 바  
닷물 그 짜다라(밭이) 넘어  
들어가지고 마 형편없다  
아인교? 그 그렇듯이로 물  
이 바닷물이 이래 진치가

지고<sup>6)</sup> 저 뭐 해일 했는데, 그 달음산 봉우리만 물이 안 올라갔어. 그러  
이카네 그 달음산이 됐는 기라, 달음산.

6) 진을 쳐 놓은 듯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을 표현한 말로 보인다.



[조사자 : 그게 뭐 닭 한 마리 앓은 정도로.] 아, 그 그 정도로. [조사자 : 고런 정도로만, 안 차고.] 야. 안차가 인자 고기 달음산이 됐는 기라. 이름이 달음산이 됐는 기라. 저 중간에는 물이 다 들었다 카네, 옛날에.

[일광면 설화5]

## 은혜 갚은 두꺼비

김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옛날에 참 처녀가 하나 밥을 하는데, 밥을 하는데, 밥만 퍼몬 두꺼비가 (두꺼비가) 딱 부뚜막에 오가 앉아있으므로 인자 밥을 쪼매 주고 주고.

내 그래 해놓이, 그 두꺼비가 인자, 그 처녀가 인자 부락에서 이 요새 제만(제물), 이 제만, 제만이 있음더. 제만을 지내는데, 인자 처녀를 하나 썩, 와글노 카모(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싸니카네, 어테가 물어보니까,

“제만 지내는데, 처녀로 하나썩 바치라. 그래 인자 제물로 바치라.”

그래 그 처녀가 아다리<sup>7)</sup>가 됐어 인자. 바치고, 할 수 없이 인자 동네에서 모두 그라이, 안 갈 수 없으이. 처녀를 떡 바치가, 그날 제만 지내고, 인자 제당에다 여놓고 나오는데, 천장에서 밤중이나 열 두 시 되이카네, 지네가 이래 똑 도리지둥(둥근 기둥)같은 지네가 술- 내려오더란다. 안개로 내리 푸이(피우니) 마 처이가 정신을 못 채리이 두꺼비 지 밥 준 두꺼비가 난데없이 잘에(결에) 와가지고 안개로 같이 지네로 보고 푸더라 카네. 같이 푸이카네 마 지네가 툭 떨어져 죽었부고.

그거는 아침에 인자 자고 나서 동네 사람이 인자 초상 치러 갈 거 아가, 처이 죽었다고. 초상 치러 처녀 매롱머리 살아있고, 두꺼비는 어테 갔부고 없고 지네가 자빠져 죽어있어. 그라고부터는 그 제당에 아무꾸도 (아무 것도) 사람을 안 좌, 처이를 안 좌여도 돼. [조사자 : 죽는 사람도 안

7) 일본어로 ‘あたり(当(た)り)’. ‘적중’의 뜻임.

생기도.] 그래 안 생기고 그래. 뚜꺼비가 그래 은혜를 하더란다, 처이로.

[일광면 설화6]

## 저승사자에게 고한 착한 일

허석(남, 1946년생) 구술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옛날에 그 저승사자가, 어느 아줌마 하나가 인자 세상을 뜨고 저승으로 간단 말입니다. 저승으로 딱 올라가는데, 저승사자가,

“너는 저 세상에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왔노?”

이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외로운 남자, 고독한 남자들한테 모두 다 복 되기로 해주고 왔습니다.”

“고래? 그라든 니가 상대한 남자들 꼬치를 죄다 찢라 오너라.”

고렇게 내려가서 인자 꼬추 하나를 빼먹은 놈을, 고놈을 인자 찢라가지고 올라오니까, 저승 문턱을 올라가는데, 아줌마 하나가 한 다래이 꼬치를 이고서 올라가면서 마 올라가거든요. 그런께 고 하나 들고 온 사람이 빨리 올라갈 거 아입니까. 그러니까,

“아줌마, 아줌마.”

하고 불렀는 기라. 그러니까 고개를 획 돌아보면서,

“와요?”

이라거든요. 그러면서,

“하, 저 세상에서 일편단심 민들레로 한 남자만 섬기고 왔느냐?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많이 상대를 해가지고 한 다리 이고 간다.”

그러니까네,

“이 아줌마야, 나는 저승사자님한테 한 다래 여다 놓고 한 개 모자라서 마자 가서 찾아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께 ‘이 세상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 똑같다.’

[일광면 설화7]

## 헌 것에서 새 것 나왔다

허석(남, 1946년생) 구술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사위가 저거 마누라 아를 낳는다고 산부인과를 떡 가니까, 딸을 낳았단 말입니다. 딸을 낳으니까 안자 분만실 앞에서 인자 탁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까, 장모님이 찾아왔는 기라.

“그래 어야 김서방, 아 뭐 낳는가?”

라고 하니까,

“예 장모님, 저 헌 것에서 새 것 나왔습니다.”

이랬거든. [일동 웃음] 장모님이 하도 그 사위가 괴썸거든. 그러니까 인자 사돈네 집을 쫓아갔는 기라, 사돈네 집을. 그란께 그 사위 아버지가, 아이 금방 저그 메느리 아 낳는다고 했는데, 안사돈이 찾아왔거든요. 그 랑께로,

“아이고 이런 시골마당에서, 아이고 안사돈 빨리 오소, 어서 오이세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는께로, 마룻바닥을 뚜들면서 흑흑 울거든요. 우니까,

“아이 저 사장님, 와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아들을 어떻게 갈쳐서, 내가 우리 딸래미 아를 낳아서 가서, ‘어야 김서방 아 뭐 낳는가 이란께네, 헌 것에서 새 것 나왔습니다’ 이라이, 이런 이런 사위가 어딴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갈쳤습니까(가르쳤습니까)?”

하고 마 마룻바닥 뚜들면서, 인자 그 사위 아버님, 바깥사람한테 통곡하고 울거든.

그런께 뒷방에서 팔십 된 노인이, 사돈이 딱 나와서 같이 마 인자 마룻바닥을 뚜들면서 울거든. 울다보니까는 직계 사장님은 안 울고 있는데, 노사장님 와서 울고 있거든.

“아이고 노사장님, 어떻게 울으십니까?”

“예, 사부인 댁, 나도 십년 전에는 이 십리 밖에 있는 여자는 전부 내 여자였는데, 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이네요.”  
그라거든.

그런게 그게 무슨 뜻이냐모, 설령 내 손자를 잘못 갈랐으니, 사돈한테 그런 얘기를, 내 손자가 그런 얘기를 했겠냐? 어떻게 이 어려운 사돈네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말이라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

[일광면 설화8]

### 자식 죽여 시아버지 병을 고친 효부[산삼동자 이야기]

김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시아부지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인자, 사람을 인고기를 먹으면 낫는다 카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녀의 사람을 잡아줄 수가 없고, 메느리 인자 한 날은 인자 가만 생각허이, ‘자기 아들로, 알라로(아기로) 인자 서너 살, 언자 머시마로, 저거로 삶아가 드리몬 인자 우리 아부지 낫을란가.’ 하매, 그래 알라로, 저그 알라로 인자 잡아 술에 고왔어.

고아가 인자 시아버를(시아버지를) 드렸는데, 그래 시아버가 낫고. 시아버가 먹을라고 퍼가 갔는데, 얼라는 지 뒤에 서가 있고, 즈그 아들은 인제 뒤에 서가 있고, 그 시아버이 그 삶은 국그릇에는 삼이 한 뿌리 들 었더랍니다. [조사자 : 인삼이?] 예, 동삼이라 그래. 거기 그래 효자질로 그래 하는김더. [조사자 : 효자라서 그래 인자.] 효자라고 인자 시아버이 드릴라고, 지 마음, 진심으로 지 자숙이라도 삶아가 먹인다 카는 그걸로서 했는 기가 얼마나 효자고 그지요? 그런 진실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일광면 설화9]

## 소변 보다 게에게 물려서 낭패 본 며느리

김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1년 3월 13일 채록

[용천리 대리마을 대리마을회관]

옛날에 날이 마이( 많이) 가물어가, 요새는 못도 있고, 물이 많이 땡기지마는, 또랑물만(도랑물만) 쫓 내리. 날이 대기 가물야노이, 인자 시아바이가 인자 물 퍼리 가면서로, 물로 양지(양채기)로 퍼 넣었거든, 논에다.

며느리가 인자 밥을 이고, 밥을 소쿠리 담아 이고, 인자 물 주러, 물 퍼는 데 시아바이 밥 갖다 주러 가다가, 들어와 가다가 어찌기 오줌이 낸지(마렵는지), 이거로 안 내라주몬(내려주면) 못 누(누어). 앞아가지고 이고 마 한 주섬(조금 정도) 내라 오줌을 높거든(누었거든). 오줌을 싸누이, 그릉(조그만 하천) 옆에 누이 기(계)가 비 읊다꼬(왔다고) 물 보고 마 슬슬 기올라가 메느리 그거로 딱 물어뿔어. 물어뿔니 이래가 마 띠도(떼도) 몬(못) 하고 한 쪽서 떨리 카이 땡기모 더 아프거든. 저 건네 질에(길에) 인자 중이 하나 지내가는 기라.

“아이고 스님요, 스님.”

부르이카네, 그래 스님이 휘뚝 돌아보이,

“여어 오세요.”

해서 스님이 가봤거든.

“거 이(이거) 좀 띠 줄라.”

카거든. [일동 웃음] 그래 스님이가 인자 입을 가 기 다리로 물어야 될 거 아니가. 딱 물어야 떨 거 아이가. 딱 무이카네, 마 스님 입으로, 기가 두 다리 아가, 한 다리는 메누리 뭐 물고, 한 다리는 중 입을 물어뿔네.

둘이가 입을 떡 대노이, 시아버지가 ‘와이리 밥을 안 가오노?’ 싶어, 물로 퍼다가 배가 고파서 살살 나오이카네, 중놈은 메누리 사타리 떡 머리 박아 놓고 있고, 메누리는 밥 다리 떡 이고 있거든. 그래 잘에(가까이에) 가보이 그 모양(모양)이라. 그래 인자 시아바이가 인자 근근(겨우) 띠놓고(떼어 놓고), 띠가주 그래 놓으이카네, 중놈이 떡 일어나더만은, [웃으며]

메느리 한단 말이,

“와이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 아참 중이가 내 잘못 했다. 중이가 인자, 그대 놓고 인자, 일어나지고 지 입을 부러놓으이카네, 나발로, 나발로 내가주고, 요요 입을 문 데 나발로 확 불으이 마 기가 떨어지거던. 바람에 떨어져. 메느리 한단 말이가,

“와이고 세상에, 세상에 꺼급다(꺾끄럽다) 꺼급다 중놈 대가리같이 꺼끄러운(꺾끄러운) 기 없다. [일동 웃음]”

이러카이, 중이 한단 말이,

“참, 별놈의 짓 다 보겠다. 불다가 불다가 십나발은 처음 불어왔네.”

카더란다. [일동 웃음]

[일광면 설화10]

### 꽃감을 무서워한 호랑이

김성남(여, 1935년생) 구술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남경로당]

애가 우니까네, 인자 호랑이 온다꼬 말해도 자꼬(자꾸) 우니까네,

“꽃감 줄게 울지 마라.”

애가 딱 그치니까네.

그래 인자 호랑이가 꽃감이 지카면(자기보다) 더 무서운 갑다 싶어가고마 가뵈다(가버렸다) 안 하나.

[일광면 설화11]

### 피를 내어 부인 호강시킨 남편

김성남(여, 1935년생) 구술  
2012년 2월 11일 채록  
[이천리 이동마을 남경로당]

옛날에 저 노부부가 돌이가 살았는데, 인자 아들딸이 오남맨데. 두 부부가 살았는데, 영감이 영감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가니까네 인자 머리를 썼는 기라. ‘내 죽고 나쁜(나면) 할마이가 아무리 자숙이 효자라 캐도 내 죽고 나쁜 할마이가 고생된다’고, 그래가 하루는 떡- 산에, 산에 가가지고 이쁜 돌로 하나 주와 가지고, 돌로 하나 주위가 그 돌로 다듬어가 금방에 가서 금을 입혔는 기라.

금을 입히 가지고. 그래 인자 당세기로, 요 이쁜 당세기로 짜가지고, 인자 금돌 그거를 딱- 넣어놓고 쇠통(열쇠)을 딱 채워놓고, 아들들이 오면 쪼개만(조금만) 요래, 금만 쪼개만 요래 비이거든(보이거든). 비이니까 아들딸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 ‘하, 우리 아버지가 저 뭐를 여놓고(넣어놓고) 저렇게 세상에나 안 보여주고 열쇠 채워놓고 저래 저러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 아무리 물어도 갈차주지(가르쳐주지) 앓고 엄마에게 물어도,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라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저래 하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실 적에 그 열쇠로 할마이를 주매(주면서),

“절대로 이 열쇠로 아들 주지 마라.”

카거든. 아들 주지 말라 카고 아들딸들이 이거 뵈이(보여) 줄라 캐도 뵈이주지 말라 카거든.

“그래 뵈여주지 말고 그거 그대로 가있고(가지고 있고), 아들딸이 뵈고 함 보자 카거든

“나는 모른다.”

“열쇠 어딴노?”

하면은,

“나는 모른다, 무조건 모른다.”

하라 카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마이가 인자 이리 있으면서 금 그기 암만 봐도 금이거든 노란 게.

이거 뭐 아들딸들이 맛있는 거(것) 사다 엄마한테 마 자꾸 가오거든. 이놈도 가오고(가져오고) 저놈도 가오고. 이거 함 보자 캐도 엄마가 열쇠 어찌 봤나 해도 모른다 카거든. 무조건 모른다 카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자기 살아 생전까지는 모른다고 열쇠를 안 주고 있다가 그래 마 아들딸

들이 마, 자기 상다리에는 맛있는 거고 좋은 거고 막 사다주거든.

그래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인자 이 열쇠로 큰아들로 딱 주는 기라. 주고 자기가 돌아가실단 말이야. 그래 그동안에는 호강했지. 잘 먹고 호강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초상치고 나서 아들들 오남매면 뭐 또 쇠로(열쇠를) 이제 낄러(열어) 봤다. 낄라가지고 보이까네, 이만한 금덩이가 들어가 있거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언제 이런 금덩이를 갖다가 놔놨는고.’ 싫어가지고 인제 딱 금방에 갔다. 금방에 가서 떡- 감정을 해 보이니까네 금 맥기칠(도금)을 해 놓은 기라. 맥기칠로 딱 해놨는데, 그게 돌 밑에다가 글로 써 가지고 여 봤더란다 아부지가.

‘미안하다, 내 죽고 없으면 엄마가 고생될까봐 내가 이래가지고 너거들로 속여서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딱 글로 써가지고 그래놨더란다. 그래 인자 아들딸들 오남매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참 이만큼 이랬는갑다.’ 싫어가지고, 어마이 그래가지고 저거 오남매들이 화목하게 그래 인정 있게 살더란다. ‘우리 인정 있게 살아야 되겠다.’ 캐가지고(해가지고) 그래 살아가지고, 할매도 고생 안 하고 그래 세상을 떴다.



### 3. 장안읍 설화

[장안읍 설화1]

#### 시집살이로 참았던 며느리의 방귀(17)

이두애(여,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기룡리 기룡마을 기룡마을노인정]

옛날에 시어마, [말을 바꾸어] 메늘이가(며느리가) 얼굴이가 헬장거든 (핏기가 없이 하얗거든). 그러이 시아바시가,

“아니고 야야, 니가 와와 얼굴이 그래 헬장노?”

“아부요, 내가 방구로 못 끼가, 참아가지고 얼굴이 헬장습니다.”

카이,

“아이고 야야, 니가 방구로 못 참아가 얼굴이 헬가몬 그라모 되나. 끼라.”

“아부요, 내 방구는 못 낚더.”

카더란다. 그래,

“아부요, 내가 요쪽에서 끼지요. 조쪽에 가가주고 집을 쫓 받치고 있으소. 쫓 거 하고 있으소.”

이래 해놓으이카네, 그래 이쪽서 방구를 끼면 저쪽서 할배 마, 할배 여 저 집 이거 빨잡고 있는 거 마 집이 한 쪽 찌부덩 넘어가거든. 방구가 움팡(정말) 씨놓으카네(세니까).

“와이구 메늘야, 이쪽 오가(와서) 끼라, 이쪽 오가 끼라.”

캐놓이카네, 그래가 인자 저쪽에 가 끼이카네 집이 마 딱 발라지더란다.

[장안면 설화2]

#### 내 방귀 달지쇼?(17)

이두애(여,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기룡리 기룡마을 기룡마을노인정]

저 저 뭐고 시아바시가 인자 오줌짱구로(오줌장군을) 두고, 시아바시는 오줌짱구로 두고서러 가고, 메누리는 저 저거 뭐고 오줌동우로(오줌동이를) 이고 가는데, 뒤에 시아바시 따라 오는 줄 모르고, 신랑인 줄 알고,  
“서방님, 내 빵구 다지요.”

커고 함(한 번) 돌아보이 [웃으며] 시아바시거든. [웃음] 시아바시라노이 카이네(시아버지라서) 마 이 메누리가 마마 마마마 저 섯골로 밥 하러 안 나왔던가 봐, 시아바시 뵈기 부꾸러봐가(부끄러워서). 그래 저저 뭐고 신랑이 물으이까네,

“그래 니가 와 새벽에(새벽에) 밥을 안 나올라 카노?”

“아부이 뵈기 부꾸럽어 못 나가고.”

“와 부끄럽노?”

그래이,

“오줌짱구 진 거 당신인가 여기고, 내 방구, 저 빵구로 끼 놓고, 내 빵구 다쵸 캐노이, 돌아보니 시아바시더라.”

캐가, 어찌 부꾸럽어 뭐라 카네. 그래 인자 신랑이 연구도 있어.

“아이구, 아버지가 귀가 어둡운지 빵구소리로 듣기나.”

이라거든.

“방구소리, 아부이 귀 어둡습니꺼?”

“그래. 니 한문 아부이보고 말해봐라.”

인자 아바시잘에(아버지에게) 의논을 짰어.

“저 아부지요, 아부지요. 메누리가 무슨 말 하거든 아부지 들어도 문들은 척하고 있으세.”

이라이거든. 딱 짰어. 짜이카네, 그래 인자 아바시잘에(아버지에게) 그이까(그렇게 하니까),

“에이 그래, 내 그라꾸마(그렇게 하마).”

그래 인자 인자 나와가지고 마,

“아부이 뭐 저 저거지기 한 분 해봐라.”

하니까네, 그래,

“아부이요, 아척(아침) 잡수소. 오시소.”

들어도 모른 채로, 인자 마마 저 엉뚱 일하고 있으이까네 또 잘에(결에) 가,

“아부이요, 아척 잡수러 오시쇼.”  
또 못 들은 채로 하고 막 또 이라이카네, 짚에 인자 가가,  
“[큰 소리로] 아부이요.”  
이라이,  
“응?”  
커고, 떡 들어이카(들으니까),  
“밥 잡수러 오소.”  
“응, 그래. 응 알았다.”  
이러니깐, ‘아따, 우리 아부이가 마 내 방구소리로 못 들었는갑다. 인자  
귀가 저마이(저만큼) 어둡은까네, 빵구소리 못 들은는갑다’ 싶어, 그래 인  
자 그 이튿날부텀 마 마 밥 하러 나와가 잘 하더란다. 아따 그래가 열매  
나 웃었는동.

[장안읍 설화3]

### 저승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새순애기

이두애(여,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기룡리 기룡마을 기룡마을노인정]

옛날에 그래 저저 메느리가, 그래 젊은 사람이 그래가 죽는단다. 나  
만사램이(나이 많은 사람이) 마 죽치고 안 됐는데, 젊은 사램이가 그때  
메누리 인자 저승차사가 인자 메눌로 잡으러 오거든요. 오이까네, 그래  
저저 메느리가 안자,  
“그래 아부이요, 아부이요. 내 대신에 가소.”  
이라이까네, 시아바시가,  
“니 대신 니가 가고, 내 대신 내가 가지. 니 대신 와 내가 가?”  
카매, 마 메눌 대신 안 갈라 카거든.  
또 시어마시잘애,  
“어무이요, 저저 아무 날 내 저승차사서 날로 잡으러 어무이가 대신  
갈란교?”

그래, 어무이도,

“니 대신 니가 가고 내 대신 내가, 니 대신 와 내가 가.”

이라거든. 이래놓으이까네 그래 인자 부뚜막에 흐른 밥띠가 싹이 나는교,  
그지요? 그래 인자 죽으맨시러 가매, 저승차사가 잡으러, 잡아 가는데,

“부뚜막에 흐른 밥태(밥티에) 싹 나가든 내 오꾸마.”

이래이, 부뚜막 흐른 밥씨가 싹이 나나.

“동솔에(옹달솔에, ‘동솔’은 옹달솔의 경상도 방언) 앓힌 달이(닭이) 췌  
치거든 내 오꾸마.”

동솔에 잡아가 앓힌 달이 췌 치나? 그러이까네 저승 가이 못 오는 기라.

그래가 안자 저 애운애기 인자 잡으러, 애운애기 인자 짚에 가이까네,  
그래 애운애기가 그래 애린(어린) 자숙 놓아놓고, 그래 그래,

“시어마시 시아마시 남의 식모짚에 놔놓고 왔다.”

카이까네, 그래,

“가라.”

카더란다. 저승차자가 안자,

“어른들 모시고, 애린 자식 보고 가라.”

하더란다. 가라 카이까네, 메느리 저기 오는데, 시어마시가 어서 오라고  
손을 찻어. 어서 오라고 손을 치이깐, 가라고 손 치는가 이이교(여기교),  
막 그 질로 가가 마 안 오거든. 그래 놓으이까네 이 젊은 사람이 그래  
놓으니, 이 사람이 한 분 가면 다시는 못 온담더.

#### [장안읍 설화4]

### 본처 딸을 구박한 의붓어미

이두애(여,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기룡리 기룡마을 기룡마을노인정]

이전에 다신에미(의붓어미)가 어찌 어찌 이양카는지(성격이 사납고 나쁜  
지), 저 딸로 본처 딸로 동지선달에 무슨 산에 나물이 있는교? 동지선달에,  
“가가 산에 나물 캐가 오라.”

이라이카네, 그래 이 처녀가 바구미를(바구니를) 들고 산에 올라가, 짜다  
라 울고 올라가이, 외딴지 집에다 이상한 총각이가,

“어데 마 왜 이리 이 산 처녀가 이래 울고 오노?”

이러이까네,

“우리 집에 다신에미가 동지선달 무슨 나물이 있어 날로 나물 캐가 오  
라고, 그래 저 쫓더라.”

이카네. 그래 이 총각이가 쌀로 싹싹싹싹 씻디마는, 뜨물로 마 수차게 확  
뿌리이까네 마 나물이 빠락빠락빠락 올라와. 마 그래 나물로 마 한 바가  
치 마 캐주거든, 총각이가. 이러이카네, 마 다신에미가 ‘이 동지선달에 무  
슨 나물이 있어가 요래 좋은 나물을 캐가 오나’ 싶어가지고.

또 인자 다신에미가, 또 인자 밭 없는 독에, 밭 없는 독에, 그기가(그  
것이) 시루겉은 독에, 그기 물이 한 기 실어 지는교?

“니가 밭 없는 독에 여게 물로 실어 부아라.”

카이께네, 그래 참 짜지러 울고, ‘밭 없는 독에 여째 물로 실어 부으모  
(부으면) 이 하노’ 싶어가지고, 짜지러 울고 들봐다(들여다) 보고 울고 있  
으이, 송아지가 ‘음메’ 커고 오더만은,

“그래 와 우노?”

이라거든, 송아지가 말로.

“와 우노?”

커놓이,

“우리 다신에미가 여게 밭 없는 독에다가 날로 물로 한 거 실어 부아  
라 캐가 내가 그래 운다.”

“그라몬 내가 밭에 늪우가 여 밭에 늪어가지고 막고 있으꾸마. 물을  
저다 부아라.”

이라거든. 그래 마 소안치가(송아지가) 밭 없는 독에다 떡 늪어가 떡 이레  
막고 있으마 물로 찬기 질어다 물이 한기(가득) 되거든. 돼 놓으이까네,  
그래 다신에미가 ‘희한한 일이다. 물통에다 질어다 부어라 캐이까네 또  
물이 한기 됐제. 이 동지선달에 나물 캐오라 카이 나물도 한거 캐 왔제.’

이래가지고 마 그라디만은, 또 인자 또 인자 안 돼가지고, 이 저거 딸  
은 낱두놓고, 이 쥐로 한 바리 잡아가 뺏기가지고(벗겨가지고), 인자 이  
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깐, 쥐로 한 바리 잡아 뺏기가지고 이 마

지 본처 낳은 딸아 그거잖애, 마 차는데 가 밑구녕에다 마 영어뻘어, 처매 밑에다가. 여놓고 깨йка네, 어마이가 그거로 쥐로 지가 잡아 여놓고, “애 이년아, 애 이년아. 니가 언 놈강 니가 이래가지고 애 유산이 됐노?” 이러이 마, 그래 또 애민(영똥하고 터무니 없는) 말로 덮어씌와. 덮어씌우더마는, 낸중에는 마 기기 죄가 많애가 저거 딸 하나 있는 기기 마 마 산신령이 물고 갔봤더란다.

그래 양심으로 그카이 묵고 살아야 된다, 그지요? 그래 죄가 많애가 저거 딸로 산신령이 물고 갔부더란다.

[장안음 설화5]

### 바보 신랑의 하룻밤 경험

이두애(여,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기룡리 기룡마을 기룡마을노인정]

바보가, 총각이가 바본데, 장개를 가놓으йка네, 이 처녀는 인자 조금 모지래도 인자 서울 사램이고. 바보가 장개를 가놓으йка네, 마 마마마 뻘 달을 살아도 마 여자를 모리거든.

여자로 몰라놓으йка네, 그래 마 누가 인자 친구들이가,  
“그래 저 저 우째 우째 한다. 그래 해라.”  
이라йка네, 그래 참 그래 하이까네, 그래 거 하룻밤을 잤어.  
“자йка네 와따 대게 짚으더라(짚더라).”  
이라더란다.

[장안음 설화6]

### 원효대사가 공부한 칙판삼

김영순(여, 1936년생) 구술  
2011년 3월 5일 채록  
[기룡리 하근마을 김영순씨 자택]

그래 책판암(척판암)에 가면은예, 그 바위 위에 책판암 절 위에예, 산 먼디(꼭대기) 거 가몬 바위 우에 쪼그만한 거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공부로 했는데, 그래 공부로 하맨서는, [말을 바꾸어] 또 대충 쪼금 들었는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인자 뭐 그 자기가 이래 머리 쓰고 있는 거 책판암, 그기 인자 스님들 여 뭐 쓰는 게 있대요. 그거를 떠졌는데, 그래 그기 널으쨌가지고 그래 뭐 어데서 거 했다는 거기까지빰이 못 들었어예. 잘 몰라요. 거 가면 다 거 장안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더. 그런 데가 책판암 절 그기 책판암이라 해요, 그래서.

[조사자 : 그렇지. 판자떼기를 던졌다고 그래가지고.]  
 떠졌는데, 그래가 그기 지금 원효대사가 거기서 공부헨 자리라는 것을, 우리 장안사에 있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장안사 책판암

[장안암 설화기]

**산이 솟아오르다 멈추어 큰절이 못된 장안사**

김영순(여, 1936년생) 구술

2011년 3월 5일 채록

[기룡리 하근마을 김영순씨 자택]

어느 스님이 그래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더라고. 그래가 아침, 아침에 밥을 하다가보이까네 부엌에서 불로 때는데, 장안사 앞에 산이 막 타-악 올라오더라



장안사 전경

하네예. 그래서 부지깽이로 탁 나가지고,

“아-, 저 산이 와 저래 올라오노?”

하면서로 마, 그래가지고 그기 그 산이 안 올라오고, 거기가 중앙이 못되고, 서울이 못 됐다 이라더라고예. [조사자 : 그대로 멈췄네.] 야. 거기서 딱 멈췄부. 그래서 서울이 못 되고, 장안사가 요대로뻥이 못 있었다 카는, 그런 이야기로 어느 스님이 하더라고요.

[장안음 설화8]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17)

오정숙(여, 1936년생) 구술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아들이 외국 배 타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장님이더랍니다. 장님인데 돈은 없제, 머 고기반찬은 못 하제, 매일 같이 메느리, 지렁이를 한 바리씩 해가이고 줬어. 그이까 너무 맛있어가이고, 아들 오몬 자랑 시킨다고 이불 밑에다 하나 하나씩 쌓어 놔더라예.

아들이 외국 배 타고 오이까네 마, 자기 엄마가 허영한 기 살이 찌가이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이 참 좋네.”

이러이깐,

“아이고 야야, 다른 게 아이고 매일 메느리가 고기반찬을 해주가이고, 니 즐라고 너무 맛있어가 영어왔다.”

들시는데, 그 지렁이로 소복히 영어왔더랍니다. 그래 아무꺼도 머 생활이 너무 곤란해가이고 없어도, 그 메느리 기 인자 준다고 준 그것이 효자가 됐는 기라 인자.

그래 그 지렁이 그기 굉장히 양분이 많다 아닌교. 그걸 묵고 살이 찌가이고 불통한 허영이 있고, 그 그걸 아들 준다고 줄 때마다 하나씩, 영어 줄 때마다 영어봐놓고 하나씩 영어봐놓고, 아들 와가 들시가 주니까네 전신에 지렁이.



[장안읍 설화9]

## 내 방귀 달지요?(2)

오정숙(여, 1936년생) 구술  
2011년 3월 12일 채록  
[길천리 길천마을 길천리회관]

옛날에 인자 할아버지, 시아버시 시어머니, 그러이까네 아들 메늘 이래 가이고 오줌, 똥장군이 메고 똥 치러 떡 가는데, 신랑이 자기 마누라가 여, [말을 바꾸어] 아니 각씨가 가면서로 신랑이 지 뒤따라 오는 줄 알았는데, 지 뒤따라는 시아버시가 따라왔는 기라.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저 인자 오줌, 똥을 이고 가다가 똥구(방귀)로 똥 짚는 기라. 똥을 끼이카네,

“아이고 보소. 내 똥구 다지요?”

이러이까네 대답이 없으이,

“와 이래 대답 안 하고.”

돌아보니 시아버시라. [일동 웃음] 그래가 인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꺼? 집에 와가이고 인자 딱 싸짚어지고 삼 일을 드러누봐가 있었어 인자. 드러누봐가 있으이까네 인자 시아버시가,

“오늘 메느리가 이래이래 해가이고 내한테 저런 말을 해놓이 부끄럽아서 못 나온다.”

이라이카네, 시어머시가,

“그라모 보소. 온 아침에 일찍 나가가이고 저 마당을 씨소(쓰소). 마당을 씨면은 내가 막 불러가 ‘이놈의 침지야’ 불러가 새벽부터 썬다 캐도, 당신은 전혀 못 듣고 귀 어둡은 양 하고, 못 듣고 있으라고 말이지. 그라면은 메느리가 ‘아하, 우리 아버지가 전연 못 듣구나.’ 이래 할테이칸.”

그래 그날 아침에 인자 영감쟁이가 저 마당 썬다고 서 있으이칸, 할마이가 방에서러 새벽부터 자는데 마당 썬다고 인자 괄(고함)을 지기싸도 영감쟁이가 모르고 있어요.

“와이고, 저놈의 영감쟁이, 콧궁가리가(콧구멍이) 마마 어둡어도 짹-짹 맥혔다.”

카이, 메느리가 가만이 들으이,

“아이고 우리 어무이가 저마이 저래 썼는데, 하나또 못 듣는 거 보이까네, 못 듣는 거 보이까네 우리 아버지가 그날 내 마, ‘내 방구 다지요?’ 카는 전혀 못 알았겠네.” [일동 웃음]

그날 아침에 털고 나와가이고 밥 해가이고 밥 먹고, 그래 그 옛날 사람이 [강조하여] 참- 지혜가 그런 지혜로서리 메늘로 참 오해 없이 나온 게.

[장안음 설화10]

### 재치로 주인 과부와 혼신한 머슴

김옥이(여, 1925년생) 구술  
2011년 3월 1일 채록  
[오리 대룡마을 대룡노인정]

그래 옛날에 그래 인자, 이 저저 머슴을 데리놓으이까네(데려다 놓으니), 이놈의 저 머슴이, 한날 세 사는 그 집 머슴이가 주우(바지)는 또 바짜(바꾸어) 입었지마는 이라더라 카대.

이놈의 머슴이가 세경(세경)도 안 받고,

“나는 마 주인요, 저 불만 저녁마중, 촛불만 캐줄라.”

카더랍니다.

“촛불만 캐주몬 뭐 하노?”

카이까네,

“마 우짜든동 돈은 안 받고 머슴으로 살아 줄 끼이카네, 촛불만 캐줄라.”

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에이, 저놈 머슴이가 초당방에 내- 뗏을 하는지, 불만 캐놓고 뭐로 하는가 싶어 살짝살짝 내리 갔거든요. [웃으며] 내리 가이까네, 머슴이가 디기(많이. 여기서는 ‘모두’의 뜻) 벗고 눕어자더라 카대요. 디기 벗고 눕어자이카네, 그래가 벗고 자이카네, 그래가 인자 저 머슴이가 한 단 말이, 저 인자 막 머슴이가, 마 머슴이,

“세경도 안 받고 마 사자.”

카더랍니다, 주인, 주인잘에(주인에게). [조사자 : 주인 보고?] 그러이 주

인이 부끄럽어 우에 하겠는교 그렇게? 그래가지고 세사는 하리는(하루는) 있다가서러,

“주인요, 주인요. 떡으로 서 되만 해주소, 날로(나에게).”

“마 할라고?”

커이까네,

“저 전부 요래 한 집에 한 넘덕이씩(덩어리씩) 되구로 요래 끊거줄라.” 카더랍니다. 그래가 반티(합지 그릇) 찌고(끼고), 내 앞에다 찌고, 인자 집집마중 갈라줬거든요.

“그래 하이고 야야.”

한 집에 가가이,

“야야, 이게 무신 떡이고?”

카이,

“[웃으며] 잔치, 우리 저저 주인이서러 시집을 갔는데, 잔치떡임더. 한 넘덕이씩 무라.”

카매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 막 그 사람들이 장개도 수월키(쉽게) 잘 가고, 농사도 잘 짓고 그래 했답니다.

[장안읍 설화11]

**취녀들이 바람나는 방모산 호상바위**

김영경(남, 1932년생) 구술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구기마을 구기노인정]

용소 얘기가 거서 나왔다 하이, 거기 인자 지아지고(지워지고), 옛날에 거기 며 전설 걸은 얘기죠. 글런데 지금에는 요새 그런 얘기도 없는데, 그래 이래 방모산이라 카는데, 거게 지금 산이 상당히 예쁘죠? 요쪽에는 윈 자락에 공사하는 바람에 골재 채취한다고 깔가뿌고(깎아버리고) 반이 남아있는데, 저쪽 용소로 보고 있는 그쪽 비알(벼랑)이거든.

그래 우리가 듣기로 나도 뭐 들은 얘기지. 그런 거는 실지가 그란(그

런지) 그것도 모르고, 들은 얘기로는, 그래 인자 그 바위가 드러나면은 용소서 그런 일이 마 여자들이 인자 요새 같으론 바람이 난다 그런 소리가 나고, 그기 안 보이고 숲에 묻히면은 그런 기 없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 인간하몬(어지간하면) 그거 그 위로는 산을 못 치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 중년에는 인자 그런 얘기가 없지. 인자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그러이 별명이, 바위가 호양바위라. 그래 나면야 그런 식으로 여기 그때 전설이 있다 카는 그기고.

[장안읍 설화12]

### 죽은 혼신의 아들과 의형제 맺은 사람

김영경(남, 1932년생) 구술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구기마을 구기노인정]

지금 거기 반구정라 카는데, 지금은 무슨 동이고 내 기억이 그리 몰라. [조사자 : 울산.] 예. 반구정이라 카는 거기에 살았는, 인자 성씨가 이씨 겠지요. 그분이 한양에 과거 보러 간다고 가다가 한강 나무로 타고 가는데, 나무에서, 과거도 보도 안 했는데, 자기 귀에 선명하게,

“이진사님 오셨는데, 잘 모시라. 잘 모시라.”

카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카는 기라요. 그래서 한양 가가지고 과거로 시험을 치렀는데, 진사 급제를 했는 거라.

그래가지고 급제를 해가지고 인자 귀향을 오는데, 예는 그때 요새걸이 (요즘처럼) 교통이 안 좋으니까네, 걸어야 되는 이런 시절에 한강 나무에 와가지고 배를 타야 오는 기라. 그래 배를 타고 나무로 건너다 나무가 전복되요, 배가 전복되가 진사님 거서 작고를 했는 거라예.

그래도 급졌했이니까네 진사는, 그래 이제 자기 집에 그서는 인자 진사 대우를 받고 있는거죠. 그래 그거를 제사 지낼 때, 이진산데 제사 지낸다 카고, 이래 그걸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인자 반구정 거서로(그곳에서), 요새 걸으론 머 심부름꾼을,

서울에 왔다 갔다 전령이라 카는 그런 사람이 서울로 가 일을 보고, 내려오다가 저물방에 나루터에 와가지고, 늦었겠지 머. 그러이 요새 곁으론 자정이 거의 다되가겠습니꺼? 그래가지고 인자 주막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몰라 들어가이까, 그래 허연 노인이 술을 자시, [말을 바꾸어] 아 노인인지 자식이 들어가 몰라 카이 허연 노인이 들오더라 카는 기라. 들오가지고 하이 그래 술을 같이 묵고 얘기를 해쌍다가,

“지금 자네는 어디까지 가는고?”

이래 묻거든. 그래 인자 그 양반은,

“지금 내가 갈 길은 울산 방구정으로 가야 될긴데 몇 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카이께네, 그래 그 어른이 술을 먹고 일어서가이,

“그라모 내 말만 잘 들으모 오늘 저녁 자정으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아 내 말 잘 들으몬.”

“아이고 그런다른이야(그런다 하면야) 얼마든지 잘 듣지요.”

그래가 일행이 되가지고 나루로 건너가지고,

“언눈을 절대 살피지 말고 내 자죽(자국) 뛰는 데로만 뛰라. 그라모 오늘 마 자정에 들어갈 수 있다.”

마 이러이, 그래가지고 있다가 마 참 그 어른 시기는(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뒤만 보고 걸음을 따라온다. 오다가이 참 한 열두 시 되가, 한 시 안 되가지고 울산 방구정에 도착했는 기라.

그래 하이까네 하루에,

“내가 지금 가는 곳은 여기 마 자네도 이진사 덕이라 카몬 알 낀데, 그래 내가 오늘 돌아간 날이 기일이다. 그래서 내가 체사 음복 하라 가는가 어찌 마 가러 가이까, 니가 내일이 아침에 우리 집에 들오가 음복이나 해라.”

이러카민서로 헤어짐에 하는 얘기가,

“니가 만약에 보통 때맨치 집에 가가 편하게(편하게) 그냥 밥 먹고 눕어자면은 빙시가(병신이) 되가 안 되이카네, 딱 씨알이 오장치(‘오쟁이’의 방언) 같은 거 딱 쪼글시(쪼구려) 앉아가지고 그래 자고, 그래 내일 아침에 우리 그 집에 와가지고 음복 해라.”

이러카거든.

“예, 그래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가 인제 밥을 먹고 오장치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청할라 카는데, 짜락 앞에서 아까 그 어른 목소리가 들리라.

“이 사람 자네 있는가?”

“예, 누구십니까?”

그러카이카 그 어른이라. 그럼시,

“자네 사실 내가 아까 그러켰지만, 오늘 제사에 왔더만은 음식에 불길 한 기 있어가지고 내가 음감을 묻하고 가는데, 어 자네 식은 밥이라도 묵던 기 있거든 한 그릇만 도.”

이러카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 양반이 밥을 묵다가 그 한 기 식은 밥이 있어. 한 그릇만 상이사 옹게 채렸겠습니까만은도 한 그릇 졌어요. 주이카네, 참 맛있게 한 그릇 잘 자시고,

“다음에 부디 잇아뿌지 말고 널 아침에 내 그러카는 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길 하고 음복을 해라.”

이라거든. 그래 아침에 갔다. 가이 그때 진사집에 뭐 제사 지냈다 카이 머머 좋하고 이래 있어노이 근사하고 나시이(나서니), 그래,

“우예 왔는고?”

묻거든. 그래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이까네 그 인자 아들되는 분들이 모두,

“와이고, 이 어른 당신 아니라시모 우리 아버지가 골절하고 갔일킨데. 그래도 식은 밥이라도 자시가(잡수셔서) 골절 안한 거 아이가.”

이러카민서, 이래 마 상을 차리가 참 마 누말따나 칙사대접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라몬 니캉 내캉 우리 형제간을 맺자 마.”

그래 의형제를 맺어가 잘 친하기 지냈다 카는 이런 얘기로 하였다 하는 거 조부인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이 그기 인자 무슨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고, 우리도 생각에, 나도 이런 소리 심통 어데 가 합니다만은도, 귀신이 있나 없나 이러카거든요. 안 그러합니까? 그라면은 조부님도 그런 얘기를 더러 했고, 나도 많이 얘기한다. 귀신을 있다 카몬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다. 그라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 그것도 그게 귀신인데, 그 집에 제사 지낸다 카는, 옛날에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요새는 세월이 지나 그래 안 믿지요. 부모

죽어 기날은 그거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요새 제사 잘 안 지냅니다. 안 지내요. 우리 오늘도 어떻게 했지만은, 하는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지사를 왜 지내느냐, 어데 친구들 모른 사람 앞에 할수도 모릅니다. 자식이 되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신 날을, 기일 안 잊어뿌고, 기일 기억한다는 그 행사밖에 안되요. 내 조부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안읍 설화13]

### 책판암 물을 먹고 유명하게 된 원효대사

안귀순(여, 1927년생) 구술  
2011년 3월 1일 채록  
[장안리 상장안마을 상장안경로당]

장안사 책판암(척판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라는데, 그 우리 책판암 절 우에, 그 우리 원효대사가 거기서 공부를 해가, 거서 공부를 해가, 우리 대사를, 그 대사는 그랑(‘개울’의 방언)에 이래 내려오는 물도 안 묵고, 고 내려가면 책판암에 고 가몬 방구(바위) 새 물이 나오구만은. 그 물로 자시고 거서 원효대사 공부한 자리 가몬, 방구가 편편한(평평하고 넓게) 이래 있는데, 어느(어느) 주지가 그 산신각하고 칠성각하고 원효대사 공부한 자리 그 앵기가 그 축으로 만내가(만나서) 많이 육을 봤구만은.

그 책판암 올라가는, 거 올라가몬 바위가 있는데, 산신각하고 있는데 그계서 우리 원효대사 공부를 해가 그래 세계로 땡기매, 세계로 땡기매 판도매다(판때기에다) 글로 써가 세계로 날리고, 인자 땡산(명산), 산에는 땡산자리 절로 내렸고, 들에는 우리 인중 살, 인간 살 범을 내렸고.

인자 장 그래가 내려와보이까네 옛날에 고 책판암 밑에 고 백련암이라 카는 고가 큰 절이 있대. 지금 큰 장안사 거 가보이 참 땡산이 좋아. 참 좋아서러 가만 보이까네 큰 법당 뒤에 이래, 우리는 어른들한테 들은 말인데, 보이 그 물로 묵어야, 그 물로 묵어야 대사가 되겠더란다, 대사가 보이까네. 그래 절 뒤에다 내가 한문(한 번) 그 소리 듣고, 애 듣고(귀기 우려 듣고) 절에 땡기매 보이까네 산태가 무너져가 물이 안 비더라고. 고 뒤에가 아무도 몰리(몰래) 이래 샘이로 파놓고, 고다(거기에다) 쪽빠

이로 딱 띄와놓고, 고 물로 자시고 그 물로 묵어야만 장수가 되고 대사가 되겠다 캐서, 그서 거 큰 법당 뒤에 거 해놓은 물이 나더라 카대.

그래 묵고 거 거 대사가 되가 세계로 날리고, 세계로 인자 산에는 명산자리 절 내렸고, 사회는 인간사로 법 내렸고, 큰 법당 장안사, 큰 법당 유명한 자리. 절은 쪼캔고, 책판암도 책판암 우에 거는 대사가 공부한 자리고. 그래 우리 장안사가 유명하다 카는 장안사래요.

[장안읍 설화14]

**도승이 꼽은 지팡이가 자란 당산나무**

김석권(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장안리 하장안마을 김석권씨 자택]

사라호 태풍 부는 바로 그 해입니다. 사라호 태풍 부는 그 해에 그기에 외따로 이래 있다가 이 어찌 여게 오니까, 어찌 사람이 외따로 살몬 옛날에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기롭고(그립고) 그래가지고, 그래 여 이 집터로 사가지고 인제 같이 이사를 왔는데, 그때만 해도 당산나무가 이래 아주 크게 멋졌어, 더 멋져, 멋졌어. 지금은 태풍이 불어가 뿌아져 있는데, 뿌러져가 이래 있는데, 옛날에 그기 그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거 며 상당히 커가지고 아부지자테 물어도 보고, ‘아이 우리는 자리 모른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 그 정도만 이래 알고 있지.

[조사자 : 그 정도만. 아 아.]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보통 인자 그기 신라나 아니더라도 쪼끔 이래, 쪼끔 이래 뿌라스(+) 해가지고 뭐 이래 나오기는 마 원효대사가 장안사 절을 창건할 직에, 그때 당시에 어떤 도승이 오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래 말이지 유래로서 봐서, 유래로서는 짝지(작대기)를 하나 꼽안 기가 살아가지고 이래가 나무가 이래가 컸다. 이 정도의 마 유래는, 그래 유래는 그래 나오고, 그래 나오고 있는데.



[장안읍 설화15]

### 빈대 때문에 망한 옛날 백련암

김석권(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장안리 하장안마을 김석권씨 자택]

고거는 여기 우리 장안사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옛날에 백련암이 있었는데, 그때는 스님이 개인 사찰 모양으로 이래 경영을 해나오는데, 아주 그냥 쉽게(쉽게) 말하곤 인자, 일반 개인이 인자 저 불자로서는 아주 신도가 아주 좀 투철한 신도죠. 그런 신도가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정썩네 이름이, 존함은 내가 모르겠심더. 모르겠는데 정썩네, 그 어른이 거게서(그 곳에서) 절로 살 때 그때, 그 당시에 있다가 빈대가 넘우 많애가지고, 머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못 살아가지고, 한문 이래 머 나오면서 불로 질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 또 창건을 해가지고 그게 또 괜찮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일을 들었네예.

[장안읍 설화16]

### 용이 머리를 박아서 만들어진 용소 웅덩이

김석권(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장안리 하장안마을 김석권씨 자택]

요 우(위)에 상장안마을, 옛날에는 이 지역이 행정구역이가 지금은 인자 우째 되는 기, 인자 마을별로 해가지고 상장안마을, 하장안마을, 이래 2개 마을이가, 행정상으로는 장안리로 돼 있습니다, 장안리. 지금도 장안리로 돼 있습니다만은.

요 숲 밑에 가면은 냇가에 있는데, 용소 웅덩이라고, 용소 웅덩이라고 용이 머리를 박아가, 박아가 거기 돌이 있는데, 용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그 큰, 이래 거기 저 돌덩어리가 이래 있는데, 보면은 움푹 들어간 데 있

어요. 그 용이 머리가 용손데, 그 바위 양쪽 바위가 있는데, 양쪽 바위 복판을 이래 내가, 넷물이 흐르는데, 거기 보면 안에 바위가, 유명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가 이래 있는데, 복판에다 바위가 인자 큰 게 하나 불룩하게 이래 있구만. 지금도 실지 그런데. 그기 바위가 용소 웅덩이, 용이 가서 활개로 치고 하다가 머리를 박아가 웅덩이가 됐다 카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장안읍 설화17]

### 산의 맥을 끊었다 즉사한 사람

김석권(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장안리 하장안마을 김석권씨 자택]

이 옛날에 왜놈시대 때(일제강점기), 왜정 때, 그 저쪽 가지 하나를, 이래 그 맥을 끊는다 해가지고 그 그 잘랐어요(잘랐어요). 짜르고 나서 그 짜른 사람이 그 벌을 받아가, 벌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즉사했다는 저거 전설이 있습니다.

[장안읍 설화18]

### 뽕당골 떡진바위와 빈대가 끊어 망한 절

김근수(남, 1928년생) 구술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마을회관]

대명에 뽕당골이라 카는데, 거게 인자 큰 절이 있는데, 절이 있었는데, 그 또 절 또 우에 거 말이 큰 바위가 하나 널바다(내려다) 보는, 바위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바위가 떡진바우라. [조사자 : 무슨 바위요?] 떡진 바우. 떡을 찢는데 바우라 카는 거라.

그러모 떡진바우가 있는데, 그 밑에 인자 그 절이 있었는 기라.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인자 만석, 그때는 손님이 많이 오고 했는데, 그라고 난 뒤에는 우예됐는지 마 절에서 빈대가 끓었는 기라. 빈대가 온창 끓어 오르이카네 손님이 마 아무도 안 오는 기라. 그래가 손님 안 오이까네 절이 망할 거 아입니까? 그래서 마 그 질로서 절이 망해가지고 손님하고 그 절이 폐지가 됐다, 마 그 말은 들었지.

[장안읍 설화19]

### 책판을 던져 스님들을 구한 원효대사와 척판삼

문봉연(여, 1931년생) 구술  
2011년 3월 1일 채록  
[명례리 도야마을 도야마을회관]

스님이 그래 범문으로 하는데, 가이까네 그래 이 절이가, 그래 옛날에 오이대사 공부를 하고, 손님이 많이 계셨는갑데. [조사자 : 원효대사하고 공부할 때?] 야. 공부할 때 많이 계셨는데, 어디서 책이 날라오더라 카테 예. 어느 도사가 던져서, 던져 놓으이까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그거 기궁 한다고(구경한다고) 꼭 나와가 있었어요. 나와가 있으이카네 마 집이 없 어지더라 그래.

그래가 스님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그래 이 절이 그렇습니다 커모 그 리 얘기 하더라고. [청중 : 영험 있다고 그제.] 영험 있는 절이라고, 그 절은 영험 있는 절이라고 소문은 났어예.

[장안읍 설화20]

### 치자를 덩쳐 깔고 앉은 용소 자라바위

최 전(여, 1928년생) 구술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옛날에, 옛날에 큰 자래방구(자라바우)가, 방구가 산에 거 있었는데, 방모산에. [조사자 : 방모산에?]

방모산에 있었는데, 그래 예쁜 처이(처녀)가 논에 가서 고동을 조왔어. 고동을 조오이카네, 그 방구하고 이 저저 예쁜 처이 그거 고동 줍는 처이하고 저 그긴 기라. 연분인 기라. 연분이라 가지고, 그래 그 방구가 예쁜 처자가 고동 줍는데 그게 마 덮쳤어. 처자로, 처이로 덮어가 마 깔고 앉아뵈어. 깔고 앉았는데, 지금꺼징 그 인제 깔고 앉아있거든, 방구가. 깔고 앉아 있으아, 그래 그 방구 이름이 자래방우라. [조사자 : 자래방우?] 자래방우. [조사자 : 자래방우 이야기죠. 그 자래방우가 저게 그 용소에 있는?] 용소, 용소. [조사자 : 방모산 밑에.]

[장안음 설화21]

### 달음산 · 삼각산 · 방모산의 이름 유래

방정자(여, 1938년생) 구술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옛날에 여 해일이 되가지고, 해일이 되가지고 달음산은 다래미(다리미)<sup>8)</sup> 하나 옆을 만치 남아 있고, 그래가 달음산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저 삼각산은 삿갓 하나 남아, 덮을 만텀(만큼) 남아 있어가 그래 삼각산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요거 우리 방모산은 바가지 하나 옆을 만동 남았더라 하대. 그래서 방모산이라 카고, 이전에는 이래 했더라 카데. 이전에도 여 해일이 났더라. 요새 저 일본 저거 맨시로(저것처럼) 그랬던갑대.

[장안음 설화22]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2)

---

8) '다람쥐'의 방언일 수도 있음.

주윤례(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3월 16일 채록  
[반룡리 반룡마을 반룡마을회관]

옛날에 아들 어데 저 돈 벌러 가고, 외국이나 어데 가고 없는데, 인자  
엄마를 시엄마시를 모시고 사는 기라. 며느리 혼자 사는데, 인자 하도 살  
기가 어려워가, ‘엄마를 뉘로 해가 반찬 해가 드릴꼬’ 싶어가, 그래 인자  
내 꺼시를 잡아다가 국을 끓이가 드리니까, 할머니 눈이 어둡어서 뺨인  
둥 모리고 무이 맛이 있는 기라.

“맛있어. 야들야 이거 뉘시 이처럼 맛있노?”

커고 마 한 마리 여가(넣어서), 자리 밑에 여놓고 또 한 마리 잡아 자리  
밑에 여놓고 무울 때마다. 그래 인제 아들이 외국 갔다 어데 갔다 와가,

“엄마가 우찌 이래 살이 졌노?”

이라까네,

“그래 며느리, 참 그래 아침마중 저녁마중 끼니 때마중 국을 끓이 주  
는데 맛이 있어가 한 마리씩 꺾지가 자리 밑에 여놔다디만은.”

그래 아들이 내 보고,

“아이고, 엄마 이거 꺼시네.”

커이, 엄마가 마 놀래가지고 눈을 퍼쩍 떴부더란다. 그 이야기다.

[장안읍 설화23]

### 용이 올라간 송똥웅덩이

손봉주(여,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용소리 용소마을 용소마을노인정]

그래 요 우에 올라가몬, 송똥웅덩이(송똥 웅덩이)라 카는 웅덩이가 큰  
기 있거든요. 그 옛날에 용이 나와가지고, 어 화(化)해가지고 용두암을  
날라갔는데, 그래 인자 용두암이라 카는 기라요. [조사자 : 아, 용두암.  
바위도 있는교?] 인자 바위는 그 우에 많이 있음더. [조사자 : 용두암이

있고, 그 밑에 못은?] 못은 웅덩이, 여 골짜기서 내려오는 물이 꺾히가지고(고여가지고) 웅덩이가 있는데. [조사자 : 그거를 뭐라 하는교? 그 웅덩이를?] 송뚥웅덩이.

[장안음 설화24]

## 시집살이로 참았던 며느리의 방귀(2)

손봉주(여,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용소리 용소마을 용소마을노인정]

옛날에요 메느리(며느리)가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 마 메늘(며느리를) 보이까네 얼굴이가 노라이(노랑게) 해가 있거든.

“그래 메늘아, 와 얼굴이가 노랑노?”

이러카이까네,

“아부이요, 내가 방구로 못끼가 노랑심더.”

이러카이, [일동 웃음]

“그래 야야, 마 방구를 끼라.”

캐이, 모티(모통이) 가가 방구를 뽕 끼놓이까네 마 집이 빼딱하더람더. 그래 이쪽 모티 가 끼이놓이 집이 딱 바리(바로) 썼부더람더. [조사자 : 아아, 그만큼 참았네요.]

[장안음 설화25]

## 은혜 깊은 두꺼비

김분순(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용소리 용소마을 용소마을노인정]

아침마당(아침마다) 요리 뛰와, 자꾸 아가씨가 밥을 주이 내 오더랍니더. 오더라 카는데, 그 집에서 억수 가난해서, 그래놓이까네 그 제당에, 마 이런 데 같으면 제사로 지내는데, 거는 처이를(처녀를) 하나 갖다 영

는담더(넣는답니다). 갖다 열므로 재산을 많이 준다 캐가지고 처이를 갖다 여놓으이까네, 그거 마 밤중 되이 지네가 마마 천장에 쳡이(‘키’의 방언) 짝 같은 기 기댕기더랍더. [조사자 : 오호, 지네가?]

그런까네 뚜꺼비가 들어오더랍니더. 뚜꺼비는 독이 들어품는 기 한 구영(구멍)이고, 지네는 여러 궁가리(구멍) 품더라 카네. 그래 뚜꺼비가 지네를 찍이뿌더랍니더. 그래 그 처이가 살아놓으이카네, 마을사람이 떡 인자 시신 치우려고 보이께네, 안 죽고, 처자가 살은 기 기적적이라 카더랍니더. 그 얘기밖에 [웃으며] 할 기 없기 땀에. [청중 : 밥을 쥐놓으이.] 밥을 쥐놓이카네, 도모한다고(도와준다고), 은혜한다고.

[장안음 설화26]

### 내 빵귀 달지쇼)(37

김분순(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용소리 용소마을 용소마을노인정]

옛날에는 저저 오쭈장구(오쭈장군)를 지고 인자 오짐(오쭈)을 치러, 참 오짐을 치고 마 이고지고 이래 가는갑는데(간다고 하는데), 그래이 신랑이라고, 뒤에는 신랑이라고 마 마누래가 오쭈동우(오쭈동이)로 이고 가다가 방구로 풍 끼뵈네.

“내 빵귀 달지쇼.”

그이, 아무 대답이 없더라네. 휘뜩 보이 시아바지라. 그래 미안할 수가 어땀겠는교. 고마 방에 드가디 한 사람은 나오지도 안하더랍니더.

그래가 어짖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얘기로 인자 영감이 그랬다 카는 가배. 그래,

“내가 빵구로 다지 카는 기로, 내가 아무 소리, 돌아보이 내라노이(나라서) 그래 안 나온다.”

이래이, 그래가 마 영감쟁이가 마당을 슬슬 쓰이카네,

“저놈의 침지 저거는 귀가 어둡어가 여간 뭐라 캐도 듣도 못하네.”

이래뿌더란다. 그래가 그라이꺼네,

“밥 무라.”

카이께네, 못 듣고 안 하고, 듣고 못 들은 척하고 마 할배가 그랬어. 그  
래가지고 ‘하이고 야고, 참 시아버시가 못 들었는가 싶어’, 마 나와가 괜  
찮더랍니다.

[장안음 설화27]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부인이 모시게 한 남편

손봉주(여,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용소리 용소마을 용소마을노인정]

옛날에요 어떤 사람 보이, 넘우집(남의 집) 메느린데, 시어머시로 마  
안 불라고, 마 내 이래 구박을 줬어. 그래노이까 밥을 작게 쥐놓이 빼빼  
애비가(야위어서) 있거든.

그래 인자 신랑이가 과게 하러 가매,

“내 오가지고(와서) 엄마로 팔 끼이카네, 그 잘 먹이라(먹이라).”

이러카거든.

“살로 지아야(찌위야) 된다.”

카거든. 그러니까 인자 어데 가가 물이으까네,

“꺼시(‘지렁이’의 방언)로 과가 마 삶아 먹이면 살 찐다.”

카거든.

그래 꺼시로 과가 마 삶아가 이래가 먹이놓이, 어띠키(어떻게) 맛이 좋  
은지 아들 오몬 비울라고(보이려고) 자리 밑에 내 숨갔어. 그거로 하나씩  
묵으매 꺼시를. [조사자 : 꺼시를.] 야. 낄디기(건더기)를. 그래 국물만 먹  
고 이래 그거로 했는데, 그래 아들이 과게 하고 오이까네 살이 저가 이  
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그래 인자,

“엄마로 인자, 하루 장에 팔로 가자.”

이러카거든.

“그래 사 가는 사람은 인제 뭐 하노?”

이래 묻거든.



“그래 아도 보고, 밭도 매고 마 이란다.”  
카이까,  
“와이구, 그라모 파지 말고 우리 모십시더.”  
이라더란다.

[장안읍 설화28]

### 여자 말에 득천하지 못하고 멈춘 마이산

최분순(여, 1934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용소리 용소마을 용소마을노인정]

마이산이 인자 득천해가 하늘에 올라갈라고, 두 영감할마가 등실등실  
떠가이, 여자가 보리쌀 씻거러 떡 가이까네, 산이 등등등 뜨거든.  
그래 가만 놔똥이몬(놓아 두었으면) 안자 산이, 마이산이 산이 득천해  
갈끼데, 그 여자가,  
“와이고자꼬, 산이 와 이래 저리 풀풀 날라가노? 걸어가노?”  
카이, 그 마 딱 여자의 마음에, 모진 마음에 딱 지 자리 딱 놓치가 마이  
산이 똥담더.

[장안읍 설화29]

### 사람들 말에 산에서 내려오다 멈춘 자라바위

정주선(여, 1941년생) 구술  
2011년 2월 28일 채록  
[용소리 용소마을 용소마을노인정]

그 용소 요 자라바우가 있거든요. 저저저저 한봉우집 논에 자라바우가  
있는데, 고기 옛날에 산에서 뽕뽕뽕 내려오더랍니다. 그레가지고 사람들  
이 그,

“바우가 내려온다.”  
카이까네, 그래 고 앓아뻐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조사자 : 자래바위가?  
고 말에다 그냥.] 네, 앓아뻐다 카데요. 고고 고 눈에 지금도 자래바우가  
있어요.

## 4. 정관면 설화

[정관면 설화1]

### 달음산과 매남산의 유래

심말라(여, 1925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매학리 매곡마을 매곡경로당]

이전에 어른들 말하기는, 이야기하기는, 달음산(達陰山)에 물이, 천지개  
벽 될 때, 그 물이 그거 달음산, 달음산 방구 짚에(바위 가까이) 거게 물  
이 찼는데(샐는데), 고 다리미 하나 놓을 만치 남아서 그래 달음산이고,  
요 매남산(梅岩山)<sup>9)</sup> 이거는 물이 채가주 있는데, 매 한 마리 앓을 정도  
로 그래서 매남산이고, 그런 이야기밖에 못 들었심더.

[정관면 설화2]

### 쌀 나오는 구멍과 스님의 속심

심말라(여, 1925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매학리 매곡마을 매곡경로당]

어느 대 절, 저 안산에. 안산에 그라몬 수태질 먼디로(꼭대기로) 올라가  
고, 그래 가몬 그 어느 대 절 있고, 장방골로 올라가몬 또 그 질로 그래가  
절이 있는데, 어느 대 절인데, 절도 짜다라 크도 안 해요. 절도 요래 앓았  
는데 절 여 마 숨기(쉽게) 말하자몬 바로 방문 앞기(앞이) 언덕이랴요.

막 이래 언덕인데, 그거로 내가 우째 하냐 하몬, 우리 애릴 때 거 나물  
캐러 많이 갔임더. 나물 캐러 가몬 그 가가지고 늘은밥도 많이 얻어묵고,  
그 절에 가가 늘은밥도 얻어 먹고 그서로 참 그한테, 고게 물이 요래 방

9) 뫼바우산, 즉 매암산(梅岩山)을 이곳에서는 매남산이라 부른다.

구(바위) 밑이 물이 요래 요 대로 짜개(쫓개), 똑 대로 짜개가지고, 요래 딱 구멍에다 끼와 뵈어요, 방구 구멍에다가. 요래 딱 끼와놓으믄 고 물이 출출출출 나오는데, 그래 이전 전설에는 고계다가 탁 신님(스님) 하루 물(먹을) 쌀이 나왔는데, 신님이 욕심이 많애가지고 짝대기가 쭈시뿌가지고(쭈셔가지고) 그 쌀은 안 나오고 물이 나오더라 이카대.

물이 나오는데, 지금어는(지금에는) 우리가 인자 결혼해가 안 가봤지만은, 그래도 함 한 오년되는가 그럴 때 하 비가 대기 왔는데, 뇌성을 해가지고 벼락(벼락)을 방구로 딱 때렸는데, 방구로 딱 때리놓이 방구 속에 부처가 들어 있다고, 안중꺼정(아직까지) 그런 말을 하대요. 우리는 안 가봤심더.

[정관면 설화3]

### 송곳대 놀이

심말라(여, 1925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매 학리 매곡마을 매곡경로당]

이래 이래 묵고, 이래 묵고 송곳대(송기 대)<sup>10</sup>로 이래 딱 되믄, 탁 편지맨서러(던지면서),

“콩알 줍겠나 새알 줍겠나.”

이래 편지고, 또 어떤 사람들, 짓곳은 사람들은,

“어 송늡, 신랑을 거하거든, 칼찬서방 만나지고 무슨 서방 만나지고.”

이래 쌀고, 우리는 애리가지고(어려가지고) 그거는 몰랐어요.

[정관면 설화4]

### 아들 덕분에 좋아진 부부 사이

---

10) 소나무의 속껍질을 벗기고 난 토막.

구여미(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정관면노인정]

저 내덕에 한 집에 인자, 아들이 가마보이 영감 할배 자꾸 싸우거든. 하도 싸워싸서러 이놈이 인자 영감이 할마이한테 가고 짚은데(싫은데), 할마이는 싫다 이거라. 싸움을 하도 해싸서러 인자 방으로 자 거절해서 한싸(‘거절하는 사이에’의 뜻인 듯), 마 큰아들이 마 한문은(한 번은) 마 보리로 짜다라(매우 많이) 비가(베어서) 와가 방아다가(방에다) 콕(콕, 가득) 쳐졌봤거든(쌓아두었거든).

인자 마 아들이 저거 아버지 그 못 가라고 인자, 할마이 그인테 못 가라고 그래 쳐재(쌓아) 놓으니까네, 인제 영감이 헐 수 있는고, 인자 할마이 방에 왔어. 옷채 거게 와가지고 인자 하리 저녁 자고 나이 얼마나 좋았는공, 영감이 아침 자고나이 부석케(부엌에) 재도 다 쳐주더란다.

[정관면 설화5]

### 어머니나 자식보다 더 좋은 사람

구여미(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5일 채록

[매학리 정관면노인정]

옛날에요, 청춘에 과부가 되가, 이 엄마가 딱 아들 하나 보고 늙거든요. 늙는데 아들이 조금 어긋 없는<sup>11)</sup> 모양이지. 그래가 인자 장개를(장가들) 보냈어요. 보내놓이 이 엄마는 아들 고 하나 보고 늙어가 이 아들이 지한테는 얼마나 좋겠노. 금덩어리같이 키우고 사는데, 장개를 보내 놓으이 마 한 일주일 안 오더랍니다. 안 와가지고 인자 어마이는 죽는다고 인자 아들만 기다리고 난리가 났어. 인자 아들 오이,

“아이구 야야, 니가 인자 오나. 내가 니 보고짚어 죽겠더라.”  
이리커이,

11) “어리석고 좃대가 없는”의 뜻인 듯함.

“엄마카마(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 있는데, 엄마 말라구요.<sup>12)</sup>”  
카고, [일동 웃음] 그리 어마이가 얼마나 쾌심겠는교(쾌심하겠습니까)?  
그 질로 옷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이 이놈의 자석, 나는 니보고 살았디 헛거 살았다.”  
카매, 어마이가 마 도망을 가뵈어요. 어들로(어디로) 갔는지, 서울로 가뵈  
어요, 옛날에는.  
그래 가가 인제 안 오니 어마이가, 아들이 나무로 해가 쿡 쳐박아놓이  
저검마가(자기 엄마가) 없거든. 또 아들은 아들대로 우네, 어마이 없다고.  
그래가 이 아들이 누룬밥을(눌은밥을) 줌 끊어가지고 쪼마이다(주머니에  
다) 싸가지고 서울로 갔어. 가니 집집마중 찾아, 어데 어마이가 얼라를  
(아기를) 업고 샅적결에(문 앞에, 집 앞에) 서가 있거든. 얼마나 반갑운  
지 아들이,  
“엄마요.”  
카매 붙잡으이, 탁 털치면서,  
“나도 니카마 더 좋은 사람 있다. 니 마할라고 내가.”  
감서 영감을 얻어 갔어요. 영감으로 가가, 아가 지 아가 아이고 메늘(며  
느리) 아라. 메늘아로 억수로 부잣집에 갔더랍니다. 가가지고 그래가 마  
도 잘 살고, 아들은 아들대로 살고, 그양(그냥) 마 와뵈지. 울고, 그 어마  
이가 마 안 오더라 카대요.

[정관면 설화6]

## 아버지 낭패를 해결한 재치 있는 아들

남영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5일 채록  
[방곡리 덕산마을 정관면노인정]

억수로 못사는데, 나무로 한 짐 팔몬 석 냥이 되는데, 나무로 한 줌 팔  
아가 석 냥 열어가 이래 오는데, 식당 앞에 고기 끊는(굽는) 내가(냄새

---

12) “뭘 할려고요”의 방언. 소용이 없다는 뜻임.

가) 너무 맛있거든.

“와이고, 그놈의 고기 맛있네.”

카이, 주인 할매가 쪽 나오디 마,

“고기값 내놓으라.”

카거든.

“내가 고기를 뵈나?”

“맛있다 켜이니 묵은 거 아이냐고. 석 냥 내놓고 가라.”

카거든. 석 냥 내놓고 가라고 다잡는데(다그치는데),

“이거를 주고 가면 저거 여섯 식구 굶아 죽을 건데, 내일 팔아주지요.”

카고 집에 갔어. 가가 일나도(일어나지도) 안 하고 아랫바아서(아랫방에서) 밥도 안 잡시고 눅였시이 큰아가,

“아부지요, 아부지요. 무슨 일이 있어 이런교? 내가 아버지 소원, 내가 풀어줄꺼이 밥 잡수소.”

카이,

“니가 야야 해결로 못 한다. 이거는 보통 해결이 아이다.”

“마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해결로 볼께요. 아버지 말해주소.”

카이,

“그래 내가 아무데 나무를 팔아오다가 하도 고기내가 맛있어서 와이고 그놈의 고기 맛있다 켜터만은, 할매가 나와 돈 내놓으라 해가, 이거 주고 오면 너거 골끼고(굶을 것이고), 그래 내가 모레 장에 줄라고 캐냈어. 이 걸 어째야 되노?”

“아버지요, 걱정하지 마소.”

카거든.

“니가 우짤라노?”

카이,

“내가 가지.”

“칙(대책) 있나?”

“옛날에 칙있동<sup>13)</sup> 있다.”

카데. 칙 있는데,

---

13) “대책이 있는 듯”의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할매요, 내 석 냥만 빌리 주소. 넬이(내일) 갖다 주꼬(줄게요).”  
그러 카이 빌리주거든. 할매 앞에 가가(가서) 돈을 이렇게 흔드이,  
“하이고 돈내야(돈 냅새야).”  
카거든.

“마 돈 내놓으라고. 니도 돈 내가 나서 묵은 거 아이가. 돈 내놓으라.”  
카이,  
“와이고, 마 할 수 없다.”  
그래가 저거 아부지 빚을 애가뿌고,<sup>14)</sup> 그래 와가 묵고 잘 사더라.

[정관면 설화7]

### 닭소리 흉내로 만나려다 낭패 본 부부

남영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5일 채록  
[방곡리 덕산마을 정관면노인정]

옛날에 옛날에 이래 사는데, 아가 서넛이 되는데, 영감쟁이가 마 다시  
아 때문에 할마이갈에 못가거든. 그래 인자 할마이캉, 할마이캉 의논을  
딱 해가지고,

“이래 내가 꼬꼬꼬 하면 꾸꾸꾸 카매 나오나래. 바아(방에) 두 바쿠(바  
퀴)만 돌몬, 한데 여문간을 나오나래.”

카거든. 그 영감쟁이가,

“꾸꾸꾸꾸꾸.”

카이, 아들들이,

“삐약 삐약 삐약.”

카매 가가 말끔(모두) 여물간에 있어가, 마 그래 놓쳤답니더.

[정관면 설화8]

###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죽음을 면한 사람

---

14) “값아버리고” 또는 “없어버리고”의 뜻으로 말한 듯하다.



남영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5일 채록  
[방곡리 덕산마을 정관면노인정]

이전에 돈 이기 사(死)가 일나는 기 최고 무섭담더. 그래가 이 집에 마  
아를 낳아놓이(낳아놓으니) 죽고, 아를 낳아놓이 세 살만 무모(먹으면)  
죽고, 세 살만 무문 죽고, 마 아가 다 죽어.

점쟁이가 있어 대기(매우) 용타(용하다) 카는 데 점 하러 갔어. 점 하  
러 가이,

“그 돈사<sup>15)</sup>가 일어 그렇다고. 돈사가 일어나 그러이 당신의 청에 마리  
짱을(마루판을) 파뒤비모(파 뒤집으면) 돈이 거 들어있다.”

고. 그 옛날에 부잣집이라.

“그 돈을 물어났다고. 파뒤비라.”

카거든. 점쟁이,

“그 돈을 파뒤비 돈이 나오거들랑 그거로 집에 십 원도 씨지(쓰지) 말  
고, 열어가(넣어서) 웅치(단단히) 쥐고 첫 눈에 떠는 사람 주라.”

카거든.

“네 눈에 처음 떠는 사람만 주문, 네가 자식을 키우고 잘 된다.”

카거든.

“돈이 사가 일나 그렇다고.”

그래 집에 가가 파뒤비 마 돈이 있거든. 파뒤비 마루짱 복판에 돈이  
있거든. 있어가, 그거로 인자 자리에다 열어가지고, 두 내우간에 인자 사  
람 만나러 나간다. 이런 경로당이 큰 기 있었는데, 그래 보이 한 사람이  
떡 오라 카이 겁을 내가,

“내가 아무 죄도 안 지왔는데.”

늪은이가 안 올라 카거든. 그래가,

“오라고 오라고.”

그래 인자 오라 캐가 이거로 가져 가가 땅을 사가 부자가 되라고, 이  
마 겁을 내가 안 가갈라(가져갈라) 카거든. 뒤에 사람은 뒤에 사람 할라  
캐도, 첫 눈에 비는 사람 주는데, 뒤에 사람 절대로 안 주고, 그래 그거

---

15) 돈 때문에 죽는 일

로 가지고 가주 가가 논도 사고 집도 사고 막 큰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인자 자식을 낳아가 잘 키아가(키워서) 그 사람 찾아가는 기라. 가이 그래(그렇게) 잘 살거든. 그래,

“우리가 형제간을 맺어가 그래 평생으로.”

저거 집인데 오라 카거든.

“근처 오가 사자.”

고 털어뿌고, 그래 근처에 가가지고 형제간을 맺어가 그래 부자로 잘 사 더람더. 돈이 사가 최고 무섭담더. 돈 애가 달아 끌어 문을 필요도 없담 더. 있어모(있으면) 씨고(쓰고) 살아야지.

[정관면 설화9]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인순(여, 1933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예림리 서편마을 서편마을회관]

옛날에 애가 하도 울어 싸가지고, 할매가,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캐도 안 그치고 울거든. 우리카네, 그래,

“꽃감(꽃감) 주께(줄게). 꽃감 주께 우지 마라.”

아가 덜렁 그치카네, 아이고 호랑이가 ‘아이 내카마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가봐.’ 카매 돌아가.

[정관면 설화10]

### 백셔수가 나오는 고개

박화진(남, 1928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마을회관]

있잖아 그게 뭐꼬, 아니 정관에서 그 예비군들하고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때는 지금 도로가 안 생겼고, 쪼고만한(조그마한) 이차선, 가고 오고 하는 길밖에 없는 기라. 근데 술을 엄청 콧 먹고 집도 아무도 없고 걸어 넘어오는데, 옛날부터 거기에 그 뭐야 백야수(백여우), 무슨 백야수라 카나, 하얀 옷 입고 나오는 기.

거기 고개 딱 오니까 거게 옛날에 재 넘어오면 못 하나 안 있었나, 그 지? 못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니까, 술이 이마치(이만큼) 콧 돼 올라오니까 이상하게 쑥 가니까, 하얗게 하얀 백새이(백색) 옷을 입었어. 하얀 옷을 입었는데, 딱 무슨 보따리를 딱 안고 내려오더라고. 내 앞을 딱 지나가는데, ‘이상하다. 밤중 밤 한 12시가 넘었는데.’ 돌아보니까 머리는 요만치 잘라 딱 묶은 것 같더라고.

그래 오는데 그게 이상하게 돌아왔는데, 그 나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어느 총각하고 처녀하고 같이 오다가 사람이 오니까 총각은 마남자는 빠져버리고 여자 혼자 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고개를 넘어 오는 거야. 넘어 오는데 그 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거기 백야수가 나온다 카는 전설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허재빈(허깨비)가 아닌가 모르겠어. 그런 기억은 있었어. [조사자 : 정관에서 넘어오는 데요?] 저게서 이리 넘어오는 데, 그런 거는 한 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모르겠고. 무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옛날부터 백야수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정관면 설화11]

## 도깨비불

서영복(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마을회관]

오니까네, 그 마, 도깨비불이 막 이리 막 흔들리더라 카대. 지가 술이 한 잔 돼 놓으니까네. [조사자 : 어디서예?] 요 인곡하고 두명 사이에 고개가 있어요. 그 두명 덕길이라고 밑둥이 큰 기(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

불이 나고 번쩍거리고 이렇더라 카대. 그래가 술로 깨가 그 이튿날 가보니까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카대. [조사자 : 어르신 도깨비불은 아무 날에나 안 보이지요?] 그렇지, 조금 구름이 끼고 충충한 날 많이 뵈지. 많이 뵈는 기라. 그기(그것이) 뭐 전부 옛날 전설이지 뭐.

[정관면 설화12]

### 숫을산 · 달음산 · 백양산의 이름 유래

옥귀순(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두명리 두명마을 마을회관]

천지가 개벽될 때, 개벽될 때 저, 이 바다같이 확 이 물이 다 넘쳐빠고(넘쳐버리고). 그 솔하나 놓을 만치 요래 인자, 솔하나 놓을 만치(만큼) 물이 안 드가가고(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숫을산이고, 달음산은 달 하나(달 하나) 앓을 만치(만큼) 그래가 달음산이고, 저 백양산에는 저 배나갈 만치만 놔두도(놓아두고) 물이 다 채빠떠란다(채워졌더란다). 옛날에 천지가 개벽될 때, 고개 고개 인자 옛날이야기지, 고랬다.

[정관면 설화13]

### 시아버지 새장가 들인 며느리

김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옛날에 저 어떤 사람은 저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인자 며느리가 그래도 효자라서 맨날(매일) 불도 때주고 그래,  
“아버님, 편하게 따뜻하게 잘 주무셨는교?”  
그래 카이까네(하니까),

“마, 메지근(미지근)하더라.”  
 카거든. 그래 또 그 이튼날도 불로 많이 뺏거든. 그래 인자, 오늘 밤에는 너무 뜨거운가? 뜨신가? 싶어가 살(살금) 가가(가서) 보이 까네(보니까), 방이 너무 뜨거버가지고(뜨거워서) 장방 우에(위에), 옛날에 장방이 있거든 이불 었고, 그 우에 올라가 주무시고 아침에 또 그리 문안드리거든. 그래,

“아버님, 오늘 방은 뜨시던교? 잘 주무셨는교?”

카이, 마 또,

“매지근하더라.”

카거든. ‘아이고 안 되겠다. 엿저녁에 보이께네 방이 뜨겁어가 장방 우에 주무시던데’ 그래가 할마이를(할머니를) 하나 얻어다가 들였거든. 그러니 불 쪼금씩만 때춰도 마 이제는 고마 뜨시다 쿠고(따뜻하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일동 웃음]

[정관면 설화14]

**속쟁이 할아버지**

김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이전에 할아버지가 하도 욕을 잘해 놓으니까네,  
 “상각(상객, 上客) 가거든 어짜둔지(어떻게 하던지) 입 뿔어레이(뿔어라). 입 뿔어레이.”

이런 수염을 많이 길랐잖아. 수염이 입을 뿔어가 있으니까네, 이전에는 집에서 혼례식을 하니까네,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

“아이구, 상각이 입이 없네.”

이리 카거든. 어찌 보골이(화가) 나든지 마 세임지를(수염을) 탁 갈루면 서(가르면서),

“이거는 입이 아니고 니기미십까?” [일동 웃음]

[조사자 : 그래 마 결국은 욕을 해버렸네요?] 그래 마, 욕을 하지 말라

고 진심 부탁을 했는데, 욕을 했답니다.

[정관면 설화15]

### 시집살이로 참았던 며느리의 방귀

김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며느리가 하도 저 저 얼굴이 노래가지고(노랗게 해가지고),  
“야-야, 니가 밥 잘 무도(먹어도) 얼굴이 와 노랗네?”  
쿠니까네,  
“방구를 문(못) 껴서 그리 노랗다.”  
쿠거든.  
“그럼 방구 끼라. 방구를 안 끼면 되나. 끼라.”  
카니까네,  
“그럼 아버지 집을 불드소.”  
이라거든. 그래 방구를 붕~ 끼니 칸에, 마 집이 한쪽이 삐딱하게 넘어가  
거든. [청중 웃음] 그리고 저쪽으로 가가 방구를 붕~ 끼니 마 또 집이  
떡 발라지더란다(바르게 되더란다). [웃음]

[정관면 설화16]

### 도깨비 떼기

김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도깨비를 친해가지고, 인자 돈도 갖다 주고 온갖 묵을 것도 많이 갖다  
주는데, 그걸 친해 놓으니깐에 사람이 노랗고 마, 영 안 좋아가지고, 그

래가지고 도깨비 뿔라고 인자,

“뭐가 제일 겁나고 무섭노?”

하니까,

“말피가 제일 무섭다.”

카거든. 그래가 말피를 구해가지고 온데다(온갖 곳에다) 삼작거리랑 집 안에 흩어놓으니까, 마 안 오더라 쿠대. 인자 안 오는데 그래도 또 인자, 또 와가 자꾸 돈 내놓으라고 이래가지고 그래 마 인자,

“그 돈은 저 아무 논에나 논 사 났으니께, 저거 논 띠다(떼어) 가져가라고.”

마 이리 쿠고. 마 또 거기다 말피를 흩어놓고 이래 놓으니께, 마 논 띠다고 마 나무를 해 와가 말목을 치고 마 똑딱거리고 이래도 논은 못 띠가고 그래 도깨비는 떨어졌답니다.

도깨비를 친해 놓으니께네, 어디 가가 사람 팔로 이만한 걸 떼어 와가지고 자꾸 무라 카거든(먹어라 하거든). 그걸 무면(먹으면) 자기와 한 패가 되는 기라. 자꾸 무라 캐서 그래 마 묵었다 카고 어디 숨겨놓고 있으니,

“팔아.”

카니, 어디서 쑥 나오고, 대답을 하고 이래가, 아이고 마 안 묵는다고 뭐라 카고 마. 또 이래가 묵어라 카거든. 그래 이제 할 수 없어 배에다 팔로 처매다가 창창 감아가지고 이래가 묵었다 카니까네, 그걸 지가 인제 또 참말로 묵었나 싶어가 몸을 안 더듬고,

“팔아.”

이라니, 요 배에서,

“와.”

이라니까네,

“인자 묵었구나.”

그래가 면해가 살았답니다.

[정관면 설화17]

## 범 잡은 토끼

김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옛날에 저 산에 가가 토까이를(토끼를) 인자, 그거 범이, 이제 포수가 저 잡으러 다니거든. 범 잡으러 땡기는데, 범이 짚에(곁에) 떡 있는데, 그래 인자,

“아이고, 인자 포수가 와가지고. 날 좀 숨겨주소. 숨겨주소.”

이러거든. 그래 근근이 뭐 갑자기 숨길 수가 있나, 이래가 우다 싸가(감싸 안고) 서 있으니까, 그래 인자 저 거서,

“앞에 그 검은 그게 뭐고?”

카께(하니까),

“까동거리라 캐라. 까동거리라 캐라.”

이러거든. 그래 인자,

“요, 까동거립니다.”

카께네,

“까동거리거든 들고 패라(때려라).”

이러거든. 그러니 범이,

“살살 패라이. 살살 패라이.”

카는거로 마, 씨게(세계) 패네. 그래 범이 죽었거든. 그러니,

“양달 토까이야, 응달 토까이야, 다 오너라. 범 한 마리 잡아왔다.”

카니 토끼들이 여러 만 마리가 와가 범을 뜯어먹고, 그래도 모자라고, 늦가(늦게) 어디 절뚝거리고 다리도 아픈 그 토카이는 인자 못 얻어먹어가지고 그래,

“너거는 인자 다 너거 먹었으니까네, 이빨이라도 굵어봐라.”

토카이는 인자 못 먹어가지고 그래 이빨 굵어 쪼깨(조금) 얻어먹고 그랬답니다. [웃음]

[정관면 설화18]

## 책 읽는 선비와 강피 훑는 사냥



김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옛날에 한 선비 집에 시집을 갔어. 그래놓으니 남편이 내(늘) 과개(과거) 보러 갈라고, 과거 보러 갈라고, 내 방안에서 책만 보고 있거든. 책만 보고 있어노니까네, 타작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마당 나락을 널어놔도, 각시가 일하고 돌아오면 나락 떠내려가도 모르거든.

이래가 마 내 책만, 나락이 떠내려가거나 비가 오거나 말거나 과거 불라고 내- 공부만 하고 있어 놓으니까, ‘내가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 싶어서 딴 데로 마 살러 가뻘어(가버렸어). 이 신랑은 각시가 가거나 말거나 내 공부만 일절 내 해가지고 과거 보러 가가, 마 과거를 벼슬로 해가, 인자 또 내려왔다. 내려 오니까네 그 마누라는 얼마나 잘 사느고 보니까네, 역시 피를 훑고 있더라.

그래가(그래서) 지는(자기는) 가면 잘 사느가 여겼더니, 마 나락 떠내려가도 거서 살았시른(살았으면) 그 신랑 과거와 잘 살긴데, 그 가야 내 쟁피만(강피만), 눈에 피만 훑고 있더라. 그래 그 뒤에는 옹케 모르겠다. 그러니까네, 마 우째끼나(어쩐거나) 본서방이 지질이라(제격이라).

[정관면 설화19]

### 도라지꽃 유래

김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도라지꽃이가, 남편이 저 어데 과개(과거) 보러 가가지고, 하도하도(너무너무) 안 와가, 어찌 됐는지 신랑이 마 어데 과거 보러 가가 마, 어디 죽었는지 어쩐는지 몰라가지고, 신랑 오도록 기다린다고, 그리 요래 돌아보고 있다가, 그래 고개 빼딱하게 마 도라지꽃이 돼 버렸다.

[정 관 면 설 화 20]

## 내 복에 산다

이경수(여, 1921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옛날에 대감이가 딸이 서이거든(셋이거든). 그래 큰 딸 둘이름(둘을) 데비다(데려다) 놓고,

“너는 누(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노?”

쿠니,

“아버지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그래 삽니다.”

이래 카이까네. 그래 인자 놔두고(놓아두고) 막내이 딸을 데부다가,

“니는 누 덕에 먹고 사노?”

“나는 내 덕에 먹고, 아버지는 아버지 덕에 먹고 살지요.”

이러 카거든. 그마 마 쫓아내버렸다.

“니는 니 덕에 먹고 살고, 어데 나가뿌라(나가버려라).”

쫓기가(쫓겨) 나가니까 갈 데가 어디 있노? 가다가 가다가 한등에 넘어 가니까, 인자 해는 저물고, 그래가 인자 찾아 들어가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찾아 들어 가니까 늙은이가 하나 있거든. 그래가,

“하룻밤 자고 갑시다.”

카니,

“아이고, 자고 가기는 어렵지 않은데, 어두부면(어두워지면) 우리 아들이 오는데, 어찌 한방에 처자가 자노?”

이리쿠거든.

“아, 그래도 좋심더(좋습니다). 내가 야불뻘이(옆에) 탁 앉아가 밤을 새우고 그래 가지요.”

그래 마, 어두부니까네(어두우니까) 총각이 뭐 하나 시커머이 솟을 곱고 와가지고, 씻고 그래 밥을 먹고 방에 들어오거든. 그래 어쩔 수 있나 마. 한쪽 옆에 딱 할매 뒤에, 그래가 밤을 새우고 그래 있으니, 그 이튿날 아츰에 인자 이 처자가 가도 안 하고 할미 짚에(겉에) 있거든. 그래가

한나절이나 되니까, 밥을 해가지고 총각한테, 아들한테 갖다 주러 가거든.

“아이고 할매요, 그 밥초랭이 그거 내가 들고 가보입시다.”

카거든. 그래 한등 넘어가니까, 거서 나무를 쳐가지고 솥을 굽는데, 그 밥 먹을 떠나(동안) 솥구덩이를 요리 들바다(들여다) 보니깐에, 한쪽에는 생금장이, 총각이는 돌이라고 요 꼽았는데 생금장이고, 한쪽에는 돌이더란다. 그리고 오면시는,

“총각요, 요쪽 돌은 놔두고, 요쪽에 노르만한 돌 조거를(저거를) 떠가(떼어) 가오세.”

하니깐에 그래 가 왔더란다. 그래 가 와가지고, 그 이튿날에는 저 솥 굽으러 가지 말고 요거를 보따리 싸가 주면서는, 저 마실에(마을에) 내리가(내려가서) 골목에서 외라 카더란다.

“생금장 사소. 생금장 사소 카면, 외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거들랑, ‘이걸 얼마(얼마) 줄라 카노?’ 카거들랑, 얼마(얼마) 줄라 말도 하지 말고 마, 금, 지 금대로 줄라 카라.”

카니까, 그래 참 외니깐에(외치니까) 이 골목 저 골목 땡기며 외이까네, 어떤 남자가 나오디마는, 보디마는 그 남자도 금덩어린 줄 알았어.

“이걸 얼마 줄란교?”

쿠니께,

“마, 금, 지 금대로만 주소.”

카니, 그거를 마 가지가가(가져가서) 돈으로, 마 한 보따리 이전엔 엽전한 보따리 싸가지고 한줌 챙겨주더란다. 그래서 그 처자한테 가져 가서, 저 못으로 데리고 가서,

“그 솥 굽는 그 나무를 쳐가지고서는, 그 집을 지어 오라.” 카더란다. 집을 지어 오라 캬어. 그래 집을 짓는데, 다 지어놓고, 아래 우채(위채) 딱 지어놓고서는,

“그래 대문을 다라(달아라).”

카거든.

“대문 뭐까 다꼬(달까)?”

카니,

“연애 남굴(나무) 짜다가 그래 대문 굿틀하고, 대문 문 비가(베어) 넘

다랗게(넓게) 달아라, 그래 달아라.”

문을 열면 연애, 달아도 연애 커거든. 그래 딸 이름이라. 그 집 막내 딸 이름이라.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날 찾으러 올끼니까네, 거지가 되가 날 찾으러 올끼니까네, 그래 하라.”

카더란다. 그래 참 인자 어디서 문을 여니까네,

“연애.”

카는데, 보니, 문구명으로 요래 살 뚫버(뚫어) 놓고 보니 저거 아버지더란다. 그래 인자 거지가 돼 가지고, 인자 내도록 올라 오면시는, 이전에 과객이 보따리 짊어지고 신작이 둘러매고 그리 안 땡졌는교? 우리도 클 적에 보면 사랑방에 드리(가끔) 자고 가더라고. 그래 그래가 내비다보니까(내려다보니까), 저거 아버지거든. 고마 마 버선발로, 발로 그냥 뛰 나가, 마 아버지를 끌어안고 저거 집에 데꼬 들어가가 사랑방에 채우고, 옷도 거지같이 해가 오는 걸 새로 입히고 그래가 잘 살더랍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다.

[정관면 설화21]

## 도깨비를 물리친 사이

이말순(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옛날에 옛날에 한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자 할아버지는 나무하러 가고, 할머니는 빨래하러 가니까네, 인자 커다란 복숭아 하나 떠내려 오거든. 그걸로 인자 빨래하고, 인자 복숭아를 주워다가 할아버지 나무 해가 오면 같이 갈라먹을라고 딱 놔뒀다. 딱 있으니까네, 그래 인자 할아버지가 나무해가지고 오시거든. 할머니가 그래,

“이 복숭아를 내가 빨래하니까 떠내려 오는 거로, 내가 하나 주워왔으니 우리 둘이 갈라먹자.”

하니까네,

“그럼, 칼로 가(가져) 오너라.”

칼로가(칼을 가지고) 턱 쪼개니까네, 거서 남자 아이 하나 탁 튀어나오는 기라. 이 아이가 어찌 잘 크는지, 잘 커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 그 부락에는 옛날에는 도깨비가 많아가지고, 언간한(어지간한) 사람들 다 도깨비 때문에 못 살고 다 가뿌고(가버리고) 인자, 저거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있었거든. 이래가 그래 이 부락에 계속 도깨비가 와 가지고 산골에. 사람을 못 살게 하니깐에, 복숭아가 이름이 원체 복숭안데 잘 자라가지고, 참 잘 자라가지고 인자 할머니가 개도 키우고 이래 이래 복숭아콩 사는데 그래 인자,

“할머니, 할머니, 옛날에는 산에 인자 수수. 수수떡을 해가지고, 날로 요 조마이(주머니)에 좀 태와 주세요.”

“말라꼬(뭐 하려고)?”

“내가 도깨비 집에 가가지고 도깨비 다 때려 죽이뿌고(죽여버리고) 올라고.”

카거든.

그래가 할마이가 수수로 도곶대에 방아로 찼어가지고, 수수떡 요만큼 해가 많이 니꾸사꾸에(배낭에) 짊어지고 갔다.

개를 테꼬(테리고) 가니까네, 어디서 또 꿩이 날라 와가지고, 그래,

“복숭아 복숭아, 어디 가느냐?”

“그래 저 도깨비 집에 가가지고, 도깨비 때려 죽이러 간다.”

카니까, 지도 도와주겠다고 올라카거든.

“그럼 가자,”

그래 갔다. 또 한 고개 넘어가니까 원숭이가 또 와가지고,

“복숭아 복숭아, 어데 가냐?”

“저저 도깨비 집에, 도깨비 때려 죽이러 간다.”

카니까, 지도 도와주러 온다 카거든. 이래가 개 테꼬(테리고) 원숭이하고 꿩하고 그리 가다가, 배고프면 수수떡 하나씩 내주이(내주어) 먹고, 이리가가 어찌 며칠을 찾아가니까 도깨비굴로 찾아갔어. 도깨비굴로 찾아가니까, 도깨비가 마마 콧 들어가 앉아 있거든. 들어 앉아 있는데 개도 물고 마마 물어뜯고, 꿩이는 쫓고, 원숭이도 물어뜯고, 개도 물어뜯고 해놓으니 그 마 문을 뜯어가 들어갔어.

도깨비가 마 짝 들어 앉아있는데, 온 동네 금을 짝 갖다놓고 굴 안에 짝 넣어놨는데, 이놈의 마 인자 복숭아는 마 때려 치고, 원숭이는 도깨비를 물어뜯고, 개도 물고 평은 대가리를 쫓고, 도깨비를 다 직이뺏는(죽여 버렸는) 기라. 다 직이뿌고, 금은보화로 한 구루마(수레), 금 구루마도 있더라네. 금 그거로 마 싣고 와가지고, 개는 인자 목테를 해가지고 소 꼬집듯이 꼬집고 오고, 또 원숭이는 밀고, 평도 밀고, 복숭아는 금을 한거(가득) 싣고 저거 집에 와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금 가지고 잘 살고, 평도 복숭아가 키우고 개도 먹이고(먹이고) 인자 원숭이도 잘 키아가(키워), 그 마을에 도깨비 다 직이빼고 금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한 구루마를 싣고 와가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그래 잘 살고 있단다.

[정관면 설화22]

## 며느리 방귀는 복 방귀

이말순(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옛날에 인자, 한 시골에 며늘로(며느리를) 봤거든. 아들 장가보내니. 며느리, 며느리 내(항상) 얼굴이 노래가이고(노랑게) 혈색이 지거든. 하도 이상해가지고 시아바시가 묻는 말이,

“며늘아가,”

“네.”

“그래, 와 니가 자꾸 얼굴이 노라이 혈색이 지노?”

쿠니까네,

“아버님, 내가 방구를 참아놓으니 그렇습니다.”

카거든.

“방구를 그럼 끼지. 와 방구를 와 몬(못) 끼고 그래 얼굴이 혈색이 지도록 있노.”

쿠니까네,

“내 방구를 끼면 집이 날리간다(날아간다).”

카거든.

“그래, 아버님은 지둥을(기둥을) 잡고 시어마시는 소두뱅이(소뚜껍)를 꼭 눌리가(누르고) 있고, 신랑은 용두마리에 앉아 있으라.”

쿠거든. 이놈의 저놈의 방구를 한 대를 탁 복판에 끼니까 마, 기둥이 훌렁 훌렁 훌렁 하거든. 저쪽으로 가니까 마, 정지에 끼니깐에 소두뱅이가 (술뚜껍이) 시어마시가 눌러 앉아 있어도 들썩 들썩 달아가고. 또 마, 저쪽 모티가(모퉁이에 가) 꿩니깐에, 또 마 그 용두마리가 날아가고 신랑도 날아가고.

이래 안 되겠다. 인자 다부 지 시집 온 옷을 짚어지고 신랑하고 시아버시하고 간다고, 옛날에는 산골이니 산길로 걸어간다. 걸어가니까네, 인자 걸어가다 보니 배는 고프제 이래가, 커다란 사과나무가 있더랍니다, 그 쉼다고 가니까네. 비단장사가 비단을 한 짐 짚어지고, 배는 고프제 그 사과나무는 많이 열어도 높아가 못 따 먹제, 내 치다보고 있거든.

“그러믄 저 사과를 우째 따 먹을 수 있노?”

쿠니까네, 그 인자 며느리가,

“내칼 내기를 하자고. 내가 사과를, 이걸 딸테니까네, 비단 그걸 날로 주라.”

이카거든.

“그러자.”

쿠거든. 그러니 비단장사는 비단을 한 보따리 이고지고 그 쉬는데, ‘저 여자가 무슨 저걸 다 따겠노’ 싶어가 내기를 했거든. 내기를 해서,

“비단, 내 주지?”

“주지.”

신랑 있제, 시아버지 있제, 비단장수는 혼자제. 인제 내기를 했다.

“그럼, 사과를 따라.”

카니께, 마 사과나무 밑에서 궁디를(엉덩이를) 마 내리 쳐들고 팡 한 번에 세 차례 내 끼니, 사과나무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마 사과 다 널찌거든(떨어지거든). 흥건 주워 먹고 인자 비단장수는 인자 배는 부르나, 마 비단 그를 쥐야 될 거 아닌가배. 그래가 인자,

“그 비단 줄라 캬으니 주라.”

캐서, 인자 안 줄라 카다가는 신랑 있제, 시아버지 있제 안 되거든.

“그래, 가(가져) 가라.”

쿠고, 이건 뭐 지는 사과만 흥건 먹고 비단도 잃어뿔고(잃어버리고) 가고, 이 집에는 마 비단 그거를 가지고. 시아버지가 가지 마라 카더란다. 비단 그거 가지고 우리 잘 살자 콤시롱(하면서) 가지 마라 캐가, 비단 그를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카네. [일동 웃음]

[정관면 설화23]

## 버릇 없는 늣둥이 길들이기

이말순(여,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월평리 월평마을 마을회관]

옛날에는, 요 저저, 어떤 산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내- 자숙을(자식을) 못 낳다가 늣둥이를 하나, 아들애를 하나 낳어.

그 영감 할마이가 그 아(아이) 좋다고, 내- 마 저저,  
“너저 엄마 패라.”

쿠면 어릴 때는 쪼겐할(조그만할) 때, 저저 엄매도 탁 패고, 또 귀여워가지고 또 저저 어매가,

“너저 아버지 패라.”

그러면 또 뿔때기(불) 탁 패고 내 이리 해 놓으니까, 커도 마 저저 어매이 아버지 불때기 패는 양 하고, 어마이도 탁 패고, 어바이도 탁 패고 이래싸서, 저 걸로 질로 못 들이겠는 기라. 이래가지고 질로 못 들이서 하루는 인자 목을 거를 마이 해가지고,

“저 각처에 땡기며 다른 사람 사는 곳에 가 가지고, 넘(남) 사는 거 구경하고 오니라.”

이래가 온 마을에 보냈어. 보냈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네, 참 어데 대감집에 부잣집에 들어가이까네 그래,

“어르신, 내 온(오늘) 저녁에 하룻밤 여서 자고 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 아랫방 사랑어른이,

“아, 좋다. 아랫방 내 자는데 와가 자고 가거라.”



이카거든. 그래 딱 가 잤다. 자니깐에 저녁을 딱 채려주거든. 그래 저녁을 먹고 잘라고 있으니깐에, 그 집은 이제 대감 아들이 되네 아들강 자석들이 내려와가, 아버지 짚에 잘 적에 탁 이불도 펴 드리고,

“아부이, 안녕히 주무시라.”

카면서 절로 하고 가고, 또 인자 아침에 자고 나니까네, 이불 다 개 없어 주고,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냐?”

카고 절로 하거든. 이리 이리 가 또 한 집에 가니까네, 그 집에 가도 역시 그래. 부모한테 공손히 하거든. 해 놓으니까네, 이 아들이 인자 어마 이 아바이 안 시키고, 어마시 아바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내가 시키면 안 들을 끼고, 온 마을에 가가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가 알고 오라고 보내 놓은께. 그래 참 며칠로 돌고 와가지고 하는 행사가 확 틀리더란다. 잤다 오디만,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카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아버지, 안녕히 주무시라.”

쿠고. 또 아침에 와가,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카고. 그리 효도 질을 잘 하고, 그래 지금까지 저 골짜기에서 살고 있단다.

[웃음]

[정관면 설화24]

## 도깨비에게 잡아 먹힌 사람

조차영(여, 1927년생) 구술  
2011년 2월 27일 채록  
[임곡리 임곡마을 마을회관]

아주 옛날에 옛날에 그래가,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할마이, 할마이, 어디 가노?”  
쿠니,

“우리 집에 간다.”  
카이,  
“그럼 그 팔 하나 띠주면(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 팔을 띠주어뵈어. 그래 또 한 등때 넘어오니께 또,  
“할마이, 할마이, 어디 가노?”  
캐서, 그래 저 저,  
“우리 집에 간다.”  
카이,  
“그럼 팔 하나 마저 띠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 팔하나 마저 띠주고, 그래 또 또 그라니 글케(그렇게) 해서, 또 그라면,  
“다리 하나 띠주면 안 잡아먹지.”  
띠췌뿌고.

[정관면 설화25]

### 선녀가 베를 짠 베틀바위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베틀바위 거는, 옛날에 한 선녀가 내려 와가 그서 베를 짰는데, 그 베틀다리를 요전뻘에(이전번에) 뜯어가 곤쳐가(고쳐서) 그렇지, 글 아이라면(그렇지 않으면) 앞에 그때는 베틀다리 놓는 데가 돌이 다 놔져가(놓아져가) 있고, 그래가 옛날에 베틀바우라고 이름이고. 안에는 골방이 하나 있는데, 고 불 켜가, 고 방이 있고, 그래가 이전에 그 베틀바우라고 이름이 됐거든.

[정관면 설화26]

### 정관의 산 이름 유래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저 서근덤이라 하는 거는, 이전에 옛날에 옛날 이 세상이 생길 때 하  
일(해일)을 해가지고, 그 산 이름을 그래 지었다.

저 여게 서근덤이라 하는데 저게는 큰 산이거든. 서근덤이라는 거는  
물이 해일을 해가 물이 찬데(차였는데), 서리(씨래)하나 놓을 만침(만침)  
해가지고 남아가 그래가 서근덤이라 썼고(했고). 산 이름으로 그래 했고.

인자 함박산에는 함박이(함지박) 하나 옆을 만치 남아가 그래 함박산  
이라 썼고, 그래 인자 씨리덤에는 씨리(시루) 하나 놓을 만치 남아가 그  
걸 인자 씨리덤이라 썼고.

그래 인자 저게 달음산에는 달(닭) 한 마리 놓을 만치 해가 남아가지  
고 그게 달음산이라 이름이 됐고, 저 매남산에는 매 한 마리 앉을 만치  
남아가 있어가지고 그게 인자 매남산이라 이름이 됐고, 그게 전설이, 옛  
날 얘기가 그런 기라.

[정관면 설화27]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어떤 할매가 아를 업고 있으니까, 알라(아기)가 하도 울어 짜서, 이놈  
의 아를 암만 달래도 안 되고, 설탕 줄까 캐도(해도) 안 되고, 밥 줄까  
캐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돼가, 그래 달개다가(달래다가)  
달개다가, 아를 업고 달래다가 낸중에(나중에) 저,

“농 위에 꽃감 줄께.”

했거든. 그래 카이, 그래 카니까(그렇게 하니까), 꽃감 줄께 하니까 아가  
들컹 그치거든.

그러니 호랑이가 백곶에(밖에) 와가 있었어. 와가 있는데 그래 ‘곶감 주까’ 카니까 아가 들켜 그치니까, 이놈의 호랑이가마, ‘아따 내카마(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구나.’ 그러 카고는(그렇게 하고는) 호랑이가 마 달 나더란다(달아나더란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 [웃음]

[정관면 설화28]

### 배가 불러 가다가 죽은 총각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전에 한 사람이 누부네(누나네) 집에 가, 이전에 배가 고파가, 배가 고파가 몬살고(못살고) 이럴 때, 누부네 집에 가니 누부가 마 동생이 불쌍타고 자꾸 밥을 많이 줬거든. 자형은 방에 있는데, 한테(함께) 안 주고 밥을 많이 줬다. 밥을 준다고 자꾸 묵었다. 자꾸 묵어놓고 그래 인자 저거 집에 갈라하니, 저 언양고개라 하는 고개가 있거든. 그 가다가 배가 너무 불러가 못 올라 가가지고, 그래 인자 그 사람이 가며 노래를 했거든.

“찢기드라 녀삼대야, 아습더라 채카리야. [웃음] 무정하다 우리 자형. 우리 누부가 밥을 많이 줘, 우리 누부가 날로 밥을 많이 줘, 내가 배가 불러가 못가겠다.”

고, 저거 자형이 무섭위가 한테서(추운 데서) 밥을 많이 줬거든. 그래놓이 그래 올라가다가 그게 노래하고 가다 그기 인자 노래가 됐거든, [조사자: 노래 어떻게 합니까? 노래 한 번 해줘 보이소.]

“우리 누부 든든터라, 배 불러라 우리 누부, 찢기드라 녀삼대야, 아습더라 채까래.”

가다가 마 죽었단다. 언양 고개 가다가 죽었단다. [노래를 청하자 청중 중 한 사람이 대신 노래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정관면 설화29]

### 봉사 덕에 목숨 건진 이수자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옛날에 저 돌판 이수자라고 있었거든. 옛날에, 옛날이야긴데, 그래 인자 과게 하러(과거 하러) 갔단 말이다, 저 서울에. 과게하러(과거하러) 갔는데, 그래 과게를(과거를) 해가 내려오는 판인데, 오니간에 그래 오는 도중에 봉사가 길거리 가에 앉아가 똥을 누고 앉았거든. 똥을 누고 앉아서러, 그래 똥을 안 불러꼬 이래 떡 고개를 돌리는데, 봉사가 하는 말이,  
“아, 돌판 이수자가 과게를(과거를) 해가 오기는 오구만은.”

커거든. 말이라야 딱 한 모디(마디) 하거든. 그래서 그래 이수자가 가다가 돌아서가지고, ‘이기 참 이상하다. 저 말 한 마디가 희한하다.’ 싶어가 말에서 내리가 봉사 잘에(옆에) 가가, 그래 인자,

“태사, 금방 한 말소리가, 그 소리가 무슨 말이고?”

이리 물으니까, 그래 봉사가 하는 말이, 그래 마, 단 말 두 마디 하는 기라.

“길거든 둘러라. 기르거든(길거든) 둘러라 가다가. 좋거들랑 기라.”

이라거든. 그래,

“딱 말 고것뿐인가?”

“말 고뿐이다. 마(그냥) 가라.”

카더란다. 그래 가니, 가는데. 그래 오다가 도중에 배로 타야 오는데, 배를 타야, 마침 배를 타면 잠시 마 요래 가면되고, 둘러 가면 한참 둘러가야 되는데, 그래가 오다가 보니까, 그래 인자 오다보니, 배가 똑 뜰라 하는 기라. 그래서러, 그래 뜰라 해서, 배를 데 놓고 있는데도 뜰라 해서 보다가, 그래 하 내가 ‘길거든 둘러라.’ 이 소리가 딱 생각이 나거든. 그래가 배로 안 타고 둘러가, 말로 타고 길을 둘러가니, 한참 간다 아이가? 가가, 배가 저 한복판 나가더니만 배가 마 옆어지더란다.

그래 ‘ 좋거들랑 기라.’ 하는 거라. 그래 인자 저거 삼작거리, 예전에는 십리 방포를 놓고 오고, 오리 방포를 놓고 오고, 오면 온다고 방포를 놓고 들어오는 기라. 그라는데, 그래가 인자, 즈그(자기) 집에 인자 십리 방포를 놓고, 오리 방포를 놓고 드가다가(들어가다가), 즈그 집에 삼작거리 떡 드가니, 안들이(안사람이) 얼마가 여자가 얼마나 꾸며가 마 기생사람

같이 해가 있거든.

이래 있어서러 ‘야 좋거들랑 기라.’ 거기 생각이 나서 말에서 내려 가  
가 마당에서 뿔뿔 기 들어간다. 마당에서 뿔뿔 기 드가니까(기어 들어가  
니까), 옛날에 사관집에 마리청 밑에 마루청이 내다 안 있나? 기 가가  
보니깐에 마당청 밑구녕에 눈이 훑발떠기 같은 놈이 앓아 있더란다. 그  
래가, ‘아, 참 니 말이 맞구나.’ 싫어서, 술을 잔뜩 고배상을 차려 냈는 기  
라. 술을 잔뜩(잔뜩) 먹여야 내중에 죽인다 아이가. 그래 채려놓은 거를  
그래 술로 한잔 묵고 그래,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올끼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겠다.”

카매 나가니,

“아이고, 오늘 와가지고 말라꼬 가능교?”

카고, 안들이 영 지랄로 한다. 그래싸서, 그래가 나가가지고,

“간다.”

카고, 저 앞산에 딱 앉아가 내다보고 앓아 있었다. 가만히 보고 있으  
니까, 지 가고 나서 저녁 먹고 어두부리할 땐데(어두워질 땐데), 마루 밑에  
서 그놈이 나와서 방을 들어가거든. 방을 들어가는데, 그래 인자 있다가,  
저녁에 한참 있다가 저녁에 오니까네,

“아이고, 자고 온다더니 버러(벌써) 오능교?”

카고 안들이 살살 긴다 아이가. 이리가 해 놓이(놓으니),

“갔다가 오기가 대서(힘들어서) 그래 온다.”

카고, 그래 술을 한 잔 차려준 걸 흥건 한잔 마시고, 방에 들어가 보니  
아무리 살펴봐도 퀘짜이 그백에는(밖에는) 숨길 데가 없는 거라. 큰 퀘짜  
이 하나 있는데, 그래 그 퀘짜이를 보고, 그래가 머슴을 시켜가지고, 그  
래 상좌가 따라 안 오나? 지 밑에도. 큰 톱을 가져오라 했거든, 큰 톱.  
이전에 걸 톱, 뒤에 땡기고 앞에 땡기고 실른 톱이 있거든. 그 톱을 가와  
가지고(가져와서) 퀘짜 위에다 탁 걸쳐가지고. 저쪽 사람하고 둘이가 땡  
기가 밀고 땡기고, 둘이가 땡기고 했거든.

“아이고, 그 퀘에 옷도 여있고(들어있고), 그 좋은 켜데 거를 깨가 되  
는교?”

“퀘도 필요 없다.”

하면서로 마, 계속 하니 많이 안 내려가서 반이나 내려가니, 피가 펄쩍

터져 나오더라. 그래가 피가 펄쩍 튀나가지고, 그래서 그놈을 거기서 죽여버리고, 그 남자가 안들도 내버리고 그길로 지는 지대로 가뵈더라데 (가버렸더라데).

[정관면 설화30]

### 봉덕이의 원찬과 에밀레종 소리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불국사 저계 종을 만들라 하니, 시주를 거둘라 카이(하니) 어데다 시주 거둘 때도 없거든. 시주 거둘 때가 없어가, 시주를 하라고 집집에 가가 시주를 하라하니, 할매가 얼라를(아기를) 업고 어루면서는, 그래,

“아이고, 시주를 할라니 내가 뭐 있노? 아무것도 시주할 끼 없는데, 뭐를 주겠노? 내가 뭐를 줄꼬? 우리 딸 봉덕이를 줄까?”

카메(하며), 이리 어루거든. 그래놓으니 그 소리를 듣고 절에서 종이 와가지고 봉덕이를 줄라 캐노이(해놓으니), 봉덕이를 줘야 그 종이 우는 기라.

그래 노니(놓으니) 낸중에(나중에) 아 데불러라(데리러) 오는 기라. 오(와) 놓으니, 줄라(준다) 했으니, 봉덕이를 줄라 해놓고 안 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놓으니, 종을 멩그는데(만드는데) 아를 줄라 하니 할 수 없이 아를 안 주고 안 돼서 주나놓으니, 그래 그 아로 쇠 녹후는(녹이는) 데다 여(넣어) 가지고 그래 종을 만들었는 기라.

그래 종을 만드니깐에, 그래가 종을 만들어가 종을 치니까 소리가 나는데, 그 종이 소리가 왜 나냐면, 종을 치면,

“에밀레, 엄마 따문에(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래. 그래,

“에밀레.”

카는 종소리가, 옛날 경주 불국사 종소리가, 그래 그 에밀레종이, 거기 그래가 에밀레종이 됐는 기라.

[정 관 면 설 화 31]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필원(여, 1920년 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옛날에 칠십 살만 목으면 이전에 양식하고 나무하고 고 쌀하고 다 안에다 넣어가 고려장을, 산에다가 파가지고, 그래가 인자 고려장을 했는데. 고거 양식 떨어지면, 고 안에서 연기가 솔솔 안 나면, 마 안에서 죽어뻘(죽어버린) 기라. 갖다 묻은 사람이, 묻어 놓은 기 죽었는데.

그래 이전에 한 사람이 즈그(자기) 어메를(어머니를) 업고, 즈그 아들을 데꼬, 어마이를 업고 짚어지고 산에 올라 가가, 어마이를 묻어 놓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그래 지계를 내뻘리고(내버리고) 갈라 하거든. 지계를 내뻘리고 갈라 하니까 아들이가,

“아버지, 지계를 지고 갑시다. 지계를 지고 가야 아버지도 후제(후에) 내가 지고 왔다 지고 가지요.”

그래 놓으니 그 어마이를 다부(도로) 타가(태워) 지고 왔단다. 그래 없어졌단다 고려장이.

[정 관 면 설 화 32]

## 지네장터 [은혜 깊은 두꺼비]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옛날에 이랬단다. 그 동네에도 이래 제실맨치로(제실같이) 집이 하나 있었어, 제당맨치로 이런 집이. 거기 있었는데, 거도 일 년에 똑- 사람을 하나씩(하나씩) 갖다 놓야, 처자를 하나씩 놓야, 일 년에 고 하나씩 바쳐야 되는 기라. 이래 바친다.



그래 인자 동네 한 집에서 두꺼비로, 인자 쌀로, 밥을 주면 푹 쌀로 내가(내어) 두꺼비를 쥐가 키웠거든, 부뚜막에다가. 부뚜막에다가 두꺼비를 키워가지고. 그래 처자 갖다 넣는 날 저녁에, 그래 인자 두꺼비를 그날 저녁에 자기가 인자 즈그 아로(아이을), 딸로(딸을) 갖다 줄 판이라. 쫓는데,

그래 처자를 갖다가 넣어놓고 나니까, 두꺼비가 어찌 문틈을 뚫고 드가서(들어가서), 뚫고 드가가지고, 그래 아침에 사람 죽고 나면, 아츰에(아침에) 염장을 치려고 가거든. 염장을 처야 되는데, 치러 가니까, 아침에 가니깐에, 처자가 저그 딸아가 살아가 있어. 살아가 있는데, 그래 두꺼비가 밑에서 앓아가 있는데, 그 두꺼비 우에는(위에는) 지네가, 큰 지네가 우에서 내려 와가지고 잡아먹었던 거라, 처자로. 그래 인자 두꺼비하고 지네하고 안개로 푸우니까(피우니까), 두꺼비가 이기더라네. 지네가 덩치는 커도. 그래 두꺼비가 안개를 피와가 지네를 잡아가 잡아 뿌렸어(잡아 버렸어). 그래가 그 동네는 구신으로(귀신을) 없애버린 거라. 영검을(제당을) 그거로, 그래가 두꺼비가 지네를 잡았다 이기라.

[정관면 설화33]

### 스님을 바쳤던 뱀사골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저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가 넘어오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뱀사골이 있거든. 그 뱀사골에 거제도, 일 년에 동지 때 푹 스님을 하나씩 들야(들어) 보내야돼, 뱀사골에. 스님을 하나씩 들야 보내는데. 그래가 인자 동지 때만 되면 그래가 들어가는데, 해마중(해마다) 그래 내 잡아넣다가, 사람을 하나씩 푹 직이야 되네.

그래 넣어주다가, 그래 인자 소문이 났거든. 소문이 나가지고 저 나라, 인자 임금에 알았는 기라. 옛날에 임금이라 하면 이전에는 안 크나? 이런데, 그래가 알아가지고, 그래가 그 나라에서 인자 승복으로, 승복으로

한 벌 지어가(지어) 왔는데, 스님 옷을 한 벌 지아가 왔는데, 그 승복으로 지을 때 거다 약을 넣고 지았어. 약을 넣고 지아가지고, 그래 약으로, 그 승복을 그날 저녁에, 동짓날 저녁에 들어가는데, 그 스님을 입히가(입혀) 보냈거든. 입히 가지고 보냈는데, 뒤에다 명지꾸리(명주실타래)를 하나 달아가 이래가 보냈는데, 그 꾸리(실타래)가 다 풀리가 안 풀리면 고 자리에 드갔는(들어갔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보내놓고, 스님들은 잘에(옆에) 절에서 인자 사람 죽었다고, 한 명은 죽었다 하고 있다가, 그래 아츰에(아침에), 자고 새벽으로 아츰(아침) 되면 빠로 치우러 가는 기라. 그래 빠를 치러 아츰에 명지꾸리를 걸아가(걸어서) 지고 찾아 가니까 큰 방구(바위) 밑에, 방구 밑에 그래가 있는데, 스님이 가니까 안 죽고 살아있어. 가니까 안 죽고 살았다. 근데 뱀이가 똑 덕석말이 같은 뱀이가 떡 죽어 있더라.

그게 나라에서 옷에 약을 넣어가 해주노이, 그래 옷에서 뱀이(뱀새) 약을 푸아가(피워) 뱀이가 잡아먹을라 하다가 지가 죽은 거라. 그래 그거 죽고 나니깐에 그 뒤에는 뱀사골에 사람을 안 넣는 기라. 그래 그 이름이, 인자 전설이 뱀사골이 돼가 있는 기라. 그래 뱀사골이라고.

[정관면 설화34]

### 남의 아내를 빼앗아 죽게 된 선장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이소랭이 노래가 있는데, 이소랭이가 저짜(저쪽에) 인자 어데 팔리가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로 타고 저 어데 갈킨데. 가는데, 마누라를 데꼬(데리고), 마누나라 임신인가 해가 배가 불러 있는 거로 데리고 가. 배로 타고 가면서로 한 복판으로 들어가이(들어가니), 선장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선장이 가다가 안들이(안사람) 여자가 되게 좋았거든.

여자가 좋아놓으니까네 그래 마, 가다가 마 배에 탄 이소랭이를 물에 다 밀어버렸거든. 밀어 넣어뿌고, 이소랭이의 안들로, 여자를 지가 데꼬

(테리고) 가가지고, 그래 저거 집에 가가지고 사는데, 같이 사는데, 그래 인자 아를 놓을라(놓으려) 하니 절대로 아 낳을 때나꺼정(때까지) 이 남자로 지한테 접촉을 못하게 하거든.

접촉을 못 하구로 해가, 그래 그래가 아를 낳아가, 아를 낳아가 키우는데, 그래 그 아로 낳아 놓으니깐에 이름을, 지 이름을 떡 아가 등드리에(등에) 글자가 하늘 천자가 써가 있고, 배에는 임금 왕자가 써가 있고, 이래 글이 써져가 나왔어. 그래놓으니까 그래가 이소랭이라는 하는 사람이 지가, 인자 배로 지가 선장을 해가, 그래가 지는 그걸로 할라꼬, 여자를 데꼬 살라고. 살기는 잘 살기 살지. 인자 아를 놓고 나서 그래 살아가 그래 그 아를 키우는데, 이소랭이가 그라더란다,

“뒷산에 남구로(나무를) 써가, 앞산에 범을 키아가 내 죽을 줄 알았다.” 카는 거라. 이소랭이 아가 고거 크니까네, 그기 뭐 다른 사람 아캉(아이와) 같잖고(같지 았고) 아들 놀러나가 놀아도 지 아는(아이는) 별도로 따로 놀고 이래 놀아놓으니, 그 아가 커가지고 이소랭이를 죽잇뻘 기라(죽여버린 것이다). 내가 그래 놓으니,

“뒷산에 술을(소나무를) 숨가(심어), 앞산에 범을 키와 내죽을 줄 알았다.” 카며, 그 사람이 죽었다.

[정관면 설화3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돈이 없어든. 없어가지고 그래 남자는 돈 벌러 간다고, 이전에 돈 벌러 가봐야 돈이 있나? 뭐 벌어지나 이런 걸로 나가고 없는데, 없어가 그래 여자가 인자 집에서 시어머니가 눈이 어둡아가(어두워) 있는데, 시어마씨를 인자 거느리고 살라하니까 지가 녀의(남의) 집에 다니가 품을 해가, 품팔이를 해가 시어마씨를 먹여 살리고, 뭐로 할라 캐도 할 끼(할 것이) 없어가 이래가 있으니, 뭐 반찬을 해가 줄라 카이 뭐 반찬 살 돈이 있

나? 그리 저 거름밭, 저 거름밭 가로 저리 가면 꼬sing이(지렁이)가 있거든. 꼬sing이. 땅에 요새 파면 꼬sing이 안 있나?

꼬sing이를, 그만 그거를 파가(파서) 싹싹 매(깨끗이) 씻어뿌고(씻어버리고), 씻어가 고아가지고, 그래 그걸로 세 마리 먹이가 내 반찬을 해가, 내 고아가 먹이놓이 시어머니가 살이 찌가 뭐, 오소름 해가 있어.

아들이 어데 나갔다 오며, 나갔다가 오니까네,

“아무것도 묵을 것도 없는데, 어찌 엄마가 이래 살이 찌가 이리 좋구로 해가 있노?”

카메, 그래 그래카니깐에, 그래 어마이가 그 뱀이로, ‘그 뿔이 날로(나에게) 이처럼 이래 맛있는 거로 주노?’ 싶어가. 이전에 자리 밑 안 있나? 자리 밑에 던져가 여났는(넣어놓은) 기라. 여가(넣어가) 몰라가(말라가), 아들이 오니까 그걸로 내이다(내어) 비이는(보이는) 기라.

“이걸로 내가 주는데 먹으니까, 그리 맛있고 내가 좋다.”

아들이 보니까 그기 꼬sing이라. 그거로 먹으니 그 놈의 어마이가 신체가 그리 건강해가 좋더란다. 그래놓으니 그래가,

“그래, 엄마요, 이거 꼬sing이네요.”

꼬sing이라 하면서 꼬sing이라 하니, 엄마가 눈을 펴뜩 뜨더란다.

[정관면 설화36]

## 주인 덕에 신선으로 환생한 개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한 사람이 이전에 개로 내 즈그(자기) 집에서 키웠거든.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개로 그 사람이 나이가 사십이 넘었는데, 지캉(자기와) 같이 컸는 기라. 같이 늙어가며 컸는데, 그래놓으니 저걸로 개로 잡을라 해도 지캉 같이 늙어가는 개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가 이 개가 지도 40살이나 먹는데, 개도 40년이 되었다 아이가? 이래가 이 개가 가만히 보니까, 짐승이라 하는 거는 직이줘야(죽여줘야) 환생을 하는 거라.

환생을 하는데, 그레 아죽으로(아침으로) 보면, 항상 보면, 아죽에 보면 이슬을 쪼로록 맞고 오거든 개가. 이슬을 쪼로록 맞고 와가 얻어 묵고 얻어 묵고, 저녁만 먹고 나면 어데 가고, 그레가지고 그걸로 개로 하루 저녁에는, ‘내가 이래 할께 아니라, 저 이 개로 산에 가가 공동묘지에 가가, 어데 염장이나 파묻고 오나? 뭐 우째 하노?’ 싶어가, 그레 하루 저녁에는 뒤로 따라갔어.

뒤로 따라가니까 저 첩첩산골짜기를 올라가니 큰 방구가(바위가), 집채 같은 방구가 있는데, 그 방구 먼뎡이(꼭대기) 가니깐에 신선들이 그 앞아가 그걸로 하고 있거든. 신선들이 노는 자린데, 그레 그 가니까, 이 개가 그 앞아가, 그 밑에, 방구 밑에 가가 머리 쪽 숙여가 꼭 엮어져가 있다. 지도 같이 올라갈라꼬. 근데 지가 허물을 못 벗으니 못 올라가는 기라. 그레가 가가 지도 가가 가만히 보니깐에, 그레 사흘 저녁을 따라 가봤어. 따라 가보니, 그레가 하루 저녁에는 가니깐에, 우에서 선부들이 놀매,

“이 짐승아, 니가 암만 그레도 니가 그 허물을 벗어야 니가 여길 올라 오지, 니가 허물 안 벗고는 못 올라온다.”

카면서 그레 카니깐에, 그레 이 짐승이 전토록(종일) 있다가 오는데, 지도 따라 와가지고, 사흘 저녁을 따라가 봐도 사흘 저녁을 내 그레. 그레가 하루는 머슴들을 시켜가지고,

“야들아, 너그 저 개를 잡아다 좀 내버리라. 내버려라.”

카거든, 내버리라 하니,

“아이 샌님요, 그 개를 와 잡아다 내버리라 하는교? 그 아깝운 거로 와 내버리요?”

카거든,

“그레 마 갖다가 내일로 가다가 물어버리라.”

카거든. 그리고 가고 그날 저녁에 또 그러고 있어. 또 우에서 또 그레케,

“니가 허물을 벗어야 니가 여 올라오지 못 올라온다.”

이래 카니까. 그레 인자 갔다가 뒤에 저녁에 또 가도 허물을 못 벗고 있는 기라.

그레 하루는 갔다 와가지고, 그레 머슴들로 시켜가지고

“야들아, 너그 저 개를 파다가 너저 그슬러가(그을러) 너그 삶아 먹어라 하거든.”

개로 한 며칠이 지나도 안 괜찮나? 그래 카니 머슴들이 좋다고 파가와가(와서) 그슬러가 삶아가 먹었거든.

묵고 나서 인자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이 올라 갔는 기라. 갔더니, 마 신선이 되가 우에 앉아가 놀더란다. 노는데, 그래 지도 가가 엮어져가 있었어. 엮어져 있으니깐에, 그래가 인자 그 개가 올라오라 하는 기라, 저거 주인을. 그래가 같이 그 올라가가지고 방구 먼텅이에 앉아가, 그서 인자 물레가 돌아가는 그거는 큰 기 돌아가는 거는 헛수 가는 기고, 잘게 돌아가는 거는 날수 가는 건데, 그게 마 돌아가고 마 세상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앉아가 놀다가, 한번은 지가,

“나도 몇 년 되었으니까네, 나도 집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카면서 한번 가보고 올라 카니(올라하니),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가,

“이 사람아, 니 지금 가야 아무도 모른다. 너거 집에 몇 대가 뭐 가라저가(바뀌어) 있는데, 니가 인제 가면 무슨 소용 있노? 못 간다고 찾지 마라. 못 간다.”

카니,

“내가 그래 한번 가보고 오겠다.”

카며 가니까네, 즈그 집에 찾아 갔는데 지는 눈에 환해가 찾아 갔는데, 찾아 가니까네 그래 저 허연 할배가 담뱃대를 물고 나와 가지고 다부(도로) 뭐라 하거든.

“에이, 이 사람아, 오데 젊은 사람이 어디 우리 저 증조할밴데, 와 이름을 부르다니, 어데 그런 짓을 하노?”

뭐라(야단을) 카며, 그 사람을 대게(많이) 뭐라 카거든. 하면서 뭐라 하니까네,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 지가 설명을 해봐야 그 소리를 알아듣도 못하겠고, 몇 십 년 몇 대가 흘러져 버렸는 기라. 그래 흘러져버리니, 그래 인자 다부 그 가가(가서) 마 신선이 되가 거가(그곳에서) 살았단다.

[정관면 설화37]

## 주인 목숨을 구한 개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경주 최씨들이, 와 최씨가 양반이라 카는가(하는가) 하면, 경주 최가가 양반이라 한다 아이가. 경주 최가들도 그렇다 카대. 경주 최가들도 개가, 저거 주인이가, 저 어데 절에 갔다가, 나갔다가 오다가 산 먼텅이(꼭대기)에 저 오니깐에, 불이 나가지고 그서 죽을 판이라 인자, 불이 나가 인자.

할배가 그 오다가 앉아가 어데 가도 오도 못하고 이래가 있으니, 그 개가 따라 가가지고 개가 들어오는 불로 꺼가 그 할배로 살렸는 기라. 그래 살리노니, 그기 그리 경주 최가가 그리 양반이란다. 경주 최씨가 그리 양반이라 카대. 그래 개가 그리 이전에는. 짐승을 구출하면 그걸로 은혜를 한다 카네. 그 때문에 그래.

[정관면 설화38]

### 제사를 일찍 지내 밥 못 얻어먹은 귀신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한 사람이 제삿날 저녁에, 요새 제사 일찍 지낸다 아이가? 일찍이, 아들이 모두 일찍이 지낼라 캐서 내 제사 일찍이 못 지내라 한다. 제사를 일찍이 지내거든, 세상에 구신이(귀신이) 일찍이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구신 맘대로 오고가고 하는 것 같으면 뗏이 저승이 어딴고? 뗏이 어데 있노? 그래 카면서 그라는데, 제사, 한 집에서 제사로 일찍이 지내가지고, 지내 묵고 놀러간다고 저녁을 묵고 말캐이(모두) 치아뿌고 놀로 가뻘고 없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앞집에서, 장사하는 집에, 점방이 있는데, 그 집 점방 집에서 꿈을 꾸니까네 할매가 하나 오디만은(오더니),

“우리 집 이 집에는 어데 갔는가? 사람이 없네.”

카면서로,

“내가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줄라 캐서(달라 해서), 빵 하나 우유 하나 먹고 그래 간다.”

카면서 가더라 카네.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저 점방 할매가 그 집 사람한테 물었단다.

“너그 집에 엿저녁에 무슨 제사 있었나?”

그래, 엿저녁 저거 할매 제사라 카네.

“와 그래 제사를 안 지냈나?”

카니,

“제사를 일찍이 지내 묵고, 기경(구경) 간다 카며, 놀리간다 카면서 갔다.”

카더라네. 그래가지고 그래,

“엿저녁에 할매가 하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 배가 고프다메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묵고 그래 갔다.”

커매, 돈을 지가 주는 걸 그 집에서 돈을 안 받았단다. 그래 그래가, 그래가 가고. 제사를 일찍 지내는 거기 그래. 그래 인자 그 사람들이 제사를 새로 잘 지냈더란다.

[정관면 설화39]

### 하늘이 내려준 명당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한 사람이라 어마이가, 부모가 죽었는데, 어데 물을 데가 없어가, 짚어지고 온데 산을 땡기다가 보니 어데 갈 데가 없어가, 마 들깨이에서(들녘에서) 마 참 꾸불어지가(넘어져), 영장이 마 꾸불어졌거든(넘어졌거든).

‘마, 이기 이 자리인갑다.’ 카고 파고 물어 놓으니 거기 좋더라 카네.

[정관면 설화40]

### 비만 소면 우는 참개구리



이필원(여, 1920년 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참개구리가 우는 기 와 우노 카면, 옛날에 참개구리가 그라더란다(그렇다 하더란다). 참개구리가 비만 오면 운다 아이가? 개구리가.

저거 어매가 내 바닷가에, 강가로 좋다 캐놓이(해 놓으니), 그래 강에다, 마 물속에 뭐 저 땅이 있나? 그래 물 가깝은(가까운) 데다 물어났거든. 물 가세다가(가에다가) 물어 놓으니까, 그리 비가 오면 떠내려간다고, 참개구리가 그리 운단다. 저거 어매 떠내려간다고.

[정관면 설화41]

### 피가 많은 토끼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저게 저 그걸 하거든. 또까이가(토끼가), 병이 나가 있는데, 또까이 간을 묵어야 살겠다고, 토까이 간 구해 오라 카니, 이놈의 각중에(갑자기) 어데가 또까이 간을 구하노? 또까이 간을 몬 구해 산에가 구하러 가니, 어데 구해가 줄라 해가 안 되가. 또까이를 잡아가 간을 구할라 하니, 이놈의 또까이가 뭐라 카면 피가 많아가,

“내가 간을 갖다가 저 산에 만탱이(꼭대기)에 저 나무에다 말께이(전부) 빼가 걸어 놓고 왔는데, 내가 간이 없다.”

카니까네, 그래 없다 해놓으니, 그래 똑 또까이가 그래가 속이고 사는 기, 망개나무 그걸로 갖다가,

“이기 내가 또까이 간을 저다(저곳에) 걸어놨으니, 저걸 내가 가 오께.”  
카매, 가가 또카이 죽음을 피한다는 그런 거나 있을까 모린다(모른다) 인자. [웃음]

[정관면 설화42]

## 이야기 소리에 놀라 도망간 도둑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이전에 한 도둑놈이 내 녀의(남의) 집에 도둑질 하러 댕기는 기라. 그래 방에 앉아가 인자, 영감 할마이가 방에 앉아 있는데, 도둑놈이 삼작에 썩 드가니깐에(들어가니까) 영감 할매 방에서 얘기 하는 소리를 도둑놈이 들었는 기라. 얘기가 옛날에 인자,

“영금 성금 들온다.”

영감 할마이가 앉아가,

“영금 성금 들온다. 따까리를(뚜껑을) 뚜크 띵다. 널름 집어 자신다.”

카는 소리 하거든. 이놈의 도둑놈이 녀의 집에 무러(먹으러) 들어갔는데, 방에서 앉아 그래 카니깐에 ,

“와, 저 영감 할마이가 너무 알아 인자 못 가겠다.”

도둑놈이 나가더라 카대. [웃음]

[조사자 : 진짜로 못봤을 낀데 뭐 보고 그랬던가요?] 이바구를 했어. 영감 할마이가. 예전에 도둑놈이, 얘기를 했는데, 도둑놈이 진짜 드가다가(들어 가다가) 밥을, 죽을 솥에다 넣어 놔는데, 그래 소뚜베이(솥뚜껑) 들어다가 덜렁 집어 마실라 하니깐에, 그래 이바구를 해 놓으니 마 도둑놈이 겁을 내가, 지를 보고 한다꼬.

[정관면 설화43]

## 사람으로 환생해 원수 갚은 벌레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영감 할마이, 이전에 밭에 가면 짐승을 많이 안 직이나, 벌거지(벌레). 벌거지가 많은데, 벌거지가 있으면 죽이는데, 참깨밭에 가면 벌거지가 이만큼(이만큼) 한계(많이) 있거든, 참깨밭에. 그거로 밭에 가면, 그거 다 잡아 직인다(죽인다). 다 잡아 직인다, 못 죽이가 저 물에다 던져버리고 그랬지.

그래 그 할매가 인자 갯벌거지를, 그 갯벌거지거든, 갯벌거지를 잡아가 많이 잡아 직이 놓으니, 그래 이게 원수가 돼가지고 그 집에 태어 났는 기라. 태어나가 아들로 서이로(셋이) 한 텃줄에 낳는데. 마 다 키와 가지고 아들 서이가 다 한 텃줄에, 한걸음에 죽었는 기라. 마 죽었어. 아들 서이로 한테(함께) 쪽 묻어놓고 어마이가 미쳐가지고 마, 저녁마다 가는 기라. 날이 날수(날마다) 가고 가가 하루 종일 뚜드리고 울고 내 이리 땡기다가, 한번은 그 가가(가서) 잠이 들어가 누부가(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래 생이가(형이) 양쪽에다가 동생을 눕혀(눅혀) 놓고 이쪽에 생이가 묻는다.

“너거, 자나?”

“안 잔다.”

하니깐에, 또 동생 잘에서,

“자나?”

하니,

“안 잔다.”

하니,

“그래가, 우리가 옛날에 갯벌거진데, 우리 엄마가 우리로 많이 직이 가지고, 그래 우리가 여 원수가 되가 다시 태어나가 우리가 여 났는데, 우리로 원수로 갓았다.”

이라더란다.

[정관면 설화44]

## 시어머니 꾀로 남편과 함방하게 된 며느리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장개를 가가, 이전에 장개를 가가 사는데, 지 할마이(할머니)를 놔두  
놓고 내 녀의 사람을 보고 저거 할마이를 밍다 하고 안 하거든. 이거 구  
신같은 얘기 안 하는 기 맞는데. [이야기를 중단하려 하여 조사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줄 것을 청했다.] 안 들어오고. 그래가 이 여자가 암만 봐  
도 마, 내(늘) 녀우한테만 보고 좋다 하지 지는 돌아도 안 봐가지고, 그  
래가 저래가 하루 저녁에는 내체 지가 마, 시어마이캉(시어머니와) 짜가  
지고 곱게 인자 머리를 빗고 좋게 끼미(꾸며)가지고, 그래가 지가 방에  
떡 따로 가가 저거 방에 가가 누버가(누워) 있는데,

“딴 사람 왔다.”

카고 이래가지고, 시어마이캉 짜가지고,

“니가 온 저녁에 그래가 있어 봐라.”

카면서 이래놓으니, 그래가 인자 그날 저녁에 남애가(남자가) 어데 갔다  
가 오는데, 새로 끼미가 있으니, 뭐 낫선 사람 눈이 어둡아가(어두워) 모  
른다 말이다. 몰라가지고, 그래 저게 이전에 안들로(안사람을) 나무랄 때,  
뭐라고 나무라냐 하면, ‘보지가 훌개 보지라는 둥, [웃음] 뿔이라는 둥’  
이래 험을 잡아 이래 놓고, 그래가 그래놓으니까.

그날 저녁에 땡기로 남애가, 영감이 하나 해가, 땡기로 해가와가 갖다  
주며, 땡기를 갖다 주며 그래가 떡 그날 저녁 안들로 데리고 잤는 기라.  
이래 놓으니 그래 그날 아츰에 안들이 나와가 마당을 쓱쓱 빗자루로 쓸  
면서로,

“저 사람이, 오늘 저 땡기는 뭘 땡기고?”

카니깐에,

“헐케(싸게) 보지 판 땡기다.” [일동 웃음]

[조사자 : 할머니가 재치가 있다 그지예?] 응, 그래. 그래가지고 ‘판 땡  
기’라 하며 마당을 쓸고, 속옷 바람으로 마당을 쓸고 이래놓으니, [조사  
자 :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기분이 좋고 그래놓으니 그래 남애가 기  
가 차가 다부 돌아오더란다. 하도 씨어마이가 볼라 카이 기가 차가 그래  
가 아들로 땡겼는 기라.

[정관면 설화45]

## 두 처의 공덕으로 목숨 구한 영감

이필원(여, 1920년생) 구술

2011년 2월 24일 채록

[병산리 병산마을 병산마을회관]

자숙(자식)을 못 낳아. 살림은 대계(큰) 부잔데, 동네에서는 살림은 제일 부잔데, 자숙이 없어. 자숙이 없고. 마 이 영감이 어찌기 별나게, 독하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마, 할마이들로 마 밥도 못 먹고 살구로 만드는 기라. 자숙이 없으니까네, 할마이는 하나 정해가지고, 정해나도 자숙을 못 놓는 기라. 못 낳아가, 그래가 마 일하러 가도 저 앞산에 가가 집에 뭐 연기 나는가 내 징키고(지키고) 이라는데.

그래가 절에 가가 뭐 불공을 해가지고 아를 하나 놓을라 해도 가라 캐야(해야) 가제. 뭐를 가 가야(가져 가야) 가제, 이래가 몬가고(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 인제, 저거 할마이 둘이가 의논을 해가지고 밥을 하는데, 쌀로 이전에 쌀 거두는 쌀 떠넣는 거 안 있나? 절미쌀. 그걸로 단지로 놓고 밥 때마다 한 손갈씩(한 손가락씩) 떠넣어 가지고, 그래가 인자 단지로 모다 놓고, 저거도 절에다 갖다 줄라 캐도 갖다 줄 여계가(여가가) 없어. 영감이 어찌 지키싸서(지켜서) 못 가고 그래가 있으니까네, 그래 한 날 뒷절에 스님이 동냥 하러 왔거든. 왔는데, 그래 동냥을 줄라 하니 동냥 줄 것도 없고 그래가,

“우리가 이거로 가 갈려고 해도 가 가지도 못하고 천상 이걸로 스님을 쥐 보내자.”

카며, 여자 둘이가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 쌀로 두 말로, 모다 논 쌀로 두 말로 스님을 주가 절로 보냈거든. 절에 보냈는데, 보내놓고도 그래가 영감 잘에는(한테는) 못 그렇게 하고, 가도 못하고 이래 있어노니.

그래가 저 영감이 한 번은 저 어데 갔다가 산골짜기, 산채로 오다가 보니까, 큰 방구 밑에, 큰 방구 밑에 앉아가지고 쉰다고, 그 인자 담배를 한 대 품고(피고) 쉰다고 있으니까네. 방구 밑에서 세(혀) 차는 소리가 ‘쩍쩍’ 나거든. 세를 ‘끝끝’ 차는데, 가만히 들으니까네, 그 영감쟁이를 보고,

“그래 니가 아무거이가(아무것이가) 니를 내가 오늘 잡아 묵어야, 니를 잡아 묵어야, 내가 천년을 그 방구 밑에서 살았는데, 니를 잡아 묵어야 내가 허물을 벗고 내가 득천을 할 낀데, 너그 집에서 절에다가 백미 공양을 두 말로 올린 때문에 내가 니를 문(못) 잡아 묵고, 내가 또 이 방구 밑에서 천년을 고생해야 되네.”

이라거든. 그래 영감쟁이가 가만히 들으니까네, ‘집에 곡식 한 움큼 준 적이 없는데, 이기 어찌 백미가 올라갔노?’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인자 집에 와가 물었다. 할마이들한테 물으니까네,

“안 그랬다.”

카거든. 겁을 내가 뭐라 카면, 그래 카면 맞아 죽을 끼고 못그렇게 해가, 그래가 있다가,

“너거가 바른 말로 해라. 오늘 내가 너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가 그래 카이까 그래,

“못 갖다 주고, 가도 못하고 스님이 왔는 거로 절미쌀로 모다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 백미를 두 말로 스님이 왔는 거로 보냈다.”

카이,

“그래, 너그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면서로 그래 살고, 죽음을 면해가, 그라고는 저그 살림 있는 거는 말캐 (모두) 념의(남에게) 다 퍼주더란다. 그래 퍼주고 그래 살았다 하대.

## 5. 철마면 설화

[철마면 설화1]

### 장수가 세운 입석마을 선돌

송사현(남, 1939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우리 마을이 입석(立石)인데, 입석인데, 설 입(立)자, 돌 석(石)자거든. 돌이 섰다 카는 바람에 선돌이거든, 선돌. 설 입자, 돌 석자 이래됐는데, 거기 가몬 그 문화재라고 인자 울타리 쪼금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전설로 본다고 카몬, 옛날 여 우리 입석, 선돌부락에 장수가 있었던 모양이라, 장수가. 그래 인자 할매는 밑에 바닥에 깔린 돌이 있어요, 그거를 앞치마에 싸고 오고, 아 선돌은 할배가 어깨에 메고 그래 와가 그 돌을 세웠다 하더라, 그 돌을.

[철마면 설화2]

### 빈대가 많아 망한 산곡 철[빈대절터]

송사현(남, 1939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빈대절터가 여 우리 여 정관 임기(林基) 산곡(山谷)이라 카는 기 있습니다. 산곡이라 카는 고 우에 가몬 빈대절터가 있는데, 처음에 범아사(범어사) 절 생기기 전에 그 빈대절터라 카는 것이 있어. 그래 인자 그거는 몇 년 동안 그거는 염팡(틀림없이) 모르겠는데, 거기 절로 지아놓고 이래 있으이 사람이 그래 많이 왔던 모양이라.

사람이 막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래 이놈의 마 빈대가 마 억~ 생겨

가지고, 절에 빈대가 생겼다 카몬 절이 안 된다 카이. 그래가 인자 그 그 우리 가보몬 범어사 절하고 탁 요래 맞보고 있어요. 빈대절터라 하는 기 맞보고 있는데, 그래 이 절이 망가지고, 그래가 인자 기 빈대가 많이 생겨가 절이 망가졌기 때문에 빈대절터랍니다. 빈대절터라, 이래 얘기를.

[철마면 설화3]

### 비만 소면 보이는 도깨비불

송사현(남, 1939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이거는 내가 실지 적은(겪은) 일이라. 신병 하내이 하고 들어서 교대로 산 고지에 한 천 메다(m) 이래 될 겁니다. 가팽(가평). 그래 산 중턱구리 보초를 시운 비가 부실부실 오는 기라. 아이 막 불이 마 이게 막 획- 왔다갔다 마 자세히 보이까네 이거 내인테로 오고, 그거는 내가 실지 적은(겪은) 일이니, 그래 내 우에 오래 고참한테 물었어.

“저기 무슨 불이요”

내가 이러이카네,

“기 옛날 사변(6.25사변) 때, 사람 많이 죽은 그 인불이라, 인불.”

날씨가 청명하고 가을 적에는 괜찮은데, 사람이 사변 때 많이 죽은 때를, 때가 안자 마 왔다갔다 하이까네, 그이 헛거불이라, 눈에 헛거불. 그래 마 기 인제 호젍이불(허깨비불)이라 캐. 그래가 인자 그 이튿날 나중에 보고, 그 이튿날 저녁에 다시 근무 서러 가는데 하나도 없는 기라. 비안 오이 하나도 없는 기라, 날씨 좋으이간. 비만 부실부실 온다 카몬 기 호젍이, 호젍이불이라. 기 인제 사람 인불이 호젍이불.

[철마면 설화4]

### 황토섬에 귀창 갔다 살아서 돌아온 썩주



성순이(여, 1925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송정리 입석마을 입석경로당]

인자 성주라 카는 사람이가 참 나라에 높은 사람인데, 인자 팔자가 없는 걸로 자식을 낳아놓으이, 물으이까네 귀향 갈 팔자라 카는 기라. 그레 노이 나라서 보냈는 기라, 그 아로. 섬으로 황토섬을 보냈는 기라.

황토섬 배로 타가가 만들어가, 배로 만들어가 태아가 성주 그 황토섬으로 보내노이, 마 내 빼놓고 죽으라고 나왔는데, 이기 막 옷 입고 간 옷은 다 떨어지고, 다 망해지고, 그레 목을 기 없어가지고, 내 고동 벌거지(벌레)를 잡아먹고 싸놓으이 때문에, 열매도 따 먹고 이래 놓으이 온몸에 털이 나가 뱀이 한가, [말을 바꾸어] 저 짐승 한 가지라. 털이 나가. 그레가지고 인자 보내놓고 나이 일찍이 성주를 장개(장가)로 보냈는데, 자식 없는 인자 그 임금이, 어찌 저 정승이 보냈는데, 그 아로 보내놓고선, ‘인자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레 인자 그 임금이 그 성주가 가마- 생각해보이 기도 차도 안하고, ‘만날천날 나는 이래가 있으니, 언제 우리 부모가 날 데블러(데리러) 올란가’ 싶어가, 오만 열매를 다 먹고 이래 땡기까네 새가 쪽쪽쪽 울고 있으이까네,

“새야새야 저 청조새야 홍조새야.”

서천국이 지 낳는 곳인데,

“서천국에 개화부인.”

저그 마누래는 낳두놓고 귀향을 갔거든. 일찍이 장개 드놓이(들어놓으니).

“서천국 개화부인 눅었든가 앓았든가 편지 한 장 전해주گا.”

카이, 그 새가 쪽쪽쪽쪽쪽 울고 지 새끼로 목을 거로 다- 주와(주위) 먹이놓고 그 와가 쪽쪽쪽 울고 있거든. 울고 있으이까네,

“내 편지로 전해줄라나? 개화부인에게 전해줄라나?”

이러카이, 새가 알아듣는 것치 하거든.

그레 글로 써가지고 쪽지다가 감아가 조우(종이)로 감아가 새 입에 물어주매, 서천국 개화부인에게 갖다 전해줄라 해놓으이, 이 새가 막 물고 서천국을 달나거든(달려 가거든). 서천국을 달나이까네, 이 개화부인이 그 남자 보내놓고 사라고, 살아오라고 을매나 칠성각을 모아놓고 을매나 을

매나 공을 떨어뜨렸는지(드려놓았는지), 그 어디 공들이다 보이까네, 뭣이 새가 한 마리 날아오디이 뭣 앞에다 널짜놓고(떨어뜨려놓고) 가는 기라.

그래 이거로 보고, ‘아이고 이 성주님이 살았다’ 카매, 그래 놀래가 그 질로 배로 모아가 다시 모아가 그 황토섬을 또 보냈는 기라. 그래가지고 떡 가가 그래 여게 원 배가 오는가 싶어 인자 성주는, ‘이래 아이구 어짜다가 날 죽일라고 왔는가? 어찌 왔는고?’ 싶어 이래 쌓다가 보이까네, 배가 하나 오디만은 떡 대고 사람을 찾거든.

떡 내비다(내다) 보고 있으이까네, 뭣이 짐승이 나가 털이 나놓으이 맨 쫓개(조그만 할) 때 가가지고, 내 고동 벌거지(벌레) 잡아먹고 빨가벗고 꺼끄랑 잇사가 옷을 개라가(가려서) 빨가벗고 옷도 가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래가 있으이까네, 그래 사람인냥 짐승인냥 엉금엉금 내려오거든, 차가 오이. 지는 사람이, 성주는 사람인데, 저 배가 우째서 왔는가 싶어서 엉금엉금 산에서 내려오이, 그래,

“사람인냥 짐승인냥, 사람이면 이 배를 타고 짐승이몬 타지 마라고.”

인자 사공들이 가가 인제 그걸 하이깐, 그래 그 성주가 내려왔다. 그래 내려와 그 배로 타고 와가 개화부인을 만나가, 그래 우리 이 한국에 와가, 그 그서 저 황토섬에서 오만 나무 열매로 다 가 와가, 소나무 씨칸 오만 거 가와 가, 그래 인자 여 와가 저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래 인자 나무로 전부 숨가서, 소나무로 숨구고, 그래가 성주님이 그 나무로 숨가가 그 나무고 가지고 집을 지았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 언젠든 성주님을 먼저 위하거든. 그걸 그래 뻐는데, 그 마 일이 많은데 내가 다 잊아뻐어.

[철마면 설화5]

## 불을 꺼서 주인 구한 개와 개좌산

차두철(남,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연구리 구림마을 구림노인정]

이 개좌산은 여 철마면에서 해동수원지, 와 못을 넘어가는 중턱에 있는 산입니다. 이름이 개, 개를 비롯한 개좌산이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있는데, 이 산은 우리 여 구림마을에 구로곡에 어- 서씨라고 하는 분이 그때 당시 수영부사로 계셨다에. 수영부사로 여 쉽게 말하면 직창이 수영부사로 지냈다 하는데, 이분이 철마여 구로곡에서 여 해동수원지 개좌산을 넘어 거 왕래를 했다 이거래요. 직창에.

그때 당시 이 영감이, 서씨 영감이 개를 한 마리 몰고 땡겼는(다닌) 기라. 땡고(데리고) 땡겼다 이기라에. 땡고 땡겼는데, 한 번은 인자 수영서 그 자기 인자 일을 마치고 철마로 오는 길이었던 모양이지. 개좌산 그 켈 고개 위에서 몸이 고단해가 약간 췌던(쉬었던) 모양이지. 이 영감이 서씨 영감이지. 췌 직(적)에 잠이 약간 들었던 모양이라.

들었는데, 이 영감이 옛날에도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지. 담뱃불 떠진기 불이 났던 모양이라. 그러놓이 불이나가 옆에 잔디가, 이 서영감 서부사 있는 대로 불이 붙어오이, 이 개가 옆에서 눕었다가 고 밑에 내려가 문 물 나는 곳이 있어요. 찬물 나는 곳이 있는데, 꼬리에 물을 찍어다가 불을 끄다가 개는 그 자리에서 죽어뻘는 기라. 그래 이 영감이 한 숨 실컷 자고 일어나 깨보이 뭐 불은 불은 흔적이 있는데, 자기 몸꺼정은 뭐 안 오고 불은 붙어 꺼졌는데, 개는 옆에 보이 죽어있더라. 그래서 이 영감이 모 서부사지 수영부사였는데, 개를 거기에 매장했겠지. 물어주고 돌아왔다 카는 이력을 가지고 산 이름이 개좌산이래요.

[철마면 설화6]

### 구림마을 효자 서홍과 청려각

차두철(남,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연구리 구림마을 구림노인정]

요요 우리 마을에는 구림(龜林)마을에는 말이요, 요 밑에 조금 요 내려 가면 말이지, 구노실(龜老室) 동네 돌아가는 길 옆에 효자각이 있어요. 이 효자각 안에 보면 말이지, 비문에 서홍(徐弘) 정려각(旌閭閣)이라고 딱 되가 있는 기라. 정자는 숨게 말하몬 길 앞 돌아갈 정(旌)자요, 집 각(閣)이 돼 있는데. 그 인자 구노실 동네 앞에 길 옆에 정각이 있었다, 세



효자서흥정려지각

아졌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 정각이 지금 보몬 우리 체육공원 복판에 들어서 있는데, 옛날에 우에 땡기던 길이 효자각 앞으로 딱 나가, 나가 있었던 기라요. 있던 걸 지금 체육공원이 인자 점령을 해가 있는데, 이 그 서흥

카는 사람이 옛날 개좌산 이름을 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짐작도 합니다. 모 우리 기장군 읍지에 보몬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더 이상 상세한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철마면 설화기]

### 생거북바위와 망하게 된 집안

차두철(남,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연구리 구림마을 구림노인정]

우리 마을 안에 생거북바위 카는 거는, 생암(生岩)이라. 바위가 마 살살 크는데, 이기 똑 사람 얼굴, 여여 머리가 말이지 사람 모양을, 형체를 가진 이 생바윗돌이라. 생암이라 하지요.

이것이 크면서, 우리가 지금 내 성이 차감더(차가입니다). 고 집, 요 우리 집단 성반이, 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 혹 나만사람들이(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더. 차씨네 집들 웃대서 그 생암, 머 그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허나 사실은 우리가 울산서 내려 온 제, 온 지가 내 대에 오대 남짓 육대가 흘러요. 그러몬 삼십 년을 봐도, 모 삼오 십오 한 백 한 오십년, 삼육 십팔 한 백 팔십 년뻘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모 우리 할배가 그 살고 있을 때, 이 생암이 커가지고 부자가 된 거는 아이라.

우리 이전에 뭐 서썩가 뭐 어느 집안이 했는고 꼭 모르겠는데, 그래 인자 이 생암이 크면서 이쪽에 서썩가 뭐 꼭 모름더. 오썩가 모르겠는데. 머 부자는 뭐 월출일장을 말이지, 머 살림은 되는데, 그 날들이 옛날에 와 그 과객(過客) 카는 과객들이 돌아가(들어와서) 말이지, 집에 마 이 들오기는 한 둘이가 아이고 여사 일이 아니다 아기라. 고 숨게 말하몬 화적대 하면서 말이지, 심지어 머 피대집 하몬 쌀도 머 날가마도 짚어지고 갈 그때라요. 그러이 주인이, 집주인이,

“우리집에 이 과객들이 덜 오도록 하는 방패가 없으나?”

어떤 과객인데 한 분 물었어. 물으이, 이 과객이 하는 말이,

“좋은 수가 있다.”

이기라. 좋은 수가 뉘고 하몬, 저 건네 보이는 말이지, 집에서 보몬 한 백 메타(m) 남짓하는 요 고게 보면 말이지, 산 기슭인데, 이 생암이 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키만치 크고 있어요. 그래 이 생암을 목만 짤랐다, 목.

“정(釘)을 가 목만 떠뿌몬(떼어버리면) 이 집에 손이 과객은 안 온다 이기야.”

카고 마 갓부는 기라. 그래 마지못해 안주인이, 망할 징조지, 영감한테 들어 당부를 해가지고 천을 대가 목을 찢는 기라. 목을 치니 이 생암에서 피가 흐르더라 이기라.

피가 흐르는 걸, 떠 떨어진 목을 갖다 붙인 거는 우리 어른들이 붙인 기라. 야, 우리 어른들이 붙이가 지금 세면(시멘트)을 발라 놓고 있어요, 현재. 발라 놓고 있는데, 그 생암이 목을 치고 난 연후부터는 모시시각각으로 마 집안이



생거북바위

마 빈곤하게 되이, 오던 과객이 들올 리 만무하고, 그래 망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

[철마면 설화8]

### 열녀 월성 김씨와 열녀각

차두철(남,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연구리 구림마을 구림노인정]

여산(礪山) 송씨(宋氏)네, 여 여산 송씨 후손이 요 앉았음더. 야, 우리 기장 고을에는 여산 송씨네 땅이라고 캐도 과언이 아님더. 이 기장 우리 고을에는. 그 여산 송씨네 이 사람들이 활발함더. 뭐 인재나 살림 사는, 여 재물이나 등을 고루고루 봐서는 과히 여산 송씨네 땅이라 캐도 과언이 아님더.

여산 송씨네 요 열녀각인데, 이 열녀라 하는 거는 말이지, 여자가 남편에게 말이지, 머 여 열녀는 불경이부(不敬二夫)라고, 두 남편을 안거늘 카는 식인데, 그 인자 이야기는 다양해요. 우리가 듣고 있는 바는 그 여산 송씨 인자 그 아내가 말이지, 월성. [조사자 : 월성(月城) 김씨(金氏)] 월성 김씨지. 야, 월성 김씨였는데, 이분이 하 빈곤하게 살 때, 그때 인자 당시 서부자고, 우리 철마면에 서씨고, 여 곶배 정(鄭)자 정씨고, 부자가 철마면에 많이 났어요. 많아요, 옛날부텅. 해주(海州) 오씨(吳氏)도 만석도 했고, 머 문하 요요 문씨(文氏)도 천석했고, 백길 우봉(牛峰) 김씨(金氏)도 천석을 했고, 여 철마에 본래 부자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여 산세가.

그래 인자 집이 가난하이 말이지, 부잣집에 메느리 머 일을 해줄 수뻍이 없는 기쵸.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다가 아들, 영감을 먹이(떡여) 살

렸던 모양이지. 이럴 때 없이, 돈이 없이 그 부잣집에 머 일을 해주고, 심지어는 몸까지도 머 했던 모양이지. 이래가지고 결과, 이 월성 김씨 되는 부인은 거기에서 난(농은) 아들 자기 손으로 다 없앴뵈다 이기



월성 김씨 열녀각

라. 죽이뿌고 남편을 톱만에 가서 참 열렬히 시공했다 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여 열녀각이 여산 송씨네 집안에서 중수(重修)하고, 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마면 설화9]

### 삼형제바위와 남근바위, 그리고 자궁산

김문수(남, 1939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연구리 구림마을 구림노인정]

그 구칠리(九七里, 九漆里) 점현(店峴)부락 사면, 삼정진데(삼정재, 三亭齋)인데, 그 바위가 그 그 요래 큰 바위가 세나가(셋이) 나란히 있는데, 그래 인자,

“형제간에 자기 힘에 맞게끔 맞는 돌을 하나씩 가져오나라. 누가 뭐 힘이 세는고 함(한 번) 보자.”

이래가. 그래 큰형이 낳은 바위는 제일 우엔 기 상단키(상당히) 크고, 둘째 형은 두 번째 크고, 셋째는 인자, 세 번째가 나란히 지금 현재도 그 지금 그양 돼가 있고. 고 같은 산에 그 일종의 남근바위, 산이 형태가 그래 생겨가 있고, 그 삼형제 그 산에는 저쪽 건디(건너) 마주보몬 인자 여근바위, 아니 여근산이 있는데. [조사자 : 아 고 자궁 모양 산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해주시고.] 예. 고 남형제 산은 여근산에 끝이 나는데.

[조사자 : 그 본대 태어날 때 뭐 좀 특별히.]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요. 야, 모르겠고, 구전(口傳)에 듣기로는 그래 들어가지고, 현전에 뭐 바위가 세나가 실존해가 있는 기, 고양(그냥) 있는 기 구전으로써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잘 모르고.

[조사자 : 그러문 고 다음에 그 저 서로 인자 그 요 자궁 모양 산하고, 고 또 남근바위하고 고계 좃 선 이야기.] 고계 내내 구칠리 점현부락인데 여자 인자 자궁산이라, 일명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고 가문 송씨 묘가 본래 먼저 들어가지고 밑에 있고, 해주 오씨 뫼가 내나 만석하는 그 얘기인데. 용상을 딱 끼가 늘리가지고 딱 써져가 우에 써져가 있

는데. 근데 해주 오씨는 인자 재벌이 있고 거기 있으니까, 이 행세로 하 민서 제사로 지내고, 그 송씨는 자기네 선조를 일부 돈을 받고 팔았거나 어쨌거나 모르겠지만은, 그래 놔놓으카네 마 중간에 그 성묘(성묘)도 잘 안 하고, 하다가 지금 인자 최근에 와서는 그 송씨네들도 같이 성묘를 하고, 해주 오씨도 성묘를 하고, 지금 막 우리가 그래 지내고 있는 걸로 현지 보고, 야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게 뭐 어찌 됐는지 해주 오씨네 남근, 요 저 산에는 그 도로를 닦으면서 그 혈이 끊어졌어요. 혈이 끊어졌는데, 그래 글는가(그렇는가) 저래 글는가 모르지만은, 고 자손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대를 이어 나오더라고. 야, 저는 우리는 그 거백이 모릅니다.

[조사자 : 그 묘는 그러면 어떻게 썼는가요?] 묘는, 옛날에는 묘가 있어도, 그 없는 사람이 인자 묘가 이래 먼저 써져가 있어도, 이 만석이나 하다가 보니까 그 아마 좀 돈을 좀 주고 마 이래 그래 안됐겠는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래가지고 자기네 참 마 선조를 팔아뒀다 해가지고 관리로 못 했고, 세월이 인자 게우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인자 양 가문에서 다 같이 인자 이래 관리를 하고 지금 지내는갑습디더.

[조사자 : 근데 고기가 명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고 좀 이야기 해주세요.] 여자 바로 자궁설이라. 자궁설인데, 가운데 등이 도도롭한 게 아주 약한 등이 도도롭하이 있는데, 요 밑에 있고, 우에 묘 용상이 고다 바로 딱 찢라가지고, 고 고래갖고 지금 나란히 되가 있습니다. 고 등에. [조사자 : 고기 묘를 쓴 사람들이 해주 오씨니까? 예산 송씨니까?] 송씨가 본래 먼저 써져가 있었고, 인자 해주 오씨는 만석을 하면서 뭐 터가 좋다 이래 되

이카는 그 뒤에 인자 늘리고 쓴 기쵸. 거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몬 그래 나옵디더. [조사자 : 그러면 맞은편에다.] 맞은편에가 앞산이 요래 남근매로 요래 쪽 요래가 있는 데가 혈이 찢라졌고, 삼형제바위가 거기 나란히 있고 그렇습디다.



구림마을에서 본 암산



[철마면 설화10]

## 토끼의 떡을 뺏아먹은 영리한 두꺼비

최복득(여,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옛날에, 옛날에 토끼하고 두꺼비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 인자 한 날에는 토끼가 어테 가서 떡을 한 치 얻었거든요. 얻었는데, 두꺼비가 자꾸, “갈라 묵자 토끼야. 나랑 갈라 묵자. 갈라 묵자.” 이래서러 토끼는 주기는 싫은데, ‘요 우째도 요거로 떼져가지고 빨리 가가 좌묵게(주워 떡게) 하몬 내가 안이기겠나’ 싶어서러 토끼가 안을 냈는 기라.

“뚜껍아 뚜껍아, 그래 소쿠리에다가 떡을 담아가지고 저게 던져가 먼저 가가 좌묵는 사람이 먹게 하자.”

이랬거든. 그래 두꺼비는,

“그래, 글하자(그렇게 하자).”

토끼가, [말을 바꾸어] 두꺼비가 그래 안을 냈나. 그래 인자 밭 떨어진 소쿠리를 하나 구해 와가지고 거다(거기에다) 담아가지고 힘대로 활짝 편지이카네, 토끼는 빨라가 소구리만 보고 다말아(‘달려’의 방언) 가고, 두꺼비는 못 가이카네 마 떡이 소쿠리 뚫어지나 놓으카네 땅에 흘러뺐는 기라. 두꺼비가 말짱 주워가지고 딱 담구영(담구멍)에 딱 드가몬(들어가면) 토끼는 못 따라오거든. 담구영에 딱 드가가 그래 들았아 있으이카네, 그 토끼가,

“뚜껍아 뚜껍아, 떡 갈라 묵자.”

이러거든,

“응, 가만히 있어봐라. 떡 본 직게(김에)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 인자 다 지내가나?”

“응, 이제 채린다. 인자 채린다.”

“인자 다 돼 가나?”

“인자 절 한다.”  
그래 절 한다 카고,  
“그래 인자 다 지냈나?”  
카이,  
“꼰딱꼰딱 다 뭉뭉다(먹어버렸다).”  
카거든. 그라고 뚜꺼비가 그라이카네 기다리다 기다리다 마 토끼는 못  
얻어묵고, 그래 마 토끼만 거지더랍더. [웃음]

[철마면 설화11]

누나 집에서 배불리 대접받은 가난한 동생

최복득(여,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옛날에요. 너무 너무 못살아가지고 배가 고파 못 살 지경인데. 그 그  
누나가 참 잘 하는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누나가,  
“우리 집에 와가 밥이나 좀 먹고 가라.”  
이라이카네, 누부네(누나네) 집에 밥 묵으러 갔는 기라. 밥 무러 가이카  
네 밥을 마, 어찌 그 누나 시어마시가 너무 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 불상타고(불쌍하다고),  
“사돈, 그래 자꾸 무라. 무라.”  
캐가, 또 묵고 또 묵고 마, 배가 불러서러 몬 올 지경이라.  
이래 이래가 한 등을 넘어가 누나 집에 밥을 묵고 오는데, 어찌 배가  
불러서러, 산에 가몬 녀삼대라고 있어요, 녀삼대라고 쭈 봄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끊어가지고 배에 열어 좀 처내가 올라고, 그거로 끊어  
가지고, 암만 끊을라 캐도 안 끊어지거든, 어찌 찢겨서(질겨서). 그래,  
“찢기더라 녀삼대야 아습더라(아쉽더라) 채칼이야.”  
채칼이나 하나 가갓이모 그래,  
“아습도다 채칼이야. 든든터라 누부밥이. 어지더라(어질더라) 사돈덕이.”  
이러 카매 울더랍니더.

[철마면 설화12]

### 팔자는 못 속인다

최복득(여,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옛날에 삼대독자 외동아들인데, 그 어디가 물으이까네,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라고.”

그래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물에 빠져 죽을 운명리카네, 그래 그래 알고 있으라고 카이께네, ‘물에, 물에만 안 가몬은 안 빠져죽겠지.’ 하면서 식구대로 못 나가겠끔 방에다 딱 가다놓고(가두어 놓고), 인자 그날 그 시에 딱 있는데, 그래 있는데, 그래 말리다가 문을 딱 철장해놔놓고 밖에 사람들이 나갔는데, 시간 지내고 오니깐, 물 수(水)자로 써놓고 거다가 혀로 딱 담아가 그래 죽었더랍니다.

그 그런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운명인데, ‘못 가게 안 나가면 안 빠져 죽겠지’ 싶어서는 딱 강금을 헤가 있었는데도, 물 수자로 써나놓고 거다가(거기에다) 혀로 담가가 죽었다. [조사자 : 아, 혀를?] 예. 그러이카네 팔자는 못 속인다 이거라.

[철마면 설화13]

### 베짜는 날을 알아맞히는 점쟁이

최복득(여,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어떤 사람이 베틀에 베를 짜다가, 아 이놈의 베가 얼마나 지업아(지겨워) 죽겠는지 베틀에 오래 앉아가 마, 며칠 없이 있으이카네 얼마나 지업아 죽겠는지, 에이찌 마 이거 내가 지금, 점쟁이가 용한테 있다 카대. 인자 한 틀만 넘으론 다 짤 참인데, ‘어디 점쟁이가 참 용타 카이, 이 점

쟁이 용는가 안 용는가 내가 함 물어봐야지’ 카민서, 그래 인자 갔는 거라. 점쟁이자테 갔는 기라.

온(오늘) 저녁에만 짜몬 다 짜는데, 그래 가서 점쟁이한테,

“저게 내 베 언제 어느 날 끝나겠는고 한번 봐 주소.”

이라이카네, 점쟁이가,

“앞으로 석 달 걸리겠다.”

하거든. 석 달 걸리겠다. ‘에이 점쟁이, 니가 뭐 안다고 니가 석 달이나, 온 저녁에 짜면 끝나는데’ 그래가 인자 점쟁이가 오면서러, 그래 인자 와 옛날에는 요강을 바아(방에) 들라가지고 하다가 안자 밖에 씻어가 물을 담가 놓거든요.

물을 뜨봐(떠 부어) 놓는다 아인교? 저녁 때 물 봐뿌고 들고 들온거든. 그래 물을 들고 들와가지고 소변을 딱 보고, 인자 베 마저 찢라고 이라(이렇게) 하이까네, 안에 독사가 들어가 있었더라. 요강 안에. 그래가 물리가지고 참 석 달이 이빠이( いっぱい, 가득) 걸리더라. 그마이 점쟁이가 용하더라.

[철마면 설화14]

## 사주 따라 부잣집 사위가 된 머슴

류흥순(여, 1923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옛날에 삼십 년을 머슴으로 살아가지고, 삼십 년을 머슴으로 사노이 몽다리 총각이 됐는 기라. 이래가 ‘내가 이래 살아가 안 되겠다’ 카고 안자 나갔어. 삼십 년 머슴 살은 세경을 다 받아 쥐고 마 난줄로 나왔어. 나아서, 그 어데 가이, 질거리에 참 사주 보는 사람이 있어서러, 사주를 보이 삼십 년 머슴 살은 걸로 고양이 다 털어놓고 사주를 봤어. 사주를 보이, 당신이 오는 보름 해따는겨정 달(닭) 울기 전에 시(세) 고을로 밭아야만 당신 때로 만낸다.

[조사자 : 시 무슨 필요?] 시 고을로, 시날으로 고을로. [조사자 : 아,

세 고을로.] 예. 내가 말로 옮기 못 한다. [조사자 : 괜찮심더.] 그래가 그래 때로 만낸다 이캐놓이, 그래 참 여 같으면 양산, 김해, 뭐 저 밀양, 저래 시 고을로 밟았는데. 그래 참 어둡아서, 또 한 고개 또 넘어, 넘어이까네 어데 외딴 데 참 불이 환한 데 있었서러,

“함(한 번) 좀 자고 가자.”

고 들어가이, 여자 혼차(혼자) 눕어 있었어. 그래 여자가 있다가 한단 말이, “당신이 온 저녁에 내 시킨 말로 들을라나 안 들을라나? 행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그 총각이,

“받겠다. 그래 시킨 말 듣겠다”

고 카이, 그래 옛날에는 총각이, 응더리 총각이 머리를 땅아가 묶아가 땡겼거든. 그래 인자 참 자기 옷을 뺏기가 입히고, 그 머리 인자 총각 머리로 인자 땅아가 이전에는 접치가(겹쳐서) 이래 묶아가 이래 땡겼다고. 우리 애릴(어릴) 때는 그래가 땡겼는데, 그래가 인자 비네(비녀)로 꽃이고, 그래 방아다 이불 밑에 눕히 놓고, 여자는 인자 부엌에 자기가 혼차 눕어가 있고, 부엌에 숨어가 있고 이런데, 참 밤중이나 되이 우신도신 우신도신 사람 소리가 나디,

“방에 들오라고. 들오가.”

“눕어 잔다. 잔다 잔다.”

카민서, 이전에는 통택기 울는 사람이 있었거든. [조사자 : 통?] 통태라고 이전에는 사람으로 업고, 업고 가몬, 바리 업고 가몬 무르뎌다고(물어뜯는다고) 뒤비시(뒤집어) 업고. [조사자 : 아, 예예예예.] 뒤비시요. 여자를 뒤비시 남자가 업고 그래 가는데, 기 통태라 카거든. 그래 통태를 끼아가 갔는데, 그래 한 한 몇 십년아 갔다. 옆드리가 가이까네, 그래 대감이 하나 나오디, 그래 대감이,

“온 지녁(저녁)에는 인자 틀렀다.”

내 자기 딸이 인자 참 별당 앞에, 별당 안에 자는 방이 있거든.

“별당 안채 그 방에 우리 아무거이 있는데, 거가 재아라(재워라).”

이켰거든. 그래 그 갖다 재아 놓고, 아직에(아침에) 자고, 다시 딸아도 안 나오고, 눕히난 손님도 안 나오고 이래서, 참 대감이 함 가보이, 와따 뵈이 마 응더리 총각이 마 상투를 이런 거 꽃이고 마 떡 앓아있거든. 마

대감이 기가 차서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와가, 머슴들로 머슴들로 시기가(시켜서),

“전부 마당 청소를 다 해가 덕석을 패라(펴라).”

그래 덕석을 패가지고 인자, 그래 인자, 마 그 자리에서 당장 마 자기 딸하고 그 총각하고 혼인을 시켰어. 행례로 시켜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래 삼십 년 머슴 살은 거로 한 문 주고, 그래 그날 밤에 때로 만내가 그 부잣집 사우가 돼가 잘 살더란다.

[철마면 설화15]

###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운문사 사리암

최순금(여, 1928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웅천리 석길마을 석길노인정]

사리암(舍利庵), 그 인자 얘기가 그래. 방구(바위)가 요래 있는데, 방구 밑에 요만한 요래 구덩이가 있는데, 샘이가 있는데, 물이 똑 지금도 똑 뜨면 똑 그래 한 빠람(방울), 고 이상 더 안 뜨지고, 열분지 있다가 뜨도 내 고양이(그 모양), 한참을 있다 뜨도 그양, 내 그대로고.

‘그 와 글런고’ 싶어서 인자 생각커이, 쌀이 그 하도 또닥또닥 하나씩 떨어져가 손 둘이 모으몬 둘이 밥이 나오고, 서이 모으몬 서이 밥이 나오고 그렇더라 캐. 그래가 애가 터지가 고양이(고양주)가 마 쌀로 나오는 궁가리(구멍)로 꼬쟁이(꼬챙이)가 뚫어뚫어. 뚫어뚫어, 그래 뚫어뚫고부터는 마 물이 나오고 마 쌀이 안 나오더라. 그래 궁가리를 뚫어뚫고부터는 인자 물이 나오고 쌀이 안 널찌더란다.

[조사자 : 거기 어디 있는 절입니까?] 그게 내나 청도(靑道) 운문사(雲門寺). 청도 운문사.

[조사자 : 청도 운문사에.] 야. 거기 가문 사리암이라고 있거든.

[철마면 설화16]

### 홍류청에서 웅천까지 울리는 돌과 석길마을의 탕주나무골

문병갑(남, 1944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웅천리 석길마을 석길노인정]

우리 웅천(熊川)에는, 웅천에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우리 그 박씨가 조희(많이) 살아. 배씨 배씨. 배씨가 산음이 폭발을 할 직에 되몬 동네는 울리는 게 없는데, 우리 그거 모르는데, 저거 집만 울린다 이기라. 밑에 방구들이 울린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웅천에 여기 있는 돌은 홍류정, 홍류정에 있는 돌이, 근 우리 폭포수 큰 바위가 은행 종종 밑에 내려가 몬 웅천까지 연결이 다 됐다 이야기라. 그 바위가.

거기 뚜드리는 폭음이 저거 밑에 구들을 울린다 카거든. 그래서 기기 그래서 우리 뒤에 저 돌도, 돌도 참 옛날에 수천 전에 그 바위가 마을로 계속 밀고 내려오고 이래 하면은 우리 마을에 흠이 생긴다, 흠이 흠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못 밀고 오도록, 까시(가시)는 옛날에 귀신도 못 온다고 카는 그 탕주나무를 웃대, 아주 웃대 선조들이 심은 거라. 그래서 그기 탕주나무골이라, 탕주나무골.

탕주나무골이 됐는데, 우리 맨지(면지)나 이렇게 나오면은 다 모르는 이야기를 남자,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 남자, 여자 이야기라는 거는 우리 별로 안 좋은 이야기거든. 남자 여자 이야기가 거 드가노, 그 판국에. 그래서 우리 마을은 탕주나무를 읊어가지고 그 바위를 마을에서 방패를 못 내리오라고 카바를 해준 것이 아니냐.

[철마면 설화17]

**호랑이가 빠져 죽은 한탄강**

문병갑(남, 1944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웅천리 석길마을 석길노인정]

한탄강에, 한탄강이 왜 한탄강이냐 이기라. 거기에 빠져 죽은 여자가 한이 돼서 한탄강이 됐다는 네가 우리 거 돌 주우러 많이 멩기거든.

한탄강이 왜 됐노 카면은, 저거 시내, 인자 시내지만은 그 때는 밖에 나왔다가 집에 산골로 들어가는 기라. 오줌이 얼마나 매립졌어요(마립졌어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인자 숨을 때는 없제, 바위에 올라가지고 바위 옆에서 오줌을 눈 거야. 한탄강이 아주 강원도 깊은 산골이거든. 한탄강이 얼마나 기노.

오줌을 누다 보이까네, 뒤에서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그라몬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딱 보몬 여자 지는 죽겠거든. 그래서 안있나, 오줌을 누다가 궁디를 들었어.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야. 궁디를 들었어. 잡아먹을라 그라는데, 궁디를 드니까는 뒤에 눈까리가 엄청 크거든, 눈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눈이 커가지고 이거 마 와구야 호랭이가 마 달아 빼는 기, 뒷걸음 쳐가 달아빼는 기 인자 그 바위에서 널쩌가(떨어져서)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강 이름이 한탄강이야.

[철마면 설화18]

## 거미가 앉을 만큼 자리가 남았던 거문산

문병갑(남, 1944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웅천리 석길마을 석길노인정]

우리는 옛날에, 에- 수천 년 우리가 옛날에 그 참 그 우리가 토지가 이거 개벽하기 전이지. 육지가 생기기 이전이지. 그래가 이기 지금 옛날에는 이기 다 바다였어. 바다 가지고 솟아오르고 할 직에, 저기는 뭍고 카면은 그 당시는 바다가 됐을 때도 거미 하나 앉을 만큼 터가 남았다는 이야기라. 남았다는 이야기라.

[조사자 : 그래서 거미산이네.] 응. 거무산인데. 자 거무, 그 벌레 이름이라. 이긴데 씨는, 클 거(巨)자 씨고, 클 거자를 쓰거든. 클 거자, 문 문(文)자 씨면은 그거 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 기 한문 차이가 있는데, 거 대해서는 우리는 쪽 내려 올 적에는 보몬, 옛날에 이거 토지가 솟아



오르고 육지가 바다같이 현재와 갈라질 그 당시에, 시에는 아주 높은 산들이 있고, 고 옆에는 철마산이라 카는 기 있어.

[철마면 설화19]

### 왜병을 겁주기 위해 세운 철마(鐵馬)

문병갑(남, 1944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웅천리 석길마을 석길노인정]

쇠 철(鐵)자, 말 마(馬)자. 사실은 쇠 철자, 말 마자, 그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임진왜란 시에 보면은 왜병들이 얼마나 밀고 들오겠노. 왜병들이 부산을 치고 들을 적에, 이 관문을 치고 들을 적에, 그라모 우리나라는 군사는 모지라제, 동래부사가 머리는 돌아가나 그 똑똑한 부사들이 산에 말로 세안(세운) 거야, 말로. 그라몬 왜병들이 들을 적에 보면은 저 높은 산에 말이, 왜병이 말이 이래 있으이카네, 와 이거 군사바람에 겁을 주기 위한 하나의 말 마자, 말을 세안 거야.

지금도 보면은 그 그걸 전속으로 내 가기 위해서 쇠로가 만들은 말을 아예 고정을 시키난(시켜놓은) 거야, 고정을. 그래 결국 그 말이 요마탕 있어요. 요 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철로가 만든 말은 누가 쇠붙이라고 누가 다 훔쳐갔버렸어. 그러나 거기 인자 철마라는 것이 쇠 철자 말 마자. 그거를 근거로 해가 이 고을은 철마가 됐겠어.

[철마면 설화20]

### 백길마을의 두 당산나무

문병갑(남, 1944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웅천리 석길마을 석길노인정]

백길(栢吉)은, 어 옛날 보몬, 우리가 그 나무 목(木)자, 흰 백(白)자 카는 거는 안있나, 뭐 동백이라는 이야긴데, 밑에 길할 길(吉)자가 붙으이까네, 그 나무로 인해가지고서는 우리 마을 좀 길하자 카는 이야긴데.

나무는 참 누가 심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그 나무가 지금 나무가 군목(郡木)으로 나 있어요. 군목으로 우리가 그 문화재는 안 되고, 기장군 군목으로 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하나 이상한 것은 안에 끼(것 이), 안에 끼 할매나무고, 바깥에 마을 지킨다 캐가지고, 바깥에는 이거 밖을 지킨다 캐가지고, 입구를, 할매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봄 되가 사월 달 잎이 나오면은, 절대 두나가(둘이) 잎이 같이 안 나와요. 절대 여 아주매는 알고 계시는데, 절대 같이 안 나오고 확인해보몬 확실합니다.

그라몬 원래 할매나무가 먼저 잎이 나가지고 싹이 트고 이래 좀 이래 성해(무성해)지면은, 성해지면은 그 다음에 할매가, 바깥에 할매가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 다음 내년에는 분명히 바꾸는 거라. 할매가 먼저 나몬 할매가 잎이 안 나와요. 죽은 나무도 아닌데, 그러다보몬 한 쪽이 먼저 나가지고 좀 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 백길 동네 그런 말을 안 해서 몰라도, 우리가 나는 확인을 한 분 내 땡기면서 들은 적이 있어서 확인해 보면은 고거는 확실한 이야기라.

[철마면 설화21]

### 석길마을과 탕자나무골 유래

문병갑(남, 1944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웅천리 석길마을 석길노인정]

우리 석길(石吉)이라는 마을 이름이 정해진 거는 돌 석(石)자에 길할 길(吉)자라 이기라. 그러니깐 아까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저게 탕주나무골, 저 돌을 잘 다스려야 우리 마을이 길해지는 거야. 길해지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유래가 석길이라는 걸 썼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 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 이기라. 그래서 저 돌을 다스리는 데는

아까직에 그 탕주나무골.

[조사자 : 탕주나무 이야기.] 그 탕주나무골이 아직까지 흘러내려오지 않은, 그 탕주나무로 가지고 참 귀신도 근접 못하게, 우리 마을에서는 그래서 탕주나무를 항상 심어 놔놓고, 그 이름이 탕주나무골이라.

그래서 저 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냐 카는 거는 탕주나무로 가지고 귀신도 범접 못하게 만들어야 우리 마을이 길해진다 캐가지고, 저 돌 석자에 길할 길자 썼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마을이 정해져 있지 않았느냐 카는 거죠.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사자 : 혹시 이 마을에 거기 인자 자석바위라고 하기는 합니까?] 우리는 자석바위라 카는 거는 여기서 처음 들은 이야기라. [조사자 : 처음 들은 이야기?] 자석이라 하는 말은 처음 들은 이야기이고, 그 사람들은 자석이라 카는 거는 뭐 땡기고 붙는다 카는 이야긴데, 그 자석을 말하는 데, 그거는. [조사자 : 그게 아니고 자혜로울 자(慈)자.] 자혜로울 자자. 응,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인자 들은 바는 없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석길이라 하는 거는 길할 길 자가 있기 때문에, 저 돌을 잘못 다스리며는 우리 마을이 흥해진다. 그래서 저 돌을 잘 다스리는 목적으로써 석길이 됐고. 다스릴라 카니까 어떻게 다스리겠어. 거기는 잡(雜, 즉 잡귀)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잡이라 카는 거는 귀신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썰데없는 사램이 붙으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탕주나무로가, 탕주나무는 귀신도 쫓는다 카거든, 침이. 그래서 우리가 탕주나무로가 그 때는 울로 전부 다 씌우고, 바위도 안 비었어요, 우리 마을에. 탕주나무 다 심어가. 그래서 우리가 돌 석자 길할 길자가 그 당시부텅 석길이 되지 않았나 카는 이야기라.

[철마면 설화22]

## 바위를 깨뜨려 망한 집(17)

김의호(남,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3일 채록  
[백길리 백길마을 백길노인정]

그 저 연안 차씨, 여여여 차○○<sup>16)</sup>이 집인데, 거 차○○인데 그 양반이. 그때가 곤석잤이<sup>17)</sup>를 하고, 목고 살만 하이가 과각(과객)이 예전에는 많이 부우(‘늘어나’의 뜻) 있단 말이에요. 과각이 오йка 할매가 자꾸 올 때마다 앓아줄라(챙겨줄라고) 카이 구찰거든(귀찰거든). 그러니까네 인자 과각이 하나 분하게 말로 하기로,

“우리 집에 여 마 과각 안 오도록 끊어주모, 내가 당신 좀 마 툽툽히 줄게. 방법을 좀 갈쳐주가.”

이카йка, 그래 안자 드가는 머리(‘입구’의 뜻) 방구(바위)가 요런 기 하나 있거든, 방구가.

“저놈의 따까리(‘머리 부분’을 뜻함) 뚜디리 깨부면 안 온다.”

카이, 그거 깨뿌고 그집 살림이 망해뵈어. 그래 살림이 망하니까 손님이 안 오거든. 고래 났다.

[조사자 : 그 바위 깰 때 무슨 뭐 피가 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모르지, 그런 말은 없던데, 그 머리, 동네 드가는 머리 고(거기) 보모, 요쪽에 드가모 왼손 편에 나가면 오른손 편에, 입구에 카바 도는 데 방구 하나 있어요.

[철마면 설화23]

## 남의 뒷자리에 물을 부어 대신 쓴 조상 묘

김오출(남, 1930년생) 구술

2011년 2월 23일 채록

[백길리 백길마을 백길회관]

정씨 거 산소는, 우리 우봉(牛峰) 김가(金哥)가 나중에 정씨 집에, 임진왜란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일로 내리아가(내려와서), 우리가 여 내려온 지가 사백 년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 인자 여서 살다가 이 집안에 정씨, 나주(羅州) 정씨(鄭氏) 집안에 딸인데 결혼(결혼)했어.

16) ○○는 제보자가 실명으로 말한 부분인데, 해당자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처리했다.

17) 식구들 중에 권세를 가진 유명한 인물이 많았음을 뜻하는 말.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주 정씨, 그 저 인자 집안 할매지, 옛날에이카네 할매가 그 마마 또 어찌 우리 인자 김가로, 그때는 우리 근근이 저 임진 왜란 때 저 위에서 내려와가 양산으로 거쳐서 일로(이리로) 내려왔는데. 그래가지고 여 마 그 하이케네, 부리이(부리나케, 급하게) 거 뵈로 씨겠다고 마 이래 생각을 하고, 그 저 정씨네들이 저 옷대 손으로 여 뒤에 멩당(명당)이 전부 정씨네들 산소더만. 이 동네가 정씨네들이 살았는데, 그래가 그 산소 거다 썰라꼬 이래놓이카네 구디기(구덩이)로 이래 파났는데, 옛날에는 구디기로 파놓고, 초분을 해놓고, 그래 한 며칠 있다가 씨는 모양이라. 그래놓이카네 이 할매가 가서 마 물로 들이부았뵈어. 그래놓이카네 그 정씨네들이, ‘아 그 올리고 사던데, 이래가는 안 되겠다, 물 부구지 나는데 뵈로 씨겠노.’ 그 자리로 인자 묘로 안 씨고, 그래 인자, 우리가 그 후에, 얼마나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한 분 돌아가이, 그래가 그 자리 뵈로 안 씨고 있으이까네 우리가 썼는거요. 그래가지고 그 산소가 우리인데, 내인데도 칠대조라,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래 송정대부부 베슬(벼슬)도 하고 이랬대. 그 문헌 할아버지가.

[조사자 : 묘를 잘 서는 바람에 그랬네요.] 그런가 어찌됐는가.

#### [철마면 설화24]

### 갈치제의 유래(17)

진정어(여, 1927년생) 구술  
2011년 2월 23일 채록  
[백길리 백길마을 백길회관]

옛날에 그 저 바닷물이 넘어가 여꺼지(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갈치 한 마리 있을 만치 고래 놓고 그꺼징 물이 쳤다고. 그 여 그때 할매 하내가(한 사람이), [청중을 보며] 구산덕이 그랬나? [조사자 : 그래가 인자 갈치제가 뵈네예.] 예, 갈치제, 갈치고개. 지단치(길게) 올라오는 데 그 안 지던교, 여 올라오는데. 지단키 질이 꼬부랑꼬부랑 안 올라오던교.

[철마면 설화25]

## 처녀할매와 당산할배를 모신 백길마을의 당집

김복근(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5일 채록  
[백길리 백길마을 백길회관]

우리 백길부락에 제당에, [조사자에게 녹음 여부를 물으며] 딱 돼 있어요? [조사자 : 예.]

제당에 거게 어찌 생겼느냐 하며는, 옛날 임진왜란 때, 저 거무산(거문산, 이곳에서는 통상 거무산으로 부른다) 중턱까지 가면은 산 들경이 있는데, 거게 마을에 처녀가 피난을 가다가 거서 쓰러져 돌밭에 죽었어. 죽었는데, 그레놓고 나이 마을에 머 죽고 난 뒤로부터 마을에 우한(우환)이 들고 이러니까, 그레 어른들이,

“저 당에 제로 지내줘야 마을이 편하다.”

이래가지고, 그 처자 죽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돌맹이로 치우고 제당을 만들고 우에다가 지붕을 이기고, 그 옆에 물이 나는데 우물로 파고, 이래가지고 매월 음력 정월 열나흘날 밤중에 거기에 올라가서, 거무산 중턱에 제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모시는데.

그해 준비가 또 일반사람들이 안 되고, 아주 그 부정이라 할까, 그 옛날에 미신적으로 말해서 순산을 한다든지, 부모 죽은 상을 입고 있다든지, 에 이런 결혼을 앞둔다든지 이런 거는 부정이까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딱 미리 빼가지고, 제사 음식(음식)을 하는데, 찬물에 겨울철에, 저 그러니까 정월 열사흘날도 목욕하고, 열나흘도 찬물에 목욕하고, 목욕하고 음식을 줌 해가는데, 반찬 음식을 해가는데, 음식 맛도 안 보고, 입을 절대 못 대고 그대로 음식을 해가가 제를 올리거든.

제를 올리고, 그레 내려와서 여 당산나무, 여 우리 당산할배라고, 마지막 밤중에 제를 마자 지내고, 그레 가몬 인자 그 집에는 석 달 동안에 대나무 강구를 쳐가지고, 훅훅(훅을) 그 뿔은 훅훅 삼쭈거리(삼쭈에, 즉 대문에) 놓고 석 달 동안에 일반이 아무나 거 나대지도 않고, 그 집에서는 아무데도 안 가고, 부정을 가신다 이래가. 부정한 사람이 상주 했던 사람이 지내가몬 말 안하고 그냥 지내가고, 이래가 삼 개월간에 잘 지키

고 고래 나오모, 그 나머지 일 년 열두 달은 잘 지내면은 마을이 팬코 (편안하고), 너무 좋은 나쁜 일도 없고, 제사를 잘 줌 모욕(목욕)을 마, 모욕채기(목욕채개)를 뜨신 물에 했든지, 말하자몬 줌 목욕을 안했든지 잘 정성들이 모시고 뒤처리도 잘 부정을 가지고 이라면은 마을이 편안하고, 어 동네 좋은 일도 생기고 이려고, 만약에 그 제사를 부실하게 지냈 다 카면은 마을에 소년죽음도 나고, 부락에 좋은 일이 아이고 나쁜 일이 생기고 이랬어요.

이래서 그래가지고 계속 그 길에 먼 데 지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미련하고 이라니까 바지기를 짚어지고 올라가 지내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한 집에서 대충 지냈어요, 그 때는. 아들하고 어마시하고 하거나, 또 내우간에(내외간에) 신랑각시 하거나, 한 집에서 이래 지냈는데, 그기 이기 너무나 힘이 들고 이라이까네, 아무도 모실 사람이 잘 안 내 띠고(안 나서고) 이라이까네, 새마을사업 때 70년대 그때 박정희 새마을 사업 때 가가지고 무조건 깃대를 꼽아놓고 밑에 여게다가 제당을, 산에 안 올라가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회관 옆에 여다 모셨거든. 쪼깐 스텔트로 해가지고 보로꾸로 쌓아가 모시가지고, 마 합동으로 마 지낸다, 새마을시대이까네. 거치러 찬 물에 모욕 안 하고, 어불라서(어울려서) 헌관도 어불라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맑은 사람들은 낮에 지낸다. 이래가지고 그래 지냈어요, 그래 한 번 지냈어요.

그래 지냈는데, 지금은 인자 남남끼리라도, 장 보러 다니는 할매 하나 있으믄, 마을의 이장이, 이장이 책임기고 남자 같으므로, 그래가지고 이 앞에 마을 주민도,

“나도 그 참여 할란다. 잔 갈아 붓고 할란다.”

카모, 오지 마라 안 카고,

“이따가 여 잔 갈아 봐라.”

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저 여 여 당. [조사자 : 당집에.] 당집에, 예. [조사자 : 노고당, 노고당할머니. 그럼 이기 당산할매나무가 있고, 요게 요 아래쪽이 당산 할매나무?] 이 할매, 당산할매. [조사자 : 당산할매나무고.] 예. 여는 처녀다. 여기 당 지와 놓은 데는 처녀할매가 신이 있어. 피란 갔는 처녀. [조사자 : 예예. 그 처녀할매를 지금 노고당할매라 그러네.] 예예.

[철마면 설화26]

## 불개미 잡아 주인 딸과 혼인하고 부자된 머슴

김복근(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5일 채록  
[백길리 백길마을 백길회관]

불개미, 불개미를 어찌 얘기가 낫느냐 하면은, 이놈의 팔자가, 옛날 얘긴데, 내 머슴살이만 하고 장개(장가) 갈 때도 됐는데, 그 머 부모가 머 옳기 없고, 재산이 없고 하이까, 누가 장개 가라 카는 놈 있나. 이러이, ‘나도 장개를 가야 되겠고 이런데, 내가 팔자를 머리로 써가지고 곤치야(고쳐야) 되겠다’

일마가 공부는 못해도 머리는 타고난 머리는 재주가 있었어. 예라 시야 나무하러 가가 불개미로 이거 닭 잡아가 뜯어묵다가 먹고 마 빠로 가 이가가(가져 가서), 비니루로 가가 산에다가, 불개미가 집이 있거든, 나무 쪼끄레기 모인 데는. 그거로 비시가지고(벌려가지고) 그 안에 조아 여녕이(주워 넣으니) 마, 이기 닭 삶은 빠당구(빠가지) 거 마 콧- 붙었는 거라. 그래가 묶아가, 묶아가 짐 딱 지고, 머슴살이 하는 집에 딱 갖다놔놓고, 머리를 딱 씻는기라. 우리집 주인 처자가 저 못바(못방, 모방. 안방 모퉁이에 붙은 작은방)서 자는데, 대루청에 또 문이 있고 한데,

‘저놈 처이 저놈을 내가 꺾혼(결혼)해야 되겠다. 아 이라면 이 부자고, 살림도 타고, 각시도 좋은 각시도 얻고.’

요래 머리를 썬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밤중쭝 썬 되가지고 가서, 이전에는 그 문살이고 문조우(문종이) 아이가? 문조우, 유리집 그런 기 없거든. 춤(침)을 가지고 소리 안내구로 살살 [침으로 구멍을 내는 시늉을 하며] 요래 빵구(퐁크, 즉 구멍)로 딱 내놓고, 내놓고, 비니루 파닥파닥한 거 한 쪼마이(주머니) 잡아 영어(넣어) 논 거로 살 풀어가지고, 문으로 그 불개미 빵구 내논 골로 [웃으며] 연결을 딱 시켜 냈어.

영, 이 처자 방으로 들어가는 기라, 불개미들이 와- 나와가. [웃으며] 처이가 이불 덮고 자는데, 와이고 뺨스인 데는 물어징구고(물어뜯고), 어이불 뒤집어 쓰도 물어징구고 이러하이까네, 옷을 할락(홀딱) 벗었어. 할



락 벗어가 저 뒷마루에다 딱 놔놓고, 놔놓고 지 마 빨가벗고(발가벗고) 눕우자는 기라. 밤에 꺾질고(건질고) 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잠는 기라.

그런데 그날따라 보리타작을 하는데, 주인이 이 머슴을 보고,

“니 새복에 여여 일어나가지고 내 요구(요기) 시키 줄 끼이까네 보리타작을 해라.”

“예, 글(그렇게) 하지요.”

요놈이 머리를 딱 썼는 기라. 앞에 탁 가가 지 옷을 고다 탁 갖다 놓고, 그 처자 벗어난 옷 그거로 했는데, 그때는 처자가 여여여 타지는, 궁딩이 타져 이라몬 소변을 볼 수 있고. [조사자 : 꼬장주(고쟁이).] 꼬장주 [웃으며] 그놈을 가주 나와가 입고 말이지, 뺄스 안 입고 그놈을 입고 여게 찾아간 거 입고, 보리로 마당에 밭찌기 넣어놓고, 도루깨(도리깨)로 가지고 마 ‘쳤다, 이놈 보리 많다’ 카고 막 뚜디리이카네, 주인 여자가 구석에서, 참 찬욕을 해주야 돼 머슴을. 불로 살 영으매 음식(음식)을 하민서 보이카네, [웃으며] 머슴이 부랄이 척 뒤비져가지고 여름이 되노이, 어, [실제 시늬를 하며] 가랭이 이래 들고, ‘엿다’ 캐사매 도리깨로 타작하이, 불랄이 흔들흔들 하거든. 앉아서 보니까네, ‘아 저 희한하이 아 저 옷이 와 절노. 저놈의 꼬치가 노다지 났노.’ 이래이,

“니 와 옷이 글노? 어?” [일동 웃음]

이러카이카네, 이 참 머리 좋아.

“아따 이기 내 옷인가 입고 입었더니만은 이 지 옷이던가봐.”

그거로 크기 그래 췌뻤는 기라. 그래 췌뻤데, 딸이 안 나와서

“니 와 안 나오노?”

카고, 문을 여이까네, 그 옷을 머슴 옷을 거 입고 있거든. 빨가벗고는 못있고. 하이고 옷이 바꼈다 말이라. 그러이 이 부모가 볼 때는 한방에 동침을 했다 카는 기라. 사고 쳤다. 사고쳤으이카네, 천상 넘 우시(우사)가 되고 카이께네, 마 큰 머슴 시키가지고 거 모욕(목욕) 씻기고 말이지, 좋은 옷 해 입히고 이래가, 소안치(송아지) 한 마리 잡고, 마다아(마당에) 덕시기(덕석) 패고(펴고), 팽상(평상) 거거 덕시기 패고, 뱅풍(병풍) 치고, 사철나무 거 갖다 쪼고, 글 잘 이르는 사람, 혼례 이르는 사람 있거든. 동네마중 그 사람 초청해가 홀기 부르고, 신부 신랑 거 잔을 주고받고 예를 했어. 그래가 부자됐어.

[철마면 설화27]

## 당일 천석하는 달음산 뒷자리

김복근(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5일 채록  
[백길리 백길마을 백길회관]

정관면 달음산은 몬디(꼭대기)에 큰 바위 밑이, 큰바위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데, 그 바위가 없었대요. 없었고, 그 능선으로 과각(과객)들이 소리길로 많이 나들았대요(나고들고 했대요).

누가 그러는데, 이 정관면에 장개도 못가고, 불쌍한 총객이 내 남의 집에 살다가, 아버지 혼차 있고 이란데, 아버지가 마 죽었던 말이야. 죽어 노리카네, 어느 놈이 친척이 있나 재산이 있나, 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 그 머 글로 한자 아나 머슴살이만 시킨 거고, 그걸 아버지라 카고 그라는데, 상주로 하는데, 누가 뭐 상주 하고 오구리고 할 게 있나. 그래 아버지 초상을 쳐야 될끼리카네, 덕시기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다 담가지고 그 달음산 글로 올라갔어. 올라가까 고바위고 하이까네, 대이까네 지게로 받치놓고 쉬는 기라. 쉬고 있으이 지내가는 과각이,

“이 사람은 니가부지(너의 아버지) 신체를 지고 피를 씨고 지금 받치놓은 그 자리에 거게 피를 씨몬, 오늘 당일 니가 천석을 한다. 당일 천석이다.”

아히, 그러캐서 마 피이(팽이)로 가 그 자리에 지게 받치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아버지를 붙었어. 물어놓고 마 지게 지고 내리오니까, 머 상주한다고 살 한 되 없제, 꿏았제, 이거 머 아버지 초상 치가 묻는다고 일 많이 했제, 배가 고파 죽겠거든. 어데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몰라 칼 때라야, 옛날에 정관면 여름에 마을에 천석이 있었다는데, ‘그 집에 가면은 몇 년을 머슴살이 했기 때문에 알고, 내 밥을 아깝지 않게 한 상 채려주몬(차려주면) 많이 먹고 안 오겠나’ 싶어서 갔어. 가서 저 주인이 바깥주인은 돌아가시고 과분데,

“아이고 저저 안주인 어른, 내가 우리 아버지 초상을 치고, 뗏일 끌고 이란데, 좋은 일 하고 밥 한 그릇 주소.”

이러 카이까네,

“아이고 그랬나. 그라모 니가 와 진작 말로 안 했노?”

이라매,

“와이구, 우리 방을 여 들온나. 방을 들오라.”

그러이, 여 마 식모도 있고,

“한 상 채리라. 크게 채리라.”

잘 채리가지고 딱 갖다 내놓고, 식모 딱 나가고 나이 어떡(언뜻) 비이 (보니) 밤이라 저녁(저녁)이라 그계. 저녁이라, 저녁이몬 어둡는 기라. 마 호랭이가 카 큰방, 그 저 대청 딱 열고 드가는 문앞에 딱 걸치고 눕어가지고, 어흥- 카매 이놈의 호랭이가 마 어흥거리거든.

어흥거리이 막 밥 묵고 머 방도 못 열고 나가고, 과부가 막 총각 그놈을 끌어안고 겁을 내가 이불을 덮어 씌고 마 있었던 기라. 쪼깨 좀 있으이, 있어도 이래 있는가 보이, 그 머 그대로 있거든. 아 그래놓으카네 한정 잠은 온단 말이여. 안 나가이카네 호랭이 가만 있는 거라. 호랭이 문턱 눌러고 있는 거라 마. 못 열구로. 그러이 가서 하룻밤 잤어. 잤는데, 사고로 쳤어.

사고로 쳐노이, 이 여자가 가마히 생각카이까, ‘이기 내 남편(남편)이라. 내가 이래 혼자 살 필요도 없고, 총각이고 하이 종단 말이야’. 참 좋거든, 좋아노이,

“중놈들 여계 덕시기 펴고 전부 다 오너라.”

그래 자기 영감 좋은 옷 안 있겠나 말이야. 착 입히가지고,

“오늘부터는 어, 이 어른이 집 주인이까네,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어.”

그래 마 곡창 거 머 어데 돈 들고, 어데 쌀 들고 주인어른 전부 처리 결재, 주인어른 맏기고(맡기고). 맏기고 그래가 인자 당일, 그날 밤에 천석이러. 그 모든 재산을 인계를 받았으이까. 아침에 인계를 받으이 당일천석,

그래가지고 속낙비(소나기)가 오고 막 우당탕 치드이 하늘이 노송을 하고 딱딱 이런데, 이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기 마 좋은 아가씨 그거하고 마, 그 부자 아가씨하고 이래 참 사랑이 맺어졌기 때문에, 밖에 튀 나왔거든. 딱 벼락(벼락)이 치고 일터마는 달음산 몬데이 마 큰 바위가 하나 떨어져 날라와갖고 앉아뵈어, 앉아뵈는데, 저 아버지가 뿔등이 밑에

있는 거라. 볼 수도 없는 기라, 아무지 죄를. 그래 그 큰 바위 밑에 죄가 하나 있는데, 그 당일 천석이 있었다 하는.

[철마면 설화28]

## 혀 짧은 사람의 보리타작 노래

김복근(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25일 채록  
[백길리 백길마을 백길회관]

뭐 그 저저 이전에 말키{모두} 형제가 여럿이 아니가. 여럿이몬 먼 데 그 취직도 없고 하모, 논 두어 마지 쥐가 옆에 집에 사라 카고, 다 이래 사는데. 그라모 형수도 있고 옆에 지수(제수) 동생 여자도 있고 안 일나(이렇나). 이랬는데 그게 며 중간에 기 살아, 남자만 살았고 말키 다 죽었고 없는 기라. 없으이까네, 거 이전에는 논에 여름 되몬 보리 거 비가지고(베어가지고) 뚜디리가(두드려서) 무우(먹고) 살고, 가을에 나락 거 베, 그거 뚜디리가 뺏기 먹고 살고 그거빡이 더 하나.

그라이까네 인자 보리로 갈아놓이 지 거 뚜디리놓고 나이께네 디거든(대거든). 댜데도 저기 또 행수(형수)도 말이지 거 혼차 있으이카네, 이 도리께 타작이 힘이 든단 말이야. 이전에 지고와야 되지, 뚜디리야 되지 그러이카네, 또 해줄라, 요 앞에 지수도 또 해줄라 이래 가만히 생각허이 이기 돈되는 거는, 돈도 되도 안하고, 고생만 한단 말이야. 그렇거든. 그래 대거든. 팔자 한탄을 하는 기라. 그래 보리타작을 하면서 그래 서글푸단 말이야. 그러이카네 형수 집에 보리를 저다놓고 마당에서 뚜디릴 거 아이가.

“어 씨바, 형수도.”

새(혀)가 짤라노이,

“내쫓만 바래고, 시바 여기 알보지, 저게 알보지.”

이리카매 이래 뚜디리고,

“앞집에 지수도 내쫓만 바래고, 뒷집에 행수도 내쫓만 바랜다. 에야 영차 영차”

그래 보리타작을 한다 카대.

[철마면 설화29]

## 불을 꺼서 주인 살린 개와 개좌골(17)

오재화(남, 1926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오재화씨 자택]

요새 걸으론 저 경비대장, 동네에 인자 거 성(城)이 있으론, 거서 경비대장으로 있는데 저녁이 되론 꼭 거 철마면 구노실 연구리라 카는 그 와가지고 자기 부모를 배알하고 간다 이기라.

그래가 한문은(한 번은) 거 집에 온다고 떡 오다가 술이 짝- 취해가 눅눅는데, 담뱃대에 꽂고 눅우가 잠이 들었는데, 담뱃대 불이 마 주위에 붙어가 마 불이 낮어.

그래 땡길 때 개로 한 마리 늘 덩고(테리고) 땡겼는데(다녔는데), 개가 그 밑에 골짜에 가서 인자 물에다 들들 구불러가이고, 그 영감 서홍 주위로 돌아 물로 축아서(축여서) 영감을 인자 불에 안타 죽도록 해서, 그래 자고 자다가 깨서 보니까네 자기 주위에 축축하이 물이 묻어 있고, 개는 죽어가 있고.

그래가 인자, 그기 그라고부터 효자 발전을 시기기 위해서, 인자 그 이름을 개좌라고, 이래 꼴작(골짜기) 이름을 개좌골이라 이랬는데, 그래가 인제 서홍(徐弘)이라 그 영감인데, 그 연구 때, 조부 때, 거 인자 비석이 흙도 아이고 돌도 아이고 머이 퍼석해가이고 글씨도 알아보기 힘들게 되 가 있으이 이거 뭐 파고 물어뿌자고, 머 관리하기가 구찮으이 그래가 파고 물어뵈어. 그래 범이 와서 또 헤치뵈어(헤쳐버렸어). 헤쳐노이카네, ‘사람 눈에 는 바람이 안 비고(보이고), 범 눈에 는 보리짚이 안 빈다’ 해가 보리집을 덮어가 물어놓이 또 물어가 나뒀는데(놓아 두었는데) 또 범이 헤쳐뵈어. ‘아 이기 물을 기 못 된다, 세사에 알킬(알릴) 기다’ 이래가 이고, 그래 인자 또 파가이고, 인자 세아가이고(세워가지고) 지금 인자 서홍 비석이 인자 서가 있다. [조사자 : 정려각 정려지각 이래 해놨네요.] 예, 그 서홍이라고 있어.

[철마면 설화30]

## 삼을 갈았던 철 아랫동네 마지마을

오재화(남, 1926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연구리 마지마을 오재화씨 자택]

신라 때 연구(蓮龜)에 큰 절이 있었는데, 거기 절 밑에는 인자 마지(麻旨)라. 마지인데, 요새 삼을 갈아가이고 노끈를 맨들어가이고 군납을 해서, 인자 그 장군의 칼 끝에 어테 뭐 줄로 달고, 칼 끝에도 투구에도 인자 못을 매고, 요새 같으면 나이롱 꺼내끼{‘끈’의 방언} 저거 매꾸로 그래 해가지고 요게 마지라. 절 밑에 동네가 마지라. 저 향교 밑에 보면 교동(敎洞) 카듯이 고래가 요기 마지라.

[철마면 설화31]

## 자신의 살을 떼어 봉양한 효부 월성 김씨

최경채(남,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이곡리 이곡마을 최경채씨 자택]

지금 현재 가면 보림식육점이라든가, 석곡산장 그 뒤입니다. 거기 아마 여산(礪山) 송씨(宋氏) 그쪽 옷대 갈래인 모양인데, 그 정각에 이래 드가면, 각에 이래 바깥에서 보면은, 월성(月城). [조사자 : 월성 김씨.] 예, 월성 김씨카민서 요래 되어 있어. 되가 있는 그것이 이전에 시어른이 병이 아주 몹쓸(몹쓸) 병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살을 깎아가지고 치탕했다는 그런 내려오는 전설이 있지요. 있어가지고 본인은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 다리에 허벅지에 살을 떠다가 자기 시어른을 갖다가 꾸워서 먹었더라(먹였더라). 그런 뭐 말이 내려오고 있어예. [조사자 : 그러니까 인자 시어른이 인자 좀 연세가 많고 병환이 들었던 모양이지예?] 예.

[철마면 설화32]

## 미역이 열렸다는 미역바위

최경채(남,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이곡리 이곡마을 최경채씨 자택]

미역바위라는 저것은 하나의 전설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인자 지구가 조류가 변화될 적에 물이 아마 이까지 올라왔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거기 곽암(霍巖)마을, 곽암마을 그 안 골짜기(골짜기)에 모몬 미역바위라고 있는데, 곽암마을이 아니고 미역바위는 이쪽에 여기 인자 통만이라 하는 데 여어 있습니다. 통만, 일광하고 경계선입니다. 일광면하고. [조사자 : 그 우째 미역바위라 그러던가요?] 그래 인자 미역바위라는 인자, 이전에 거 물이 조수가 되가지고, 우리가 거 미역 열렸다는 이런 전설만 알고 있지. [조사자 : 바위에?] 예. [조사자 : 그래서 이제 미역바위라고.] 예, 하나의 전설이지요 뭐.

[철마면 설화33]

## 부자가 많이 사는 철마

최경채(남,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이곡리 이곡마을 최경채씨 자택]

철마면에 일만석 삼천석이 하는 사람이 세 집이 살았어요, 살은데, 만석군 한 사람은 해주(海州) 오씨(吳氏)고, 해주 오씨에, [생각하며] 예-그라모, [조사자 : 여산 송씨?] 아이고요. 저쪽에 만석군 한 사람은 해주 오씨고, 저쪽에 안자 남평(南平) 문씨(文氏) 한 분 있고, 우봉(牛峰) 김씨(金氏) 한 분 있고, 인자 저쪽 저 넘어(넘어) 가면 동래(東萊) 정씨(鄭氏) 한 분 있고, 저 넘어 임기(林基)에. 그래 여 삼천 석 일만 석이 사는 동네다 이러카지요.

우리가 내려오기로 듣기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기장은 인물이 나고 철마는 부(富)가 난다는 이런 얘기로 듣고 있지예.

[철마면 설화34]

## 불을 꺼서 주인 살린 개와 개좌골(2)

최경채(남,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이곡리 이곡마을 최경채씨 자택]

개좌산은, 예전에 그 저 달성(達城) 서씨(徐氏), 지금 말하자면 여기에 저 구림마을, 지금 현재 그 철마체육공원 되가 있는 안마을이 구림입니다. 체육공원 되 있는 고 보며는 그 저 각이 하나 서가 있습니다. 누각이. 달성 서씨네 각인데.

에 그거 인자 그 안에 구림마을에서 동래부사가 있을 때 늘 출퇴근을 했답니다. 출퇴근을 해가지고 할 적에 늘 개가 한 마리 같이 동행을 해가, 따라 왔다갔다 동행을 뒀어요. 그래가 이분이 얼마나 그 당시에 피곤했는지, 그 재 만딩이(꼭대기) 올라가 담배로 물고 놓았는데, 담뱃불에 불이 붙었는 거라.

불이 나갔고 주위가 전부 불이 났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개가 보니까 개도 크고 그 매일 출퇴근하는데, 에- 동래 관원으로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지요 그때 말하자면. 그 인자 누워있으니까, 거기에 담뱃불에서 불이 났어요. 아 이거 가만 보니 주인이 불에 타겠단 말이지. 이래서 이 개가 저 계곡에 내려가가지고 꼬리에다 물로 축아가지고 이래, 그 저 거게 불을 꺼, 주인 이쪽 안을 사람인들 타들어오는 전부 꺼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저 사람은 고때 인자 마 살았겠지요. 이런데 저 이 개는 죽었더랍니다. 실신을 해가, 온창(위낙) 그거 해가. 죽었는데, 고 자리에 무덤이, 지금 현재 저 정관산업고속도로가 바로 절을(결으로, 즉 가까이로) 나가 있습니다. 고게 고 비가 서 있어요. 고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내가매 보몬 있는데, 그 개를 고 자리에다 무덤을 해가지고 참 이래 물어주고 이래놓이 개자풀이라는, 그런 것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 듣고 있지요.



[철마면 설화35]

### 산의 음양을 보고 묘를 쓴 해주 오씨

최경채(남,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6일 채록  
[이곡리 이곡마을 최경채씨 자택]

점현(店峴)입니다. 점현이고, 요쪽에 점현마을에서 지금 현재 그 저 점현 동네 그라모 거기서 서쪽을 보면은 좌쪽 편이지 [말을 바꾸어] 아 우측 편이지, 고기에 인자 자궁형이 되가 있는데, 이쪽 건네 여게서 길이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 점현마을인데, 고고로 갖다가 지금 현재는 가든, 식육점이 고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고 가든이라고 이래 하는데, 그 봉오리가 쪽 나왔는 그기 저 건내(건너) 산을 딱 들봐다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네 산 그기 이전에 아까직에 만석군 한다 카는 해주 오씨네 만석군이 아마 저 뵈 썼는, 그 집안 톱니다 거가.

[조사자 : 고기 딱 고 자궁 모양 고게 안자 고 묘를 썼네.] 거다 묘를 쓴 게 아이라, 이쪽에서 딱 보니까, 이 남자의 낭심에다 그걸 보고 뵈를 썼는가. [조사자 : 아, 딱 맞차가지고(맞추어가지고)? 고고 묘를 잘 쓰는 바람에 부자가 됐는가요?] 부자된 원인은 저 나름골이라고, 저 밑에 내려가면은 와여지서(와여경찰서) 밑을 들어가가지고 나름골로 고리 쭉 드가문, 안에 그 고양이버위라고 있어요. 고양이버위 좌우편에 이래가지고 있는데, 고거는 고 해주 오씨, 지금 현재 그 내력을 잘 아는 사람이 와여에 있어요.

[철마면 설화36]

### 빈대 때문에 망한 절과 범어사

박호순(여, 1931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옛날에 여 임기, 빈대절터라 카는 절터가, 여 절이 큰 절이 있었답니더. 우리 알기로는 그 있었는데, 그 절이 마 자꾸 빈대가 들어서러 못 살구로 하더라 카대요. 빈대가 들어서러 그 절이 망하더라 카대요.

그래서러 그 절에 스님이가 이 양 평상을 이래 놔놓고 그 우에서 잠을 자민서너(자면서) 양 다리, 평상다리에다가 이래 물을 떠다가 담가놓고 자이꺼네, 저 몬테이서(꼭대기서) 이래 떨어지더랍니더. 이거 빈대가. 뭉탱이가(뭉탱이로) 그래 떨어져서 그래가 기어이 거 망하고 안 되더라 카이.

그이 꿈에, 그 스님 꿈에, 저 여서러(여기서) 하모 저 범어사가 저게 있거든요, 빈대절터라 카는 거는 조거든요(저기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 꿈에, 저기 범어사 저 잔등에서러 큰 껌등 황소가 울고 넘어오더래요. 그래서 [노인정에 들어오는 김석태 노인을 보고] 영판 아는 할배 오시네. 그래서러 그 절이 망하고 그 절이 범어사로 갔대요. 거 범어사 갔었대요.

[조사자 : 그 황소가 온 건 뭐가요, 그라모?] 그 황소가 이리 울고 넘어왔, 이리저리 갔대요. 이 빈대절터가 범어사가 됐대요. [조사자 : 아하 그래가지고 여기는 망하고?] 요 절터는 망해뿌고, 그래 이 범어사가 생겼대요.

[철마면 설화37]

**과객 끊어지게 하자 빈대가 나와 망한 절**

김석태(남, 1923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옛날에 이 절에 여기 절이 상당히 컷답니다. 절이 컷는데, 그 절에서 이 하도 옛날에는 과객(과객)이라는 기 있었어. 과객이라는 어떤 사람이 냥 하면, 그 양반네들은 공부도 마이 하고 과거에 하다가 떨어지몬, 이 마 아무것도 없이 마 거 여 등더리 신 언제든지 미신 한 커리(컬레) 여 저 달고 괴나리봇짐 꼬티(끝에) 달고, 이래 땡기는 사람이 여기 마 몇 십명 뗏 백 명 이래 한분씩 오이까 말이지. 그 절에 중이 언자 며 만날(매일) 아무 이익도 없이, 본대 절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마 이익을 보는 게 아이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절에 가서 그거로 하고 있는데,

이 아무 관계도 없이 자꾸 마 이 들오이카네, 이 중이 귀찮았던 말이지. 고릴 때 어떤 도인이 한 분 있었어. 고 여럿이 들은 중에 도인이 한 분 있어가 들오이카네,

“하 이 온 저녁에 오는 많은 사람 오늘 저녁 묵고 내일 아침까징 먹이야 나갈 꺼 아니냐. 이 일을 어떻게 우찌 당해내노?”

이러카메 지칭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도인 한 사람이 있다가 한다는 말이,

“아 그러면은 이 절에 여게 사람 하나도 안 오도록 해드리, 해주게 하몬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신 한 커리, 인자 중우적삼 한 불, 요래서 내가 줄테이카네, 지발(제발) 그래주겠느냐?”

“아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노인이 인자 그 선생이, 그 선생이지.

“인자 줄로 가지고 여 내려가자.”

고, 여 내려오몬 자루바우라고 여 중간에 있어요. 이 바우로들 머 기 옛날에는 어떻게 되가 있었는, 그 바우로 틀어뵈는데, 그라고 시작해가 마 빈대가 나오는 기라.

그래가 인자 중이 다 떠나고 나서 결국 인자 두신, 그 절에서는 두신 라면은, 절이 그 아주 마 그 절에서는, 절로 아주 마 참 가당찮이 징키는 그런 도샷든(도사였던) 기라요. 그래서 인자 그분이 하도 빈대가 마이 나와싸이(나오니), 인자 감당을 할 수 없어가 말이지, 옛날에는 대야라고 있어. 세숫대, 나무, 나무로 만든 통을가 만든 대야가 있었는데, 거다가 인자 복판에다, 인자 방 복판에 니낫(넛)을 놔놓고, 평상을 해가 말이지, 여 사람 눕어잘라고, 거에다가 물로 이래 담가가 물에 열어가 이래 떡 눕어가 있으니까, 이놈의 빈대들이 우 오디마는 거 그릇 밑에 보디마는 우에 공중으로 올라가가 우에서 말이지 뿔 있인(있으니) 와 배 우에 툭툭 떨어진다 말이야. 그러이 말이지 전덜(견덜)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서 이 절이 망했다.

‘이 절이 망하고 범어사 절이 생겼다’ 이러카이까네, 이것도 언제 절인지 어느 시대에 난 절인지 몰랐는데, 여기 저 권○○<sup>18)</sup>라고 이 양반들

18) ○○ 표는 제보자가 실명으로 말했으나, 여러 사정상 익명으로 처리한 것임.

부친이 어데서 왔느냐몬 일본서 귀환동포거든요. 귀향동폰데 여기 들은, 원 고향은 거 저 경북 의성, 거이 가면 권씨들이 마이 있거만. 갑티라 카는 동네가, 그래 인자 권씨란 그 분이 여 와가, 오는 이유는 인자 그 처가가 실은 처가 선돌사람인데, 여기와가지고서 그 누구 농장을 얻어가지고 그분은 인자 부산 내려가고, 그래 그 농장을 짓고 살면시러 그거로 하는데, 그 뒤에 인제 눈을 한 도가리 인자 이래 농사로 짓는데, 옛날에 거 와 큰 이래 밥해 묵는, 마이 해 묵는 술, [조사자 : 가마술.] 가마술을. 그 인자 땅을 파가 고루이카네, 술이 나와가지고 다 나온 게 아이고, 이래 뿌아져가 그 쇠 그거로 고물쟁이를 덩고(테리고) 와가 그거로 했다. 이런 말도 내가 들었고.

지금 여 안에 드가며는 내안골이라는데 찾아가면은 여 인자 옛날의 절터, 옛날에 인자 법당터가 있구마는. 법당터가 있는데, 그 법당터에 거기 가면은 아주꺼영(아직까지) 주춧돌이 이런 기 말이지, 정 이래 송기가(숨겨져) 있고, 그 복판에 메고 하는 사람인데, 그 묘는 못골 송씨네들 묘라 이리카더마는.

[철마면 설화38]

### 김씨네 집성촌인 임기에 다른 쉼씨가 들어온 사연

김석태(남, 1923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옛날에는 임기 동네, 여기는 딴 사람이 못 들어왔답니다. 인자 우리 김가들만 요래 살았는데, 언자 오씨네는 여 녘에 못골이라는 여계 살았고, 정씨네는 저 양사변에 살았는데, 그래 인자 그럴 때 우리 나기 전, [말을 바꾸어] 우리 나고 나선가 도둑놈이 말이지 활빈당이라 하고 마이 이래 댕겼는데, 그 사람들이 여 들올라 카이, 댕기이 말이지 여 즈그는 쫓매꿈(조금) 살고 우리는 말이지 대충 마 한 백 가구 이래 사이, 여 도둑놈이 몬(못) 들어온단 말이지. 이래놓으카네 오씨네 어떤 어른 한 분이, 정씨넨가 누구 한 분 들와가지고서 우리 조부님인데 물었어요.

“좌우간 어르신, 우리가 지금 이래 살라 카이카네, 이러이 말이지 어르신 슬하에 들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고 물었다. 물으이카네,

“어 거 사람잘에 사람 들와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 우역난(‘나쁜’의 뜻인 듯함) 짓만 안 하고 우리랑 같이만 살아나가면 얼마든지 좋다.” 이래 돼. 그레가 들왔는데, 아마 그 어른이 여 벨어른(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 골때(그럴 때) 걸어 들왔다 카더만. 자기 발로 걸어 들왔는데, 아마 한 대엿살 묵어 들왔는데, 그분이 올해 연세가 있으면 경술생인데, 경술생걸으면은 한 구십년 전, 팔구십 년 전에 그 어른들이 여 들어왔단 모양이라. 그레 우리랑 한테 합치져가 살았는데, 그런데 안자 그분이, 안자 그것도 효자 얘기 내가 할테이카네.

[철마면 설화39]

### 시아버지 위에 묘를 쓴 효부 며느리

김석태(남, 1923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그레 인자 부모인테 상당히 효심을 하니까, 그레 인자 그거로 했던 말이지. 거 인자 아들네들인데 항상 하기로 우리 메늘, 내 자부지만은 저 어른은 내 밑에 갈 어른이 아이고, 내 우에 써야 될 어른이까, 너거가 절대로 말이지, 그레 인자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자 이기 자기 남자는 옛날에 뭐 거 돈이 있고 말 모디만 하면 그 첩 데리고 댕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레 인자 따로 나가 살고, 이 시어른을 모시고 인자 혼차 내 살았던 말이야. 얼마나 참 시어른인테 잘 했는지, 그레 한단 말이,

“절대 이 어른은 세상 떠나거들랑 내 뒀는 우에 써야지, 밑에 서면 너그가 패를 볼끼다.”

이런데, 그기 다른 가문 같으면 그 시어른 우에 메느리가 눕는다 카문 그거 며 아주 큰 역인데, 그레 인자 밑에다 묘를 딱 썼단 말이지, 세상을 떠나고나서는. 써놓으이카네 무조건 집안에서 참상이 나는 기라. 소연이

(소년이), 소연이 자꾸 죽어놓으이카네, 그래 인자 그 어른의 하는 유언의, 유언대로 우에다 묘를 썼다. 그라고 나서 집안이 잠잠하게 잘해 났다이래 카거든.

[조사자 : 그거 효부 강씨 묘를 안자 오히려 시어른 위에 묘를 썼네요.] 야. 그런데 인자 그 묘를 써러 갈 적에 내 비가 와가 요새는 머 이 다리도 있고, 머 질도 이래 좋고, 옛날에는 이 그 묘가 어디 있느냐 하몬, 여 저 양산군 동면, 여 계곡리 카는 데, 그 우에 거 있거만. 계곡리 하는 거 있는데, 거 인자 옛날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가지고, 이 참 사램이 이래 딱 인자 시체로 운상을 들고 건널릴 카이카네 그 물이 딱 끊기더랍니다. 그 물이 딱 끊겨, 왜 끊겼냐 하몬 사람이 딱 들어설 때 말이지, 우에 마 산이 뭉개지가지고 물이 딱 끊어가 인자 건널 수 있도록 딱 그래가지고, 그 우에다 피를 쓰고 오는데, 그날 저녁에 그뭉(그뭉) 적인데 어찌 됐는지 지저금(제각기) 묘 쓰고 집에 와가지고 지저금 집에 갈 동안까지 기 불, 저 앞이 환하이 그냥 빠치더라(비치더라) 카는 그런 얘기도 다 우리가 들었고 이렇심더.

[철마면 설화40]

### 범을 잡은 남장사와 선돌을 가져온 여장사

김석태(남, 1923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임기리 임기마을 임기새마을회관]

그 옛날에 이 여 저 선바우 선 이기 뭐냐 하몬, 여기가 돌문이라, 돌 석(石)자 문 문(門)자 돌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에 그 형제, 형제 장사가 있었답니다. 남장사 여장사가 있었는데, 형제가 있었는데, 그래 인자 그 오빠 되는 이가 상국 뒷산에 저 가 범을 한 바리 잡아 집에 와서 인자 가져와 빼길라고(벗길려고), 뺏기고 있으이카네, 그래가 인자 악역을 할라, 저 머 보통 여자가 아적(아침) 때 되몬, 아적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적을 암만 있어도 아적 먹어라 소리를 안해. 그러하니카네 땀을 주르륵 흘리고 왔거든.

“그래 야 너는 밥도 안 하고 어디 갔더노?”  
 이러카이카네,  
 “오빠 내 저 뒤에 여 가봐라. 내가 이 돌로 하나 처매(치마)로 저다 낚는데, 이기 저 전남 방곡에서 내가 사가 안고 왔다. 그래서 여 내가 여기 세와왔는데, 오빠 내 한문 만치(만져) 봐라.”  
 꿈쩍도 안하거든. ‘아- 이 참 내 동생이 백배나 더 힘이 센 사람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서 지금 그래 세와놓은, 그래 섰다는데, 사람이 얼마나 크고 힘이 얼마나 좋았으면 저 돌로 치매 앞에 사가 왔겠느냐.

[철마면 설화41]

### 비 소면 수는 슬바위

정상학(남, 1928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회관]

비가 올라 카면은(오려고 하면은), 그 저 바위가 울었어요. 거기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갖다가 이 지방 주민들이 듣기 싫버가지고(싫어가지고) 저 나무를 갖다 놓고 그 바위를 끄실라뻘어(그을려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울지 않더라. 그 말이 그리 나왔어요.

[철마면 설화42]

### 피를 내서 명당(明堂)을 차지한 이방

정상학(남, 1928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고촌마을 고촌마을회관]

뭐라 켜노?(뭐라 했나) 심부름하고 댕기는 이방이라 카나(하나)? 그 이방을 했는데, 그 이방이 이 원님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더나 모친이 돌

아가셨는데, 그 하지사 거기 피터를 천각을 냈어. 그 자리에다가 천각을 내와놓고 그 이튿날 잤는데, 이 저 이방이라 카는 사람이 암만 봐도 저 자리가 탐이 나고 그래가 피를 썼어. 거다 물로 갖다 부어났어 저녁에. 그래 아침에 가니까 물이 흥건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이 있다.”

카니까네(하니깐),

“아, 그러면 그럼 거기 하겠나? 그냥 거기 물어빠라(문어버려라).”

이기라. 그리고 탄 데 썼어. 써고 난 뒤에 자기 이방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그 이방이 원님인데(원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마 그때 그 자리 그 못 썼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마 써도록 허락해주소.”

이래 카니까네,

“뭐 그럼 그리해라. 나는 못 썼는데, 너는 써야지.”

이카면서(이렇게 하면서) 그래 허락을 해줘가지고 거기 썼다 카네. 그래가 거기서 삼정승 육판서가 났다더냐?

[제보자 옆에 있던 청중 중 한 명이 이야기를 듣다가 연이어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래 그런데, 그냥 무덤을 해가지고는 발복을 못하고 금곽을 해야 해. 금곽을 해야 발복을 하고 피를 쓸 수 있지. 도깨비가 이 자리는 금곽 안하면 못 쓸 자리다 이래가지고 팔모를 해가지고 서민이 금곽을 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단 말이라.

어째 피를 딱 부러가지고. 저저 뭇고? 보릿대 누런 보릿대 안 있는가배. 그걸로 전부 구해가지고 옛날에 와 자리 안 뜨는교? 밀짚모자 멩키로. 그거로 가지고 시체를 싸가지고, 벧짚으로 싸가지고 무덤을 하니까네,

“아- 앵간하구나(어지간하구나).”

도깨비가,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카면서 도깨비가 물러가고 그 무덤을 그리 모셨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철마면 설화43]

## 까치를 구한 토끼



안애자(여,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사등마을 안애자씨 댁]

우리 아들보고 이야기 했는데. 한 날 하루는 으스스한 길을 가고 있는데, 까치가 하도 요란하이(요란하게) 짖어서 그래 토끼가 지나가매(지나가면서),

“까치야, 까치야, 왜 그리 슬피우니?”

그러니까네,

“저 밑에 호랑이가 밑에서로(밑에서) 니 새끼 한 마리 주면 안 잡아 묵지.”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아 품고 까치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래 그래 서로 그래,

“니 새끼 한 마리 주면 안 잡아 묵지해서 한 마리 뺐어.”

까치가 또 슬피 울었어.

“니 또 왜 우노?”

“지금 두 마리째, 다섯 마린데 한 마리 주면 안 잡아 묵는다 해놓고, 이 중한 새끼를 낳았는데 달라 해서, 또 한 마리 던지 줄라 하고 있다.” 그러거든.

“아이고, 이 저거 까치야, 까치야, 그거는 걱정을 마라. 호랑이가 니한테 밑에서는 맹순데(맹수인데), 니는 산 위에 뭐 그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너거 새끼 해치로(해치러) 안 간다. 니가 어리석고로 뭐 하러 새끼를 뺐노. 지금은 주지 마라.”

“안 주면 올라가 나를 잡아 묵는다 카는데.”

“육지에서는 맹수가 돼도 나무에는 올라오지는 못한다(못 한다). 못 올라오니까네 걱정하지 말고, 그래 마음 놓고 새끼를 잘 보호해라.”

그래 옆에서 호랑이가 그로(그 말을) 잘에서(겉에서) 들었어. 토끼가 그 카는(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저 새끼를 다 받아 묵을 낀데, 너 때문에 내가 한 마리를 못 먹었다.”

하매,

“이 껌한 토끼야,  
하고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그래 까치가 ‘꽉 꽉.’ 짓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토끼님, 토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자. 고맙다.”  
카고 있는데, 고 호랑이가 막 토끼를 잡으러 가는 기라.  
“니 때문에 내가 양식을 못 먹었으니 니를 대신 먹겠다.”  
토끼는 그래 가다가,  
“호랑이님, 호랑이님. 뒤를 한 번 돌아보시오. 저게 노루가 한 마리 오네요.”  
거짓말을 하고 따돌리고 자기는 쏜살같이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

[철마면 설화44]

### 은혜 깊은 까치

안애자(여,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사등마을 안애자씨 댁]

장차 큰 사람이 될 목적으로 서울로 과거 보러 떠났는데, 가다 보니 길이 멀어 뉘웃뉘웃 저물어질 무렵에 이것도 똑같이 이야기한다. 까치가 요란히 짓어서 그래 가보니까 구렁이가, 구렁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니까 까치 새끼를 삼키고 먹었는데, 이 지나가던 선비가 그냥 안 있고, 옛날에는 과거 보러 가면 화살을 뒷등에 메고 다닌다 아이가. 땡기기(다니기) 때문에 그래 화살을 쏘아가, 그래 구렁이 목에다 탁 쏘고 구렁이가 툭 널찌뻘어(떨어져 버렸어). 널찌가(떨어져) 죽었는데, 떨어지면서 ‘두고 봐라’ 하는 식으로 떨어져 죽었는데, 그래 까치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

그리고 있을 때, 이제 밤이 어두바져뵈는데(어두워져버렸는데) 한참 가다보니 불빛이 있어서 그 인자 선비가 그 불빛을 따라 집을 드갔어(들어갔어). 집을 드갔는데(들어갔는데),

“그래, 내가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인데, 밤길이 너무 늦어가 좀

재워줄 수 없습니까?”

그라이, 백발 된 노인분이 여자 분이 하나 나오면서 그래,

“자고 가도 좋다.”

고. 옆에 방을 쥐서 선비가 들어가 자는데, 한참 밤중 되가(되어서) 낮에 참 피곤해서 몇 백리 길을 걸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 피곤해가지고 그래 자고 있는데, 그래 백발 된 노인이, 할매가, 엄마 같은 사람이, 마음을 놓고 그 선비가 들어가 마음을 놓고 자게 됐는데, 하도 자다가 속이 답답해서러 눈을 번쩍 떠 보니까, 구렁이가 자기 목을 착착 이 선비를 감고 있는 거라. 감아가, 그래 목이 졸려가 퍼뜩(빨리) 깨니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래, 나는 앞으로 장차 큰 사람이 돼서러, 내가 여서 희생 당하면 안 되니까. 내를(나를) 풀어 주시오.”

카니까네(하니깐),

“살 길이 있지.”

“그래,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면 풀어주겠다. 아까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너가 쏘았던, 죽였던 구렁이의 내가 아내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고. 그래 밑에 있는 절간에 절이 있다. 그 절 안에 있는 종을 세 번만 울려 준더라면은(준다면) 내가 너를 풀어주지 살려주겠다.”

그래 카거든(하거든). 그라고 있는데 새벽 4시가 딱 되니까 처음 두 번 종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나중에는 힘아리(힘이) 없이 세 번이 울려졌어. 그래 퍽,

“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구렁이가 풀어주고 순간적으로 방을 나가뿌고(나가 버리고) 없는데, 새벽에 날이 다 밝아져가, 네 시면 어둡다 아이가, 겨울이라. 그래가 절간으로 가보니까, 낮에 구해줬던 그 까치가 머리가 투성이가(피투성이라는 뜻) 돼가 종을 울리주고, 두 번은 매 울려주고 뒤에 번은 힘이 없어가 살짝이 해가 은혜를 갚아주는 그런 전설이. 거기 종소리였거든, 우리 초등학교 때 삼종소리.

[철마면 설화45]

## 사등마을 유래

안애자(여,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사등마을 안애자씨 댁]

기다릴 사자(俟字), 사람을 기다리고 오를 등(登), 오를 등. 한문으로 오를 등. 사자는 기다릴 사. 사람을 기다리는 등선이다. 그래 이 한문 자체의 뜻이, 높은 곳으로 올라오다 보니 사등이 아니고. 기다릴 사자. 마 아래, 뭐라카오 발음이 사등이 아니고 사등. 마을에 사람이 사는 건 알리고. 앞에는 한문이, 사람을 기다리는 올등. 항상 이 길은 누구나 올 수 있다. 밑에 풀이가 그렇대.

[철마면 설화46]

## 빈대절터

안애자(여, 1942년생) 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사등마을 안애자씨 댁]

산에 요 위에 절이 있었어요. 절이 있었는데. 우리 젊을 때 뭐 이래 올라가보고 이라면은 절터가 있는데, 아주 바위가 웅장히 뭐 으쓱하이 마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들어가 앉아 있을만하게, 그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다 카대. 내가 안 받 거고, 이걸 이야기.

근데 평평한 산 우에(산 위에) 계곡에 물이 푹푹 떨어지는데, 물이 없으면 절이 안 되거든. 그래 절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 절 스님이 밤만 되면 빈대가 너무 많아가 견딜 수가 없어가 처분 해뻐다(해버렸다) 하는, 가면 그 절터가 있어요. 절터 있고, 그 보면 이래 굴이 있고, 물이 있고 이끼처럼 이리 있는데, 대가 있는 그 시릿대(싸릿대)라고 대가 있다고.

시릿대라는 게 조리 만드는 대가 이름이 시릿대거든. 아주 얇고 손카

(손으로) 만지면 물랑물랑 해지는 대가 시릿대고, 이 큰 대 굵은 거 이런 거는 막대기 같은 거 뭐 소금구이 하고 이런 데 쓰는 대고. 시릿대라는 건 말 그대로 시릿시릿하이 부드럽다. 한문으로. 아주 부드러운 대다. 손에 만지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 고계(그것이) 이게(이것) 시릿대.

[철마면 설화47]

### 영동할매의 심술

안애자(여, 1942년생)구술

2011년 2월 22일 채록

[고촌리 사등마을 안애자씨 댁]

초여름까지는 영동할매가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람이 좀 순하고, 그 인자 초열하루부터 음력 이십일까지는 며늘을(며느리를) 데리고 황천을 해 올라간다고,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막 나뭇가지마다 흔들어가 마 괴롭혀놓고 그래 올라간다 카대(하더라).

그 바람 자체가 열흘 동안 있는데, 딸 바람은 조금 엄마가 감싸주니까 순하고, 며느리 바람은 말 그대로 며느리라고 할매가 미워가지고 온 나뭇가지마다 다 흔들어가 마 호화찬란하게 휘젓어 놓고 올라가도, 봄이란 시기를 맞춰가지가 꽃이란 싹을 틔다. 그래 되어 있대.

[철마면 설화48]

### 바위를 깨트려 망한 집(2)

정문영(남, 1938년생)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신리마을 신리노인정]

그거는 요 구림이라고 있거든. 여 철마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구림마을에 가면은 그 구자 거북 구자(龜字), 이 수풀 림자(林字)인데, 그

구림마을이. 거기에 보림에서 굳이설로 넘어가는 언덕빠기에, 거기에 옛날에 바위가 하나 있었다고.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전설도 그렇더라고.

하도 그 집에 손님이 많이 와싸서(와서), 어데 과객이라 하면, 뭐 절에 스님이 이 방랑을 지고서는 시주를 하러 가는 것 같이 지나가는데, 그 집에 또 시주하러 왔던 모양이지. 오니까네 너무 손님이 많애가(많아서) 몹서리가 난다고 마,

“어째 손님 좀 적게 할 수 없냐?”

고 하도 그래 싸놓으니까, 그 과객이 하는 말이가서는(말이),

“저 바위, 저것만 좀 깨뵈으면(깨면) 손님이 적을 낀데.”

이 카더란다. 그래 참 힘 센 사람 몇 이를 구해가지고 그 바위를 깨뵈던(깨트렸던) 모양이라. 그라고나부터(그리고서는) 그 집이 쫓딱 망하기 시작했더란다. 마 손님도 안 오고 자꾸 망하기 시작했는 기라. 그니까(그러니까) 그 깨논 돌로 갖다 다 붙이니까, 세면으로(시멘트로)갓다가(가져가) 뺨질을 했거든. 그래도 마, 전에 같이 안 되더란다 거기. 그 바위를 치는 게 아난데. 자기가 고릅아로(괴로워도)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손님도 자꾸 오는 거기(그것이) 그럴 낀데, 그렇다는 그 전설을 내가 이야기 들었고.

[철마면 설화49]

## 호랑이를 데리고 다닌 할아버지

정문영(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신리마을 신리노인정]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인자 장가를 가 가지고. 산수곡이라 하면은 정관 고갯데(고개인데), 아이다(아니다) 일광면 산곡 산수곡인데, 화전 위에 거(그곳). 그 처갓집이 거기라서 밤에 내(항상) 다녔는데, 그 인자, 저 마누라 뭐 저 해나(하마나) 그거 할까 싶어서 경비하러 다녔는 기라. 그때 진작 안 데꼬(데리고) 와서 힘이 갓던 모양이지. 그래 다니고 하는

데, 호랭이 새끼를 내 데꼬(데리고) 다녔다 하거든. 근데 작은 집에, 그때 개를 먹었는데(먹였는데), 한번 뭐 호랭이가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개를 물고 나갈라는 거 몽치미를(몽둥이를) 들고,  
 “에라이, 저놈 콧,”  
 하니까네, 호랭이가(호랭이가) 고마(그만) 개를 놔빼고(놓아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런 말도 전설 들어봤고.

[철마면 설화50]

### 범불(흔불) 이야기

강순남(여,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화장실을 이제 떡 나오니 까네. 저 건니(건너) 저서(저곳에서) 마 민담이집 저. 고 날 민담이네 집 제사다. 제산데 화장실에 가니깐에 저 뒷산 저서 불이 마 이만큼[양손으로 큰 원을 그리며]불이 마, 산에서 마 줄줄 줄줄 내려오대요. 고래 어데로 가다가 싶어가 보니까 민담이집 부엌에 소복소복 다 들어가더래요. ‘오늘 저녁에 민담이네집 제산데, 할마이 저 거 무섭어서 어떻게 일하노?’ 싶으대요. 그래 그 이튿날 물으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카대. 범불이라 그기.

[조사자 : 범불이 뭘니까?] 호랭이불. [청중들이 함께 대답하였다.] 호랭이 불인데, 그기 사람이 역수로 일찍 죽었으니까네, 그래 왔는 기라, 제삿날 저녁에. [조사자 : 아, 일찍 죽어서, 한이 많아서.] 응, 한이 많아서. 일찍 죽어가 제삿날 저녁에 왔는가봐. 그게 그렇고 [청중들 중 한 명이 호랭이불이라 하며 연이어 구술하였다.] 줄로 지아가 내려오대요.

[조사자: 범불이 나쁜 거 아니지요?] 모르겠습니더.

[철마면 설화51]

### 삼정자 유래(17)

김성수(남, 1929년생)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형제가 서인데(셋인데), 다 힘이 장사(壯士)라. 장사가 저거(저희들) 힘 자랑 한다고. 인자, 저그 힘대로 돌을 들어다가 그다(그곳에) 놔 놔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돌 세나(세개) 그로(그곳에). 에나(제일) 큰 게 (것이) 저거 성(형)이 거고(것이고), 그 다음이 둘째 끼고(것이고), 그 다음이 셋째가 막내인데, 그래 인자 그 또 그 돌 놔논(놓은) 그서. 또 부근에 말이지, 정자나무, 솔나무를 숨가놔지(심어놔지) 형제들이. 형제가 나무를 숨가 난기(심은 것이), 그 나무가 정자나무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인자 삼형제가 나무 숨간(심은) 자리라꼬 삼정자라 카거든 거기. 이름이. 말 그대로라, 이바구(이야기) 그대로라.

[철마면 설화52]

## 웃나무가 많은 구칠리(17)

김성수(남, 1929년 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말하자면 글자로 보면 아홉 구자(九字)에 일곱 칠자(七字)인데, 마을 이름이. 우리 마을 이름이 신리, 구칠, 점현 이 세 개 마을이 내나 우리 구칠린데. 그 인자, 우리 숨계(습계) 말해서로 역사를 말할 것 같으면, 이름을 짓기로, 우리 구칠리 요기(여기) 산에 웃나무, 웃나무가 굉장히 많 습니다. 웃나무 아능교?

[조사자: 예 압니다.] 웃이 올라가 건지럽은 거. 웃나무가 많아서 웃 칠자(漆字). 웃이 워낙 많아서 칠마서는 딴 마을은 별라(별로) 없는데, 구칠리 마을에는 산에 가면 전신에(대부분) 웃나무입니다. 웃나무가 많아 가지고. 그리 소문난 마을이 돼가지고, 인자 그 일곱 칠자(七字)가 아니라 웃나무 칠자(漆字)가 뭔가 일곱 칠잔가 돼가지고. 그때는 웃나무 칠



로, 이전에 갓 쓰는 데, 여 갓이 전신(전부)에 옷나무 물이거든요. 옷나무 베다 그 물을 짜가지고 갓을 만들고 이러니까네 구칠리라. 옷 구자, 옷 구자하고 칠은 칠한다는 칠자. 그래가지고 구칠립니다.

[철마면 설화53]

### 바위를 깨트려 망한 집(37)

김성수(남, 1929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그 마실(마을) 앞에 나지막한 등이, 거기(그곳에) 가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그가 꼭 사람 머리 맨키로(같이), 사람 머리가 있으면 귀가 안 있는교? 그 바위가 꼭 사람 맨크로(같이) 귀가 이리 생겨 있는데, 귀가 있는데 이기 바위 같으면에 [손으로 바위 형상을 만들며] 귀가 이리 두나(두개)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마 원강(위낙) 잘 살아 그런지, 옛날에 그 과객이라 카면은(하면은) 요새 니쿠사쿠(배낭)같은 거, 등에 뭘 지고 그 마을에 가면 꼭 그 마을에 와가지고 사랑방에 누버자고서(누워자고서) 그 집주인과 이바구하고, 이래 내 쉬어가는 과객인데, 숨게(쉽게) 말하면 과객인데. 안식구가 과객이 오니 까네. 다문 한 끼라도 밥을 앗아줘야(챙겨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귀찮거든. 한 두 명도 아니고 말이야. 귀찮은데, 그래 이 그 안주인이가 그 과객보고,

“선생님, 선생님. 우리 마을에 할배(할아버지) 같은 손님이 이리 자꾸 와싸니깐에(오니깐), 굉장히 우리가 좀, 한 번 두 번 아니고 매일같이 이리 오니까, 성가시러바(성가시어), 우리가 못 살겠다고. 어짜면(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면하겠느냐?”

묻거든. 그러니깐에, 이 과객이 보니까 그런 과객이 보니깐에, 도사가 돼가지고 대번 알아채뿔따 말이야.

“그럼, 정 그럼 싫으면, 우리 오는 거 싫게 생각하면, 저 건너 바위 귀로 요 망치로 띠뿌라(떼어라).”

카더란다. 귀 붙은 요 돌로. 요걸 갖다가 돌로 던졌거든. 그 귀로 띠뿌고 (떼어버리고) 나니까네 그 마을에 손님이 끊기뿌려(끊기어). 그러더니 그 마을에 그리 잘 살던 재산이 조금조금 빠지고 옛날같이 이리이리 됐어.

[철마면 설화54]

### 삼정자 유래(2)

김수중(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삼정자라 하는 그 정자가 있었는데, 그 정자나무가 하나 있고, 또 바위가 세나 있는 거는(것은) 삼형제가 들었다 났다 이래가지고, 그래 인제 붙여가지고 삼정자라고 붙였는데. 고리 만댕이로(언덕으로) 기장 원님이 양산을 땡기고(다니고) 할 때, 고 쉬어가는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인자 지금은 도로 확장 때문에 다 없어져 뿌리고(없어져 버리고). 고 쉬어가는 거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막 맨치로(처럼) 있었는데, 그거는 세금도 없고 국가에서 그래 하다가, 그거는 지금 없어졌부고, 아직까지 그 삼정자는 아직 남아 있고.

[철마면 설화55]

### 굿바위와 점현마을 유래

김수중(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우리 마을 뒷산에 가면 굿한 만댕이(꼭대기), 굿한 만댕이, 그게 인자 굿을 했다 이래가 굿한 만댕이라 하고. 그 바위에 보면 인자 굴이 요래 묘하게, 조금 큰 데는 제법 큰 애들 하나 드갈(들어갈) 만큼 놓여가 있고, 빼닥하이 작으만한(작은) 데는 길이는 좀 깊어도 조금 솔아갓고(좁아

서) 작은 애들 누우면 딱 맞을 만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 옛날부터 내도록 ‘긱한 바위’ ‘긱한 바위’ 해쌌더라. 그는 뭐 그전에 대학교에 어느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발굴해 가, 뭐 관광지를 만들라꼬 와가, 산 주인에게 나무 비는(베는) 것도 허락을 다 받아줬는데, 뭐 그래가 가고 안 오더라. 안 오고, 지금까지 그냥 있어요.

그라고 우리 마을에는 옛날에 여게 인자 들어와 살았는 기 아니고, 여 밑에 살았다는데 저 큰길가에 산적들 그것들 뭐 바람에 마을 안에, 도로가 아니고 도로가 좀 비껴가지고 살았다는데, 이 점현이라 카는(하는) 마을은 옛날에는 점터, 점터 이리 카다가(하다가), 점자는 그냥 쓰고 현자는 인자, 우리 어릴 때 들었는데, 점현무라는 그 면장 어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 그 현자로 따가지고 그라고. 저 62년돈가, 박정희 저, 마을 별로 자체 마을로 이리 분리할 때, 그 점현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외에는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철마면 설화56]

### 숯나무가 많은 구칠리(2)

김수종(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구칠이라 하는 이기(이것이). 인자 아홉 구자(九字)를 쓰고, 칠자는 거칠 칠자(漆字)를 썼던가? 이리 해가지고 구칠인데, 아홉 구자(九字)를 쓴 건 왜 아홉 구자를 썼냐면, 숯나무가 아홉 그루가, 뭐 옛날 있었다 해가지고 그 구자(九字)를 붙이고, 칠자는 인자 뭐 큰 거인이 있었다 해가지고 칠자를 붙이고 이래가 구칠이라는 말이 나가지고, 우리는 자연부락하고 갈라져 뿌고(버리고) 구칠 본부락은 저 우에 있고, 그래요.

[철마면 설화57]

### 갈치재의 유래(2)

김수종(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부산까지 가서 고기를 받아 팔 때, 칼치를(갈치를) 받아가지고, 고(그 곳에) 올라오면 제일 대다고(힘들다고) 해서 칼치재. 그리고 생기기로 꼬불꼬불 생겼다고 해서, 칼치가 이래 가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그래 생겼다고 칼치재라고 하는 말이 생기고. 칼치를 이고 많이 넘었다고, 덩기면 고 오들배기(오르막이) 막 박하더마는(가파르다마는) 그 올라오기 대기(힘들기) 때문에 생겼고. 칼치가 또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칼치재라는 소리가 그 전설이 그렇다 카더라.

[철마면 설화58]

### 소금장수와 금씨

김수종(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성씨가 금씨인데, 그거는 왜 그리 되었냐 하면, 어느 소금장수가(소금장수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주막집에 왔는데,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왔는데, 뭐 비가 한 사나흘 달아(연이어) 오다 보니까, 마 자다가 무슨 일을 했던 모양이지.

소금장수는 가뿌고(가버리고) 겁을 내가 안 오고. 마 아는(아이는) 자꾸 놓게 되고 이래가, 옛날에는 그 뭐, 여자가 남자 없이 아(아이) 낳았다 하든 그 억수로(대단히) 그한테, 그래가지고 뭐, 유림이라 할까 마을 어른들이 불러다가 그거로 하니까네, 그래 일이 그렇다 해서 청산모 금자를 붙여 금가라고 카더라네. [웃음]

[철마면 설화59]

### 노루골 · 송곡실 · 매바위의 유래

김수종(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노루골이라 하는 것은 그 노루가 있었다고 해서 노루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놀기가 좋다고, 놀았다고 노루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두 가지 말이 나니까 어느 기(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 뭐.

저 용곡실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그는(그곳은) 너르고(넓고), 골짜기가 꼬불꼬불해가 용 용자(龍字)를 써가 용곡실. 굽을 곡자(曲字)를 쓰고, 그래가 용곡실이라 정해져가 있고. 그 들어가면 매바우라는 바위가 있는데, 쭉 나와 가지고 바위가 있는데, 그 뭐 매 형태로 생겼다 해서 매바우라고, 매 앞다리같이 생겼다고 이래가지고, 그래 그거는 지금도 부르기를 그냥 부르고 있어요. 매바우, 매바우라고. 그뿐입니다. 내 아는 건 그뿐이라.

[철마면 설화60]

### 불을 꺼서 주인 구한 개와 개좌골(17)

정희수(남, 1926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마을회관]

개좌골이라고. 거기 인자, 그 노인이 녀의(남의) 일집에 가가지고 술을 많이 자시(드셔)가지고, 술을 많이 자시가, 술이 취해가지고, 요새는 뭐 저 교통이 좋아가지고 차가 많이 땡기지만, 옛날에는 차가 없었다 이기라.

그리 골짜기를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마 눕어(누워) 잤어. 눕어 자면서로 담배를 푼고(피고) 이래 해놓으니, 담뱃불 이거를 어찌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그 말 들으니까 그렇더마는, 불이 났는데 개가 가만 보니 그 주인이 말이지 죽겠다 싶어 놓으니까, 거름골짜기에 가가지고, 개가 말이지 물에 두굴두굴 구브러 가지고(굴러 가지고) 땡땡 돌아가면서 말이지, 주인한테 불이 못 오도록 불로 꺼줬다 하는 기라. 그것 때문에 그 골짜기가 개좌골 골짜기라고.

[철마면 설화61]

## 불을 꺼서 주인 구한 개와 개좌골(2)

김명근(남, 1940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마을회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조사자: 예, 아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개가 인자, 개가 집에 애양견이 하나 있었는데, 개좌산 너머로 말하자면 주인이 시장 갔다가 오다가, 그 마 장에서 술이 좀 거나하게 돼가지고, 개좌산 문디에(꼭대기)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모양이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똑 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 가지고, 그 주인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개가 그 문디(꼭대기)에서 골짜기 내려가가 쾅지에 물로 적셔 와가지고 주인을 살렸다 카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철마면 설화62]

## 거무산 · 철마산 · 범산의 유래

김명근(남, 1940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마을회관]

거무산 카는 거는 옛날에, 그 뭐 옛날에 여여 뭐 바다라 카든가(하든가), 그 또 뭐고 침몰지가 돼가지고. 거무산은 거무 (거미)한 마리 앓을 만치(만큼) 남았고 뭐, 철마산은 말 한 마리 앓을 만틈 남았고 뭐, 요 범산이라 카는 거는, 범한 문맹이(꼭대기) 요는 범 한 마리 있을 정도고, 그런 이야기 들은 예가 있습니다.

[철마면 설화63]

## 바위를 깨트려 과객이 끊긴 집

김일영(남, 1938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마을회관]

그 이야기는 말하자면, 어찌 과객이 그 부락에 잘 사니까 마이( 많이) 왔어요. 와여 가는데, 그 입구 들어가는데, 큰 바우가 하나 있는데, 복판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그래 어찌하면 되겠노 하니까, 어떤 선비가 바위에 그 손을 대거나 깨던지 이라면 안 온다 하거든. 그런데 결국은 바위로 갖다가 깨보니까, 그가 피가 나가지고 그 바위를 깨지 못하고, 이 세면(시멘트)을 붙여놔서 때워(땀질) 놓은 그런 흔적이 있어. 그래서 그라고 끝에는 과객이 안 오더라는 그런 얘가지.

[철마면 설화64]

### 함박산 · 달음산의 유래

안임덕(남,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마을회관]

내가 여기 고향이 정관이거든요. [조사자: 정관이 고향이십니까?] 정관이 고향인데, 정관에 가면은 우리 마을 예림 저 뒤산으로는 함박산이고, 이쪽으로는 달음산인데.

우리 어릴 때 얘기 듣기로 이 옛날에 해일을 해가지고, 이 육지가 전부 바다가 돼빠리가지고(되어버려가지고), 함박산에는 함백이(함지박), 이 바가지 하나 옆을 만땅(만큼) 남아 있고, 달음산에는 다리미 하나 옆을 만땅 다리미, 와 옷 다리는 다리미 안 있어요? 그거 하나 옆을 만큼 남아가지고, 그래서 달음산이 되고 함박산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런 전설이 있고.

[철마면 설화65]

### 장사와 바위

안임덕(남, 1932년생) 구술  
2011년 2월 11일 채록  
[장전리 장전마을 장전마을회관]

나무 자체가 몇 백 년 돼가지고, 워낙 그래가지고, 나무가 마 그 이상 하이(이상하게) 마 나무가 싹 없어지는 그 포구나문데, 없어졌는데, 그기에 나무가 두 가지를 이래 봤는데, 그 보면은 바위가 마, 이래 대각선으로 누워 있는 바위가 있다고.

그런데, 그 바위가 우리가 얘기 듣기로, 저 정관에 그 우쪽(위쪽) 부락 사람하고, 아래쪽 부락사람하고 그러니 간에, 우리 그 예림에는 곰배 정(鄭)자 정씨가, 참- 힘 센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바위를 나무가 쪼맨할(작을) 때 그 바위를 갖다가 바짝 일바사(일으켜) 세워가지고, 저쪽으로 그래 놓으면 아랫들에 시절이 좋고, 근근히(간신히) 혼자서 일바사(일으켜) 세워놓은 걸 갖다가 우쪽(위쪽) 사람들은, 동네 사람이 몇 동네 사람이 내려 와가지고, 근근이 이쪽으로 세워놓는 기라. 그러믄 여계(여기에) 해 놓으면, 이쪽 밑에 정장군이라는 이분은 혼자 가서 살짝 마 살짝 마 해놓고. 그래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기 보면 바위가 이 나무가 이리 큰데 나무에 깡기가(끼여) 비슷하게 이리 돼 있었다고. 그 바위가 마, 요새 사람들 몇 십 명 움직여도 움직거리지도 않을 바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는 다 전설이고.

[철마면 설화66]

**충견 때문에 목숨 구한 서홍과 개좌산의 개무덤**

김명조(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김명조씨 댁]

서홍, 그 어른이 사시기를, 여 여기 저 구림이라고 그 기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저 동래성에, 말하자면 그 지금 같으면은 뭐라 하노? 군에 인자



군인이면서 그 인자 보초를 말하자면은 서고, 근무를 하는 셈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집에 인자 노부모가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은, 계속 거기서 누워 자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집에 노모가 아주 몸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아니면 간호가 안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인자, 상급 지휘관 짚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낮에는 근무를 하고 인자 밤에, 요 딱 거리가 30리 거든. 여기서 동래까지. 30리를 걸어 와가지고 밤에 노모를 인자 저 병 간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을 먹고, 또 인자 그게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이래 계속 이래 근무를 하니까, 굉장히 그 기 고달프죠 몸이? 피곤할 꺼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그 분이 개를 한 마리, 누른 큰 개를 한 마리 다리고(테리고) 그래 근무지에 갔다가 왔다가 이래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인자, 지금 현재 요 개좌산이라는 정상이 보이지, 도로가 나는 바람에 떼이 버렸는데(떨어져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딱 요래 산 정상에서 요 쪽에서 올라가면 정상이고, 저 쪽에서 오면 정상이고, 요게 잔디밭이 요래 딱 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올라오면 대고(힘들고) 하니까, 고기서 항상 쉬는 거라 이 어른이.

쉬는데 몸이 하도 피곤하고 하니까, 약간만 요래, 자기도 몰래 살(살 짝) 기대가 있다가 잠이 깜박 들어 버린 거지. 그 때 마침, 저 밤에는 저 옛날 사람들은 다닐 때 횃불이라고, 그 무슨 저 숲 같은 거, 이런 거를 말라가지고, 그래 기다랗게 이래 말아가지고, 그기다 불을 붙이가지고 다니면은 나쁜, 큰 위험한 짐승도 보호가 되고, 길도 또 밝혀지고, 이런 식으로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옆에다) 잔디밭에 놔두고, 마 잠은 안 들었으므로 그 기 옮겨 붙어도 꺼지는데, 잠이 깜박 들어버리니까 몰랐는 거지. 그러니까 개가 보니까, 사람이 누워있는데 주위에 마 잔디밭에 그 뒤통이 잘 번지거든. 불이 마 붙는다 말이지.

개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기야. 그러니까 개가 항상 그리 놀다니기 때문에 그기서(그곳에서) 조금 내려오면, 골짜기에, 고(그게) 물이 항상 이래 있는 기라. 있어가지고 개가 거기 가서 내체(매번) 와가지고, 지 몸을 그 기다 물구덩이에 구불라가지고(굴러가지고) 버떡(빨리) 올라가가지고, 그 불을 이래가[상체를 좌우로 흔들며]몸을 가지고 끄는

거지. 꺼도 거 한 번에 안 꺼지는 거야. 지 또 끝따나(끄는 동안) 또 불고, 이러니까 왔다가 갔다가 몇 번 하다 보니, 개는 완전히 뺏어 뺏는(뺏어 버린) 택이지. 그래가 불은 겨우 꺼놓고, 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해 죽어 버렸는 기라 개가.

주인이 깜빡 잠이 들었다 깨가(깨어) 보니까,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아, 이 개가 나를 살리(살려) 놓고 죽었구나.’ 하는 기 느껴졌던 거라. 그래 노니까, ‘아,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기다가, 인자 그 개를 갖다가, 파고 무덤을 인자 만들어 준거지. 무덤을 해놓고도 그게 표시가 되게끔, 우리 쪼깁할(어릴) 때부터 그게 소먹이고 땡기고 늘 왔다 갔다 해도, 요런 쪼만한 돌을 가지고 요래 표시를 해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전설이 내려오면은, 요게는 요거다 하고 계속 유지가 됐는데, 요 도로가 나는 바람에, 고 인자 산을 깎기(깎았기) 바람에 고거를 인자 없어질라 할 단계에 우리 마을에서 인자 군에다가 인자 연락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개 무덤을 갖다가 그대로 없앨 수는 없다. 어데 조금 이전을 해가지고 기념으로 비라도 좀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그 정상에서 조금 요래 우리 대곡 쪽으로 오면은, 고계(그곳에) 길로 가면은 오른쪽에 개 무덤 비석이 딱 서가 가지고, 비석에 내용도 적혀가 있고 그렇습니다.

[철마면 설화67]

### 자손이 칭찬다는 백자 산소

김명조(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김명조씨 댁]

그래 좋은 자리가 뭐 있다 카는(하는) 거는. 우리가 요기서 보면은, 요쪽에 은진 송씨들이, 고 몇 대 존지 모르겠다. 대충 요게 사는 사람들이 한 13대나 14대조쯤 될 끼구(것이지)만은. 그 은진 송씨들, 가까운 파에 보면, 파준데. 백(百) 자(子), 백자(百子) 산소라고, 산소 이름이. 그거를

쓸 때 인자 어떤 지관이 말하기를,

“여기는 묘를 쓰면은 백자손, 말하자면 자손이 아주 성하게 날 것이다.”  
 캐서(해서) 그래 썼다 카는데, 그래서 글런가(그렇는가) 그건 모르겠고,  
 손은 얼마나 똥지(되는지) 모르겠고, 이름은 그래 백자, 고래(그래) 백자  
 산소라고 그런 정도가 돼가 있고.

[철마면 설화68]

### 장사 청장군

김명조(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김명조씨 댁]

백일 동네지 아마 그게. 옛날에 정장군이라고, 그 분이 마 힘이 얼마나  
 켜는지, 가당찮게 쉰 거라. 그 당시에는 마, 그 힘 세는 기 제일 뭐 말하  
 자면 남자가 억세고, 마을에 힘 쉰 사람이 하나 있으므로(있으면), 저쪽 마  
 을하고 싸우더라도, 하나이(하나를) 가지고 다 버가내고(버터내고) 이라  
 는데. 옛날에 나무 하러 가가지고,

“이 자리가 우리 구역이다, 너거는 오지 마라.”

이카면은(이렇게 하면은) 못 오고 이랬는데. 그 백일 동네에 정장군이라  
 는 사람하고 석질 동네 전체하고 이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정장군이 어  
 떤 바위에 떡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뭐 내가 얼른 듣기로는 그렇더라,  
 여기다가 줄로 매가지고 저 석질동네에서 땡기(당겨) 내루고,

“야 이놈들아, 너거 땡기 봐라. 내가 꼼짝이나 하는가.”

카고, 바위로 딱 잡고 정장군이 있는데, 동네 사람이 다 땡겨도 꼼짝을  
 안 하더라 카대. 그 정도로 힘이 쉰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은 내가 듣기  
 는 들었어요.

[철마면 설화69]

### 백여우 이야기

김명조(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김명조씨 덕]

우리 마을에 오는, 옛날에 요(여기) 오는 다리 조금 건너면은, 고 앞에  
(옆에) 배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면은, 날이 꼬롬하면은(긷으면) 거기  
만 오면은,

“백야시가 나온다. 백야시가 나온다.”

이래 해췌는 거라(했던 거라). 그래 췌는데(했는데), 그게 뭐 젊은 애들  
이나, 옛날에는 불도 없다 아이가? 이 뭐꼬, 가로등도 없고 하니, 캄캄한  
데 되이. 그런 말이 나오니까, 마 그 젊은 아낙네들이나 뭐 처녀 아들이  
나 거 올라 카면, 벌씨로(미리) 겁을 내가지고 벌벌 떠는 중이라.

그런데 옛날에는 캄캄할 때, 무슨 저 반딧불, 반딧불도 나오고, 또 저  
거 비가 올라 카고 꼬롬하면(긷으면) 인, 사람 저 골에서나 뼈에서나 나  
오는 그 저 인이. 옛날에는 또 애들도 많이 죽었거든. 장티푸스 걸은 호  
열자 같은 거 해가. 죽으면은 마 저 산에다가 묻어 놓으면은, 여우가 그  
놈을 파가지고 그 인두골이가 마 구불러(굴러) 다니고 그랬다고. 그 인이  
날라 땡기는 거라. 쪽- 땡기고 이라면은 오는 사람들이,

“저게 백여시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상당히 놀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철마면 설화70]

## 주인을 구한 충견과 개좌산의 개무덤

송이조 (남,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저 산이 개좌산이라. [손가락으로 개좌산을 가리키며] 잘록한데 저가 길  
이 나있어요. 길이 나있었어, 철마면 사람들은 동래시장이나 그때 군 단위  
니까 시내를 갈라면 요 길을 따라서 개좌산으로 고개를 넘어야 가는 거요.

개좌산이라는 이 역사가 왜 생겼냐면은, 여기는 옛날에 다 시골이니까, 여기에 있는 젊은이가 부모를 모시고 동래에다가, 동래, 그때 동래현이지 동래현에, 요새 같으면 경비지, 보초 서러 가는, 그 당번 업무를 근무하러 가는데, 혼자 산이 짙어져가지고 걸어 다닐라하니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호랑이 나타난다, 돼지도 있다, 산짐승이 두려워가지고 개를 한 마리, 누렁이 개를 한 마리, 큰 개 한 마리를 몰고 같이 다니는 거야. 출퇴근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그- 이 양반이 술을 한 잔 먹고 오다가 산꼭대기 쪼금 그 힘들고 하니까, 거기서(그곳에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누워 잤어요. 잘룩한 바로 저긴데[손가락으로 개좌산 쪽을 가리키며], 개좌산 꼭대기에, 누워 있는데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뱃불이 옆으로 잔디에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났어요.

근데 개가 몇 년을 계속 주인하고 다니니까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가 그 개가 밑에 골짜기에 내려가서 자기 몸에 물을 묻히(묻혀) 와서 주인 주변을 이렇게, 잔디에 불을 꺼져온(끄면서 온) 거예요. 꺼져오니까 주인이 살고, 개는 지쳐가 죽어 빠린(죽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개를 거기 묻어줘 놓고, 이 산 이름을 개좌산이라 정했다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실제 사실이고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해서 저 올라가는 우측 편에, 도로 우측 편에 비석을 세와(세워) 났습니다. 그 개를, 충성스러운 개를, 주인에게 충성스런 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철마면 설화71]

## 바위 깨어 망한 집

김명조(남, 1937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김명조씨 댁]

구림이라는 그 동네라, 그 동넨네. 이것도 인자 거기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고 한데, 요 인근에서 나도 들은 얘기지 말하자면. 들은 얘기라. 그니까(그러니까) 거기 구림이라 하는 마을에 고개 건너편에 딱 보면은

능선 비슷한데, 계단식 밭이 이리 있는데, 밭 가운데에 요 바위가 딱 요 뺏쪽하이(뽕쪽하계) 요래 딱 있었던 기라. 있었는데, 고 마주보이는 요쪽 (이쪽) 건너편에 어느 집이, 차씨 집인데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어요. 이래노이(이러하니) 옛날에는 그 과객이라고, 요즘 말하자면 걸인이라 캐야 (해야) 하나? 뭐라 캐야 하노?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념의(남의) 집에 밥이나 얻어 묵고, 마 이래 하는 과객이 마이(똥이) 자꾸 오는 거라. 그것도 과객들도 대충 알거든, 부잣집에 가야 뭘 얻어먹지, 없는 집에 가면 못 묵는 기라. 자꾸 오니까, 주인이 너무 구찮다(귀찮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너무 푸대접 할 수도 없고. 그래 어느 과객이 왔는데,

“아이고, 이거 마, 도저히 인자 더 이상은 이거 과객 치닥거리를 못 하겠다.”

이라니까 그 과객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이거라. 주인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무슨 좋은 수가 있느냐?”

하니까,

“저 앞에 보이는 바위, 조(저) 바위, 뽕쪽한 조 바위를 어느 정도, 삼분의 일이나 요래(이 령계) 날려버리라 이기라, 날려버리면은 마 그 길부터는 과객이 안 올 꺼니까 그렇게 하라.”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뭐 당장 그 이튿날 가가지고 망치로 뺏는지, 그 바위를 짤라(잘라) 버렸는 거라. 그래하고 나니까네, 물론 과객도 안 오지, 살림이 그냥 썩- 마 일 나고 해가 자빠져버린 기라. 어데 물으니까,

“저 바위를 저래 놓으니까네, 그 살림이 안 되고 걸타(그렇다)”

“그럼 우짜면(어떻게 하면) 돼노?”

하니까,

“다시 한 번 거기다가, 거다 말하자면 세멘(시멘트)을 가지고 옛날 꺼와(것과) 같이 이래 한번 발라 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발란 흔적이,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거기 없지 싶어. 고런 전설이 하나 있어요.

[철마면 설화72]

## 사람을 해치지 않는 호랑이

송이조(남, 1935년생) 구술

2011년 2월 10일 채록

[장전리 대곡마을]

옛날에 여 산이 큰 소나무가 많아가 짙어가지고, 요(여기) 사람들이 나물 캐러 가서, 젊은 새덕들이 나물 캐러 올라가면, 호랑이를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나물 캔다고 이렇게 캐면은, 호랑이가 우에서 돌을 굴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딱 떠보니까, 정신을 채려보니까, 호랑이가 이래 눈을 뺨뺨 쳐다보는데, 사람을 해치지를 않더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본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호랑이가 뒤따라오면서 자꾸 따라오는데, 그 때는 호랑이 쫓는 방법이, 힘으로 안 되니까, 담배를 피면 호랑이가 불을 겁낸다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몸에 털이 있으니까, 털이 타면 안 되니까. 그래 자꾸 담배를 피우면서 오면 해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1. 기장읍 설화
2. 일광면 설화
3. 장안읍 설화
4. 정관면 설화
5. 철마면 설화



## 1. 기장을 설화

[기장을 설화1]

### 이도재 어사가 놀았던 어사바위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8(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 마을회관

제 보 자 : 한규준(1937, 남)

청 중 : 8명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1), 박양리(@2), 정혜란(@3)

[구연상황]

원정길 제보자의 매바위 이야기가 끝난 후, 조사자가 어사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아느냐고 원정길 제보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다. 잠시 좌중이 어수선한 가운데 제보자가 나서서 어사바위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 군량미를 싣고 가던 배가 두호마을 앞 바다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났다. 마을 사람들이 침몰된 배에서 군량미를 줍거나 가져가는 바람에 군량미가 모두 없어졌다. 군량미가 없어진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에서 어사를 파견했는데, 이도재 어사가 두호마을로 오게 되었다. 그러자 기장군에서 기생을 내보내 바닷가의 큰 바위에서 어사를 접대하였다. 어사바위는 바로 이도재 어사가 접대를 받고 놀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본문]

어사바위라 하는 거는, 예- 바로 그 매바위 옆에 암벽이 있는데, 그 인자 어사바위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자 그때 마 지금 걸으면 중앙 부쳐겠죠.

이도재? 이도재{李道宰(고종 19년인 1882년에 암행어사로 기장군을 다녀갔다)} 어사님이가 여기 그때 인자 그 뭐 때문에 왔냐 하면은 그때 그 군량미 관계 때문에 그 국해라고 있어요.

보급을 싣고 오다가 그때 당시에는 보급을 군량미를 가지고 오다가 배가 어떻게 침몰이 돼가, 육지에서 하면은 그 군량미를 인자 주민들이가 인자 예를 들어서 뭐 갖다다가{가져다가} 좌가{주워서} 먹기도 하고 또 뭐 훔쳐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데 이 군량미가 확실히 어찌 사고가 일어났느냐, 어찌 댘느냐, 풍파가 댘느냐, 우리 기장 고을에, 기장 고을에 내사 즉 조사를 나온 거죠.



두호마을의 어사암

지금 같으면 중앙 부처에서 인자 감사를 나온 거죠. 이기 인자 즉 말할 것 같으면 기장 고을 같으면 오니깐, 그 인자 기장군청에 말하자면 행정관청에 오니까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기장 관내에서 그 이도재 어사님을 결과적으로 로비를 했 거지요.

기생, 월매 기상이라 하는 기생을 붙이가지고 거게서 인자 즉 말하자면 어사 한 명 온 모양이죠. 저 바위에 그래서 그 어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이도재 어사님이 이리 왔어요. 관기, 그때는 행정 관기 뭐 아무데 가도 관기가 안 있습니까?

@조사자: 그렇지요 그렇지.

와가지고 저걸 하고 이랬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인자 어사암이라는 내력이 이도재가 여 왔기 때문에 그래 인자 그 바위를 어사암이라. 어사암이란 그 야까 그 때 안 있습니까, 매바위, 그 같이 다 있습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2]

**잘못된 보고를 바로 잡은 이도재 어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8(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 마을회관

제 보 자 : 윤학줄(1934, 남)

청 중 : 8명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1), 박양리(@2), 정혜란(@3)

[구연상황]

조사자들이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이 제보자가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이 조사자에게 노인회장이 라고 소개를 했다.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애기섬 이야기를 아느냐고 하며 구술을 요청하자, 애기섬 이야기는 잘 모른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물건을 싣고 한양으로 가던 배가 두호마을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됐다. 배가 고됐던 동민들이 침몰된 배에서 곡식, 육류 등을 주워서 먹었다. 하지만 해적들에게 물건을 탈취 당했다고 보고를 했다. 왕이 이도재를 암행어사로 파견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이도재 어사가 잘못된 보고를 사실대로 바로 잡고, 기생 월매와 앞바다에 있는 바위에서 놀다 시를 새겨 남겼다.

[본문]

우리 문화원에서도 이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 택길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여계 말이지 앞을 지나가는 해창[海倉], 해창이라 하면은 바다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거서 인자 물건을 좌{주위} 싣고 한강으로 서해바다로 올라가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우리 앞바다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이 배가 침몰이 되甦는 거라. 그래 인자 배가 침몰이 되니까 그 실었던 곡식이고 육류고 해류고 할것없이 전부 물에 다 떨어져가지고, 어렵게 살다보니 그걸 조와먹었는 기라요.

근데 이제 관가에서 보고를 중앙에다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이거 말이지 우리 한양에 올라오는 배에 뭐 물건을 싣고 올라오는 배를 몽땅 말이지 탈취를 당하고 했다는 이런 보고를 했는 기라.

그래서 인자 왕이, 임금님이 그 암행어사를 소문을 보내, 여기다 조사하라. 그래 조사하러 딱 내려와 보이께네 사실 거기 아니거든요.

그래가이고 여기 관기가 있었어요. 관기가 있는데,

@조사자 : 월매라고 나오던대요.

예, 월매 관기가. 그래 그 기생강{기생하고} 말하자면 이도재{李道宰(+고종 19년인 1882년에 암행어사로 기장군을 다녀갔다)}라는 어사님하고. 그래 사실대로 틀린 점을 고치고 그렇잖다는 걸 갖다가 전부 말하자면 이도재 어사가 그래가 보고를 올리고 만찬을 했는 기라요.

만찬을 하면서 인자 저 매바우라는 데 가면은 거기서 마 초식{초시계(+짚으로 만든 돛자리)}을 깔아놓고, 장단을 올리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술도 먹고 말이지. 그래가 고계 기념으로 월매하고 이도재 그걸 파가지고, 돌을 파가지고 새긴 글자가 있어요.

그래 있고, 여기 시를 읊었는 거라. 말하자면 예성 먼 데서 내려오는 바람에, 국수당에, 요 국수당이거든요, 저 큰 소나무 있는 데가, 국수당 나무가 춤을 추고, 애기점에 무슨 뭐가 다 들어가더만은, 그래가이 그때 뭐 이뤄진 [말을 얼버무리며] 저는 이리 알고 있는데, 예-.

@조사자 : 그래가 이도재란 사람이 암행어사로 내려왔네요.

그렇지.

@조사자 : 그래 인자 관기가, 월매가 사실을 다 인자 이래.

그래 인자, 예- 그렇지. 하고 실제 조사해본 그 결과에 그게 아이고 배가 싣고 가다가 침몰을 당해서 넘어진 걸 갖다가 여 여 서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배고파가 그리 주워먹은 기라.

그거를 갖다가 말이지 동네사람들이 와가 해적매꾸로{해적처럼} 탈취를 해가지고 말이지 했다는 보고가 이리 올라가가지고 그래 어사가 인자 내려와요. 그래 내용이 그렇다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3]

### 매바위를 없애서 망한 집안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8(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기준(1935, 남)

청 중 : 8명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1), 박양리(@2), 정혜란(@3)

[구연상황]

조사마을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좌중들 사이에 계속 되었다. 그러던 중에 조사자가 앞서 들은 매바위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자 제보자가 나서서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매바위라 불리는 바위 밑에 영천 이씨가 살았다. 영천 이씨는 마을에서 풍족하게 살아서 항상 과객이 많았다. 과객들이 많이 와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집안 부녀자들이 과객 오는 것을 싫어했다. 한 과객을 불편하게 대접했는데, 그 과객이 가면서 매바위를 없애면 과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듣고 매바위를 없애자 과객이 끊어지고 영천 이씨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가 없어지면 새들이 활개를 치듯, 매바위가 있던 마을은 망했지만, 그 앞에 새바위가 있던 마을은 흥하게 되었다.

[본문]

저 내가 듣기로는 여기가 요쪽이 우리 부락 앞에 요 새바우가 있고, 요쪽에는 우리 부락에서 열 한번씩 제사를 지내구마는, 동제. 그라고 한 오년만에 인자 풍어체를 지내고.

그래 인자 고계 매바우가 있었는데, 매바우를 지냈는데 매바우 보면은 요쪽에 한쪽에 보며는 꼭 날라가는 매같이 생긴 돌이 있었어요. 돌이 있었는데, 요쪽에는 인자 새바우고.

클런데 매바우에서러 요 밑에 이- 저, 그때 영천 이씨죠. 영천 이씨가  
요 우리 부락(마을)에서는 이용준이라고, 그 조모님께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하도 잘 살다 보니까 옛날에 늘 과객들이 많이 왔는{왔는} 기  
라. 오가지고 사흘씩 나흘씩 며칠씩 먹고 인자 지내다 보이께네 집안에  
서러 부녀자들이 싫어했는 기라, 손님 많이 치이까네.

그래해서는 그때 모 한 과객이 오가고{와가지고}, 오니까네 그 집안에서  
쪼금 대접을 줌 거하게 했어, 불편하게 줌 인자. 그래서 그 과객이 가면서러,  
“당신네 집에 손님이 안 올라카거든 조 앞에.”

고 인자 고 매바우라 하모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완전히 여 배로 타  
고 사람이 옷을 건지가{건어서}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매바우 돌을 없애뿌라. 없애뿌면은 당신네 집에 손님이 안 올거다.”

이런 얘길 하고 갔어요. 그까지 거 돌 하나만 빼, 매같이 생긴 거 뭐  
메가지고 가이 뽀뿌면{부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러  
그 매바우라고 생긴 거로 매를 가서러 그 다음에 없애뵈어요, 뿌아뵈어.

뿌우고 보니까네 그 집안이 완전 망했는 기라. 지금도 그 분님들의 이  
지역 영천 이씨들 몇 집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큰댁이 그분들 완전히  
망했지. 망해가지고 손도 인자 없어졌지.

없어졌는데, 그래 매가 없어지니까네 새바우가, 매 앞에 있는 새가 인  
자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매가 없어지이 새가 활개를 친다 이기라. 활  
개를 치니까, 원죽하고 요 원죽, 요게는 두무포고 저쪽에는 원죽이라고  
두 개 마을, 자연마을인데 두 개 마을입니다. 그 원죽 마을이 새가 활개  
치니 잘 되더라 이기라.



매바우라 불리우는 소학대

그래가 논을 사고 받을  
사고 동네가 잘 되고, 요  
두모포는 그 이씨 집안도  
망하고 동네도 망하더라 이  
런 이야기 인자 들었어예.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  
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  
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4]

**매바위를 깨서 과객이 끊어진 부자집**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8(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 마을회관

제 보 자 : 원정길(1941, 남)

청 중 : 8명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1), 박양리(@2), 정혜란(@3)

[구연상황]

조사자가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을에 있는 매바위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제보자가 나서서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고을에 부자 원님이 살았다. 부잣집이라서 거지들이 동냥을 하러 너무 많이 왔다. 주인이 지나가는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과객이 안 오겠느냐고 묻자, 스님이 앞에 있는 매바위를 깨버리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하인들을 시켜 매바위를 깨어버리니, 아무도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현재 매바위가 있던 자리에는 매 발 부분만 남아 있다.

[본문]

이야기 들은 풍인데, 옛날에 말이지, 여게 고을 인자 아주 부자 원이 살았답니다.

바로 그 내내 수지집에. 그 앞에 가 딱 살았는데 과객들이 하도 마이 {많이} 오는 거라. 그 부잣집이 되고 보니까 얼어물라고{얼어먹으려고} 거러지들이지, 마이 오가이 너무 얼어묵고 이라이까, 주인이가 너무 신경이 쓰이거든.

그래 인자 어떤 스님이 딱 오가 이야기를 하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짜면 과객들이 안 오겠느냐?” 이라니까,

“앞에 탁 매바위가 있는데, 매바위. 매바위가 있는데 그 매바위를 깨뿌라, 없애뿌라.”

이래 [멋적은 듯 웃으며] 이라더랍니다.

그래가 하인들을 보내서 매바위를 깨뿌어. 매바위 깨뿌고부터는 일절 사람이 안 오는 거라. 지금도 매바위 있는기, 그 매바위 밭에, 돌 없혀 있는 그기 그 밭이랍니다.

바위 자체는 깨뿌고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분{한 번} 들었어.

#칭중 : 매같이 생긴 거를 깨뿌리고.

그래가이 깨뿌리고 없애뿌리고 그 밑에 밭만 남아 있는 기라, 밭만. 그래 과객이 안 오더랍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5]

## 조심을 해도 무심결에 끼는 방귀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교리1리 경로당

제 보 자 : 최필금(1929, 여)

청 중 : 5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조사자가 방귀 이야기를 묻자 제보자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면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아이들이 밥상을 앞에 두고 생각 없이 방귀를 끼기도 한다. 어머니가 밥과 방귀를 섞어 먹느냐며 야단을 쳤다. 방귀를 끼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도 방귀는 무심결에 나와서 무안해진다.

[본문]

방구라 카이 생각하는 기, 우리 시어무이는, 애들 이전에 큰 상에다가 같이 안 묵는교. 이라몬 모심질에{무심결에} 이래, 빵구가 마 생각도 없이 빵구가 안 나오니까? 나오면 어머이는,

“이노무 새끼들, 밥하고 저 빵구하고 같이 섞어 쳐물라 카나,” [일동 웃음] 하고 아들이 빵구가 그냥 낀다 아이가.

“너거는 그라몬 밥하고 저게 빵구하고 섞어 쳐물라 카나.” [일동 웃음]

“참 내이 사정없이, 어찌 빵구를 그리 하고접어 놓으노. 우리 정씨들은 절대로 빵구를 안 낀다. 참아야지.”

하이교, 그래 빵구만 나오면 우리 며느리카네 잘 안 끼지마는도, 열매나 조심을 안 하는교. 하는데, 어짜다가 내가 밥을 떡 마, 나도 생각도 없이 뽕 나와뿌이. [웃으며] 아이구 그 뭐 나오니까네 마, 얼마나 기가 차는교.

그래 인자 우리 그때는 뭐 남편 신랑이,

“나는 빵구 뽕 끼놓고 얼굴이 빨갛노?” [웃음]

그런데 그 빵구가 마 무심결에 나온 거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6]

## 몰래 끼는 며느리의 방귀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교리1리 경로당

제 보 자 : 이묘숙(1933, 여)

칭 중 : 5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조사자가 며느리가 방귀를 잘 끼는 이야기가 있는지 묻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청중들도 재미있게 경청하였다.

[줄거리]

며느리가 젊으니 밥을 많이 먹고 방귀를 끼었다. 시어머니가 조심을 하지 않는다고 타박을 했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솔뚜껑을 열면서 솔뚜껑이 끌리는 소리에 맞추어 방귀를 시원하게 끼었다.

[본문]

시집을 턱 와가{와서} 사는데, 할배도 나가 많고, 할매도 나가 많은데, 이놈 집안 이게 메느리 한참 클 때가 되놓이, 푸짐하이 음식을 마이 묵고나이, 밥을 몰라 카이 빵구가 뽕 나이, 영감재이가,

“이편 할매.”

“으응- 나는 조심을 안 하고.”

이라거든. 이놈 메느리, 또 빵구 나올라 카제, 우습제.

이전에 조선술을 왈 열면 소리가 크거던. 정지에 물 뜨러 가서 어찌 하더마는, 빵구 나올라 캐사서 솔뚜뱅이로{솔뚜껑을} 타르르르- 끌민서 빵구를 풍-, [일동 웃음]

#청중1 : 아이고, 그런 빵구가 많이 안 나온다.

#청중2 : 그 유식한 얘기다.

#제보자 : 그 할배가 참 행실을 마이 했거마는, 이러노이카네, 무슨 말이라도 이래 메늘네들이{며느리들이} 터벅 터벅 터벅 하이, 마마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어이구 여자가 되가 이리 조심이 없어 어짜노.”

이카몬, 이제 시아마이는 듣기 싫버가지고{싫어가지고},

“니는 시아바지 앞에 조심을 좀 안 하고 와 그렇노?”

@조사자 : 그래가지고?

#제보자 : 그래가 마, 그래도 마 그 천성은 못 고치니까네. 지는 버젓이 마, 밥을 무도 마이 묵고, 뭐도 묵으면 마이 묵고. 마이 묵으면 소화가 잘 시키이 방구가 잘 나오는 기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을 설화기]

## 메주콩 많이 먹으면 호랑이가 잡아 간다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교리1리 경로당

제보자 : 최필금(1929, 여)

청 중 : 5명

조사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조사자가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제보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옛날 생각이 난다며 다음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줄거리]

옛날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메주콩을 삶을 때면, 아이들이 콩을 먹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콩을 너무 많이 먹지 못하도록, 콩을 많이 먹고 똥이 마려서 화장실에 가면 대밭에서 눈이 빨간 호랑이가 나타나 잡아간다.

[본문]

내가 저 적에, 인자 호랑이 카는 말 하라 카이카네, 말 할라는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옛날에 뭐 물끼{먹을 것이} 있나 그  
쥬? 메주 콩을 콧 안치 낫는데, 안치 가지고.

“그리 아이고, 메주 콩 그거 무보몬{먹어 보면} 안 되나?”  
카고, 이래 주개로{주걱으로} 젓어가 주개로 떠가지고 접시 걸은 거 주  
더라구요.

그래 묵고, 또 묵고,  
“아이고 야야. 그거 마이 무몬 밤에 똥 매르비몬{마려우면}, 대밭에서  
러 눈이 빨가이 해가지고 호랭이 내려온다.” [일동 웃음]  
그기 내 기억에 남더라구요. 여기서 내 클 직에.  
“아이고, 야야. 할때, 그래도 맛있다.”  
이래 카몬,  
“이거 마이 무면 안 된대이.” 저녁에 똥이 메르바, 똥 누러 가면. 마  
똥누라 캐요. 똥 누러 가면, 우리 집에 대밭이 있거든요.  
“눈이 빨가이 해가지고 호랭이 내려오면 어짤라노? 그만 무라.”  
호랭이 애길 하이까네, 기이 그런 일이 있어요. 많이 들었다고요.  
옛날에 물{먹을} 끼{것이} 있나 그죠? 거, 거머 마 즐라꼬 카다 보이.  
#청중 : 콩 거 삶으론 아-들이{아이들이} 막 물라 칸다.  
#제보자 : 거 마이 무면 똥 싸거든. 그래가 내-,  
“니 저녁에 똥 누러 가몬 배밭에서러 어데 빨가이 나오몬 우짜노. 그  
만 무라, 그만 무라.”  
@조사자 : 아 이거 재밌네요.  
#제보자 : 거 마이{많이} 들었어예.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8]

## 용소골 애기소에서 본 귀신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노인정

제보자 : 이부용(1934, 남)

청 중 : 2명

조사자 : 정규식(@), 박지희(@1), 오소현(@2)

[구연상황]

제보자가 앞에서 구술한 귀신 이야기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짚어서 선을 보러 좌천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용소골 애기소 근처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아가씨를 보았다. 그 아가씨는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미인이었다. 가까이 가니 개울로 내려갔다. 겁이 나서 용소골 절까지 뛰어 갔는데, 절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었다. 정신 없이 달려서 근근이 역으로 왔다.

[본문]

어- 이거는 뭐 용소골에 그런 봤다 카는 사람이 있어. 있는데, 이거는 실지로 내가 이기 느낀 점인데, 내가 나 스물 여섯 물{먹을} 그 해에 내가 선 보러 간다고 좌천을 갔는데, 좌천을 갔는데,

용소골 저저 지금 애기소, 소 우에 그 돌 떠진다 카는 그 우에 그 가도[街道], 딱 지금 올라가면 가도가 요래 딱 돼 있는데, 요기 쪼맨헌 소[沼]이 와 있었다고. 그건데 오는 길이고, 요기서 인자 옛날에 그 저 저 사람, [청중들에게] 저 박 뭐꼬? 박홍식이 알지?

응 박홍식이 모친이 그 우에서 쌀장사를 했다고. 요만한 쌀장사, 양 사바서{사방에서} 오는 쌀장사를 받아가 한 되 두 되 가져오는 쌀장사를 받아가주고, 그러면 거서 받아가 기장 가지와 팔고 이런데.

내가 그날 오후에 그때 통근차가 옛 시 사십오 분인가 기장 도착에 좌천 가는 통근차 탈라고 철마서 인자 넘어오는데, 여서 거리라 캐봐야 한 백 한 오십 메타 가까이 될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솔이 없고 이래 인자 ○○사 쪼매끔 있었는데, 저 우에서 보이카네 하얀이 소복을 입고, 어 어떤 한 이쁜 아가씨가 소복을 입고 거서 이래 딱 쪼글시{쪼그려} 앉아가지고 울어쌍는 거라. 내가 직접 봤다고.

보이 하얀 소복을 했어. 이런데 뭐 일행이나 있는 것 같으면 같이 넘어오지마는, 내 혼자 넘어올라 카이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데, ‘하이구 이

놈의 돌아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기가 차는 기라. 기가 차.

이래가지고 돌로 큰 거를 딱, 그때는 우리가 힘이 쬐 있으이 돌로 딱 양손에 쥐고 마 달라들면 팽라꼬, 이래 딱 쥐고 인자 마 온 몸이 서리에 처가 이래 내려오는데, 아 잘에{겉에} 살 올라오이카, 잘에 한 십 메타 가까이 오이카네, 와 이 하얀 소복 입은 이 아가씨가 그라아{그랑으로(+ 조그만 하천으로)} 쓸 내려가는 기라, 그라로. 오 개울로 쓸 내려갔부는 기라. 개울로 쭉 내려가는데 마, 더 간이 쓸 올라오데.

그래 그라아서 불과해봐야 한 3메다, 4메다 가까이 사오 메다밖에 안 되거든. 그랑, 길하고 저저 개울하고. 그래 저 쪽에 건너가서 우는데, 눈물이 내가 보이까 눈물이 살- 이래 흐르는 기라. 근데 인물도 만국일색[萬國一色]이라.

이래가 마 인물이고 뭐고 마 겁이 나서 마 그 질로 두고 뿔는데, 지금 현재 용소골 절 안있나? 절에 그꺼정 한참을 뿔다고. 한 이백메타 마 같이 뛰이가지고 돌아서니까 아 이 요 밑에까지 내려와가 딱 치바다 보고 있잖아. 이래 딱 서가지고. 와따 이래가지고 그 질로 역을 쫓아와가지고 마 갔는데, 선을 우째 봤는지 그것도 모르고 정신이 마.

그런 경험이 나는 실지 내가 적은 경험입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9]

## 용이 아이를 낳은 시랑대와 안척사까지 연결된 샘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동암마을 동암마을회관 노인정

제 보 자 : 노명준(1933, 남)

청 중 : 0명

조 사 자 : 정규식(@), 박지희(@1), 오소현(@2)



[구연상황]

조사자가 마을의 명칭이 유래한 시랑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이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마을 노인정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일행이 전부였으며 다른 청중은 없었다. 제보자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만 해주겠다고 하였다.

[줄거리]

시랑대에는 신랑 각시가 아이를 낳고 탯줄을 끊었던 자국이 붉게 남아 있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의 바위가 있다. 시랑대 아래에 샘이 있는데, 이 샘은 명주실을 아무리 풀어도 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다.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에는 샘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를 내동 뒤의 안적사 법당에서 들을 수 있다. 용이 그 샘으로 연결된 굴에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용궁사라는 절 이름에도 용 용자를 쓴다.

[본문]

그 분이 요기가 여계 예전에 이 전설로는 뭣이 있나면, 각시가, 신랑 각시가 아이를 낳아가이고 이래 안태[安胎]로 꿋고{꿋고} 갔다 이래가이고, 예전에 바닷가에서 벽을 보몬 이래 바위 안에 벌거무리하이 꿋줄을, 그게 전설이겠지.

이래 꿋고 가는, 안티로 꿋고 가는 피가 그 저 바위에 묻어가서 저기 발깡다 이래하고.

@조사자 : 아-, 그 시랑대에 붉은 부분 그래, 탯줄처럼.

#제보자 : 탯줄처럼 꿋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라고 그 밑에 가몬 샘이라꼬 이래 있어, 그 아기로 놓은 데. 그그 돌에 보몬 사람이 [꿋어앉는 시늉을 하며] 꿋어앉아가이고, 요래 현 형식이 딱 요래 있심다. 고개{그기에} 고개 이리 샘이가 있는데, 고 샘이가 지금 당신은 알란가 모르지만은 맹지방울이라(명주방울이라(+명주방울은 명주실을 방울처럼 감은 실타래를 말함)) 합다, 맹지방울. 예전에 할매들이 맹지 짜고 이라모 저 저.

@조사자 : 명주, 명주방울 예.

#제보자 : 이래 짜고, 맹지 짤 때 그 실 방울 안 있습니까? 그놈을 이

아도{이어도} 밑이 안 바친다{부딪친다}. 그마큼{그만큼} 우리는 갱험을 {경험을} 안해 봤는데, 예전 그런 전설이 있고. 거게가 파도가 치몬 쿵쿵 하몬, 여 여게 아까 내동이라 했지요? 내동 뒤에 그 안적사 절이라는.

@조사자 : 안적사 거 갔다 왔습니다.

#제보자 : 갔다 왔습니까? 그 절이 신라시대 원조스님이{원효스님이(+원효스님을 원조스님이라 함)}, 거기에 쿵쿵 하는 소리가 난다 하는 이런 전설이죠. 그마큼, 마 그 확실한 건 누가 모르지만은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조사자 : 아- 그렇구나. 그 샘에 파도가 치면.

#제보자 : 쿵쿵, 태풍이 치몬 쿵.

@조사자 : 안적사 있는 데까지 소리가 난다고예?

#제보자 : 예. 안적사에서 앉아있으면 밑이 울리가 쿵쿵 하는 소리가 난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조사자 : 그라모 어르신, 그러면 그런 전설이 있으면 용이 그 굴을 통해가지고 안적사까지 가고 뭐 그런 이야기는?



용녀의 전설이 전하는 해동용궁사 옆 바위

#제보자 : 그런 이야기지. 그러까네 용이 아를, 신, 용이 아를 낳아가이고 안티를 꺾고 올라갔다 하는 그런 전설이라. 그래서 여게도 용궁사 이름도 용자, 용 용[龍]자로 따가이고 그래 용궁사라고 그래 지았구만은.

@조사자 :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안적사까지 그게 연결이 돼 있는.

#제보자 : 마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거게 안적사에 대법당에 앉아있으면 파도가 마이(많이) 치몬 거게 법당이 웅웅웅 울린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10]

## 저승 갔다 살아온 할머니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웅천리 중리마을 웅천리경로당

제 보 자 : 전금출(1937, 여)

청 중 : 8명

조 사 자 : 박경수(@), 정혜란(@1), 정다혜(@2)

[구연상황]

조사자가 저승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없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청중들이 관심 있게 들으면서 저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줄거리]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다. 저승에 가니 큰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왔느냐고 묻고는 노란 개를 따라 가라고 했다. 노란 개를 따라 가다 그 개가 갑자기 난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놀라서 쫓다. 노란 개와 함께 떨어지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이승으로 오게 되었다.

[본문]

우리 저저 할매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더라구요.

잠깐 죽어 한 시간만에 깨어났는데, 그래 참 어데-로 가이까네 마 이런, 이런 큰 우리 여어 치면 면사무소 같은 그런 집이 있더라요. 그래 떡가이까네,

“그래 우째 왔느냐?”

카이께네,

“하이구 내가 마 저 어데 간다고 왔다.”

카이께네, 그라마 이래 글로 써가 이래 주고서리 이런 노란 개, 개를 한 바리 앞에다 세우거던.

“조 개를 따라 가라.”

카거든. 어테-라고 어테라고.

#청중(김하숙) : 그처리 멀기{멀리} 갔다 카제.

예, 마 역-수로 가디만은 개가 이래 큰 난간에 마 툭 떨어지고 마 없 더랍니다. 할매가 깜짝 놀래 깨йка네 이승이랴요. 그래 그 개로 같이 떨어졌으면 죽었을근데 할매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 이래 글로 써준 그거는 아직까지 저승 올 때가 안 됐다 카는 그런 걸로 주었던가봐요.

그래가지고 그래 진실로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할매가.

\* 『한국구비문화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을 설화11]

## 저승 갔다 살아온 켜쟁이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웅천리 중리마을 웅천리경로당

제보자 : 전금출(1937, 여)

청 중 : 8명

조사자 : 박경수(@), 정혜란(@1), 정다혜(@2)

[구연상황]

제보자는 앞에서 한 저승 갔다 온 사람 이야기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했다.

[줄거리]

옛날에 점을 보는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죽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곳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할머니가 저승에 가니 기름이 끓는 큰솥에 들어가라고 했다.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을 밀어 넣었다. 그 사람이 기름 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깨어

보니 이승이었다.

[본문]

아, 예 옛날에 저 언양면 중광리라 카는 데 할매가 점을 했어요. 점하고, 점을 참 잘했다고 옛날에 그런데, 그래 그런데 갑작시래 마 죽어가지고.

그래 마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가 마 주무리고 마 뚜드리고 마 난리 엄마야고 부르고 굿이 났는데, 그래 이 늙은이가 탁 이 가이까네, 마 어테라고 가이까네 뭇이 이런 솔에다가 기름이 마 바글바글 끓는데, 할매가 마 드가라 하더랍니다. 고마 할매는 안 드갈라고 카고 드갈라고 밀어영고 마 한참 하다가 마 할매가 탁 치니까 어떤 사람이 마 그 쭉 드가뿌더랍니다.

그래가 깨가, 깨이까네 자기가 이승을 마 엄마야고 부르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래가꼬 이승을 왔더랍니다 그래.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12]

### 집까지 안내해 준 호랑이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노인정

제보자 : 이부용(1934, 남)

청 중 : 2명

조사자 : 정규식(@), 박지희(@1), 오소현(@2)

[구연상황]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 제보자가 증조부가 관련된 호랑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정달호라는 사람의 증조부가 타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범이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런데 범이 집에 도착해서도 가지 않아서, 개 한 마리를 던져주니 그것을 물고 갔다.

[본문]

어. 정달호라고 자기 그 증조부되시는 분, 그 양반 이야기는 뭐. 그 양반은 자기 그 저 직접 내가 들었는데.

그 노인네들이 어데 출타해가지고 오면은 범이 나와서 어 안래를{안내를} 하고 집에까지 덤어다주고{데려다주고}. 집에 개를, 개가 안 가고, 이놈 덤어다주고, 이놈 범이 안 가니까 자기 집에 개로 한 마리 던져주가지고 물고 가라고 말이지, 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사자 : 아-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안 가니까 개를 던져주면서 개를 먹이로 삼아서 인제 돌아가게 하는 보답을 해준 거네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13]

## 귀신에게 흘려서 밤새도록 돌아다닌 사람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 노인정

제보자 : 이부용(1934, 남)

청 중 : 2명

조사자 : 정규식(@), 박지희(@1), 오소현(@2)

[구연상황]

조사자가 도깨비 이야기로 아는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동생 이야기라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사촌동생이 술에 취해 철마면 안평 연못 주위에서 구신에게 흘렸다. 밤새도록 정신을 잃고 안평 연못 뒤의 제비산을 흘러서 돌아다녔다. 아침에 닭이 우는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리자 귀신이 갑자기 사라졌다.

[본문]

사실인데, 내 동생인데, 내 사촌동생인데 이거는 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한문은{한 번은} 동래서 여 철마로 오면 여 안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평 그 연못 있는데, 연못 밑에 가서 야가 어 술을 한 잔하고 왔는데, 완전 정신을 잃어뿔어.

거가 상달 그 못이라는 그 안 골짜기 가서 거 여자한테 흘렸는데{흘렸는데}, 그 그 안평 그 못 뒤 그 산 제비산이라 카데, 가서 그 밤새도록 이래 돌아다녔다고 흘키가.

돌아댕기다가 산신령이 거 앞산 보몬 똑 불가진{도드라지게 튀어나온} 산이 있는데, 가서 새벽{새벽} 4시까지 이이 돌아댕기다가 그 첫 달이{닭이} 우니까, 아 이기 사라지더라.

아 이거는 실제다. 내 동생이 그러 카는데, 야가 마 훗날 술이 한 잔 되가지고 뭐 내한테 거짓말하는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흘켜댕겼다 아 입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신을 채리가, 우리 큰집이 요 밑인데, 고 정신을 알고 있는 그 반면에 첫 달이 딱 우이카네 이기 마 갑자기 사라지더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기장읍 설화14]

**권적이 낙향하여 놀았던 사랑대**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사랑리 동암마을 동암마을회관 노인정

제 보 자 : 노명준(1933, 남)

청 중 : 0명

조 사 자 : 정규식(@), 박지희(@1), 오소현(@2)

[구연상황]

조사자가 시랑대의 이름이 왜 시랑대인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옛날에 권적이라는 정승이 기장고을로 낙향해 왔다. 정승을 지내다 낙향하니 할 일이 없어 시랑대에서 친구들과 낚시를 하며 지냈다. 시랑대라는 이름은 권적의 벼슬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시랑대 주위에는 학사암과 제룡당이 있다.

[본문]

여계는 예전에 신라시대, 권적(權適, 1675-1755(+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대사헌, 호조참판, 예조판서 등을 지냄))이라는 그 저 정승이 있었는데, 그분이 낙향을 대가이고, 낙향을 대가지고 인자 기장고을로 왔어.

내려 오가이고 고을에, 정승으로 있다가 고을에 내려오이 뭐 할 짓이 없다 이 말이, 고을 원이. 이래가이고 인자 그 낚시꾼들로 덩고{데리고} 친구들도 덩고, 이래 이래 시랑대라 하는데, 저게 가가이고, 거게 뭐 학사암이라는 데도 있고, 시랑대도 있고, 제룡당[祭龍堂]이, 여 비가 안 오면 며 무제[舞祭] 지내는 제룡당도 있고.

거계에서 인자 저저 고기 가지고 놀다가 또 가면 가면서, 요 우리 여계 사람이 어둡으문 햇불로 캐가이고 여다리까정 해주고, 여다리서 햇불로 해주가 저쪽에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의 시랑대라 하는 기 왜 시랑대라 했느냐 하면 그 분의 벼슬이라, 이름이, 그때 시랑이라는 벼슬이 있었다. 있었는데, 그 벼슬을 따서 여기는 시랑대라.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 2. 일광면 설화

[일광면 설화1]

### 두 동네가 한 동네가 된 며느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마을 화전경로당

제 보 자 : 이춘례(1938, 여)

청 중 : 7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두 동네가 한 동네가 되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보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구술한 것이다.

[줄거리]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어서 불일을 보고는 기둥나무에다 닦고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는데, 시아버지가 물을 갖다 달라는 말에 급하게 기둥나무의 뽕족한 곳에 엉덩이를 닦다가 그만 밑이 길게 찌지고 말았다. 그래서 ‘두 동네가 한 동네가 되었다’는 말이 있다.

[본문]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래 화장실이, 옛날에는 그 저 재래식이, 옛날 그런 화장실이 아니가. 그래가지고 인자 내무 해가 알구지이{알꽃게} 서까래에 얹어가 그래 화장실이 촌에 보통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급하이 기둥나무 못이나 꿩이 같은 그런 데다 마뺏아뺏다{뺏아뺏다}. 그래가 인자 시아버시가{시아버지가} 그래,

“빨리 물 가 오이라.”

“물이고 뿔이고 두 동네가 한 동네 됐다.”  
카대. 밭이 찌져가 더 찌졌다 이 말이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일광면 설화2]

## 집에서 쫓겨난 두 며느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마을 화전경로당

제 보 자 : 송경필(1929. 여)

청 중 : 7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다른 제보자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주겠다며 구술해 주었다. 모두 아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청중들이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하고, 한 청중은 제보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며 ‘두 동네가 한 동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구술했다.

[줄거리]

이웃집 며느리 둘이 집에서 쫓겨나왔다. 서로 쫓겨난 이유를 물으니, 한 며느리가 채로 불을 담는다고 쫓겨나왔다고 했다. 다른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물을 갖다 달라고 해서 급한 김에 화장실에서 엉덩이를 잘못 닦다가 길게 찢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두 동네가 한 동네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이고 불이고 별것 아닌 일로 집에서 쫓겨나왔다.

[본문]

쫓기{쫓겨} 나오가지고, 너머{남의} 집 며느리 둘이 쫓기나와가,

“니는 어찌다 쫓기났노?”  
 카이, 그래 인자, 이란다고{이렇게 말했다}.  
 “나는 채로 가지고, 채로 가지고 불 담는다고 그리 쫓기나왔다. 니는 어찌가{어떻게 해서} 나온노?”  
 카이, 그래 내나 인자,  
 “메늘아 물 가온나{가져 오너라} 카이카, 물이고 불이고 마, 듯 동네 합동 댘다.”  
 이카고, 그리 그리 또 모르지. 아 그리카데.  
 쫓기나가가지고 판 데 계시매, 요새는 이 담이지만, 전부 울탈{울타리} 아이가, 나무 그 인자. 쫓기나와가 두 동시가,  
 “니는 어찌다 쫓기 나온노?”  
 카이,  
 “나는 채로가 불 담는다 그래 마 쫓기 나왔다고.”  
 “나는 마 아버지가 물 가오라. 두 동네 합동네 댘는데, 물이고 불이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일광면 설화3]

**출방귀를 똥 머느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마을 화전경로당  
 제 보 자 : 이춘례(1938, 여)  
 청 중 : 7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방귀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하나 재미난 것이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며느리가 방귀를 췌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부끄러워할까 보아서 그것이 복방귀라고 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봉채 받는다고 그런지 줄방귀가 나온다”고 하며 참았던 방귀를 계속 끼었다.

[본문]

인자 며느리가 방구를 뽕 끼니까네, 인자 부끄럽어가, 민망 부끄럽어가지고 시아버지가,

“아따 그 방구가 복방구다.”

카이,

“아버님 말씀이 나이 하는 말이지, 봉채 받는다고 줄방구가 나온다.”

이래 카니까 카더라.

며느리가 방구를 뽕 끼이카네, 그리 인자 무참하다{무안하다}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끼이카네. 무참시러바 그리,

“아가 아가.”

칸다 카더만. 그래서 그리 인자 그 방구가 복방구다 카이까네,

“아버님, 말씀이 나이 하는 말이지, 봉채 만나 줄방구가 나오더라, 복방구라 카니까.”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일광면 설화4]

## 아이를 물고 간 호랑이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산수곡 산수곡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옥하(1933, 남)

청 중 : 3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옛날에 호랑이가 이 마을에도 살았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마을에서 소 먹이는 아이를 범이 물고가지 놀란 아버지가 낫을 들고 범과 싸우려고 했으나, 범이 빠르게 물고 가버려서 결국 아이를 잃게 되었다.

[본문]

풀로 비가지고(베어가지고), 그때는 비로(비료)가 없으이카네, 풀로 비가지고 채(채워) 냐다가 논에 이리 있는 기 퇴비라, 퇴비.

그 비를 이래 가이까, 서근덤 몬디(꼭대기에) 자 위에 올라가이케네, 그저 속각, 머루 속각 가지가 하나 마 ‘핑’ 날라 가더라 카네. 핑 날라가서, 그 뭐 ‘희안하다’ 싶어서, 그 가는 기 속각 가지가 빨건 기 하나 날라가이카네 속 가지가 이런데, 소 먹이는데 알라(어린 애) 보라고, 소 보라고 했는데 마, 아가 달났다는(달아났다는(+없어졌다는)) 기라.

그래가 안자 담말아(달려서) 아한테 가보이카네, 아가 범이 아로 물고 뜯어 묵는 판이라. 그래 놓이카네 마, 저거 아부지가 낫을 가지고 마,

“내 자-무라(잡아먹어라).”

카미, 마 마 밀고 땡기고 이래도 안 놓더라 카네. 물고 달아 빼뿌니까네 그 놈을 잃어뿌따 카대.

@조사자 : 아, 아기를 호랑이에게 물려서?

#제보자 : 아로, 소 먹이는 아로 범이 물고 있는 거로, ‘내 자-무라’ 카매 마, 밀고 땡기고 이라이카네, 아로 물고, 범 따라갈 수가 있나 물고 달아빼부이(달아나버리니까), 그래 마 아로 마 잃어뿌따.

@조사자 : 그 이 얘기는 언제 들었던?

#제보자 : 옛날 말이 그렇다 이거야.

@조사자 : 옛날에 이 마을에요?

#제보자 : 아, 그렇지.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일광면 설화5]

## 달음산의 유래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산수곡 산수곡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옥하(1933, 남)

청 중 : 3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제보자가 먼저 달음산 유래를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며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 닭 한 마리 앓을 자리 만큼 남았다고 해서 달음산이라 불렀다.

[본문]

달음산에 해일이{해일이} 해가지고{일어나서} 바다가 끌고 올라가이 해일이 되가 달{닭} 한 바리{마리} 앓은 자리 마이{만큼} 남아서 달음산이라.

@조사자 : 달음산?

#제보자 : 달음산.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일광면 설화6]

## 나물 캐러 여럿이 가는 이슈와 호랑이의 호식 습성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산수곡 산수곡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옥하(1933, 남)

청 중 : 3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마을 뒷산에 호랑이가 많았다며 호랑이 이야기를 계속 구술해 주었다. 이야기를 하던 중간에 청중이 끼어들어 호랑이의 호식 습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줄거리]

마을 뒷산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나물을 캐러 다녔다. 호랑이는 초저녁에 ‘살찐 처자’를 찾지만, 새벽에는 ‘개나 중이나’ 하며 먹을 것을 찾는다.

[본문]

개를 못 키워. 낮으로는 놔 두도, 밤만 되면 정개, 부엌이제 그제. 부엌에 개로 이래 가두는 기라, 범이 아가{와서} 물고가사서{물고 가버리곤 해서}. 범이 인자 기 지 양식인{양식인} 기라.

그라고 나물 캐러 가면 집단적으로 땡기야 되는 기라. 산에 나물 뭐 이래 촌에는 풀 입사구{입사귀} 없으이카네, 나물도 마 우리 반찬 아이가{아닌가}. 그거 하러 갈라카모 집단적으로 이래 땡기야지. 하내이{한 사람이} 개적으로{개인적으로} 가빠면{가면} 호랭이인테 물리 죽는 기라.

그리 때로 지아가지고 온 마을사람들이,

“오늘 나물 캐로 가자.”

이카모{이렇게 하면}, 온 동네 여자들이 인자 집단적으로 나오가지고 바구미{바구니} 가지고 나물 캐로 가야지. 하내이 둘이 가다가는 범인테 물리 죽는 기라.

#청중 : 이전에는 범이 초저녁에는, ‘살찐 처이. 살찐 처이’ 카매 땡기다

가, 새벽녘에는, ‘개나 중이나. 개나 중이나’ 카매 물고간다 안 카나.  
#제보자 : 그래 옛날에는 범이 이래, 범이 초저녁에 이래 내리 올 때는,  
“좋은 살찐 암캐나, 좋은 처이나{처녀나}.”  
자아물라꼬, 좋은 처이나, 이런 거 그러 카매 내려오는 기라. 내려오다가  
마, 이거 가지다 저거 가지다 보이 아무것도 자아물 끼{잡아먹을 것이}  
없거던. 인자 그래 마 올라가면,  
“늙은 개나 늙은 중이나.”  
#칭중 : 중이나 개나.  
#제보자 : “중이나 개나, 늙은 중이나.”  
#칭중 : 중이나 개나 카매 물고간다 안 카나.  
#제보자 : 개나 카매 물고 대든지 뭐. 그라이 인제 골짜기로 달아빠다,  
가다가 보이카네 절이 있으이, 절에 중도 물고 달아 빠고, 예전에 이바구  
가 그렇대.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일광면 설화기]

## 용천과 회룡마을의 지명 유래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회룡마을 회룡마을회관  
제 보 자 : 정경섭(1933, 남)  
칭 중 : 3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조사자가 회룡마을에 대한 유래를 묻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용천은 용이 하천에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회룡은 용이 산을 돌아서 내려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회룡 아래 쪽에 용이 살았다는 우봉소라는 곳이 있다.

[본문]

저 용천 입구에 용천 카는 기가, 옛날에 이야기가 용천은, 이 용이 옛날에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용천이라 카는 인자 지명이 용천이고.

인자 요 마을은 회룡이고, 용이 여 우에서 인자 저 우에 산이 바로 이 둘러 내려 오가지고, 요리 돌아가 안자, 산이 요리 돌아가 요리 딱 막아 난{막아 놓은} 기 있거든 요기.

그래서 회룡이라고. 이야기가, 회룡이라 카는 기 인자 용이 돌아간, 돌아왔다꼬 그래 회룡이라 카는.

#청중 : 그런 뜻으로 인자 용이다.

#제보자 : 그, 그래서 이 마을의 지명이 돌아올 회[回], 용 용[龍], 고로 케{그렇게} 인자 용이 돌아왔다꼬 인자 그, 그래 인자 지명이 그래 돼 있어요.

@조사자 : 아, 그러면 용하고 관계된, 용이 살았다는 얘기 전설 같은 거.

#제보자 : 용이 저 밑아 곁에{개울에} 살았던, 용이 살았다 카는데, 저 밑에 가몬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용이 살았다 카는 그 전, 전설이 있어요.

@조사자 : 그 바위 이름은 흑시?

#제보자 : 거, 금금포라 카나? 금금바위가 뭐야? 금금바위 카는 데고. 우봉송{우봉소}이 있어요. 우봉송.

@조사자 : 우봉송? 송이라면 소나무를 얘기합니까?

#제보자 : 송. 송. 송.

#청중 : 송이몬 물이고.

@조사자 : 아, 소. 우봉소.

#제보자 : 물이 고있다는.

@조사자 : 아, 예.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일광면 설화8]

## 도깨비와 싸운 영감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회룡마을 회룡마을회관

제 보 자 : 정경섭(1933, 남)

청 중 : 3명

조 사 자 : 서정매(@), 황영태(@1), 최수정(@2)

[구연상황]

도깨비 이야기가 없느냐고 하자, 도깨비에 관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음 이야기를 구술했다.

[줄거리]

날씨가 흐릴 때 도깨비가 나타난다. 날씨가 흐린 날, 술을 많이 먹은 영감이 길을 가다가 도깨비를 만났다. 도깨비와 오랫동안 다투다가 이겨서 칼로 도깨비를 찌르고 왔다. 다음날 아침에 가서 확인해 보니 나무둥치에 칼이 꼽혀 있었다.

[본문]

옛날에 인자 날이 꾸름할{거무스름할(+흐릴)} 때에, 인자 그 밤에 인자 나많은{나이 많은} 사람이 술을 자시고{잡수시고} 넘어오면은, 길가 오면은 인자 불이 있는 거야.

도깨비불이 있어가지고, 거서 싸워가, 몇 시간 싸우다가, 그거 짹, 그거로 가지고, 칼로 가지고 꼽아갖고 인자 집에 내려 왔는데, 거 자고나서 인자 무엇이고 싶어 가이까네, 나무 뚱거리에다가{나무둥치에다가} 칼이 꼽아져가 있어.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 3. 장안읍 설화

[장안읍 설화1]

#### 시집에서 쫓겨난 며느리들

구연자 : 김달선(여, 81세)

구연일자 : 2002. 5. 19.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옛날에 시집을 떠났던. 시집을 가다 한넝이(한명)는 저 속곳을 밭솔에 찌(찌)가지고 그래인자 쩍기(쫓겨)나가고, 또 한넝이는 씨아바이(시아버지) 이마(이마)에다 칼자리(자루)를 박아가지고 쩍기(쫓겨)나가고, 또 한넝이는 부식(부엌)에 짐(김) 끝아(구워) 놓고 물 이고 갔다고 쩍기(쫓겨)나가고. 그런데,

“니는 와 쩍기(쫓겨) 나왔노?”

이라거덩.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쩍기(쫓겨) 나왔다.”

“그래, 무슨 일로 그래 쩍기나왔노?”

그라이께네,

“나는 곳곳에 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밭솔에다가 속곳을 찌더니마는 쩍기(쫓겨) 나왔다. 그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쩍기(쫓겨)나왔다.”

이러거덩. 한넝이는 또,

“니는 와 쩍기(쫓겨) 나왔노?”

“씨아바이(시아버지) 이마에다가 칼자리(자루) 박아가지고 그래 쩍기나왔다.”

한넝이는 또,

“니는 와 그리 쩍기 나왔노?”

“나는 부식(부엌)에 저 짐(김) 끝아놓고 물 이고 갔다 왔더니 짐(김)이 타져가지고 그래 쩍기났다.”

그래. 짐(김) 때미(때문에) 쩍기난 그기 좀 낫재? 짐 끝안 기(김) 구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전에 다 짝기(쫓겨) 났더란다.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66~167쪽.

[장안읍 설화2]

## 시동생 망신시키려다 남편 망신시킨 이야기

구연자 : 김달선(여, 81세)

구연일자 : 2002. 5. 19.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옛날에 씨아지바이(시동생)를 장개(장가)를 시기거덩(보내거든). 장개를 시기는데, 장개 가는 날에 신랑은 말을 타고 간다. 저거 남편은 인자 상각(上客) 가고, 씨아지배, 씨동생 거리는 장개를 가고 이라는데, 콩을 생콩을 갈아 가지고 인자 씨아지바이를 줬다. 장개 개개지고 임숙(음식)이 이리 귀하이, 많이 묵고(먹고) 배가 아프거들랑, 콩을 타 묵으라 카거덩.

저녁에 대기(아주) 큰 상을 잘 안 채리주나. 진뜯(잔뜯) 묵았데이(먹었다). 진뜯 묵골랑(먹고서는), 인자 물로 묵고(먹고) 생콩을 묵아놓으이 배가 아파가이(아파서) 설사가 나가지고 마마마마 말뚝걸이 다 쏟아뺐다. 퍼 담다가 퍼 담다가 못 퍼담고, 갈미를 못해 가지고 요강단지를 가지고 각시가 다 퍼 담았데이.

하도 안 돼 가지고 그 신랑이가, 동생이가 생각이 났어. 저거 생이(형)가 안 가고 상각방에 자고 있는디(있는데), 아, 피가 살- 나서덩. ‘옳지, 내 우새(망신)시키나(하나), 생이(형) 우새시키나 한가지다.’ 이놈의 것, 똥물을 요강단지에 퍼 담아가지고 저거 생이 자는 방에다가 막 부아뺐다. 신랑이 옷에 다 부아뺐데이. ‘지금 니 이래 우새시키나, 내 우새시키나 한가지다.’ 이래 가지고.

그래 저거 생이가 일어남께 온통 똥을 누가이고(싸서) 엉망진창이거덩. ‘아, 이래 가지고 내가 날 새면 우새(망신)하겠다.’ 이래 가지고, 인자 생이가 우(위)에 도복(도포)을 입고, 밑에 끼는 인자 똥똥 말아가지고 말상(馬上)에다 꿏고, 도복을 입고 인자 말상에 오를라 카이께네. 마마마, 똥

또구리 꾸부라졌데이. 말상에서 널쭌다(떨어졌다). 널쭌이까네, 이거 아래 우(위)로 꼬치(자지)가 다 뵈었다(보였다). 사돈집에서 그런 넘새(망신)가 어딴노?

그래 인자 저거 각시는 남편이 상각갔다 안 오거덩. 하마- 하마-(어느 때나 어느 때나)해도 안 온다. 인자 뿔이 우썰(어찌)됐는고 싶어 궁금해가지고. 지가 씨아지바이한테 그리 분명히 해 놓았는데, 무신(무슨) 탈이라도 났을 건데, 와 이리 안 오는고? 그 래 삼짱(사립문 밖)을 내- 바렌다(바라본다). 그래 바래고 있으이까네, 그래 그만 저거 남편이 오거덩. 그래,

“아이구, 인자 오능교?”

“오든가 마든가, 가든가 마든가, 그런 우새(망신)가 어딴노?”  
이러거덩.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이까네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씨아지바이 우새(망신) 시킬라다가 우리 남편까지 우새시겼신께네 내가 인자 개정(改心)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인자 시동생이 장개(장가)를 갔다 오거덩. 마. 칩사 대접을 하거덩. 내가 잘못 했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인자 반성을 해가지고 그래 시동생하고 그래 잘 사더란다(살더란다).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67~168쪽.

[장안읍 설화3]

**지체로운 딸(사돈집에 가서 실수한 이야기)**

구연자 : 김달선(여, 81세)

구연일자 : 2002. 5. 19.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딸레집에 떡 갔거덩 아바시(아버지)가. 아바시가 딸레집에 떡 갔는데, 가이까네, 사돈뎨이가 사돈 왔다꼬 풀죽(팔죽)을 끓였거든(끓였거든). 풀죽을 끓였는데 한 그릇(그릇)을 주니 어찌나 나쁘는지(모자라는지). ‘아이구, 저놈의 죽을 한 그릇(그릇) 더 묵어봤시몬…… 더 묵어봤시몬……’

저놈의 죽을 어찌 들메(흙쳐) 목젧노 싶어가지고, 마 옷이나 입고 갔시믄 될건데, 사돈할매 안(內)사돈 자는 데를 벨가벗고(빨가벗고) 들어갔거든.

벨가벗고 들어가가지고 인자 그 북을 농우(농위)에 얹어놓은 그 죽을 들고 나오다가 상투를 어데 걸렀는고 하니, 저 문앞에 마꼬에 상투가 걸리가지고 인자 죽을 떡 들고 가도 오도 못하고 서가지고 있다. 서가지고 있으이까네, 인자 사돈할매가 보이까네, 그래 있거든. 그라이 인자 딸이 떡 왔다.

“아부지요.”

딸이 그리 둘러대더란다.

“아부지요, 그렇게 못하라 캐도 와 했능교? 나 못 갈까베, 그래 아부지가 그렇게 내가 못 하라 캐도 그렇게 했능교?”

딸이 그리 둘러대더란다. 아부지(아버지) 변명을 한기라. 아부지 우사(망신) 안 시킬라꼬 딸이 그리 둘러대더란다. 딸이 대인 아닌교? 그래 보통 사람이 아니지. 우사(망신) 안 시킬라꼬 그리 하더라 안 하나.

“아부지요, 내 못산다꼬 그래 기꼬이(기어코) 그렇게 했능교?”

그러더란다. 그놈의 죽이 올매나(얼마나) 묵고 싶어 갖고, 옷이나 입고 들어 갔시믄 될 낀데, 벨가벗고.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69~170쪽.

[장안읍 설화4]

## 뱀 이야기

구연자 : 김달선(여, 81세)

구연일자 : 2002. 5. 19.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옛날에 긴 진대(뱀)가 있는데, 맥구렁이(떡구렁이)가 큰 기(큰 것이) 왔는데, 그래 인자 그 뱀이를 만났는기라 사람이. 만내가지고 계속해서 달라빠고(달아나고) 있는데, 뱀이는 직선으로는 꼬랑뎡이(꼬리)를 들고 어디까지 따라오거덩. 따라오는데, 저거 할배가 경험이 있어가지고, 독

안에다가 큰 독에다 손자를 열어(넣어) 놓고 있으이 까네, 뱀이가 쭈욱 담으로 들어오거덩. 들어오더니 어디 들어가느고 하이까네, 독을 휘휘 감 아가지고 있더라는 안개를 피웠지 우쨌는지 그만 실- 나가더라 카네. 나가고 나이, 저거 할아배가 독을 인자 따까리(뚜껑)를 열어 손자를 보인까네 마, 죽어 있더라네. 짚등(짚동)걸리 해 가지고 죽어 있더라네.

그래 그 뱀이를 만나면은 자꾸 뺑뺑 돌아야 되는데, 뺑뺑 돌면 저 놈의 뱀이가 끈치(끊어져)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끈치가지고 여계(여기) 꼬랑갱이(꼬리) 여거(여기)가 뿌아(부러)진다네. 뿌아지면은(부러지면) 뱀이가 어디를 못 가는 기라, 이룬다.

그래 옛날에 그라테(그렇게 말하테). 어짜든지 그런 짐승 만나거들랑 어디 이런 뿔등이나 무신(무슨) 이런 방구(바위) 끝이나 사람이 이리 갔다 돌거든. 그라몬 그 뱀이가 혼돈이 돼가지고 꼬랑댕이(꼬기)가 끊어지고, 그래 그 뱀이 잡지. 직선으로 오면 안 된다 이거라.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70~171쪽.

[장안읍 설화5]

## 두 동네가 한 동네 된 이야기

구연자 : 이보금(여, 77세)

구연일자 : 2002. 5. 19.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옛날에 며느리를 하나 봐놓이까네, 밥을 해가지고 씨아바이(시아버지) 밥상을 들고 가가지고 방에 디리(들여)놓고는 만날(매일) 대변이 보고져바(하고싶어)가이고, 인자 그래 변소에 가서 대변보고 오가(와서는) 지동(기동)나무에다가 궁덩이를 씨익 딱고(닭고) 씨익 딱고 이래. 수 차례를 그리 하거덩. 그래 놓으이까네, 씨아바이가 그래 보다가 보다가 안 돼가지고 채칼을 하나 갖다가 지동(기동)나무에다 딱 꼽아(꽂아) 났거든. 궁덩이를 딱는 거기다가 꼽아 놓으이, 그래 인자 며느리가 또 똥을 누고 오가이고(와가지고) 지동나무에 또 똥는데, 딱으이까네 보지고 췌지고 궁

딩이도 찌지고 똥구녕까지 다 찌져가지고 피가 이리 낭절을 하거덩.

씨아바이가 문구멍으로 이리 살- 보고, 옛날에는 문에 유리를 안 붙이 (붙여)놓나? 그래 그리로 보이까네 피가 나서 막 딱는다꼬 난리다 말이다. 그래 씨아바이가

“야야- 물 가이고 오너라.”

그라인께나,

“아부이요, 물인동 불인동 두 동네가 한 동네가 됐심더.”

그라더란다.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71~172쪽.

[장안읍 설화6]

## 호랑이의 보은

구연자 : 이보금(여, 77세)

구연일자 : 2002. 5. 19.

구연장수 : 효암리 마을회관

옛날에 영감 할마이가 살고, 아들 하나 낳아 가지고 살고 이라는데, 도저히 아들이가 장개(장가)를 못 시기(보내), 처니(처녀)가 안 생기가지고, 장개를 못 시기가지고, 그래 천날 만날 영감 할마이 밤낮으로 걱정이 그 거라. ‘다른 사람은 아들 낳아 가직 장개가고 해샀는데, 우리 아들은 와 장개로 못 가고 그래 어찌 하겠노?’ 그래 나날이 이래하며, 밭은 아주 사래진 밭이라 닷마지기가, 큰 밭이 있었거덩. 그래 인자 날만 새면 그 밭에 가 영감 할마이 인자 모캐밭(목화밭)을 매고 그라이까네, 그래 해가 그울그울 하이까네 호레이(호랑이)가 한 마리 내려오거덩. 내려오가이(내려와서는) 매어올라가는 저 모캐밭 고랑에 턱 앉거덩.

“아이구, 영감아 영감아, 우리를 잡아먹을가꼬 저라는갑다(저렇게 하는 것 같다). 세상에 와 안 내똥서던 호레이가 저리 내똥서가지고 저리 하노?” 이라면서로 이바구(이야기)를 하이까네, 모캐밭 한 고랑이를 다 매고, 또 다른 고랑이를 매이까네, 그 호레이가 또 일어나 가이고 또 요쪽 밑에



고랑에 따라와 앉거덩. 영감 할마이가,

“암만 캐도 오늘 우리는 호래이 밥이 된다.”

“호래이 밥이 된다. 호래이가 그래 자꾸 우리 따라만 땡기이까네 호래이 밥이 된다.”

이래.

그래 또 고랑을 다 매갈만 하이까네. 또 딴 고랑에 또 앉거덩. 그래 가지고 밭을 인자 다 매고 해가 지(저)가지고 내려온테이. 내려올라카인까네, 호래이가 뒤에 슬슬슬슬 따라내려 오거덩. 그 확대같은 큰 호래이가 따라 내려 오거덩.

“아이구, 영감아 영감아, 암만 캐고 집에 가가이 절단을 내겠다. 암만 캐도 우리는 호래이 밥되고는 말았다.”

이럼시러(이렇게 말하며) 오인께네, 그래 인자 집에 오(와)가지고 정지(부엌)에 들어가 밥을 할라 까이께네, 호래이가 마루에 대통에 고가(그기가) 앉거덩. 그래 영감이 말하기를,

“저, 할만아(할멈아) 풀(괏) 삶아라.”

풀을 인자 한 되나 내가이고 삶는다. 삶으이까네,

“으뜸(빨리) 죽 쏘아라(썰어라).”

이러거덩. 그래 풀을 삶아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죽을 한 솥 쏘아가지고 큰 다라이(대야)에다가 한 다라이(대야) 퍼가지고 인자 그 마리(마루) 끝에 갖다 놓으이까네, 서느름 식으이까네, 훌쩍 다 묵고 그만 나가뿌거덩.

그래 호래이가 가뻘다. 가뿌고 그 이튿날 또 인자 밭을 매러 가는데 또 밭을 매이까네, 또 고래고래(그렇게 그렇게) 앉거덩. 이래 가지고 사흘로 그래 땡기더마는, 그래 인자 밤으로는 영감 할마이 자꾸 걱정, 아들 장개(장가) 못 시킨 그 걱정만 한다. 이래 하고 있으이까네, 그래 인자 사흘로 죽을 세 통을 쏘아 가지고 주어 놓으이 까네 묵고 가더란다. 가더이마는 그래 이튿인가 안 오더란다. ‘아이구, 우리를 도와줄라고 저라는가? 어쩔라고 저라는가?’ 이라고, 인자 영감 할마니 또 밭을 매인까네, 저녁에 밭을 매고 돌아와가이(돌아와서는) 저거도 인자 밭을 해가이(해서) 묵고 나오이까네, 처이(처녀)가 산발한 머리를, 그렇기 옛날에는 저녁머리 청승머리라 카고, 새벽(새벽)머리 깨꿈(깨끗한)머리라 카고 이라는데, 머리 감는 처니(처녀)로 한나(하나) 물어 왔거덩. 처이로 한나 물고 와가(와서) 마리(마루) 끝에다 툇 놓으면시는 썩지를 너블너블 어-

치며, 그래 ‘내 밥 좀 두라’ 이 말이지.

그래 영감 할마이가 나와가이고 풀을 삶아가지고 죽을 쏘아가이고 큰 통에다 한 통 담아주 놓이까네. 그래 인자 서느름- 식히가지고 묵고, 그래 나가면시는 고래를 끄떡끄떡 하거덩. 그래 처니를 주물라 깨와가지고 그래 며느릴로 정해라 이기라. 원체 영감 할마이가 죽을 쏘아 잘해 놓으이까네, 그 아들강 결혼해 사라꼬 일등 처니(처녀)로 하나 물어다 주거덩.

호래이가 이래 놓고 가 뵈데이. 가뿌고(까버리고) 참 처니를 주물라 가이(까지고) 깨와가지고, 저거 아들강 결혼을 시켰데이. 결혼을 시키고 인자 잘 사는데 한 날 밤에는 영감 할마이 꿈에 그래.

“내가 가다가 배가 고파가이고, 그래 비네(비녀) 꼬은 (꽃은) 아짐마를 잡아묵았더니, 비네가 내 목에 걸려가이고 그래 이거로 좀 빼주러 오나라.”

이래(이렇게) 꿈에 선몽을 하거덩.

그래, 영감 할마이가 풀죽을 쏘아(썰어)가이고, 옛날에는 양철동우(동이) 아이가? 양철동우 그거다가 한 통을 이고 그래 인자 지(자기가) 있다 카는 그 곳을 찾아간데이. 찾아 가인까네, 다 죽어 가더란다. 비네(비녀)가 목에 걸려가이고 이제 다 부어가. 그래,

“이거 풀죽 묵으라. 우리가 비네 빼주꺼이까네, 이거 묵으라.”

이러이 까네, 그래 못 묵겠다꼬 비네만 빼 줄라 카더란다. 그래,

“입만 벌리고 있시몬 우리가 손을 영어(넣어)가지고 빨거이까네, 해를 끼치지 마라.”

그러이까네, 그래 고개를 끄떡끄떡 하면서 빼 줄라 카더란다. 그래 그 영감쟁이가 손을 쭈욱 목에다 영어(넣어)가지고 비네(비녀)를 검어쥐고 잡아 땡기가이고(당겨서) 빼이까네(빼니까) 피가 출- 나더란다. 그래 그 피내뿌고 죽 한 동우(동이) 묵고 잘 묵었다 카면서 그래.

“너거 아들 손지(손주) 놓고(넣고) 영감 할마이 잘 사라꼬 많이 도와줄꺼이 까네,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그래 행복하게 사라.”

카더란다. 그리고,

“나는 인자 사람도 안 잡아 묵고, 내가 어디로 갈꺼이까네 그리 알라.”

이러더란다. 그래 호래이가 영감 할마이를 그만치 도와 가지고 잘 사도록 해 주더란다.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72~175쪽.

[장안읍 설화기]

## 시어머니의 지체

구연자 : 남일순(여, 90세)

구연일자 : 2002. 5. 19.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옛날에 한 집에 어무이(어머니)랑 아들강 살거덩, 아들은 젊고 어무이는 나(나이) 많고 이래. 그래 인자 하루는 아들이,

“어무이요, 오늘은 내가 떡이 묵고 싶습니다.”

이라거덩.

“응, 그래 떡이 묵고 싶나?”

그래 인자 며느리에게 늙은 어마이가,

“아이구, 아들이 떡이 먹고 싶단다.”

그래 인자 쌀로 담가놓고, 저 며느리로 보고,

“야야, 오늘 떡 찌라. 떡을 솥에 찌라.”

이래. 그래 어데 갔다 오이까네, 며느리가 떡 찌다 카는 게 물로 안붓고 불로 때가지고 솥이 벌어졌거든.

그래 인자 아들이가 나무를 해가지고 와보이 솥이 딱 벌어져가지고 있는 기라. 그래 어마이가 아들을 보고,

“아이구 야야, 내가 오늘 솥에 불로 때다가, 솥에 물로 안 붓고 불로 때가지고 솥이 벌어졌다.”

이라이(이러지) 아들이 한다는 말이,

“아이구, 내가 오늘 진차이(괘히) 떡 묵고 싶다 캬네.”

이라거든. 그래 어마이는,

“아이구, 오늘 내가 맥지로(쓸데없이) 쌀로 담갔다.”

이래. 그래 마, 솥 벌어지고 이래도, 솥 태우고 벌어져도 말로 그리 해베리(해버리) 놓으이 아무 일도 없더란다. 아들이 떡 묵고접다고 안 했시몬 쌀 안 담가실끼고, 저거 어마이가 불 때라고 안 했시몬, 며느리가 불 안 때서 솥 안 태왔실 끼고 그렇더란다. 그게 가족이라. 참말로 그래 가지고 화합하더란다.

내걸은 이런 새근(생각) 걸으론 며느리를 쟁기내고(쫓아내고) 난리가 났지. 서방도 나무해가지고 와가지고 불 때서 그랬이몬 안을로(안사람을) 쟁기내고(쫓아내고) 그러지마는, 어마이는,  
“아이구, 내가 오늘 맥지 쌀을 담갔다.”  
이라고, 아들은,  
“아이구, 내가 오늘 진차이 떡 묵고싶다 켜네.”  
이라더란다. 며느리는  
“내가 불로 잘 못 때서 그렇다.”  
카고, 그래 화합해졌뿌더란다. 그래 서로 참으면 괜찮재.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75~176쪽.

[장안읍 설화8]

### 효자와 산신령

구연자 : 남일순(여, 90세)

구연일자 : 2002. 5. 19.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옛날 옛적에 늙은 할마이가 인자 아들 하나 하고 나날이 저 산에 밭을 쫓아(쫓아) 가지고 지아(지어) 묵고 살거덩. 그래 사는데, 그 산에서 호래이(호랑이)가 가만이 보이까네 그 아들이 효자라, 그 아들이 하나 있는 기. 그래 인자 그 호래이가 화(化)해 가지고 조래장사(조리장수)로 갔어. 그 호래이가 화해 가지고.

“조래 사소, 조래 사소.”

이라이까네, 그래 그 집에 할마이 늙은이가,

“아이구, 조래 장사 여(여기) 오소. 내가 조래 사지요.”

그래 조래를 팔았다. 조래를 팔고 마, 조래장사가 날이 저물아서,

“내가 여(여기) 자고 갈라꼬.”

그리거덩, 신령이라. 그래 가만이 자는데, 호래이가 아니라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래 그만 밭 쫓는(쫓는) 어마이, 할마이로 그만 같이

영감 할마이가 돼가이고 가거덩.

며느리가 인자, 그 집에 며느리가 있던기라. 며느리가 아츰에 밥할라꼬 쌀 내러 들어가까네, 큰방에 인자 방 하나인데, 거계(거기에) 쌀단지가 있는데, 쌀 내러 들어가인까네 엿저녁 조래장사 왔던 영감쟁이강 저거 시어마이강 같이 이래 영감 할마이가 돼가 자거덩.

그래 며느리가 나와가이고,

“아이구, 보소 보소. 밥 할라꼬 쌀 내러 드가이, 그래 엿저녁 조래 장사강 어무이강 한몫 돼가이 자는데, 그래 쌀로 못 내고 밥을 못하겟습니다.”

그라이까네, 그 아들이 효자라. 그래,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래 뒷밭둑에 호박 따 호박나물 볶으고, 앞밭에 까지(가지) 따 까지나물 하고 밥을 만찰게 지아(지어)가지고, 겸상에 한 상에 만찰게 아츰(아침)을 디리라(드리라).”

카거덩. 그래 해 췌다. 그래 묵고 그만 조래장사가 밥 묵고 가거덩. 그래 조래장사가 아니라 호래이 그기 산신령이라. 그래 가뻗다. 가뿌놓으이, 이 할마이가 내내 조래장사 보고접다꼬 소리를 한데이.

“아이구, 어제 왔던 조래장사, 어데까지 갔는고. 아래(엿그제) 왔던 조래장사 어데까지 갔는고.”

이래(이렇게) 소리를 한다. 하이, 아들이 가만이 들으이(들으니) 그래.

“어무이, 조래장사 그리 보고접는교?”

“그래 보고접다.”

이래.

“그럴 거 같으면 조래장사 만나러 갑시더.”

그래 뭐 그때 차가 있나 뗏이 있나 이래. 칩의 가지로 새끼로 이래 엷아 가지고 집을 강아지 집 맨키로(처럼) 이래 한나(하나) 지아(지어) 가지고 그래,

“어무이, 여(여기) 이 집에 앉으소.”

지게다 췌어지고 아들이 조래장사를 찾아간다. 조래장사를 찾아가나 조래장사가 어데 있는지…… 뭇뭇 이러고 찾아가인까네. 어데 가이, 한군데 가인까네, 커다란 방우(바위)가 하나 있는디, 방우 밑에 가가(가서) 인자 아들이 그래.

“어무이, 마, 오늘은 여(여기) 자고 갑시더.”

누(누워)잔다. 자니 어마이 데불고(테리고) 방우 밑에 자이, 밤중이나 되  
이까네 커다란 호래이가 한 마리 왔거덩. 호래이가 인자 어마이강 아들  
강 자는데 왔거덩. 그래 아들이 아이구 팬맨시러 절로 하매 그래.

“우리 어무이는 아무 죄고 없고, 내가 어무이로 이래 업어다가 참 난  
장 맞춰 놓은 거 한가지인께네 우짜던동 신령님네 살려달라.”

고, 이래 비인까네(비니까) 그래 한참 눅았더니, 날이 희뿌옇이 새이까네,  
그 호래이가 사람이 돼가이고 조래장사가 돼가이고,

“그래 내가 이 산에 신령인데, 니가 ‘효자다. 효자다.’ 말만 들었지 참  
말로 니가 역시 오늘 적어(적어)보니 효자다.”

그래 인자 씨앗씨 조마니(주머니)를 한나(하나) 주거덩, 씨앗씨 조마니로.

“이걸 갖다가 가(가져)가서, 오는 봄엘랑 아무것도 승가지(심지) 말고  
이 씨만 승가라(심어라). 승구몬 니가 살거다.”

인자 그 조래장사는 호래이가 돼가 가고, 그래 인자 오가이(와서), 어  
마이를 좇어지고 오가이 씨앗을 흘여(뿌려) 놓으이 말카이(모두) 인삼씨  
라. 인삼씨를 그 밭에다 온데 다 흘여가이(뿌려서) 그걸 캐가(캐서) 파니  
부자 아니겠나? 그래가이 효자 거천(봉양)을 하고. 그래 효자가 되몬 산  
에 신령님도 도와 준다꼬 그래 그렇더란다. 그런 이바구가 있더라.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77~179쪽.

[장안읍 설화9]

## 봉소골에 박힌 쇠말뚝

구연자 : 최누미(여, 80세)

구연일자 : 2002. 5. 25.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이전에 우리 고모부가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기로, 너거(너희)는 나(나  
이)가 많아서로 이 동네 역사로 모르고 살끼이까네. 니(너)는 젊으이까네  
내한테 이야기로 하더라꼬.

여거(여기) 보오골(봉오골), 우리 효암에 보오골이 있거덩. 보오골 우

(위)에 옛날에 어떤 장사가 쇠말때기(쇠말뚝)로 꼽았다(꽃았다) 카데. 쇠말때기로 꼽았는데, 그 말(말뚝)이 언젠가는 니 평생, 그기(그것이) 인자 니 평생에는 그기 발견이 될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 후손에도 또 이야기를 해 주라 이기라, 우리 고모부가. 그래 인자 그 쇠말때기가 이 마실(마을)에 필요하면 그기 표가 난다 이기라. 쇠말때기가.

그렇고, 인자 우리 여겨(여기)를 한라(한려)명산이라꼬 안카나(말하지 않나). 한림평이라는 데가 있거덩. 저걸 인자 글로 해석을 하자몬(하자면) 한라(한려)명산이라. 아주 좋은 명산인데, 우리 고모부가 말로 하기로 것다(거기다) 미(묘)로 써서 명산이 아이고(아니고), 큰 집을 짓거나 큰 운동장 마당이 돼도 명산이 된다 이래. 그러몬 것다(거기다) 오새(요즘) 그 연수원을 자왔거덩. 그러몬 그 우리 고모부가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옛날 때 명인이라. 요새(요즘) 같으면 박사라. 우리들한테 그리(그렇게) 해 주고 간 말이 있는 때미(때문에).

그래, 내가 인자 가만이 생각해 보면 우리 고모부 말이 확실하거덩. 봉오재도 오새(요즘) 인자 큰 한전(원전)이 들어와가 우리 마실(마을) 그 짹(쪽)도 완전히 달리뻗고(달라졌고). 저거(저기) 인자 한라(한려)명산이라 카는 데(한림평)는 연수원을 지아가이고(지어가지고) 각 나라 사람이 오가(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덩. 우리 마실(마을)도 인자 뜯어가고(뜯어가지고) 한전이 되이까네, 그런 고모부는 오새(요즘) 곁으면 똑똑한 박사라. 그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인자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지몬(돌아가셨지만) 그 고모부 말이 일일이 말이 맞다꼬. 지금 우리가 봐서는 딱 맞다 아니가? 그 말이.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79~180쪽.

[장안읍 설화10]

## 도깨비 이야기

구연자 : 장상봉(남, 71세)

구연일자 : 2002. 6. 21.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앞

옛날에 여거(여기) 살았을 때, 우리가 여거 태어나고 여거 자랐거든. 옛날에 그래 할무이(할머니)가, 옛날에 여거 첨무이(처음에) 여거 동네 생길 때, 한 열댓집밖에 없었어. 그래 옛날에는 바다가 요(여기; 마을회관을 가리킴)고, 인자 이기 오래 돼가지고, 자꾸 막히가지고(매워져서) 집을 지어가 나갔는데, 그래 인자 묵고 살끼(살 것이) 없어가지고 바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십리 이십리 저 남창, 웅상 그런 데 팔고, 촌에 이고 댕기가지고(다니면서) 우째 보리나 한 되 가지고 오고, 이리 묵고 살고. 그 다음에는 또 동래장에 가가지고 뭐로 바짜(바꾸어)가지고 오냐 허문 무시(무) 걸은 거 사가(사서) 팔든지, 뭇 팔든지 무시를 사가지고 와가 그것하고 요쪽 바다에 몰(모자반)이라고 있는데, 몰, 진저리(해초의 일종) 말고 몰, 그걸 해가(해가지고) 밥을 다 해 묵고.

그래 양숙(양식)이 없어가이 전라도에 차를 타고 가가지고, 옛날에 저 멀치 날 때, 멀치것을 당가가(담아가지고) 전라도로 저리 가가, 이고 댕기며(다니며) 집집마다 댕기며 몇날 며칠로 얻어묵아(얻어먹어) 가며, 보리쌀 몇 되씩 가와(가지고 와서) 그걸 또 묵고(먹고).

그때는 아주 옛날이지. 열차도 없고 그럴 때, 저 부산 동래까지 여기서 할무이가 꼬추가리(고춧가루) 장사를 했어 옛날에. 동래 장에로 인자 새벽(새벽) 세시 되몬(되명) 간단다. 밤 세시에 걸어서 동래까지 걸어가지고, 그래 인자 꼬추가리를 팔고, 그러고 저녁 아홉시 열시나 됐는데, 옛날에 보지랄 다리가 여거 있었거든. 보지랄 다리가 있는데, 그거 인자 오면(오면), 도채비(도깨비)가 나온다 이기라. 날이 컴컴하고 비가 오면(오면), 도채비가 나와 가지고 저거끼리(자기들끼리) 막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다꼬 난리가 나는기라. 보지랄 다리말에, 도채비가 고기 잡는다꼬.

그래 어떤 때는 도채비가 할무이 여여(마을 앞)까지 데부다(데려다) 준단다. 우리 여(마을 앞)까지 여거. 맨날 이 밑으로 기(기어) 댕가(다녀) 샀거덩. 여기까지 더부다(데려다) 준단다. 더부다(데려다) 주러 오면(오면) 지(자기)한테 잘못하몬(잘못하면) 확 밀어, 사람을 밀어 뺏단다(버린단다). 촌에 할매(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덩. 지(도깨비)한테 잘못하니까네 걸치서(거슬러서) 그렇게 밀어뺏단다. 우리네 할아버지가 중간까지 마짐(마중)도 가서 할매를 데려오고 그랬재.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81~182쪽.



[장안읍 설화11]

## 가마등 전설

구연자 : 신성권(남, 67세)

구연일자 : 2002. 6. 21.

구연장소 : 효암리 마을회관

우리 이쪽 지명을 종전에 아금포, 그런데 아이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km 떨어진 지점에 규사질 산인 백산이, 풀도 없는 산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 산의 흙이 흘러내려 와가지고 강(효암천)이라든지 이 바다를 늘 메워오고 해왔는데,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녹화사업이 성공돼가지고 이 규사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금 모래가 고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한참 산에 흙이 흘러내려 오기 전에는 효암강의 크기가 굉장히 컸고, 여기서는 약 2km 떨어진 강월이라 하는 마을까지 하선이 올라가서 며칠을 규사질 흙을 채취를 하던 그 때, 부잣집에서 강월 앞 백산의 아주 좋은 평지에 몰래 묘를 쓰기 위해서, 당시 주민들이 그 명지에 묘 쓰는 것을 금지했거덩.

그 묘 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부잣집에서 농악대를 텃고(테리고) 와가지고 농악을 치며 노니까, 주민들이 전부 농악에 현혹돼가지고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지신풀이에서 ‘지금쯤은 묘 쓰는 일이 다 되었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농악대가 전부 철수를 하고, 주민들도 집으로 뿔뿔이 헤쳐가서, 밤에 자고 난 뒤에 아침에 보니까 마을 앞 백산 평지에 낫선 묘가 하나 있거덩. 이래서 주민들이 그 묘가 있는 데를 ‘가마등’이라고 지었는(지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마등’의 ‘가마’는 ‘가매(假埋葬)’에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 앞 산의 명지에는 묘를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182~183쪽.

[장안읍 설화12]

## 도깨비와 도깨비불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1(목)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대명마을

제보자 : 이창우(1939, 남)

청 중 : 13명

조사자 : 정규식(@), 박지희(@1), 오소현(@2)

[구연상황]

조사자가 도깨비불이나 도깨비를 본 이야기가 없느냐고 물어보자, 조사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날씨가 흐릴 때, 마을 아래 당산이 있는 곳에 도깨비불이 왔다갔다 했다. 이 도깨비불이 술을 먹고 가는 사람 앞을 환하게 밝혀서 안내를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도깨비에 홀려서 정신을 잃고 밤새도록 도깨비를 따라 돌아다니기도 했다. 또 도깨비와 싸워서 이겨 도깨비를 묶어 놓고 다음 날 아침에 가면 빗자루가 묶여 있었다. 도깨비가 자주 나타났는데,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소릿재를 지날 때면 도깨비와 밤새도록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

[본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거기 그 뭐꼬 도깨비불이라 안 하고 허젍이불이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저도 목격을 했어요.

@조사자 : 어르신도 직접?

#제보자 : 그렇죠. 그때는 비가 이래 구름이 확 끼가지고 있을 때, 비가 오도 안 하고 막 콧 흐리가 있을 때, 그때 보면은 저 밑에 요래 내나 우리 당산 있는데.

저기 보면은 저기 인자 불이 마 똑 뭐뭐 뿔것으까요(뭐 같을까요)? 빨

-간불이 짹-악 가면은 뒤에 마 불이 마 뗏 받되지요 마.

막 앞에 가는 불하고 뒤에 가서 따라 나가는 불이 마 짹-악 갔다가 또 저서{저쪽에서} 이쪽으로 또 짹 왔다가 말이지, 그거는 우리가, 내가 직접 그거는 보고 그 목적은 다 했어요. 했고, 또 우에 어른들이 인자 그 하시는 말씀어는, 그 인자 선생님 말파나 그 인자 술을 먹고, 옛날에는 전부 여 소릿길{좁은 길} 아입니까?

오새는{요새는} 길이 좋지마는 그때는 막 소릿길이고, 막 이래 했는데, 그때는 또 옛날에는 술을 참 많이 무울 그 인자 그 시절이었던 모양이지요.

그래 술을 묵고 인자 이래 집에 온다고 오며는, 내나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건 거 인자 불 걸은 기 사람을 인도로 한다 하대요. 그게 인자 우리는 적어보진{꺾어보지} 안했는데, 인도로 하는데, 그래 인자 앞에 똑 사람같이 이래가 불로 환하이 해가 앞에 가이까네 그래 자꾸 따라가는 기라요.

그래 술은 관{거나하게, 과하게} 뻬제, 이래 자꾸 그 밤새-도록 돌아댕기다가 그거 따라댕기다가 보면은, 그래 따라가지고 [노인정에 손님이 방문하여 잠시 이야기를 멈춤], 그래가이고 밤새도록 다니다가 그래가 그 인자 그 허깨비지 습게{쉽게} 말하자문. 그래 당기는 허깨빈데, 허깨비에 흘끼가지고{흘러가지고} 오래 문 살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그래 안고 싸암을{싸움을} 해가지고, 괜히 보몬 인자 이래가 어찌 쌈을 하다가 보면은, 그기 뽀뽀뽀 뽀로 뽀었다 카든가, 이래 놓으며는 아침에 가보몬 그기 뽀뽀뽀 저저저 이래 씨는 거, 빗자루 같은 거 그런 기 말이지 있고, 뽀 그런 이야기를 해싸습디다. 인자 우리는 보지는 안 해도.

그래 밤새-도록 쌈 하고, 그놈 안고지고 구불고 뽀아가지고 어떻게 해 놓고 보이까네, 아침에 보이까네 그놈이 뽀 기 아이고 빗자루가, 아 빗자루 그기 인자 이렇게 말이지 있더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흘끼가지고 인자 정신을 일거가지고{잃어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 4. 정관면 설화

[정관면 설화1]

### 아가씨 귀신과 놀았던 총각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부락경로회관

제 보 자 : 정순옥(1947, 여)

청 중 : 12명

조 사 자 : 박양리(@), 정혜란(@1), 정다혜(@2)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 마을 근처에 공동묘지도 있고 하니 귀신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귀신 이야기를 유도했다. 그러자 제보자가 직접 귀신을 본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어떤 총각이 정관에 놀러 갔다 오는 길에 예쁜 아가씨를 도로에서 만났다. 그 아가씨를 따라가서 한참 재미있게 놀았다. 나중에 총각이 정신을 차려보니 아가씨와 놀던 곳이 무덤이었다. 총각이 놀라서 마을로 내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했다. 총각은 무사히 살아났는데, 그 무덤은 정관에서 죽은 아가씨 무덤이었다.

[본문]

저 지금 저거 납골당 앞이제, 저 정관 넘어가는데, 그게 이 동네 누 총각이 정관에 놀러갔다오이, 이쁜 아가씨가 도로에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이쁜 아가씨가 나오가{나와서}, 그 아가씨 따라갔는데,

@조사자: 총각이?

총각이. 한참 산에 언자 어디론가 따라갔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

가씨로 마 안고 막 구불고{구르고} 이래 하다 보니 정신이 딱 돌아와가 보이까네 그기 무덤이더라, 무덤이라.

그래가 무덤이라. 그래가 그길로 언자 마 내리왔는데, 마 이 마마 손카 발카{손과 발과} 마 전부 옷이 다 젖고, 이마고 혈 구더기가 되가, 백운 공원묘지에 그게 한 집 살고 있었는데 그때, 거 가가 문을 뚜드리고,

“사람 살리 주라.”

뚜드리니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귀신이라고 귀신이 왔다고, 문을 안 열어줬는 기라. 안 열어줘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뚜드리고 하니까네, 너 무너무 뚜드리사서, 인자 살짜기 문구멍으로 한번 보이까네, 이 동네 사람이라, 두명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가 데리고 그래가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가, 그래가지고 마, 영 마 죽다가 그래 살아났는 기라. 알고 보이, 그 옛날에 정관에 아가씨가 죽어가지고, 그 묘가 그 아가씨 묘라. 그서 귀신이 나와.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정관면 설화2]

**시아버지에게 딸을 시집보낸 며느리**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예림마을 경로당

제 보 자 : 장숙자(1942, 여)

청 중 : 1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이야기가 참 재미있다고 부추기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정승이 부인과 아들이 죽고 없어 며느리와 둘이서 지냈다.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방에 옷을 벗고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재산을 탐내어 들어왔느냐고 하며 내쫓았다. 시아버지는 말과 소 천 마리를 며느리에게 주며 내쫓았는데, 어떤 오막살이집에 도착했다. 그 오막살이집에는 영감과 딸이 살고 있었다. 이 며느리는 그 집의 영감과 결혼을 하고 그 딸을 시아버지에게 보내 살게 했다.

[본문]

옛날에 어떤 정승이 할마이가 죽고 없었는데, 메느리는(며느리는) 아들이 죽고 없었는데, 둘이서 있으니까 메늘로 어테 보낼라 카이 다시 보낼 그기 없는데, 이 정승 메느리 어테 갈라카이시는 마 못 구해가 옷을 벗고 시아바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래 시아바님 하는 말씀이,

“야야 니가 나를 보고 좋아서 내 방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살림을 보고 오는 것이니까 배빠{바쁘게} 나가라.”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좋아서 그렇다.”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감이 종들로 불러가지고 말 천 마리 소 천 마리에 짐을 실으라고 명령을 내루이까네, 그 인자 메누리를 갖다가 보내는 거라예.

천리나 만리나 보내는 거라요, 어테 가라고. 그래 인자 말 천 마리 소 천 마리 싣고 메느리 시아바님인데 쫓기나와가 가니까, 어떤 오막살이집에 거 가가 인자 내렸는데, 그 집에 가니까 처녀가 하내이{한 명이} 있고 영감님이 계시는데, 그 영감님이 할마시가 없고 처녀는 그 집 딸인데.

그래 인자 거게 살림을 다 풀아가지고 그 영감님인데 인자 이 각시가 살러갔는데, 살러간다고 가니까, 그래 처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안 되겠다고, 메느리 딸로 데꼬{데리고} 사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딸을 갖다가 우리 시아바님인데 보내면 좋겠다.”

고, 그래 그 딸을 갖다가 시아바님인데 줌기{주었기} 때문에, 메느리 딸로 데꼬 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카는 전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정관면 설화3]

## 똑똑한 할아버지와 이야기 내기하셔 이긴 똑똑한 할머니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예림마을 경로당

제 보 자 : 장숙자(1942, 여)

청 중 : 15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민요 조사를 끝내고 조사보조원들이 제보자 카드를 작성하는 동안, 조사자가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두 노부부가 있었다. 한 집은 할아버지는 똑똑하고 할머니는 모자라는데, 다른 집은 할아버지가 모자라고 할머니가 똑똑했다. 똑똑한 할아버지가 이웃집의 똑똑한 할머니를 뺏고 싶어 모자란 할아버지와 이야기 내기를 해서 이겼다. 똑똑한 할아버지가 이웃집 할머니를 데리러 갔는데, 똑똑한 할머니가 더 이야기를 잘 하는 바람에 빼앗지 못했다.

[본문]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아주 똑똑하고 할머니는 좀 마 좀 마 모지라는 것 같고 이런데, 또 한 집에는 아저씨는 좀 모지래고 할머니는 똑똑하고 해가, ‘저 할머니를 내가 어떻게 해서 빼앗으면 좋겠노.’ 싶어가 그 아저씨하고 들어서 내기를 걸었는데, 똑똑한 아저씨가 내기를 거니까,

“나는 저거 해가지고시는 그거 한다고.”

그 아저씨 인자 빼앗을, 할마이를 빼앗을기로{빼앗기로} 약속을 하고 인자 빼앗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할 얘기가 없다.”

고 이러카니까네, 그 인자 똑똑한 아저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고, 거기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가 그거 하니까 빼앗기로 인자 그거로 했는데,

“나는 마 이야기가 없다.”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이,

“나는 때추를{대추를} 하나 먹고 나이카네 똥을 누이까네 똥이 일만 일 무더기고, 근 똥을 눈 나무에 때추나무가 생겨가지고 때추를 따이 때추를 일만 일 섬을 땀다.”

고 이러카니까, 그 아저씨는 마 이기고, 이래 놓이까 인자 할머니를 빼앗기로 땀는데, 그래 할마이 데블러{테리러} 오이까 똑똑한 할마시가 하는 말씀이,

“영감 어데 갔느냐?”

고 이래 물으니까,

“우리 영감님은 어제 아래 난 꼬새끼{{+‘핑 새끼’인 듯하다}} 매새끼, 뒷동산 사역 갔다.”

고 이래 카이께네,

“어제 난 매새끼 아래 난 꼬새끼가 무슨 사역을 가느냐.”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아지매보고 그러 카니까,

“아저씨는 무슨 똥 한 무더기 놓은 기 대추로 갖다가 나무를 가, 땀 나무가 생겨가지고 똥을 일만 일 섬을 누고, 그래 땀졌느냐고, 그거나 이거나 안 똑같느냐고.”

카며 그래가 할마이를 못 빼앗더라고 카는 이야기가 있대예.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정관면 설화4]

## 달음산과 매남산의 유래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 (수)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면노인회지부

제 보 자 : 정태건(1936, 남)

청 중 : 3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 마을의 지명이나 산,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없느냐고 유도하자, 제보자는 웅녀산발의 혈 이야기를 한 후에 달음산과 매음산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옛날에 홍수로 인간 세상을 심판할 때의 일이다. 홍수가 저서 닭 한 마리가 산꼭대기에 올라 살아남았다. 그 산의 이름이 닭이 살아남았다 하여 달음산이라 했다. 매남산은 같은 때 매 한 마리가 살아남았던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본문]

달음산이라 카는 게요. 요요 고치{+고도, 즉 높이}가 요 머 오백 멧인가 육백 멧인가 내 확실히 모르겠습다.

달음산은 옛날에 전설에 비하면은 어째서 달음산이 생겼노. 옛날에 물로까지고, 물이 참 물로 심판할 때, 닭이 한 마리 앉아가지고 그래서 살았다 이래가 달음산이라 이름을 지안 기고.

요 매곡 뒤에 가모 매남산이라고 있습니다.

@조사자: 매남산.

매남산이라 카는 거는 그 당시에 물이 홍수가 저 일식 전부 거 다 죽고 없일 때 매 한 마리 앉았다 해서 그래 전설을 매남산이라고 그래 이름을 지왔는 겁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정관면 설화5]

## 묘를 잘 써서 부자 된 정관 사람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 (수)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면노인회지부

제보자 : 정태건(1936, 남)

청 중 : 3명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정관의 산이나 지명에 관한 이야기나 풍수 이야기가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정관의 철마산에는 웅녀가 산발을 하고 머리를 감았다는 웅녀산발이란 혈 자리가 있다. 이 혈 자리에 묘를 쓴 정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신씨, 다음에는 고씨, 최근에는 매곡에 사는 해평 김씨가 부자였다. 해평 김씨는 부자이면서 대대로 면장을 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인 군수가 길을 내려고 해도 혈이 끊어진다고 길을 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권력을 가졌다.

[본문]

그 메{묘} 터가, 아니 그 산 혈이 웅녀산발[雍女散髮]입니다. 웅녀산발이라 카면 여자가 머리를 푸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원인은 앞에 웅녀가 산발에 물을 감을라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못을 막았고, 여계가 옛날에 여계 냇가에 구디이{구덩이} 파져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는 신씨가 울리고, 둘째는{둘째는} 고씨가 울리고, 그 담에 해평 김씨가 울립니다.

삼대를 여여 울리는 기묘. 지금어는{지금에는} 인자 마 요 아들이

서울대학 뭐 화공과나 서울로 다 갈리도 지금도 정관면에 최고 부자가 해평 김씨, 매곡 부잡니다{부자입니다}.

그 옛날에 천석을 했으면 땅이 여러 정관면 다 그 사람이 세를 받아 천석입니다. 그 사람 땅에 밭 한 당기{+‘자국’의 뜻인 듯함} 못 디디고 그 사람의 농사를 안 지이몬 농사 못 지었습니다. 그만치 부자여.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인자 자기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여 맨 여 저 그때 일제 때 면장을 했고, 면장을 다 했어요. 서이가 다 면장을 해, 글때 저저 일본의 일본서 일본의 인자 군수가, 요 뒷산에 철마 넘어가는 고개의 질이 있습니다. 그쵸?

질인데, 매곡 부잡집인데, 그 철마 철대를 고개를 넘어갈라 신을 딱글라 혈로 끊어져서 못 드가게 했는 기라. 정관면장이 일제시대에도 왜놈도 꿈쩍을 못했어요. 그만치 권력이 있었답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정관면 설화6]

**도깨비불에 놀란 사람**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두명마을 두명부락경로회관

제 보 자 : 김분수(1939, 여)

청 중 : 12명

조 사 자 : 박양리(@), 정혜란(@1), 정다혜(@2)

[구연상황]

다른 제보자가 귀신 이야기를 구술한 후,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제보자가 도깨비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하고는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 목넘개라는 논에 도깨비들이 불을 켜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 사람이 길을 지나다 이를 보고 논에서 타작하는 줄 알고 물었으나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불을 켜 도깨비들이 줄을 지어 못둑으로 올라갔다. 이를 보고 놀란 사람이 땀을 흘리고 집으로 왔다.

[본문]

어 우리 옛날에 우리 영감이 이장질 할 때, 밤에 인곡에 갔다 오는데, 요 목넘개라 카는 저 논이 있거든.

글{그곳으로} 오니카네, 마 불이 흰하이 마, 밤에 마 구저구저 씨부리는 소리가 나서, 그래가,

“형님 거 타작하는교?”

카이 아무 소리가 없더란다.

그래보이 휘우휘우 카매, 불로 번쩍번쩍해가 그 저 몰맨디{마을 꼭대기} 못이라, 인곡못이라고 있거든. 글로 못둑에 흰하이 캐가지고 올라가더란다.

그래 우리 아저씨가 마마 놀래가, 겁이 나가 ‘이 사람이 아니고, 호재비다.’ 싶어서, 마 그냥 뛰왔는 거라. 땀을 풀죽겘이{팔죽같이} 흘리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 5. 철마면 설화

[철마면 설화1]

### 과객 말대로 해서 결혼한 총각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중리마을 웅천리경로당

제 보 자 : 김하숙(1929, 여)

청 중 : 8명

조 사 자 : 박경수(@), 정혜란(@1), 정다혜(@2)

[구연상황]

조사자가 설화 구연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들은 설화 한 편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청중에게 이야기한 값으로 이야기 한 자리 해달라고 요구하자, 제보자가 자신이 하나 해 보겠다고 나서며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 장가를 못간 어떤 총각이 있었다. 과객이 말하기를 쫄신을 한 켈레 신고 신이 터지는 곳에 가서 살라고 했다. 그 총각이 그 말을 듣고 정처없이 길을 가다 어느 부잣집 앞에서 신이 터졌다. 그 집에 머슴을 사는데, 그 집에는 예쁜 처자가 있었다. 하루는 처녀가 밤에 가려워서 속곳을 벗어 놓았다. 이를 본 총각이 처자의 속곳을 훔쳐 입고, 대신 자신이 입던 속곳에 개미를 넣어서 그곳에 두었다. 총각이 보리타작을 하면서 속곳을 입지 않은 처자를 놀리는 노래를 부르자, 처남들이 어쩔 수 없이 처자를 총각과 결혼을 하게 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잘 살았다.

[본문]

내가 한 가지 할게요. 나중에 우스바{우스워} 죽을라꼬.

옛날에요. 과객이 장개를 못가고 총각이 있으니까 과객이 시키더라요. 쫄신을 한 켈레 삼아가 신고 어데까지 가도 신날 터진데 가 니가 살아라.

@조사자: 신날이 터진데.

신날이 터지모 그래 니가 살 때가 닥칠까다(닥칠 것이다). 그래 신을 한 켄레 삼아 신고 정처 없이 갔답니다. 가이까 어느 부잣집 대문가에 가이 신날이 툭 터져서 그 집 머슴을 살았대요. 머슴을 사는데 처이(처자)가 참 좋더라요.

그래 인자 머슴이 가만히 들으이카네 처이가 저거 어머니한테,  
“엄마, 엿저역에(어제 저녁에) 어찌기 무렵은지(+가려운지) 속곳을 벗어가 뒤 봉창 짚에(곁에) 거 열어났다.”  
인자 그래. ‘옳다, 이제 됐다.’ 대롱을 하나 다듬어다가 암캐미를 한거(말이) 좌영다(주워 넣었다).

@조사자 : 암캐미를.

개미를. 그래 인자 그 이튿날 저녁에 인자 궁을(구멍을) 뚫고 처이 속곳 안에다가 꼭 봐났다(부워 놓았다).

아 봐놓고 지 주우를(+바지를) 벗어가, 총각 주우를 벗어가 거 열어놓고 처녀 주우는 자기가 입고, 개미는 지 주우에 벗어가 좌영고, 열어났다. 열어놓고, 와이구, 내가 거꾸로 했네.

인자 처녀 속곳으로 지가 입고, 그래가 인자 있으카네 인제 보리타작을 하는데요, 확 넣고 보리타작을 할 적에 각시 사촌오래비 저거 친오래비 그래가 하거든. 하이카네 이 총각이요 보리를 뚜드리매 뭐라고 두드리냐면,

“[노래로 부르며] 사촌처남은 여게(여기에) 치고 친처남은 저게(저기에) 처라.”

카고, 속곳 가랭이가 이전에 이만치 너르거든(넓거든). 풀어놓고,

“[다시 노래로] 사촌처남은 여게 치고 친처남은 저게 처라. 에헤라 여기 해는 나 보지요. 저게 해는 풋보지요. 저게 저산 모대기(꼭대기).”

뵈이고?

“[다시 노래로] 무슨 산모대기 비 넘어온다. 앞집에 지추는 내보, 앞집에 지추는 나보지, 앞집에 정추는 풋보지. 사촌처남은 여게 치고 친처남은 저게 처라.”

속곳 가랭이가 펄펄. 처남들이 보이 안 돼서 처이를 치워 그리 잘 살더라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2]

**바위 머리를 깨서 손님이 끊어진 집안**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제 보 자 : 김모란(1927, 여)

청 중 : 24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앞서 다른 제보자가 바위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제보자도 다음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청중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줄거리]

예전 차씨 집인 만화동택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왔다. 그집 시어머니가 손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도가 없느냐고 과객에게 묻자, 집 앞에 있는 바위 머리를 깨면 손님이 안 온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위 머리를 깨자 바위에서 피가 흘렀다. 그후 그 집에는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본문]

최씨들이 있는데, 최씨들이가? 아 차씨, 차씨들이제.

#청중 : 차씨.

그 이전에 만화동택 집에 거. 어찌 손님이 와싸서 마 그 이전에 그 만화동택 시어머시가 그랬다 카데. 얼마 손님이 오싸서 마,

“손님 그 몬오도록{못 오도록} 할 재주가 없나?”

카이카네, 저 과객이 그랬대.

“저 방구 저 대가리 띠봐라. 너거집에 손님 오는강.”

카더라 카대.

그래가 방구 그대로 참 띠니카네 피가 나더라 카대. 그라고 마 손님이 안 오이카네 방구 그 대가리 또, 지금 가봐라 안중 떼-났다{떼워 놓았다} 돌가리로 마. 돌가리로가 떼냈다. 그 아직 방구도 있다.

@조사자: 그게 그게 거북처럼 생겼나 모양이죠? 그래서 거북. 뭐 거북이든둥 어떻든둥 보이 마 요 살만한{+조그만} 기 사람 머리같이 요래 쪼맨쪼맨 요래 생겼는데 우리 가봤거든.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3]

## 과객 말만 듣고 이장을 해서 망한 집안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제 보 자 : 김성진(1933, 남)

청 중 : 8인

조 사 자 : 박경수(@), 정혜란(@1), 정다혜(@2)

[구연상황]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전설을 하나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잘 구술했으며, 청중들도 조용히 들었다.

[줄거리]

옛날에 김해 김씨 집이 잘 살았다. 이 집에서 조상 묘를 이장하려고 날을 받았다. 지나가던 과객이 묘터를 보고 조금 위에 잡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을 하고 갔다. 이장을 하는 날 무덤에서 함박꽃 세 송이와 새 세 마리가 날라 나왔다. 한 마리는 해주 오씨 집터에 앉고, 한 마리는 앞산에 앉고, 한 마리는 심선골에 가서 앉았다. 심선골에서 논을 갈던 농부가 내려와서 새 한 마리가 내 앞에 와서 앉았다고 했다. 이상한 일이라



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 묘를 써서 이장했다. 그후 그 집안은 망하고 말았다.

[본문]

김해 김씨, 그 저 일자 석자 할아버지가 연남공신 갔다가 막내형이라 하던 포로로 잡혀갔다단 그분이 이 마을에서 울리고 살았어요.

울리고 살았는데, 그 묘지가 바로 요 마을 뒤에 바로 뒤에 요 있는데 어느 가각이{과객이} 지나가면서,

@조사자: 과객이?

예.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묘터를 쫓끔 우로 썼으믄 더 좋을 건데 내라{내려서} 썼다.”

이러더라네. 그래고 이 가각은 가뵈는 기라요.

그 날로 딱 받아놓고 인자 이장을 할라고 날로 딱 받고, 장마가 계속 비가 내 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한 근 한 달 정도가 계속 비가 따루이카네 오이카네, 안 되가지고 포장을 치고 이장을 하는데, 그 무덤에서 이 함박꽃 세 송이하고 학이, 새가 세 마리 날라 나왔어요.

세 마, 세 마리 날라왔는데, 한 마리는 요 오씨 해주 오씨 그 집터에 앉고, 한 마리는 앞산에 요 앉고, 한 마리는 저- 드가면 심선골이라고 있어요, 거게 가 앉았는데. 이상하게 논을 갈다가 보이카네 이 앞에 새가 한 마리 앉더라예. 그래서 그 논 가던 분이 점심 무러{먹으러} 내려와가지고,

“이상하게 내가 논을 가는데 그 새가 한 마리 내 앞에 와가 앉더라.”

그라이 그러카이까네 인자 마을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믄,

“저 김부잣집 묘를 파이카네 꽃 세 송이하고 새가 세 마리 날라와가지고 오데 앉고 오데 앉았다.”

이러이,

“아 가 마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선조 묘를 요 위에다 이장을 했는 기라.

@조사자 : 아 그 내나 새가 앉았던 자리.

응. 새가 앉았던 자리 이장을 하고. 이장을 하고 나서는 그 집에 살림을 싹, 우리 집은 뭐 망하는 기라.

그래가지 마 요 집터에 앉은 데는 집을 짓고, 한 마리 앉은데 요는, 요 앞산에 요는 자기 재실 오홍씨 신위 모시난 재실로 짓고, 그래가지고 그 래 했다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인자 그 가각은, 여 요 보통 옛날에는 요 우리 이쪽에{이쪽에} 나름터 라고 이 길이 있거든. 율로{요리로} 넘어가는데 조 가머는 그 길이 아주 나쁘다고 내려가는, 거 내려가다가 말이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 말 타고 가다 떨어져가지고 뭐 죽었다 켜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조사자 : 그러니까 그 이장을 안 했으면은 잘 됐을 낀데.

그렇지 잘 됐을 낀데 이장을 했든,

@조사자 : 이장을 하는 바람에.

이장을 하는 바람에 망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 [철마면 설화4]

### 바위를 깨자 장가 못가는 동네 총각들

####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제 보 자 : 백상림(1931, 여)

칭 중 : 7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 [구연상황]

바위를 깨드려 집안이 망하거나 묘 자리를 써서 집안이 망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제보자는 앞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구술하기 시작했다.

[줄거리]

옛날에 고촌 뒷산에 바위가 둘 있었다. 그 동네 처녀들이 모두 바람이 나서 그 바위를 깨뜨리기로 했다. 바위를 깨뜨리고 난 후에는 그 동네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게 되었다.

[본문]

고촌에, 옛날에 고촌 뒷산에 바위가 두나{둘} 있었는데, 그 인자 그 저 처이들이 마강{모두} 바람이 나더래요.

그 동네 처이들이 바람이 나이까는{나니까} 인자 그 동네 사램이,

“그 바위를 그양 도서는{두어서는} 안 된다. 저거 지뽕뿌자{+‘부셔버리자’의 뜻을 강하게 말함}.”

이러 카이까네, 그래 마 가서 저 처이들이 자꾸 바람이 나 야단지기니까는 사람들 가마 지뽕뽕다 카대. 그 뽕니깐 그거 뿌고나이까네 마 총각들이 장개를 못 가더랍니다, 그걸 뿌고나이까네.

그래 장개를 못 가서러 그걸 다시 그걸 할라 카니까는, 인자 맞출라 카이 그기 안 되거든, 지 뿌았으니까는. 그래 그 뿌고부터는 마 장개를 못 가가 그래 애를 먹었다대 옛날에.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5]

**어머니의 재치로 문둥이를 피한 아이**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와여마을 와여노인정

제 보 자 : 김민선(1936, 여)

청 중 : 20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옛날에 문둥이가 무서웠지 않느냐고 하며 이야기를 유도했다  
니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고개를 넘는데 문둥이가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했다. 어머니가 꾀를 생각해서 아이에게 뒤에 아버지가 따라온  
다고 말하게 했다. 문둥이가 이 소리를 듣고 아이를 잡아먹지 못했다.

[본문]

옛날에 어느 사람에게 안자 애로 덤고{데리고} 고개를 넘을라고 이래  
하니카네, 문디가{문둥이가} 수빅이{소복하게(+많이)} 앉아가지고 안자 그  
애를 잡아몰라 카는데, 여자가 참 수단이 좋아서, '이래 내가 이양 고개를  
넘다가 이 애를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인자 아한테 수단을 했답니더.

그래 아를 보고 시깁어{시켰어}.

“내가 그래 앞에 가고 니가 뒤에 따라오거들랑 그래 저 아무것아 이래  
부르거들랑 엄마 아빠가 올라카디 아버지가 안 따라오네.”

이러카이 카네, 문디가 겁을 내가 그 아를 몬자{못 잡아} 묵더라 카대.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6]

## 생거북바위 목을 잘라 화적떼를 쫓은 청씨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구림마을 마을회관

제 보 자 : 차두철(1935, 남)

청 중 : 3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 마을에 전해지는 생거북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나서서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구노실마을에 거북바위가 있다. 이 거북바위는 계속 크고 있었다. 이 마을 정씨 집안의 살림도 불어났다. 화적떼가 정씨 집에 자주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다. 정씨 부인이 과객에게 화적떼가 오지 않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자, 마을 앞에 있는 거북바위의 목을 치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거북바위의 목을 치자 피가 흘러내렸다. 그 뒤, 마을 이름을 거북 구자를 써서 연구리라 했다.

[본문]

우리 봐라, 내가 사는 요 마을 앞에 거북바위가 지금 이만침 올라와가 있어요. 근데 이 바위가 거북바인데, 그러문 우리 여 마을 이름이 연구리 캄더{합니다}.

연봉산 여게 야 뒷산이 연봉산 밑에 못이 있었는데, 연구 앞에, 연구 여도 마을이 있어요. 앞에 못이 있었는데, 연꽃밭이 있었던 기라요. 이 이름을 따고 구노실 거북 구자 이 생, 생암[生岩]이러요. 거북바위가 자꾸 크는 기라요.

이기 크면서 우리 고 구노실 앞에 그 정씨라 캐셨더나? 우리는 여 온지가 한 백 한 삼십년 그리 되는데, 이 앞에 정씨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거북바위가 자꾸 크면서 마 살림이 불꽃이 일어 자꾸. 이전 이때 시대에 화적떼가 말이지, 그저 어불라{어울려} 요새 같으면 깡패겠지요, 어불라 댕기면서, 그 인자 습게 말하몬 있는 집에 와서 쌀도 짚어지고 가고 그 감당도 못했는 기라요.

이럴 때, 그 정씨 부인, 이 자 옛날에는 과객이 많이 댕겼심더. 과객이 많이 댕겼는데, 과객더러 물언 기라{물었던 것이라}.

“우리 집에 지금 화적떼가 많이 들와 여사{예사} 이 문제가 아인데, 총

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화적때 온다고 총을 바로 쏘지는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노?”

이래 인자 이 안주인이, 정씨 안주인이 물으이 이 과객이 인자 때가 우연덕치라. 안 될라 카이 그렇겠조. 그래 이 과객이 이르기로 말이지,

“저 건네 앞에, 요 생바위, 생거북이 크는데 저걸 목을 쳐뿌라 이기라. 목을 쳐뿌문 연후는 다시 이 집에 화적때가 들지는 안할 기다.”

하께네, 그거 솜은{쉬운} 거 아인교. 그래 정 받을 대가 말이지 목을 쳤다 이겁니다. 거북바위 목을 치어 거기서 피가 흘러요. 피가 나더라.

지금 그래가 인자 그 머리가 구불라{굴러} 땡기는 걸 우리가 여 입주 하면서 거북머리를 붙이가 세멘{+시멘트}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현재. 요 요 우리 여여 5대조가 세면을 붙여놨습니다. 흔적이 환함더.

그면 내{계속} 머리가 구불라 땡기는 거라요. 이래가 우리 소지 여 마을 이름도 연꽃 연[蓮], 거북 구[龜]자, 거북 구자, 연구리. 야 이래 소지 명이 되어 있습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 [철마면 설화기]

### 삼형제가 힘겨루기로 가져온 바위 [삼형제바위 이야기]

####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구림마을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문수(1938, 남)

청 중 : 3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 [구연상황]

제보자가 다른 이야기 중에 삼형제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조사자가 그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힘이 장사인 삼형제가 살았다. 삼형제가 누가 힘이 센지 알아 보기 위해 각자의 힘에 맞는 돌을 주워가지고 오기로 했다. 형제 순서대로 큰형의 돌이 가장 크고, 막내가 가져온 돌이 가장 작았다. 한때 백길 마을에서 마을의 경계표석으로 이 돌을 굴러가서 세워놓았다. 후에 선비 한 사람이 전설이 있는 돌을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 돌을 가져와 세워두었다. 그곳에 삼형제바위가 있다고 해서 오늘날 삼정지라고 부른다.

[본문]

우리는 뭐 나이가 어리카년{어려서} 구전으로 약간 뭐 그거만 알지 저거는 잘 모르지요.

@조사자 : 아는 데까지만 삼정자가 인자 뭐, 거기 장사가 있었다, 예예.

거 내가 사는 고향이, 점현마을이 인자 고향이라는데, 요기 이사로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 들어보면 삼형제바위라 삼형제바인데, 지금 마 우리 부르기로 삼정지, 삼정지 이래 인자 쓰고 있는데.

거 가몬 인자 형제분 세 사람이 한날 모아가지고 서로 힘이 마 글자 그대로 옛날에는 장사 이래 됐는데,

“니 힘에 맞게끔 돌을 하나씩 조와 오나라.”

이래가지고, 그래 인자 큰형이 갖다난{갖다놓은} 바위가 지금 보면 엄청 시리 큰데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둘째형이 갖다난 바위가 이쪽 여 앞에 있는 기 조금 작고, 막내동생이 갖다논 기 조금 작는데, 고 세나가 요 나란히 요래 있었어요.

@ 조사자 : 아, 들돌이네.

그 세나가{셋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인자 지명이 삼정지다 이랬는데.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거 인자 한 동네에서 도로 부역할 때 자갈 이래 막 우리가 지계를 저다가 도로 포장되기 전에는 이리 깔고 할 때, 마을 마다 경계표식 할 때, 백길부락에서러 그 돌로 구불라가지고 그 인자 표식을 이래 세냈어요.

세놓은 걸 점현에 정현무 씨라고 그분이 아주 그거 뭐 참 박식다양하고, 옛날 선비 한 분이 그 마을에 가가지고,

“너거가 이런 전설 있는 이 돌을 갖다가 너거가 이리 구불러놔서 안 된다, 원대복귀시키라.”

캐가지고 다부{도로} 구불라가지고 원대복귀 되가 저기 요 가모 나란히 있습니다. 야 고것백이 모릅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8]

## 주인을 살리고 죽은 충견과 개좌산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구림마을 마을회관

제 보 자 : 차두철(1935, 남)

청 중 : 3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 마을에 효자각이 있던데 효자각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내가 얘기를 해드리죠”하며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서흥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가 수영부사가 되어 철마의 집에서 개좌산을 넘어 수영까지 걸어다녔는데,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녔다. 하루는 개좌산 고개에서 고단하여 잠이 들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자기 주위만 불이 붙지 않고 근처에 풀은 모두 탔다.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개가 꼬리에 물을 묻혀 주인 근처 자리에 불을 꺾기 때문이다. 개가 서흥을 살렸다 하여 그 산을 개좌산이라 했다. 후에 주인이 개무덤을 만들



어주었고, 효자 서홍을 기리는 정려비가 세워졌다.

[본문]

내가 이야길 해드리죠. [기침] 그 우리 요 구노실 안에, 그 마을에 서홍[徐弘]이란 분이 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분이 수영부사로, 수영부사였던 모양이지요.

이래가지고 옛날에 뭐 요새 차가 땡기는데,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여개자{개좌} 여 산 카는 골이 있음더{있습니다}. 이리 넘어서 수영까지 갔다가 집에 인자 왔다 자고 가고 이런 식이었던 모녕{모양}이죠.

그런데 인자 이분이 서홍이란 이 사람이 꼭 개를 한 마리 덩고{데리고} 땡겼는 기라. 개를 한 마리 딱 지고 메고 덩고 땡겼는데, 요 개자산 카는 요 앞산입니다.

그 산꼭대기 올라가모 좀 쉬고, 또 뉘으몬{쉬었으면} 또 개를 덩고 수영까지 바로 가고 이랬는데, 한번은 [기침] 수영서 인자 업무를 마치고 오는 길인데, 개자 고개서 쉼 택이라요.

쉬면서 고단해가지고 잠이 들었던 모양이라, 서홍이란 분이. 이래서 인자 한숨 고단해는 잠이 들었겠쎄. 자다 깨보이 고단해는 잠을 잤겠쎄. 자다가 깨보이 자기 주위에 마, 자기 주위에 마 잔디풀이 마 전체 붙어나갔는데 마 뿔이 인자 불을 끄기는 켜는 기라. 자기 짚에는{겉에는} 놔놓고, 이걸 끄기로 뿔이 켜냐? 개가 켜는 기라요. 고 골짜고 밑에 가몬 물이 나는 데가 있어요. 물로 꼬리에 적샤가지고{적셔서} 불을 켜는 기라.

끄다가 뭐 개는 끄실리가 죽어뿔는 기라, 옆에. 옆에 죽어 있고, 이래서 지금 개자산 카는 이 산 이름이, 여 개가 이 서홍이를 살렸다 해가 개자산이라 지금도 현재까지 불리고 있어요.

@조사자 : 거기 또 무슨 개무덤을 이래 만들었다.

그 서홍이가 무덤을 했겠지요. 무덤을 했겠고, 인자 여게 효자각에 지금 가보몬 이래 돼 있어요. 여 효자서홍지정려각{+정확한 명칭은 ‘효자서홍정려지비(孝子徐弘旌閭之閣)’} 캐냈슴더. 서홍정려각 캐냈슴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9]

## 자궁 모양 산에 묘를 쓴 여산 송씨와 해주 오씨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구림마을 마을회관

제보자 : 김문수(1938, 남)

청 중 : 3명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제보자는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삼형제바위 이야기를 한 뒤, 이 마을의 산이나 바위에 얽힌 이야기로 전해오는 것이 없느냐고 하자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남근 모양으로 생긴 산과 여성의 자궁 모양으로 생긴 산이 마주보고 있다. 해주 오씨가 자궁 모양 산의 주인인데, 자궁 자리에 여산 송씨가 돈을 많이 주고 묘를 썼다. 그런데 해주 오씨가 여산 송씨 묘 위에 선대조의 묘를 썼다. 오랫동안 부끄러워서 성묘를 하지 않았으나, 근래에 들어 성묘를 하게 되었다.

[본문]

요 산이 요래 쫄 보몬 인자 남자 그 형으로 생기가지고 남근바위다 이래 호칭을 부르고, 고 앞산에서 보몬, 해주 오씨 만석꾼 헨 사람이 그 오씨가 고 지금 자기 산인데, 고기가 여자 자궁스럽다 이래가지고 그 딱 마주 보이 요래 산이 있는데,

@조사자 : 암바위.

#제보자 : 예, 바위는 말고 산이 고래 생겼어요.

@조사자 : 산이.

# 제보자 : 산이 고래 생기가 있는데, 해주 오 씨가 만석을 할 때, 고

이전에 근디 여자 자궁설에 묘를 써 있는데, 누가 써지 있었는고 하몬 여산 송씨가 그 묘를 써가 있었어요.

써져가 밑에 요래 인자 저 뭐꼬 써져가 있는데, 고 꼴쪽에 가몬 요래 물이 항상 암만 가봐도 물이 납니다. 물이 나는데 여서 물이 꼭 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고 인자 만석꾼 말이지 세력이 한창 그거 할 때, 여산 송씨 그 묘에다가 용상에다가 그래 딱 놀리가지고 그그 써난{써 놓은} 기라 묘를.

묘를 써가지고 인자 여산 송씨 묘는 밑에 있고, 만석꾼 해주 오 씨 묘는 위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산 송 씨가 자기 선조네 말이지 묘, 그 돈을 많이 받았겠조. 뭐 그런 거지 옛날인카네.

그래 부끄루부서러{부끄러워서} 성묘{성묘}도 안 하고, 내 이리 막 그리 있다가 지금 자 시대가 인자 개방되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묘, 선대조를 성모도 하고 구월 구일날 그그 제사도 지내고 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요 보모{보면} 산이 그 요쪽 산 저쪽 산 묘하게 생겨가 있습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10]

**삼형제가 힘겨루기로 가져온 돌과 삼청자**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점현마을 점현노인정

제 보 자 : 김수종(1930, 남)

청 중 : 5인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노인정에 들어서니 곧 마을 회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래서 조사자가

간단히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제보자가 흔쾌히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줄거리]

삼정자가 있는 곳에 삼형제가 살았다. 먼저 막내아들이 힘자랑을 한다고 큰 돌을 가져왔다. 둘째는 더 큰 돌을 가져왔다. 큰형이 정말 큰 돌을 가져왔다. 삼형제가 돌을 갖다 놓았던 곳에 정자를 지어서 그곳을 삼정자라고 했다.

[본문]

삼정지, 삼정자 바위, 저 저거는 삼정자라고 카거든요. 삼정자는 어찌 됐느냐 카면은 옛날에 거게 삼영자라 하는 거게 사람이 한 집에 살았는데 아들이 서이가{셋이} 있었어요, 서이가.

서이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가마이 있고, 작은아들이 저 하 저거 행님들에게 힘자랑 한다고 돌 하나 갖다놨어요. 갖다노이 가운데 기 가마 보이 ‘내가 지카마{저보다} 새이고{형이고} 내가 지카마 센테.’ 싶어 더 큰 거를 갖다난 거요. 갖다놨는데 큰형님은 입도 안 띠고{떼고} 있었는데, 저 거꺼지{자기들끼리} 힘자랑 한다고 갖다놨으니까 큰형은 진짜 넘덕한 큰 거를 갖다놨뿌리.

그래 형은 암말도 안 해도 동생카마 힘이 세다라는 거. 고래 골{그럴} 때 나무가 있어가 정자, 정자 밑에 앉아 놀게끔 고 바위를 갖다놓은 기 그 삼형제가 갖다놨다고 해서 삼정자.

@조사자: 삼정자.

예 아들 자[子]자도 있고, 정자[亭子]도 있었다 이래가 삼정자라. 고래 인자 고 자리가 잘 리가{잘려서} 있었는데 우린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11]

## 개 덕분에 목숨을 구한 효자 서홍과 개좌산 개무덤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대곡마을 제보자(김명조) 자택

제보자 : 김명조(1937, 남)

청 중 : 0명

조사자 : 박경수(@), 정혜란(@1), 정다혜(@2)

[구연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책에서 이 마을에 전하는 개좌고개 개무덤 이야기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느냐고 하자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에 구림에 서홍이란 사람이 살았다. 서홍은 동래성에 병사로 근무를 했는데, 병환이 든 어머니 병 구환을 위해 피곤함을 무릅쓰고 구림과 동래를 매일 왕복했다. 서홍은 혼자 다니기 외로워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녔다. 밤에는 어두워서 횃불을 들고 다녔는데,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횃불이 잔디에 옮겨 붙어 점점 가까이 불이 왔다. 개가 근처 냇가에 가서 몸에 물을 묻혀 몸을 굴러서 불을 껐다. 개는 너무 지치고 자신의 몸에 불이 붙어 그만 죽고 말았다. 서홍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잠이 깊이 들었다가 깨보니 근처에 불이 난 흔적과 죽어있는 개를 보았다. 서홍은 개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워 주었다.

[본문]

글쎄요 상세한 내역은 고기 돼가 있고.

@조사자 : 알고 있는 대로만.

#제보자 : 들은 바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신설이 돼가지고,

지금 고 옛날에 있던 데서 요리 이동이 돼가지고, 지금 그 개무덤에 대한 고 전설 고 묘비가 서가 있지만은, 그 이전에는 어 순수하게 개좌, 이 고개를 넘나드는 소로(小路) 길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길로 동래장에 시장을 주로 봐가 먹기 위해서 이 정관 사람, 정관면 사람도 이 길로 다녔고, 철마면 전체 사람들도 전부 다 이 길을, 여기서 동래시장이 30리나 되는데 걸어서 갔다가 왔다가 물건을, 쌀을 이고 가서 팔아가지고 또 거기서 물물교환 해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딱 고 개무덤이 고 저 우리 어릴 때 인자 고기 나무하러든지 소 먹이러{먹이러} 가면은, 능선에 팡팡한데{평평한 데} 잔디가 딱 심어져가 있고, 돌이 한 [팔을 크게 벌리며] 이 정도 되는 돌이 딱 고개 무덤이 저 문히가 있어요, 돌이, 돌이.

거기 인자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려오는 전설이 고개 인자 고개 나오는 고 저 여계 마 무슨?

@조사자 : 서흥?

야, 서흥. 서흥이라는 분이 저 구림에 살면서 그 동래성에 머 저 말하자면 요즘걸으면 군 보충력인가 뭐 그런 인자 근무를 하러 다니다가 혼차 다니기가 거해서 뭐 개를 다니고{데리고} 다녔는데, 이분이 인자 뭐 좀 피로해가지고 가서 잠을 자다가 인자 잠이 깜빡 들었했는데, 그 개가 가마 보니까, 아 담뱃불을 아 햇불을 들고 인자 밤에는 어두워서 다녔는데, 그 햇불이 인자 붙는데.

잔디에 놔놓고 누버자다 보이카 그게 마 불이 붙어가지고 보니 사람의 옷에 가까이 불이 오는데도 주인은 뭐 모르고 꿇아떨어져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개가 그 밑에 골짜기에 개는 늘 다니니깐 어디 조금 내려가몬 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내려가가 온 몸을 물에 적시가지고 막 이래 구불러가지고 그 불을 인자 전부 꺼뿌리고 나서 개는 지는 지쳐가지고 지 몸에 불도 붙고 해가 죽었버리고.

그래가 이 인자 서흥이라는 분은 한숨 실컷 자고 일어나가 깨보니까 그 인자 그 모양이 돼 있으이 인자 느꼈죠. ‘개가 지를 살릴라꼬 이래 하다가 죽었구나’ 싶어서 거게다 인자 이 개를 무덤을 인자 만들었다.

요런 글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길이 나는 바람에 고기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요계 요쪽에 옮기났습니다. 그 묘비를 개무덤 비를, 예예.

그래 그 정도로 알고 있지 뭐 더 이상은 알 수도 없고.

@조사자 : 아구 아구 좋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서흥, 서흥인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던데 이분이 참 여계 60리, 30리 길을 갔다가 참 멀리서, 저 저기서 다녔다모 더 멀 것 아납니까?

#제보자 : 그렇죠. 요 구림이라고 요기 고기서 동래성까지.

@조사자 : 와따 그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제보자 : 예,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자기 모친이 또 아주 그 불편 해가지고 그러이까 거서 누뵈자고 안 와도 되는데 모친을 여 와서 또 보살피야 되는 기라.

@조사자 : 효자네요.

#제보자 : 예예. 거 가가 근무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또 모친을 밭도 해디리야 되고 병 구환도 해야 되니까 못 자고 왔다가 갔다가 이런카네 너무 피로했지 인자 그 사람이.

@조사자 : 그래서 그 분이 한편으로 참 효자면서.

#제보자 : 그래가 효자각을, 효자각이 저기 있거든. 구림에

@조사자 : 그러네요

#제보자 :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12]

**거북바위를 깨뜨려 망한 부자집**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19(화)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대곡마을 제보자(김명조) 자택

제 보 자 : 김명조(1937, 남)

청 중 : 0명

조 사 자 : 박경수(@), 정혜란(@1), 정다혜(@2)

[구연상황]

조사자가 생거북 머리를 잘라서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그런 이야기가 있다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어떤 부잣집에 저녁만 되면 과객이 너무 많이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했다. 이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귀찮아 하다가, 어떤 과객에게 사정을 말했다. 그 과객이 거북처럼 생긴 바위를 깨어 부수면 된다고 하여 그대로 했다. 그 후로 그 집은 망해버렸다.

[본문]

바위가 고 사람 집에서 딱 보면은 딱 정면으로 딱 비치는 기라. 요래 바위가 요래 있는데.

아주 부자라 옛날걸으몬, 옛날걸으몬 마 먹을 기 풍부하고 부자라. 그 래가지고 있으이, 그때는 하도 못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과객이라고 옛날 에는 마 무조건 이래 와가 마 마 저녁되모 와가 밥 얻어묵고 누뵈자고 마 이래 하던갑데.

이 오는 사람을 쫓아내지는 모하고 하도 치닥거리를 할라 카이께네 귀 찰는 기라. 그래서 하 그런 말을 언자 하니까, 어떤 과객이,

“그라몬 좋은 수가 있다. 내 시기는 대로 해라.”

이라더라네.

“그라몬 어짜면 되노?”

카니까,

“조 저게 보이는 뽕죽한 바위를 우를 줌 마 깨뿌리라.”

그래서 마 그 주인이 하도 과객이 많이 오니까 거기 귀찮아가지고 한 분 해보자 카고 깨뿌렸거든. 깨뿌린 그 다음부터는 마 그냥 살림이 마 폭삭 망했뵈다 카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조사자 : 그기 똑 거북 머리처럼 생겼던 모양이죠?

#제보자 : 예. 요기 이래 찢죽한 요래 있었는데, 고래가 안 되가지고 인자 나중에 살림이 파하고 집구석이 안 되니까 [웃으며] 췌멘을{시멘트를} 가지고 땀뺩을, 지금 가몬 땀뺩을 해났어요.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13]

### 자기 살을 베어 먹여서 시어른을 살린 효부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이곡마을 제보자(최경채) 자택

제 보 자 : 최경채(1928, 남)

청 중 : 0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설화 조사가 제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이루어졌다. 음식점의 한 방에서 조용한 가운데 제보자와 조사자 일행이 만나 이 마을과 주변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조사하고자 했다. 조사자가 이 마을 아래의 보림마을에 있는 열녀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지 물어보자, 제보자는 전해 오는 전설이라며 열녀비에 얽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옛날 보림마을에 사는 여산 송씨 집안의 시어른이 중병이 들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어떤 도사가 인육을 먹으면 낫는다고 말했다. 이 집안의 며느리인 월성 김씨가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삶아서 시어른에게 먹였다. 후에 그 효행을 기리는 열녀비를 세웠다.

[본문]

그 효자는, 여 효부가 낳는 그 효부각이 바로 요 여 밑에 보림이라는 데, 그 월송린데. 고기에 각이 다 저 금기로 가지고 보수로 해가 그대로 서 있고, 고 고운 앞{옆}에 고 밑에 가면 달성 서씨, 그 개작골에 그 하

는 그 무덤의 원 주인공이 그 저게 효자각이.

@조사자 : 월성 김씨, 여 혹시 거 어째서 그분이 효부로 이래 됐는가요?  
그기 옛날에, 아 요 밑에 여계, 나타난 거는 여산 송씨가 아마 옷대{윗  
대} 같은데, 여산 송씨가 여 뗏 집 삽니다. 사는데, 옷대같은데, 그분이 시  
어른이 아주 중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시탕{시탕[侍湯](+약 시중))을 해도  
안 낫고 이래가지고, 어데 도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인고기를 먹으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비어가지고 그 시어른을 구워서 시탕했  
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지요.

@조사자 :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효행을 기려서 정려비를 세웠는  
가 보죠.

그 열녀뱌니더, 열녀비.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철마면 설화14]

## 미역이 걸린 미역바위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10. 1. 20(수)

조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이곡마을 제보자(최경채) 자택

제 보 자 : 최경채(1928, 남)

청 중 : 0명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1), 정혜란(@2), 정다혜(@3)

[구연상황]

조사자는 이곡리 곽암마을에 전해오는 미역바위 이야기를 제보자에게  
물었다. 제보자는 별 것 아니라고 하면서 미역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차  
분하게 구술했다.

[줄거리]

옛날에 해일이 곽암마을까지 들어왔다. 그때 미역이 해일을 타고 와서 바위에 걸려 있었다. 그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한다.

[본문]

옛부터 흘러내려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저 여 해일이 되가지고 여기에 물이 채고 할 적에, 거기에 미역이, 저 저 안에 미역바위는 저쪽 우에 있습니다.

저 뒤에 있고, 고는 곽암이라고 그래 돼가 있는데, 그 미역이 이래 열렸다고 이래가 미역바위라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 Ⅲ. 문헌 소재 설화

1. 기장읍 설화
2. 일광면 설화
3. 장안읍 설화
4. 정관면 설화
5. 철마면 설화



## 1. 기장읍 설화

[기장읍 설화1]

### 시랑대(侍郎臺)

경남 양산군 기장읍(機張邑) 시랑리(侍郎里)는 자연마을로 이름은 동암(東岩) 마을이고 옛이름은 차성(車城) 남(南)면이다. 이 마을의 남쪽 바닷가에 시랑대가 동해바다를 보며 우뚝 솟아 있다. 원래는 원앙대이던 것을 이조참의(吏曹參議) 권(權)적이 기장현감(縣監)으로 좌천되어 와서는 석벽에 원앙대(鴛鴦臺) 각자(刻字)를 함으로써 전기대명(前記臺名)이 생겼는데, 때는 1733년(영조 9) 권시랑(權侍郎)의 시년(時年) 59세이다.

-중략-

지금은 시랑대 학사암 채룡단 등의 각자 몇 개만 남아 있는 이곳 시랑대는 선녀의 텃줄자국에 얽힌 이야기 또한 안고 있다.

바다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졌다. 가까이 또는 멀리서 볼 때마다 그는 많은 변화와 각기 다른 분위기를 서슴지 않고 보여준다. 태초 때부터 하늘나라 천인(天人)들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해동(海東)의 동해였다.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해동 동해에 한번 내려와 보기를 소원으로 하는 선녀가 있었다. 그러나 끝내 처녀 때는 이러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 선녀는 혼례를 올려 태기가 있자 어느 날 남편을 졸라겨우 이곳에 혼자 놀러오게 되었다.

하계(下界)로 내려온 선녀는 동해안을 두루 구경하다가 해가 질 무렵 이곳 차성(현 기장)에 당도 하였으나 너무 아름다운 동해안의 절경에 도취되어 더 구경할 욕심으로 이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다음날 이 곳 일출을 구경한 선녀는 그만 그 아름다운 장관에 함몰되어 도저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러저럭 소일하다가 천상으로 돌아가는 것마저 잊게 되었다. 이윽고 산일(産日)이 다가오자 선녀는 이곳에서 몸을 풀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히 산실을 마련할 수 없었던 선녀는 근처 큰 바위 위 편편한 자리를 골라 아이를 분만하게 되었다. 마침 이때

이곳을 지나가던 스님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성스러운 선녀의 분만하는 것을 엿보고 말았다.

이때 하늘에 있던 상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해 당장 선녀를 하늘나라로 올라오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이를 거스를 수 없었던 선녀는 그만 아기의 태(胎)를 채 자르지도 못한 채 승천해야만 했다. 이때 피 묻은 태가 끌린 바닥엔 붉은 핏자국이 움푹 패었으며, 땃줄을 자르기 위해 옆에 놓아두었던 가위 자국과 꿰어앉았던 자리에 무릎 자국이 남아 있게 되었다.

\* 양산군 문화공보실 편, 『내 고장 전설』, 양산군, 1983. 8. 170~172쪽.

[기장을 설화2]

## 시랑대 전설(侍郎台 傳説)

시랑대의 동굴에는 예부터 전해오는 애절한 전설이 있다. 신라시대 이 동굴 위에 있는 큰 바위에 움막집을 짓고 그 곳에서 젊은 수행승이 각고의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 깊이와 길이를 알 수 없는 동굴은 동해 용왕이 계시는 용궁(龍宮)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어느 여름, 이날 저녁에도 젊은 수행승은 어느 때와 같이 가부좌를 하고 참선을 하고 있었다. 이때 용왕의 딸 용녀가 백옥 같은 알몸으로 목욕을 하다가 수행승의 젊고 단아한 용모를 보고 흠모의 정을 품게 되었다.

바다가 붉게 타고 있는 낙조(落照)를 보고 있던 젊은 수도승도 용녀의 그 아리따운 자태에 매혹되고 말았다. 이날 저녁부터 두 남녀는 매일 만나서는 밀월을 즐겼다.

어느덧 용녀는 만삭이 되어 칠혹 같이 어두운 밤에 해산을 하게 되었다. 딸을 낳은 용녀는 땃줄도 끊지 못하고 젊은 수도승을 찾았다. 그때 뇌성벽력과 함께 해일이 일면서 동굴로 내려오던 젊은 수도승을 큰 파도가 덮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불사유계를 범한 파계승에게 용왕이 노했으리라.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제가 이 광경을 보시고 자비심으로 용녀와 애기



를 구출하기로 하였다. 용왕이 모르게 천마(天馬)를 이곳에 내려 보내서 용녀와 애기를 하늘로 태워 올라가게 했다.

지금도 용녀의 텃줄이 붉은 줄로 길게 남아있고, 동굴에 파도가 부딪치는 소리가 젊은 수도승을 찾는 용녀의 애절한 절규로 들린다.

후세 사람들이 이 용녀를 위하여 시랑대에 해룡단(海龍檀)을 세웠다. 기장현 읍지에 분명히 해룡신단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185~186쪽.

[기장읍 설화3]

옥녀직금(玉女織錦)

기장지역의6 지형을 풍수상 옥녀직금형이라고들 한다. 먼 옛날 어느 날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따님인 옥녀가 하계를 내려 보았다. 꼭 베틀(織機)을 차려(張) 놓은 듯한 곳(形局)을 보고 옥녀는 구름을 타고 작은 남산(小南山)에 하강하였다.

이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일광산(日光山)은 황금빛 연꽃으로 만든 듯이 햇빛이 찬란한 진산(鎭山)이 되어 있고, 연꽃이 피어 있는 듯한 연화봉(蓮花峯)은 안산(案山)이 되어 있었다. 베틀처럼 생긴 털음산(毛山)은 좌청룡(左靑龍), 베틀의 바디처럼 생긴 성산(箴山)은 우백호(右白虎), 물레처럼 생긴 곳은 만화동(萬化洞)이 분명하였다.

용소굴(龍沼洞)의 물과 사라수(土羅洞)와 장미수(長尾水)의 셋물(三水)이 합하여 백옥 같은 맑은 물(淸江川)이 되어 새롭게 신천(新川)이 되어 있으니 바람을 재우고 물을 얻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명당이 분명하였다.

옥녀는 물레자리(車陵)에서 물레를 돌려 비단실을 만들고, 털음피를 베틀로 삼고, 백두산의 큰 바위로 베틀을 괴는 받침돌(支機石)로 삼았다. 버드나무 언덕(柳峴)에서 날고 있는 황금 새(黃鳥)로 황금 북을 삼아서 직금루(織錦樓)에서 비단을 짰다. 부상(扶桑)의 달밭개(月田浦)에 잠겨 있던 인어(蛟魚)가 베틀 소리를 듣고 베틀가를 불렀다.

|             |             |
|-------------|-------------|
| 일광산 해를 뜨고   | 달은산 달을 뜨고   |
| 용천의 용을 뜨고   | 수령산 수를 떠서   |
| 일월산룡 수를 놓아  | 한필 문금 곱게 짜서 |
| 맑은 물에 빨고 씻어 | 완사수되어 있고    |
| 금비단 걸었으니    | 수계교되었더라.    |
| 널리 널어 연꽃 되어 | 연화봉이 되었더라.  |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곳을 기장(機張)이라 하였고 별호를 차성(車城)이라고도 하였다고 전래되고 있다.<sup>19)</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78쪽.

#### [기장읍 설화4]

### 원앙대의 용녀

기장읍 시랑리에 원앙대가 있다. 원앙대는 기장 제일 경으로 꼽는 절경이다. 기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원앙대를 격찬하였다. 기장 현감으로 있던 권적도 이곳에 놀러 와서 절경에 감탄하면서 자주 와서 놀았다. 원앙대의 북쪽을 미랑대라고도 부른다는 말을 듣고 자기 벼슬 이름과 비슷함을 알고 자기 벼슬 이름이 되는 시랑(侍郎)을 붙여 시랑대(侍郎臺)라 작명하였다.

옛날 어느 여름에 날이 가물어 마을사람들은 원앙대 아래 해룡단에서 기우제를 올리고 대내마을로 가고 있었다. 미랑 스님은 기우제가 끝나자 큰방처럼 넓적하게 생겨 있는 원앙대에 홀로 앉아 비오개의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를 타고 비오리 떼가 짝을 지어 노닐면서 찬란한 몸매를 뽐내고 있었다.

오른쪽 측석은 긴 칼을 세운 듯 천길 벼랑을 이루었고 그 뒤쪽은 병풍

---

19)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87~288쪽에 수록, 「옥녀직금(玉女織錦)」. 단, 상기 출전과 이 문헌의 설화에 이어져 있는 「차성가(車城歌)」와 관련된 풀이는 생략했다. 그리고 상기 출전의 설화는 이 문헌의 설화를 일부 변개한 것임을 밝혀둔다.

을 둘러친 듯 암벽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동굴에서 치솟는 물보라는 칠색 무지개를 서리게 하고 파도를 삼킨 동굴은 용울음을 치고 있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붉은 노을은 점차 사라지고, 어느덧 밝은 달빛이 파도에 잠겨 천월, 만월로 보였다. 그때 용궁에서 동굴을 통하여 아름다운 용녀가 나타났다. 동해 용왕의 공주이다. 용녀공주는 원앙대에 올라서는 거침없이 찬란한 공주의 정장을 벗었다. 머리에 얹은 찬란한 진주관, 산호와 칠보로써 목걸이 귀걸이를 벗어 던지고 달빛에 반짝이는 은과를 타고 한껏 그 요염하고 아리따운 자태를 과시하였다.

이 요염한 용녀의 자태에 유혹된 미랑 스님은 녀을 잃고 바라보다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용녀를 덮쳤다. 이루어질 수 없는 한 쌍의 젊은 남녀는 원앙떼들과 함께 밀월을 즐겼다.

세월은 꿈처럼 흘러 용녀는 만삭이 되었다. 용녀는 용왕의 눈을 피해 원앙대에서 해산을 할 준비를 하였다. 텃줄을 끊을 가위와 상자를 놓고 자리를 펴고 진통으로 신음하면서 아무도 못 보게 하였다. 미랑 스님은 용녀의 분부로 원앙대 병풍암 뒤에 숨어서 용녀의 신음소리에 어쩔 줄을 몰랐다.

동해 용왕은 용녀공주가 인간과 불륜을 범하여 원앙대에서 출산의 산고를 겪고 있다는 급한 전갈을 받았다. 크게 진노한 왕은 탕중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산더미 같은 노도를 일으켰다. 용녀는 막 순산하여 그 텃줄을 끊지도 못하고 성난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처절한 광경을 보고 있던 옥황상제는 재빨리 천마를 내려 보내 용녀와 얘기를 하늘나라로 올려서는 천상의 옥녀로 삼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대바위에는 용녀의 텃줄이 붉은 줄로 길게 뚜렷이 박혀 있고 텃줄을 끊은 가위는 그대로 돌바닥에 뚜렷이 박혀 있고, 네모진 바늘상자는 깊고 뚜렷이 박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수도승이 용녀를 구출하려고 뛰어 내렸던 곳에는 짚신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용녀를 위하여 해룡단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오랑대를 미랑대(尾郎臺)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원앙대의 동굴에 파도가 치면 애절한 용녀의 절규로 들려온다고 한다.<sup>20)</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0~291쪽.

20)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78쪽에 수록, 「원앙대의 용녀」.

[기장읍 설화5]

## 원앙대의 비련

기장읍 시랑리에 있는 원앙대에 또 하나의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원앙대는 기장 제일 경으로 꼽는 절경인지라 현감으로 있는 권시랑이 자주 와서 놀았다고 하여 시랑대라고도 한다. 원앙대 아래에는 기우제를 올리는 대가 있고 대 아래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의 깊이는 십리가 넘는다고 한다.

옛날 젊은 장사가 이 동굴에 살면서 바다에서 큰 고기를 맨손으로 잡아먹고 모자라면 용굴에 들어가서 독룡이 잡아 놓은 큰 고기를 빼앗아 먹었다. 배가 불룩하여 동굴에서 잠만 자는데, 한번 잠들면 사흘 밤을 계속 잤다. 코고는 소리는 뇌성같이 울렸고, 걸음걸이에 땅이 쿵쿵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장사만 보면 모두 겁에 질려 도망질 하였다.

어느 날 장사는 처녀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백설 같은 살결을 드러낸 채 미역을 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을 처녀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그 처녀를 덮쳤다. 젊은 장사는 처녀를 동굴 속에 납치하여 놓고서는 용굴에서 훔쳐온 산호와 칠보를 선사하고 극진히 대접하였다. 처녀는 평정을 되찾게 되고 젊은 장사의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과 따뜻한 정에 호감을 느꼈다. 두 젊은 남녀는 원앙대에 다정하게 앉아서 비오개의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를 타고 비오리 떼가 짝을 지어 노닐면서 찬란한 몸맵시를 뽐내고 있었다. 오른쪽 축석은 긴 칼을 세운 듯 천길 벼랑을 이루었고, 그 뒤쪽은 병풍을 둘러친 듯 암벽이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동굴에서 치솟는 물보라는 칠색 무지개를 서리게 하고, 파도를 삼킨 동굴은 용울음을 치고 있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붉은 노을은 점차 사라지고 어느덧 밝은 달빛이 파도에 잠겨 천월, 만월로 보였다. 서늘한 바닷바람에 한기를 느낀 처녀는 몸을 떨었다. 젊은 장사는 떨고 있는 처녀를 넓적한 가슴에 품고 꼭 껴안아 주었다. 이렇게 한 쌍의 젊은 남녀는 바위틈에 잠들고 있는 원앙 떼들과 함께 밀월을 즐겼다.

세월은 꿈처럼 흘러 처녀는 만삭이 되었다. 처녀는 원앙대에서 해산할

준비를 하였다. 땃줄을 끊을 가위와 상자도 준비하고 미역국을 끓일 큰 솥도 걸었다. 처녀는 출산의 산고를 이기지 못해 처절한 신음소리로 엄마를 절규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를 찾는 애절한 소리를 듣고 젊은 장사는 그 길로 처녀가 살던 집으로 달려갔다.

그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용굴 속의 독룡은 처녀가 막 해산을 하여 땃줄도 끊기 전에 그 처녀와 아기를 한 입에 삼켜 버렸다. 젊은 장사는 처녀의 어머니를 등에 업고 왔으나 때는 늦어 처절한 핏자국만 남아 있었다. 젊은 장사는 용굴에 숨어 있는 독룡을 잡아 죽였지만 젊은 장사도 큰 상처를 입고 죽었다고 한다.

원앙대에는 그때 바다 밑에 잠겨버린 동굴이 그대로 있고, 이 동굴은 깊이가 10리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땃줄을 끊은 가위가 놓여 있는 가위 형태가 넓적바위에 깊게 새겨져 있고, 네모진 나무그릇의 형태로 깊게 새겨져 있고, 아기 땃줄이 길게 바위에 박혀 있고, 가마솥을 걸었던 바위가 둥글게 남아있다. 지금도 원앙대의 용굴에 파도가 치면 애절한 처녀의 절규로 들려온다고 한다.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2~293쪽.

[기장읍 설화6]

### 동부리 회나무

기장읍 동부리의 옛 현청자리에 600년이 넘는 회나무가 있다. 기장현청이 교리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심은 기념식수라고 한다. 이 회나무는 봄에 남쪽가지에서부터 먼저 새싹이 돋아나면 풍년이 되어 시절이 좋고, 북쪽가지에서 먼저 돋아나면 온갖 재해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그 해의 시절을 이 회나무의 새싹에서 미리 짐작한다는 것이다.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4쪽.

[기장읍 설화7]

## 매바위(鷹岩)

경상남도 양상군 기장읍 죽성리는 원죽마을 두호마을 월전마을을 포함한다. 매바위는 어사암(御吏岩)등의 이명(異名)을 갖고 두호마을 바로 앞 바다에 웅크리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겐 거의 매바위로 불리는 이 바위의 크기는 1백 평(坪) 남짓 수성암으로 되어 있어 오랜 풍우와 바닷물에 그 형태가 제멋대로 표피 거칠기 짝이 없었다. 매의 형상을 닮은 매바위의 유래(由來)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 두모포-바닷가 어촌-에, 규모는 다른 바다 마을과 같이 그만그만했지만 주위 마을과는 달리 살림은 궁색치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이 지방을 지나는 길손들은 모두 다 이 마을을 찾아와 하룻밤을 묵어가곤 했다. 이 마을의 이(李)씨 집도 길손이 끊이지 않았다. 이웃에서 부잣집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마을 자체가 아주 작은 어촌이었던지라 그 집 안주인이 손님맞이를 일일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그네 맞이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보니 여염집의 다른 여인들만큼 안주인도 짜증과 불평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하루는 늙은 중이 이씨 집을 찾아왔다. 마침 안주인이 남편에게 이제는 손님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바가지를 한창 굵고 있던 참이었다. 밖에서 무심코 방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승은 사랑방에서 주인 이씨와 자리를 같이 하자 슬며시 말머리를 꺼냈다.

“마을의 지형을 살펴보니 이 집에 손이 끊길 새가 없겠구려. 그러니 안주인의 어려움이 말이 아니겠구려.”

노승이 입맛을 다시며 말꼬리를 흐리자 이씨는 자기 속마음이 내보인게 민망한지 머리만 긁었다.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 찾아오는 게…….”

“주인장, 이 집에 손의 발길을 끊게 하는 좋은 묘방이 하나 있긴 있소만.”

“아니 스님,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도 손이 너무 들긴 드는 편이죠.”

“주인장 그럼 이렇게 하시오, 마을 앞바다 바위가 날아오르기 직전의 매 모양으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저 바위가 아무래도 집안에 횡액을 가

저을 상이니 부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소.”

이 말은 들은 이 씨는 당장 머슴을 시켜 매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도끼로 부숴버리게 했다. 이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이 마을은 점점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바다에 새바위를 가지고 있던 윗마을은 살림이 불어가기 시작했다. 매바위가 목이 달아나는 바람에 새바위가 비로소 기를 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매에 억눌려 기가 없던 새들이 득세함으로써 윗마을 사람들이 비로소 아랫마을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새바위’는 죽성리 해중(海中)에 우뚝 솟아있다 한다.

\* 양산군 문화공보실 편, 『내 고장 전설』, 양산군, 1983. 8. 172~173쪽.

[기장읍 설화8]

### 충의 정팔동(忠義 鄭八同)

충의 정팔동은 천한 노복이었다. 천민이지만 충의가 대단하였다. 4월 15일 기장현감은 왜구가 동래성을 함락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장현감은 일광면 삼성리까지 후퇴하였다. 기장현의 병력은 적은데 적의 무리는 많아 대적할 방법이 없었다. 장수되는 기장현감은 진지를 파진하고 서울 쪽으로 후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졸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리고 아무도 현감과 함께 따라 가려고 나서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정을 본 정팔동은 몹시 분개하여 현감을 호위하여 서울까지 따라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왜적은 벌써 현감과 정팔동을 포위하여 칼과 창으로 덤벼들었다.

정팔동은 천민이지만 상전을 위하여 왜적의 창칼에 용감하게 대적하면서 죽음으로 맞서 싸워 상전을 호위하였다. 왜적들도 이 정팔동의 의기에 감격하여 죽이지 아니하였다. 위험한 때에 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상전을 호위한 진실한 의사였던 것이다. 당시의 충렬의사들과 함께 이름이 났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156쪽.

[기장읍 설화9]

### 충의 최개똥(忠義 崔介同)

최개똥은 기장읍 내리 근처에 살던 사람이다. 몸집이 크고 용맹하고 힘이 센 장사로서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족들을 데리고 뒷산 앵림산에 들어가서 토막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곳에 살면서 혼자서 산에 있는 왜적들을 활로 쏘아 수십 명이나 죽였다. 왜적들도 이 무서운 장사에게 겁을 먹고 얼씬도 못하였다. 하루는 왜적들이 분풀이를 하려고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최개똥이가 있는 토막집을 습격하였다.

그때 개똥이는 토막집에 혼자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습격을 받은 개똥이는 미처 무기를 찾을 틈도 없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나무막대기 한 개를 손에 잡고서 분연히 토막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하여 우레같은 고향을 치면서 그 나무막대기로 왜적들을 후려치니 왜적들은 혼이 빠져 도망도 못치고 그 자리에서 모두 몰살되었다.

그 뒤로는 이곳에 무서운 장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왜적들은 얼씬도 못하였다. 많은 피란민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모두 안전하게 생명을 부지하고 최개똥이를 의지하여 피난을 잘 하였다. 이런 소문이 조정에까지 알려지자 임금님은 큰 공신으로 봉하였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156~157쪽.

[기장읍 설화10]

### 보은의 호랑이와 최장군

옛날 앵림산 아홉 골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인 내동 입구 오른쪽 오신마을 아래에 젊은 최씨 부부가 홀로 계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남편은 야산을 개간하여 논밭을 만들어 밤낮으로 농사일에 전념하였고 부인은 가정 일을 돌보며 시간이 나면 산으로 올라가 나물을 캐어 시장에 갖



다 팔아 살림에 보태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시중에 정성을 다하였다. 이들 부부의 효행은 이웃마을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들 했다.

어느 해 봄, 큰 비가 내려 마을 앞 냇가엔 탁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최씨 부인은 이날 아침 일찍이 새끼이 쏘옥 올라온 봄나물을 캐려고 집을 나섰다. 개울의 징검다리가 물에 넘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로 옆에 고양이 새끼 같은 짐승이 물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최씨 부인은 어미 품을 떠나 놀다 간밤의 큰 비에 계곡을 휩쓸려 떠내려 왔구나 생각하고 불쌍한 짐승새끼를 끌어안고 젖은 몸을 치마로 닦아 주었다. 그러다 우는 소리와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 새끼가 아닌가? 부인은 간밤의 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새벽녘에 앞산에 있는 범굴 주위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여러 차례 났는데 그 울음소리가 바로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찾는 소리였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부인은 호랑이 새끼를 안고 범굴이 있는 앞산으로 올라갔다. 범굴 가까이 가다보니 평소에도 간담이 컸던 최씨 부인도 겁이 버럭 났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범굴 앞에 새끼를 놓아두고 바위 뒤에 숨어 보고 있자니 거기에 똑같은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더 있었다. 최씨 부인은 좋은 일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만치 보여 잡싸게 그 자리를 피해 내려왔다.

그 뒤 최씨 부인은 범굴이 있는 산으로 여러 차례 오르내리면서 나물도 캐고 나무도 하였는데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와 마주칠 때가 있었으나 화를 입지 않았다.

그 뒤 한 해가 지난 여름 초저녁 저녁밥을 끝낸 시아버님이 복통을 일으켰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방을 맴도는 시아버님을 보고서도 어떤 치료방안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최씨 부인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고 있는 만삭의 몸으로 십리나 떨어져 있는 기장읍의 약국을 향해 길을 나섰다.

약을 지어 집으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였으나 만삭의 몸에 걸음이 민첩할 리가 없었다. 무실(무곡)마을 앞을 지나 범굴 골 앞에 이르러 여름 소낙비를 만났다. 비를 피할 곳도 없는데다 출산기마저 느껴지는 터라 궁리 끝에 범굴이 있는 포개진 바위가 생각났다.

최씨 부인은 비에 젖은 한약봉지를 가슴에 품고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

이 가까운 범굴을 찾았다. 다행이 짐승은 없었다. 이어 곧바로 범굴에서 몸을 풀었다.

한편, 농사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온 최씨는 아버지가 복통이 있어 부인이 읍내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좋지 않은 날씨와 만삭인 부인이 몹시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다. 소나기는 멈췄지만 산길은 어둡기만 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푸른 두 줄기의 불빛 같은 것이 앞을 막았다. 놀란 최씨는 우뚝 멈춰 섰다. 그 푸른 두 줄기의 불빛은 호랑이의 번뜩이는 눈이었다. 호랑이가 최씨의 가는 길을 막아섰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온몸이 사시나물 떨어듯 하였고 정신마저 혼미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호랑이는 최씨에게 덤비지 않고 범굴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다시 범굴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데 마치 최씨를 따라 오라는 시늉을 하는 것 같았다. 최씨는 얼마 전 호랑이 새끼를 살려 범굴에 가져다 주었다는 부인의 얘기가 번개같이 뇌리를 스쳤다. 호랑이를 뒤따라 범굴에 들어갔다. 호랑이는 간 곳 없고 굴이라고는 볼 수 없는 두 바위가 포개져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막 다다랐다. 어두침침한 곳에서 그의 아내가 막 낳은 자식을 안고 앉아 있는데 정신을 반쯤 잃고 있지 않는가.

이 광경을 본 최씨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최씨는 부인을 등에 업고 아기는 윗옷을 벗어 감싸 안고 범굴을 떠나 집으로 내려왔다. 일시적으로 위경련을 일으켰던 아버지가 자식과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집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무사했다. 언젠가 새끼를 구해준 호랑이의 보은이었다. 사람도 간혹 은혜를 배신하는 세상에 호랑이 한낱 짐승이 그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 뒤 최씨 아들은 타고난 기질인 무예를 이 범굴굴(범구굴)을 오르내리면서 닦았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곳을 오르내리면서 무예를 닦았는데 그가 고개를 오를 때마다 돌 한 개씩을 쌓아 돌탑을 만들어 갔다. 18세 되던 해 그는 기장현 내에서 제일 힘 센 장년으로 알려졌다. 무예가 절정에 이르면서 무과에 응시할 포부를 갖고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는 밤에 안적사로 쳐들어온 왜적들을 아홉 골에서 만나 그야말로 나르는 호랑이와 같이 조총을 피하면서 쳐부

섰다. 왜적들은 물러나 내동 안골짜기를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다. 용감무쌍했던 어린 최장군은 임란 뒤 공신록에 등재되었고, 기장현지에 길이 빛나고 있으며, 그의 무덤은 돌을 쌓았다는 돌쌓고개 약 3백 미터 지점 양지 바른(미황사) 쪽에 고이 잠들어 있다. (글 : 김인권)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79~781쪽.

[기장읍 설화11]

### 어사암에 얽힌 설화

기장읍 죽성(竹城)리 두호(豆湖)마을 남쪽에 매바위를 어사암(御使岩)이라고 한다. 1894년(고종 20) 기장현 독이방(禿伊坊)에 있는 해창에서(지금의 문동리) 양곡을 가득 실은 조운선이 부산포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해 가다 이곳 앞 바다에서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 침몰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7년 대한이라는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던 이곳 어촌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물속 깊이 잠수질을 하며 그 난파선에서 흩어진 곡식을 건져서는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 짠 바닷물에 침수된 벼지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이곳 어촌 주민들에게는 그대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다.

기장현청에서 이를 알고서 이같은 일은 절도라고 하면서 관여한 주민들은 모두 기장 관아에 붙잡혀가서 구금되었다. 관아의 형졸들이 마을을 수색하여 곡식을 모두 수거하여 갔다. 옥에 갇힌 주민들은 형틀에 매달려 짐승처럼 매질을 당하고 피가 튀고 살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생겼다. 또 다리가 부러져 병신이 되고 장독에 고통을 받는 처절한 가혹사건이었다.

조정에서는 이 절도사건과 가혹한 고문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도재(李道宰)를 어사로 기장현에 파견하였다. 어사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어촌 주민들은 기장 관기(官妓)로 있는 월매(月梅)를 시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관아에서 가혹행위로 도난 양이 많은 것처럼 꾸며 수탈하려 하였다는 그간의 처사를 진정하게 하였다.

월매라는 열아홉 살의 기생은 주민 편에 서서 포악무도한 관리들의 행패는 백성을 괴롭히는 일만 꾸민다고 하면서 어사 이도재가 주민 편을 들도록 설득하였다.

현장조사를 하러 이곳 매바위에 온 어사를 따라간 월매는 매바위에서 춤과 노래와 교태로 어사를 즐겁게 하였다. 이 어사는 그간의 사건을 종합해 본 결과 바다 속에 그대로 두면 썩을 곡식인데, 그것을 건져 먹은 것이 어찌 절도가 되는가 하면서 감옥에 있는 어민들을 모두 석방시키라고 했다.

이날 이곳의 절경과 월매의 교태로 흥겨워진 어사는 그 자리에서 천공경무물(天空更無物), 해활난위시(海闊難爲時), 환구구만리(環球九萬里), 일위가항지(一葦可航之)라는 오언절구(五言絕句)를 짓고 어사암(御使岩)이라는 글자를 넣어 매바위에 각자(刻字)를 하였다. ‘하늘이 텅 비었으니 보이는 것이 없고, 사나운 바다는 시객을 위해 춤을 추는데 저 멀리 돛단배는 언제 무사히 돌아오려나~~~’ 이로 인해 매바위는 어사암이라 하게 되었으며, 덕택으로 어민들도 무사하게 되었다.

그후 세월이 흘러 그 각자가 비바람에 마멸되자 주민들은 그 당시의 이도재 어사의 은공과 기생 월매의 인정을 잊지 못하여 이형은(李衡殷)이라는 사람을 청하여 어사암에 이도재(李道宰)라는 성명과 기월매(妓月每)라는 세 글자도 함께 새기게 하였다.

월매(月梅)는 뒤에 가정부인이 되어 가정이 있었는지라 월매(月梅)라고 하지 않고 월매(月每)라고 각자를 한 것이다.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1~782쪽.

[기장읍 설화12]

**의적(義賊) 정봉서(鄭鳳瑞)와 마누라**

옛날 동래부에 구차한 집안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정봉서란 사람은 효성이 지극한 힘센 사나이였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어 의원에게 물었더니 개 천 마리를 잡아 먹여야 낫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개를 천 마리나 구할 길이 없었던 정봉서는

갖은 힘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 고치기를 마음속에 다짐했다.

그리하여 길을 걸어가다가도 살찐 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냉큼 뒷다리를 잡아 집에 들고 와서 병든 어머니에게 고아드리곤 했다. 이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되었으니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도 도적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바늘 도적이 소 도적 된다는 격으로 나중에는 대적이 되었다.

어느 날 동래 성내의 사람들이 기장의 쌍다리 험한 고개에서 험상궂게 생긴 8, 9명의 도적패들을 만났다.

“이놈들아 꼼짝 말고 제자리에 섰거라.”

사납게 호령을 하곤 아무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다. 혼나간 행인들은 공포에 떨면서 도둑의 무리를 따라 깊은 산중으로 10여리나 되는 먼 길을 끌려 들어갔다. 얼마후 산중턱에 자리 잡은 그들의 소굴까지 끌려온 행인들은 괴수 앞에 꿇어앉았다. 두목은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고 매서운 눈초리로 물으며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보았다. 이때 이리에 쫓긴 어린양 마냥 떨고 있던 행인 중의 한사람이,

“저희들은 모두 동래 성내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 말은 들은 괴수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며 조금 너그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깨끗한 방으로 안내시키고 맛난 음식을 차려 이들을 후하게 대접했다.

이튿날 행인들이 떠날 때는 노자까지 빠짐없이 주었다. 이 도적의 괴수가 바로 정봉서였다. 이미 골수에 배인 도적질을 하기 쉬워서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많은 부하를 거느린 그는 깊은 산중에 본거를 두고 도적질을 하여 생계를 세웠으나 의적의 이름을 들을 만큼 부잣집에서 빼앗아다가 남의 구차한 집을 도와주곤 하였다.

하루는 정봉서가 가난한 어느 집 앞을 지나갔는데 집안에서 방금 해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기척이 없는 그 집 부엌을 들여다보니 밥을 지을 쌀은 물론 국을 끓일 아무 준비가 없었다. 남편되는 주인은 속수무책으로 산모 구호를 해줄 길이 없어 얼굴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는 딱한 형편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쌀과 쇠고기를 집주인 몰래 사가지고 부엌에 두고 안을 향하여,

“이 댁 바깥주인 계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주인이 쫓아 나오니 정봉서는,

“부엌에 들어가 보시오.”

라고 말하고는 그 집에서 사라져 버렸다. 주인은 의아하면서 부엌으로 나가보니 쌀과 고기와 산모에게 끓여 먹일 미역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적으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정봉서도 말년에 동네 포고에게 잡히고 말았다. 옥에 가두어 둔 정봉서에게 옥리는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25일째 되는 날 굶어 죽었다.

정봉서의 마누라도 기운이 장사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동헌으로 쫓아가 그 앞에 있던 하마석을 번쩍 들고,

“이놈아, 너희들이 아무리 관헌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 내 가장이 도둑은 도둑이지만 의적이란 것을 천하가 다 하는 일인데, 그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고 고함을 치며 동헌 삼대문을 때려 쳐서 판자가 날아갔다. 지금 금강공원 입구에는 그때 정봉서 마누라가 부순 대문 기둥으로 지은 건물이 남아 있다고 동래의 고로들은 말하고 있다.<sup>21)</sup>

\*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5. 180~182쪽.

#### [기장읍 설화13]

### 의적(義賊) 정봉서

임진왜란 후 백성들은 굶주려 유리걸식하고 있었고, 기장현은 텅 비어 고을은 망하여 동래에 합속되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정봉서라는 위인이 기장에 살고 있었다. 그는 힘센 장사로 고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일할 곳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홀어머니는 지병이 위중하였다. 보신탕을 먹이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봉서는 그 효심에 그만 부잣집 개 몇 마리를 훔쳐서는 보신탕을 끓여 드렸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정봉서는 포졸들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 산속으

---

21) 부산직할시 동래구, 『동래향토지』, 1993. 12. 160~162쪽에 수록, 「의적 정봉서와 마누라」.

로 피신하였다.

산속에서 좁도독질하던 도적들은 정봉서를 두령으로 삼았다. 정봉서는 부하 도적들에게 도적질을 하되 인색하고 못된 부잣집만 골라서 훔치게 하고 어려운 사람, 굶어죽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몰래 가져다 주는 의리를 지키게 하였다.

정봉서는 기장현의 쌍다리재 깊은 산속에 산막을 두고 수십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칩아기를 순산하였으나 산모는 먹지 못해 굶어죽게 된 사실을 전해 듣고는 쌀과 미역을 주인도 모르게 그 집 부엌에 놓아두기도 하였다.

어느 날 그의 부하들이 동래부의 관원들이 가져가던 봉물 꾸러미를 털고 그 관원들도 함께 잡아왔다. 정봉서는 잡혀온 관원들을 풀어주고 상좌에 앉히고 큰절을 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겠으니 살려주면 병든 노모에게 효성을 다하겠다고 관원들에게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동래부에서는 자수한 정봉서에게 뼈가 부러지도록 매질을 한 후 그를 옥에 가둬버렸다. 그런 후 관원들은 정봉서에게 물도 주지 않고 굶어 죽게 내버려두었다. 힘센 장사도 한 달이 못되어 굶어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정봉서의 처는 치를 떨고 분개하였다.

정봉서의 처는 분한 김에 동래부의 동헌 앞에 세워져 있는 하마석비(下馬石碑)를 뽑아서 번쩍 퍼들고 관원들을 향하여 “이놈들 내 남편은 너희들이 산적에게 붙잡혀 죽게 된 것을 살려 주었고, 함부로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였다.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너희들 대신 구제하여 주었던 의리 있는 도적이었다. 네놈들은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돌비석으로 동헌 삼대문을 내리쳐서 대문판자가 부서졌다.

동래 온천동 금강공원 입구에 있는 건물은 그때 정봉서의 처가 부서버린 삼대문을 옮겨 지은 것이라고 고로들은 말하고 있다.<sup>22)</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2~783쪽.

22)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3~294쪽에 수록, 「의적 정봉서」. 본문의 설화는 이 문헌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하 『기장읍지』(2005.5)에 수록된 설화로 이 문헌의 내용과 같은 설화는 이 문헌의 설화를 대본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장읍 설화14]

## 사라의 선바위

기장읍 대라(大羅)리 사라마을 큰골 중턱에 우뚝 솟은 큰 바위가 있다. 높이 6m 폭 2m 정도로서 마치 사람이 꼳꼳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 이 바위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산위에서 굴러내려 이곳에 우뚝 서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단종애사가 전해져 온 백성들이 이를 슬퍼하자 선바위는 슬픈 사람 모습으로 변하면서 애절한 곡성을 하였다고 한다.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이리 저리 피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자 이 바위도 전후좌우로 흔들거렸다고 한다. 주민들은 남북통일이 되어 나라가 편안하면 이 바위도 기쁜 모습으로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과 함께 온갖 슬픔을 함께 하여 주고, 마을을 굽어보며 지켜주는 이 바위에 우환을 호소하고 굿을 하기도 하면서 소원을 성취하여 줄 것을 받고 있다.<sup>23)</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3~784쪽.

[기장읍 설화15]

## 무곡의 약물샘

기장읍 청강리 무곡(武谷)마을 입구에 작은 웅덩이를 약물샘이라고 부르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효녀가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다. 때마다 정성 들여 밥상을 마련하여도 어머니는 영똥스럽게 붕어가 먹고 싶다고 투정질을 하면서 밥 먹기를 거절하였다.

---

23)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4~295쪽에 수록, 「사라리 선바위」.



추운 겨울에 붕어를 잡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처녀는 여기저기 찾아다녔으나 붕어를 잡지 못하였다. 처녀는 추운 겨울에 몸이 얼고 피곤에 지쳐 이 약물샘에 와서는 깜빡 졸았다.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신령님이 나타나서 “너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어 일러주노라. 잠을 깨고 웅덩이 속을 살펴보면 큰 붕어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니 잡아서 졸여드리고, 이 웅덩이 물로 목욕을 시켜드리면 병이 씻은 듯 나아질 것이라” 하였다.

효녀가 정신을 차려 웅덩이 속을 보니 큰 붕어 한 마리가 얼음 위로 치솟아 땅에 떨어져 처녀 발아래에서 파닥거리는 것을 시키는 대로 어머니에게 졸여 드렸다. 그리고 웅덩이 물로 어머니를 깨끗이 목욕을 시켰더니 온 몸에 솟아 있던 종기는 씻은 듯이 없어지고 원기를 회복하였다고 한다.

이 효행이 널리 알려지자 피부병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이 웅덩이 샘 물로 목욕을 하고 모두 병이 나왔다. 그 후로 이 웅덩이를 약물샘이라 불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장안, 일광, 철마 등지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찾아 와서 물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런데 약물샘에 돈을 넣으면 그 효험이 더욱 뚜렷하다고 한다.<sup>24)</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4쪽.

[기장읍 설화16]

### 안적사와 원효대사

신라의 원효(元曉)대사와 의상(義湘)대사는 젊었을 때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며 안적사에서 정진하였다.

안적사(安寂寺)가 있는 곳은 동해의 푸른 바다와 그 속에 잠겨 있는 오륙도가 아른거리고, 숲이 울창하고, 기후가 따뜻하여 온갖 새가 지저귀고 있는 극락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더욱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만 있는

24)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5쪽에 수록, 「무곡리의 약물샘」.

피꼬리와 극락조가 짝을 지어 지저귀고, 사람들의 팔과 어깨에 앉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곳을 앵림산(鶯林山)이라 했다. 이 극락 같은 곳에서 원효대사는 안적사 자리에 토굴을 만들고, 의상대사는 피꼬리 떼가 많이 서식하는 그 아래에 토굴을 만들어 주석하였다.

의상대사는 탁발하지도 않고 선녀가 올리는 공양을 받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를 자랑하고 싶어 사형으로 모시고 있는 원효대가를 공양에 초대하였다. 그런데 이날 어김없이 공양을 올리던 선녀는 끝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기다리다 못해 되돌아 간 후에 나타난 선녀에게 의상대사는 무안을 당한 화풀이를 하였다. 선녀는 원효대사가 앉은 곳에 화광이 충전하여 접근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였다. 그제서야 의상스님은 원효스님이 금강 삼매에 들어 신통을 부린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의상스님은 교만심을 버리게 되어 크게 득도하였다고 한다.<sup>25)</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2005. 5. 784~785쪽.

#### [기장읍 설화17]

### 소정의 매바위

기장읍 내리(內里) 소정마을 산 131~6의 중턱에 매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중병을 앓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던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하여 이 산 저 산을 찾아 좋다는 약을 모두 캐어 약을 달여 올렸다.

어느 날 시어머님은 계곡에 있는 가재가 먹고 싶다고 하시기에 며느리는 깊은 계곡에서 가재를 많이 잡아 큰 바위가 있는 곳까지 왔을 때 무서운 호랑이가 덤빌 듯이 으르렁거렸다. 이를 본 며느리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

25)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6쪽에 수록, 「안적사의 원효대사」.

이때 큰 매 한 마리가 날렵하게 호랑이에게 덤벼들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호랑이의 눈 언저리를 할퀴면서 싸워 겨우 호랑이를 쫓아 버렸다.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 바위 위에 피투성이가 되어 앉아 있는 큰 매가 ‘너의 효심에 감복하여 목숨을 걸고 호랑이를 쫓아 버렸으니 내 걱정은 말고 빨리 시어머님께 그 가재를 드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가재를 드신 시어머님은 신통하게도 그 지병이 쾌유되었다.

그뒤 자세히 살펴보니 매가 피투성이가 되어 앉아 말하던 그 바위가 꼭 그 매처럼 닮아 있었다. 큰 바위로 변한 매의 넋을 위로하고 감사의 고사를 올렸다.

그 후로 이 매바위에는 매가 등지를 짓고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고사를 올렸는데 그때부터 이 바위를 매바위라고 불렀다 한다.<sup>26)</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5쪽.

[기장읍 설화18]

### 저주받은 석공

동해안의 명승지로 알려진 기장의 시랑대. 지금은 사라졌지만 조선말기 때만 하더라도 시랑대 뒤와 건너편 해안가 물에서 수백 년 묵은 노송이 우거져 있었고, 왜가리가 떼 지어 노닐던 곳이다.

큰 파도가 치면 시랑대 깊은 암굴에서는 용의 울부짖음이 있었고 기암 절벽 속에 놓인 절경지는 못 시객들이 찾아 장관을 이루었다. 오죽하면 1733년 영조의 미움을 사 중앙 중요 관직에서 밀려나 이곳으로 부임해 온 권적이 이곳을 찾아 귀향살이 같지만 신선을 옆에 두고 있다 했을까. 시랑대 높다란 바위에는 시랑대란 각자 외 가뭄 때 기장고을 원님과 농어촌사람들이 모여 용왕님께 비를 내려 달라고 제사를 올리던 제룡단이란 곳이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성역시 여겨왔다. 참으로 호사다마란 듯이 이 절경지에다 뜻있는 시랑대도 많은 사람들의 감탄사에 이어 흠도

26)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6~297쪽에 수록, 「소정마을의 매바위」.

생겨 있었다. 그것은 시랑대 일부 바위가 넓적넓적하게 그것도 줄이 묘하게 구들장을 연상하게끔 생겨 있었다.

6.25 동란 뒤 부산시대 김모 건축자재업자는 이를 이용하려고 나섰다. 이웃 시랑마을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시랑대 바위를 구들장으로 캐어냈다. 캐어낸 구들장을 트럭에 싣고는 기장 쪽으로 향해 부산으로 향했다. 그 당시 송정-해운대 사이는 군 작전지역으로서 일반차량들은 다닐 수 없었다.

구들장을 실은 트럭이 만화고개를 넘어 철마면 안평리 저수지 주위에서 아래로 굴러 업자가 큰 화를 입었다. 이 사고로 손해를 본 김씨는 이번에는 시랑대 바위를 캐어 바로 앞 해안을 이용, 배를 이용하여 싣고 가다 송정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시랑대 제룡단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들 했다. 사실일까, 아니면 두 번 모두 우연의 일치였을까.

마을의 박모씨는 우연하게도 집안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가족들이 잔병을 앓는다 하면 꿈자리마저 계속 시끄러웠다. 평소에 미신에 의존하지 않던 박씨는 이웃의 권유에 점을 쳤다. 점쟁이는 신성시되는 곳에서 돌을 갖고 들어와 신이 노했다고 했다. 박씨는 돌을 갖고 들어온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래채를 수리하면서 방구들장을 새로이 바꾸었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갖고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씨는 부랴부랴 다시 방구들장을 파헤쳐서 그 돌을 갖고서는 신에게 제의를 올리고 화를 면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동의한 몇몇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다.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5~786쪽.

[기장읍 설화19]

## 당사리의 천석바위

기장읍 당사(堂社)리 앞 송정천은 옛날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큰 배가 오르내리는 큰 강이었고, 앞바다에서 소금배가 하구에서 상류까지

짐을 싣고 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강 중간에 있는 당사리 앞쪽 강변에 천석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다.

옛날 천석의 소금을 가득 싣고 장사꾼들을 태운 큰 배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이곳 강으로 대피하였다. 그러나 사나운 태풍과 폭우로 끝내 이 천석바위 근처에서 뒤집히고 장사꾼들은 강물에 빠졌다. 격류에 떠내려가던 중 강가에 있는 이 바위에 걸려 구조되었다. 이 하잘 것 없던 큰 바위가 그 많은 생명을 구출하였던 것이다.

그 후부터 천석의 소금배를 구출하였다 하여 천석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sup>27)</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6쪽.

[기장읍 설화20]

### 매바위와 학바위

기장읍 죽성(竹城)리 두호(豆湖)부락 앞바다의 북쪽에는 학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으며(황학대), 남쪽에는 매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고(매바위), 강변에는 용머리처럼 생긴 큰 바위산이 있다. 그래서 이를 학바위, 매바위, 용머리라 하였다.

옛날 옛적에 학바위 앞에 살고 있던 처녀가 매바위 앞에 살고 있는 총각 집에 시집을 갔다. 그 뒤로부터 학바위는 누렇게 변색하면서 그 근처 미역밭에 미역이 붙지 않아 친가집은 빈곤하여졌고, 매바위는 검게 반질거리 미역이 주렁주렁 매달려 시가집은 큰 부자가 되었다. 시가집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았으나 친가집이 가난하여지는 것은 가슴이 찢어질 듯 슬픈 일이었다.

어느 날 탁발하러 온 스님에게 후하게 시주를 하고 그 딱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 스님은 학바위와 매바위를 살펴보고 나서 하는 말이 용머리는 매를 노리고, 매는 학을 노리고 있는 형국이니 학이 꿈쩍 못하고 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학바위가 누렇게 터실거리고 미역이 붙지 않으니

27)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7쪽에 수록, 「당사리의 천석바위」.

매바위의 매눈을 찍어 부셔버리면 친가집은 다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단숨에 매바위의 두 눈을 호미로써 찍어 부셔버렸다. 그 후부터 친가집의 학바위에도 미역이 많이 붙어 친가도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학바위를 황학대(黃鶴臺)라 하고, 매바위를 매암 또는 어사암(御使岩)이라 하며, 용머리를 용두대(龍頭臺)라 하여 기장현읍지(機張縣邑誌)에도 6대 명승지로 기록되어 있다.<sup>28)</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6~787쪽.

[기장읍 설화21]

### 용천강의 황룡

저녁부터 내리던 여름비는 밤이 되자 뇌성벽력을 치면서 번갯불이 번쩍이면서 천지가 무너지듯 우르렁 거리고 용천 큰 강물이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예부터 용천 깊은 물에 살고 있던 용이 드디어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등천하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물기둥 속에서 활용이 꼬리를 치면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놀라운 광경을 번쩍이는 번갯불 사이로 보고 있었다.

모두 겁에 질려 문을 잠그고 꿈쩍하지도 못하였다. 때마침 매구가 무덤을 파서 송장의 옷을 벗겨서는 용천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황룡이 등천하는 것을 보고 빨래 방망이로 황룡을 겨누면서 ‘노란 구렁이가 지랄하네’ 하면서 조롱하였다.

매구는 천년 묵은 여우가 여자로 둔갑한 것으로 온갖 못된 짓을 하여왔다. 이 날도 촌장의 외동딸을 묻은 무덤을 파서 그 시신을 먹고 수의를 벗겨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등천하던 황룡은 매구의 저주에 화가 나서 두 발로 매구를 움켜잡다가 그만 여의주를 용천강의 탁류 속에

---

28)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7~298쪽에 수록, 「매바위와 학바위」.

빠뜨려 등천하지 못하였다.

화가 치민 황룡은 큰 꼬리로 용천강을 내리치자 용천강물은 강변의 큰 마을과 이웃마을에 범람하여 논밭은 유실되고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 황룡이 매구를 죽여 여우의 환란은 없어졌으나 황룡과 매구의 싸움 때문에 잃은 논밭을 복구하지 못하였다.

용천 큰 마을과 이웃마을 사람들은 용천강에 모여 제수를 차려놓고 황룡에게 고사를 올렸다. 그날 밤 황룡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여의주를 찾아서 등천하면서 번갯불과 비바람의 조화로써 용천강의 범람을 막는 강둑을 생기게 하고, 마을은 강물의 피해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황룡이 살고 있던 강을 용천강이라 하고 강변마을을 용천동이라 하며 등천하던 용이 되돌아 떨어진 곳(마을)을 돌용골이라 하여 회룡마을이 되었다고 한다.<sup>29)</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7~788쪽.

[기장읍 설화22]

### 기장산의 용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혜통국사전(惠通國師傳)」에 있는 전설이다. 신라의 혜통화상(惠通和尚)은 본가가 경주 남산 서쪽, 은천동구에 있었다. 어렸을 때 우연히 동쪽 냇가에서 놀다가 한 마리의 수달피를 발견하였다. 버둥거리는 그 놈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몸둥아리는 밭에다 버렸다.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보니 그 수달피 몸둥아리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다. 혜통은 매우 이상하게 여겨 핏방울이 떨어진 자국을 따라 가만히 찾아가 보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수달피가 나무에 뚫린 구멍에서 새끼 다섯 마리를 품에 안고 앙상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 혜통은 깜짝 놀라서 뛰어 도망쳐 오고 말았다. 그리고 살생의

29)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98~299쪽에 수록, 「용천강의 황룡」.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1쪽에 수록, 「용천강의 황룡」.

불가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죄를 씻으려면 중이 되어 그 영혼을 천도하여 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본국에서 불교를 연구한 다음 당나라로 들어가서 진언밀교(眞言密敎)의 거장인 무외삼장(無畏三藏)을 찾아 진언밀교의 구전심수(口傳心授)를 간청하였으나 박대와 천대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혜통은 너무나 분하고 야속하여 마침내 죽기를 결심하였다.

어느 날 삼장과 같이 앉아 있다가 문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하였던 이글거리는 불이 담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조용히 방 앞에서 있었다. 갑자기 벼락 치는 소리가 요란히 들렸다.

무외삼장이 깜짝 놀라 뛰어나와 보니 머리가 깨어진 채 혜통이 그 자리에 죽어 쓰러져 있지 않은가. 삼장이 급히 손으로 갈라진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주문을 외자 머리가 합해지며 상처는 급히 씻은 듯이 나왔다. 다만 화상으로 왕(王)자가 이마에 뚜렷이 남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왕(王)화상이라 불렀다. 무외삼장도 그때부터 그를 큰 법기(法器)로 알고 자기가 깨쳐 가지고 있는 진언밀교의 깊은 뜻과 신통변화의 묘술을 남김없이 가르쳐 전수하여 주었다.

때마침 당(唐) 고종의 딸인 공주가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한지라, 혜통은 공주의 병은 무서운 귀신이 침범한 병임을 알았다. 흰 팔, 검은 팔 한 팔을 은그릇에 담아 주문을 외웠더니 팔은 백갑신병(白甲神兵)과 흑갑신병(黑甲神兵)으로 변하여 악귀가 된 교룡(蛟龍)을 쫓아 버렸다. 쫓겨난 교룡은 혜통의 본국 신라국의 문잉림(文仍林)에 숨어서 인명을 함부로 해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많았다.

때마침 신라의 정공(鄭恭)이 사신으로 와서 혜통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혜통은 신라로 돌아와서 교룡을 쫓아 버렸다. 교룡은 정공의 집 문 앞에서 버드나무로 변신하였다. 정공은 이 버드나무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때는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즉위하였다. 효소왕은 선왕(先王)의 능을 만들기 위하여 길을 넓히는데 이 버드나무가 방해가 되므로 유사(有司)가 이 버드나무를 베려 하였다.

정공은 차라리 내 머리를 끊어갈지언정 이 나무는 베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유사는 이 말을 왕에게 고하였는바 효소왕은 크게 노하여 정공이 혜통법사의 힘을 믿고 방자하니 정공을 죽이고 혜통법사도 죽이려 하



였다. 혜통법사는 망덕사(望德寺)에서 신통을 부려 병사들을 쫓아 버렸다. 때마침 효소왕의 딸인 공주가 병이 위독한지라 혜통법사가 독경을 하여 완쾌되었다.

혜통법사는 효소왕에게 정공은 교룡이 버드나무로 변하여 그 독룡의 음해를 입어 억울하게 처형된 것을 아뢰었다. 왕은 크게 뉘우치고 정공의 처자를 사면하고 혜통을 국사(國師)로 봉하였다.

한편, 독룡은 정공에게 원수를 갚은 뒤에 멀리 남쪽으로 도망하여 기장산(機張山)에 깊숙이 들어가서 용신(龍神)이 되었다. 용신이 된 독룡은 기장 일대의 주민들에게 온갖 해를 입히고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혜통국사는 마침내 이 독룡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장으로 와서 독룡을 찾았다. 바위굴에 숨어 있던 독룡은 곰으로 변하여 있었다. 혜통국사는 곰으로 변한 독룡에게 자비를 설법하고 불살개로 단속을 하였다. 그 후부터는 기장산에 곰으로 변한 독룡의 피해는 없어졌다고 한다.

기장산은 어느 산인지 알 수가 없으나 아마 지금의 달음산(達陰山)이 아닐까 생각된다. 달음산 옥녀봉 동쪽에 용굴이 있다.<sup>30)</sup>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8~789쪽.

[기장읍 설화23]

**용소바위와 장사**

기장읍 서부리 용소계곡은 옛날 신라의 갑화양곡현(505년)에서 기장현으로 개명되던(757년)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넘나들던 유서 깊은 관문이다. 이 고갯길은 기장으로 부임해 왔다가 떠나가는 많은 현감과 군수, 그리고 관찰사와 어사 등의 사연이 얽힌 고갯길이기도 하다.

이 용소계곡에 얽힌 전설과 애환이 담긴 사연들은 계곡의 물처럼 변함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기장현에 살고 있던 한 농부의 내외는 자식이 없어 홀로 계시는 어

30)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 299~301쪽에 수록, 「기장산의 용신」.

머님 보기가 민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부부는 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 용소계곡의 성산(성황대) 아래에 있는 참샘을 찾아 공을 드리게 되었다.

매일 밤 개울에서 목욕을 하고 소원을 빌던 이들 부부는 2년 뒤 신의 계시를 받아 옥동자를 얻었다. 가뜩이나 손자를 그렇게도 그리던 노모의 그 기쁨은 어디에다 비유할 수가 없이 기뻐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나라에 충성동아  
부모한테 효자동아 동네방네 소문동아  
어느 날로 너를 키워 자찬 옷을 입혀보며  
대찬밥을 먹여 볼거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이렇듯 밤낮으로 손자를 어르는 노모의 즐거움은 이웃을 감동시키고도 남았다. 효심이 강했던 농부의 내외는 이에 힘입어 열심히 일했다. 노모는 손자를 돌보며 가정을 도왔다.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이 가정에 불운이 닥친 것은 어린아이가 두 돌을 지난 무렵이었다. 참으로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방긋방긋 재롱을 피우면서 기어 다니던 어린아이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치솟고 있지 않은가. 사람의 겨드랑이에서 새처럼 날개가 나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일은 이웃에서 이웃으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촌노들은 이 사실을 나라에서 알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자라 큰 장수가 되어 임금에게 도전하는 역적이 된다는 것이다.

농부 내외는 고민을 아니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식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죄악이었다. 그냥 있다가 나라에서 알게 되는 날엔 친족은 물론 외족, 처족의 식구들 모두가 멸족의 화를 면할 수 없잖은가. 자기들에게 귀중한 자식이지만,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생각다 못한 농부 내외는 자식을 갖다 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그 한여름 검은 구름이 하늘을 짙게 덮고 있던 밤중 노모가 잠든 틈을 이용해 아들을 안고 용소계곡을 올랐다. 뒤따라 나와 몸부림치고 통곡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농부는 계곡의 위쪽까지 올라 웅덩이 옆 큰

바위 위에다 내려놓았다. 새근새근 잠든 어린 자식을 두고 돌아서는 농부의 발길은 옮겨지지 않았다. 그것도 산골 깊숙한 계곡, 못 짐승들이 설치는 곳에 단 하나뿐인 혈점을 버리고 뒤돌아서 내려오는 농부의 심정은 인간으로서 본의를 완전히 잃고 있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휘적거리면서 계곡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얼마나 왔을까. 자식을 얻으려고 오색 형길을 걸어두고 밤마다 산신령님께 기원하던 참샘이 떠올랐다. 농부는 참샘을 찾아 하소연을 하였다.

산신령님 왜 이렇게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필이면 삼족을 멸한다는 자식을 주셨나이까.  
 오늘 산신령님이 주신 아이는 부부의 본의 아니게  
 용소골에 버리고 가오니 산신령님께서 거둬 주시기를  
 두손 모아 비나이다

농부의 말이 떨어지자 갑자기 시퍼런 번갯불이 온 계곡을 환하게 비추고 동시에 하늘이 찢어지는 천둥소리가 온 천지를 울리면서 장대 같은 소나기가 마구 쏟아져 내렸다. 농부는 참샘을 떠나 개울에 있는 징검다리를 몇 개 넘었을까, 그 순간 “아버지”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농부는 징검다리에 두 발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의 아들이 양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농부는 두 팔을 벌려 빗속으로 사라져가는 아들의 이름을 마구 부르다 개울에서 실신해 넘어졌다. 이 순간 큰 굉음은 성산정에 있는 큰 바위를 때려 산산이 부서졌다 하다. 그런데 옛 기장군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 흥미롭다.

기장의 우백호산(右白虎山)은 성산인데 이 산 위에 큰 바위가 마을 쪽을 내려다 보고 있어 사람들은 언제 바위가 굴러 내려올지 몰라 성안에 사는 것을 꺼리며, 다른 곳을 이사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번개가 치고 큰비가 쏟아질 때 이 높다란 바위는 번개에 맞아 산산이 부서져 벼락바위골(용소골 왼쪽 계곡)로 떨어져 돌더미를 이루게 되었다.

어쩌면 앞서 전설을 뒷받침이라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후 농부가 아이를 갖다 버린 웅덩이를 애기소(沼)라 여태껏 부르고 있다.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5. 5. 789~791쪽.

## 2. 일광면 설화

[일광면 설화1]

### 일광산(日光山)

일광산 중북에 쌍바위(雙岩)가 있다. 큰 바위 두 개가 처녀 총각의 화신(化身)처럼 서로 마주보고 얼싸 안은 듯한 형상이다. 일광산 밑에는 옛날 고기장(古機張)의 고성(古城)이 있었다. 고성(古城)의 성주(城主)는 선녀 같은 딸이 있었다.

성주는 이 딸을 공주(公主)처럼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과년이 되자 이웃 성주의 귀공자와 혼약을 맺어 곧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성주의 구종으로 일하는 총각이 이 선녀가 하강한 듯한 아리따운 처녀의 자태를 보고는 혼자 짝사랑만 하다가 상사병에 걸려 반이나 미쳐 버렸다.

종놈이 성주의 딸을 넘겨본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로 이 일이 알려지면 목숨이 없어진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안타까운 소원을 호소할 길이 없어 총각은 미친 듯이 일광산에 올라가서 산신령님께 소원을 빌었다. 배가 고프는 것도 잊고 날이 밝고 밤이 깊은 것도 잊은 채 한번 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빌었다.

이 신명을 다 바친 지극한 효성에 감복한 산신령님이 총각 앞에 현신하였다. 총각에게 몇 마디 주문(呪文)을 가르쳐주고 주문을 밤낮으로 삼일 간 외우면 처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처녀에게 말을 하거나 손을 대지 말고 기다리라는 분부를 받았다.

분부대로 한 3일 째 밤에 뇌성벽력이 치고 역수같이 퍼붓는 비바람 속에 처녀가 총각이 있는 산중턱까지 올라와서는 그만 미끄러져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려고 하자 총각은 악하고 소리를 치면서 처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면서 두 처녀총각을 쳤다. 번개를 맞은 두 처녀총각은 발부터 점차 굳어져 날이 밝자 그대로 돌로 굳어져 지금의 쌍바위가 되어 버렸다 한다.

지금도 뇌성벽력이 치는 밤이면 다시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두 처녀총각이 부르는 애절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215~216쪽.

[일광면 설화2]

## 일광산(日光山)의 쌍암(雙岩)

일광산 중턱에는 두 개의 큰 바위가 마주보고 있다. 마치 젊은 남녀가 열싸 안을 듯 애뜻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루지 못할 애절한 짝사랑의 전설이 서리고 있다.

옛날 쌍바위가 있는 남쪽 산기슭에는 큰 마을이 있었고, 마을은 토성으로 둘러 있었다. 여러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족장의 집이 덩그러니 있고 무사들과 마을 사람들이 오순도순 토담집에 살고 있었다.

족장의 외동딸 달실은 그 몸맵시를 자랑하며 이곳저곳 쏘다니기를 좋아 하였다. 쇠돌이는 먼 발치에서 달실을 볼 때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울렁이는 가슴을 누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족장에게 사로잡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천더기로서는 어림없는 짝사랑일 뿐, 그런 내색을 보였다가는 목이 덩그랑 날아갈 판이다. 자나 깨나 달실아가씨 생각뿐이요, 꿈에라도 달실을 품에 안고 사랑을 하고 싶었다.

이처럼 달실아가씨 생각에 미쳐 있는 쇠돌이는 어느 날 아가씨와 젊은 무사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무술시합에서 이긴 그 씩씩한 무사였다. 쇠돌이는 짝사랑의 질투가 끌어 올라 달실을 빼앗아 달아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 쇠돌이는 숨 막히고 답답한 가슴을 풀길이 없어 아무도 보지 않는 당산으로 올라갔다. 당산에는 고목이 된 큰 소나무가 있고 당집이 있는데,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당산할매를 모셔 놓고 있다. 당산할매는 젊은이들의 짝사랑을 잘 풀어 준다고 한다.

쇠돌이는 당집 앞에 꿇어 앉아 합장을 하고서 “한번 만이라도 달실을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밤낮으로 빌고 또 빌었다.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고 간절한 기원에 감복한 당산할매는 쇠돌이 앞에 몸을 나타내었다, 당산할매는 쇠돌이를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 주문을 외었다.

그리고 나서 이르기를 “해가 지고 달이 세 번 떠오를 때까지 달실아 달실아 달실아를 외쳐보라. 달실아가씨가 찾아오거든 내 말이 있을 때

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꿈쩍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쇠돌이는 달실아 달실아를 사흘이나 쉬지 않고 불렀다. 그러면서 산 아래를 살폈다. 정말 달빛을 타고 올라오는 듯 달실아가씨가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다. 숨 가쁘게 달려오는 벼들같은 몸매의 달실을 본 쇠돌이는 달실아 하면서 두 팔을 벌려 반기려고 하였다.

아뿔사 이를 어찌하리 달빛은 번개 빛이 되어 번쩍하면서 쇠돌이는 산 마루까지 끌려 올라가 돌이 되었다. 이 광경을 본 달실아가씨는 하도 불쌍하여 그리로 달려가는데 돌이 된 쇠돌이도 주춤주춤 걸어 내려와 산중턱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다시 번개가 치면서 달실아가씨도 돌로 변하여 두 바위가 나란히 서 있게 되었다 한다. 서로 얼싸 안고 반길 듯한 두 바위의 모습은 눈물겨운 정경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쇠돌이와 달실이의 화석이라 하여 돌실바위라 하였는데, 후세에 와서 짝바위 또는 쌍바위라 하였다. 짝이 없는 처녀총각이 이 돌실바위에 짝을 구해 달라고 기원하면 3일 후에는 짝을 구하게 된다고 한다.<sup>31)</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1~302쪽.

[일광면 설화3]

학리의 학송

학리 마을에 있는 메짚테기 산에는 억센 해송이 우거져 있었다. 이 마을을 처음 개척한 황 씨가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며 그 아래 바다 쪽에는 푸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있다.

아름드리 노송이 울창한 송림에 겨울이 되면 수십 마리의 학이 무리를 짓고 둥지를 치고 서식하였다. 학이 큰 무리를 지어 일제히 날아오르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학이 많이 찾아오는 해는 풍년과 풍어가 되고, 학이 안 찾아오면 흉년이 되고 재해가 생겼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서북쪽 산기슭에 마을 할아버지를 모신 국시당을

31) 일광면지 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3~784쪽에 수록, 「일광산의 쌍바위」.

세우고 학이 많이 서식하며 풍년이 되도록 제사를 올리고, 동남쪽 바닷가 제당에는 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풍어가 되도록 제사를 올렸다.

당제는 두 명의 제주가 국시당과 광대바위에서 각각 올려서, 바닷가 제당에서 두 명의 제주가 함께 동제를 올렸다. 이런 연유로 마을 이름도 학리라 하였다고 한다.

국시당에서 여우가 울면 풍어가 되고, 바닷가 아래 제당에서 여우가 울면 마을에 초상이 난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2~303쪽.

[일광면 설화4]

### 학리(鶴里) 학송(鶴松)

일광해수욕장 진입도로에 들어서기만 하면 시원스레 펼쳐지는 동해가 눈앞에 와 닿고, 확 뚫어진 2차선 도로가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달릴 것만 같은 충동을 느껴보지만 어느 새 멈춰야 하는 곳이 학리마을이기도 하다.

1970년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무렵 이 마을 역시 불붙어 좁다란 골목길이 리어카 길로 바뀌었으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서면 건너편 바다 너머로 거물산 자락이 펼쳐지고 일광의 기상을 상징하는 일광산(양)과 달음산(음)이 자태를 뽐내며 동녘엔 무한히 펼쳐진 바다가 답답함을 일시에 거두어 간다.

마을의 남과 서에 높지 않게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며 그 사이로 드리운 산세 또한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누가 보아도 따스하게 느껴지는 마을임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마을엔 언제부턴가 마을과 잇닿은 남녘에 바다 가운데의 섬 하나를 육지에 옮겨놓은 듯 해송들로 무성한 산 하나가 마을을 감싸고 있다. 그 산 북녘 끝자락 바닷가 언덕배기 아래로는 언제나 마을을 돌봐 주시는 골매기할매 제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신령스런 곳을 보호하고 있는 아름답리 소나무 한 그루가 지금도 염분 섞인 바닷바람과 모진 풍상을 겪은 시련의 흔적을 남기면서 고목으로 300여 년의 세월을 더해가고 있다.

전해져 오는 속설로는 마을의 이름을 지금과 같이 학리마을이라 부르기 이전부터 학이 서식하였다는 당사나무에 겨울이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수십 마리의 학이 떼를 지어 이 나무에 날아와 둥지를 치고 서식하였다고 하며, 학의 무리가 많을 때는 이 소나무에 앉지를 못해 모두 메짠데기 산(해송이 우거진 산)에 날아가 서식하였는데, 학의 무리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광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그야말로 장관이었다고 구전되어 오고 있다.

이렇듯 학의 무리가 해마다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의 무리가 많은 해에는 풍년이 들고 고기를 많이 잡아 마을이 풍요로웠으며, 학이 찾아오지 않거나 무리 수가 적을 때는 재해로 흉년이 들고 심한 풍랑으로 고기를 잡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어려워 마을에서는 뒷산 하단 산자락에 터를 잡아 할아버지를 모신 제당을 짓고 해마다 많은 학이 마을을 찾아와 풍년이 들도록 치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고, 학의 무리가 서식하는 당사나무 아래 할머니 제당에서는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길조의 상징인 학의 무리가 마을에 찾아온 것에 연유하여 마을의 이름을 학리(鶴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고장의 설화라 하겠다. (자료정리 : 전 일광면장 장인수)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7쪽.

[일광면 설화5]

**칠암리의 솟바위**

일광면 칠암리는 바닷가에 있는 검은 바위를 솟바위라고 한다. 바다에는 있는 큰 바위가 마치 솟칠을 한 것처럼 검다 하여 솟바위, 칠바위, 검

정바우라 하였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검은 칠(漆), 바위 암(巖)으로 칠암(漆巖)이라 하였다.

그 후 칠암은 검은돌, 군수돌, 빨돌, 청수돌, 흑난돌, 넓적돌, 농돌의 일곱 개의 바위가 있으므로 칠칠암(七漆岩)이라 하고 마을 이름을 칠암(七岩)이라 고쳐 적게 되었다. 칠칠암(七柒岩)은 칠성암(七星岩)이라 하여 칠성신앙(七星信仰)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칠성암(七星岩)에 3년마다 칠성제(七星祭)로서 또 용왕제(龍王祭) 용신제(龍神祭)로서 풍어(豐漁)와 어부(漁夫)들의 안전(安全)을 기원하는 별신굿을 하고 있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2~303쪽.

[일광면 설화6]

### 칠암 옷바위

일광면 칠암(七岩)리는 예로부터 칠암(漆巖)이라 하였다. 이 마을의 앞 바다에는 검은 바위들이 있는데, 마치 옷칠을 한 것처럼 검은 옷바위, 칠바위, 검정바우라 불려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검은 칠(漆), 바위 암(巖)이라 하여 칠암(漆巖)이라 하였다.

그런데 칠암에는 검은 돌, 군수 돌, 빨 돌, 청수 돌, 흑난 돌, 넓적 돌, 농 돌의 일곱 개의 바위가 있으므로 마을 이름은 칠암(七巖)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도움말 : 칠암리 김진옥)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4쪽.

[일광면 설화7]

### 신평마을의 옷판대(擲柶臺)

일광면 신평리 앞바다에 척사대라 하고 속칭 옷판대라는 큰 바위가 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장수와 왜장이 서로 싸움을 하여 하루에 몇합이나

칼과 창으로 겨루었지만 며칠이 되어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장수는 무력으로 겨루는 것을 단념하고 지력으로 겨루기로 하고 이곳 바위에서 옷놀이는 하여 그 승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종일토록 그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였다.

그때 왜장은 저녁 햇빛이 밝게 비치는 바다 쪽을 등지고 있었고, 이쪽 장수는 그 반대로 바다쪽을 향하여 있다가 바위에 옷판이 잘 보이게 깊고 굽게 금을 새기고(柶) 있는 것을 밭길로 걷어차고 넘어지는 것을 잡아 바다에 던져(던질 擲) 버렸던 곳(臺)이라고 한다.

지금도 바위에는 그때의 옷판이 선명하게 있다고 한다.<sup>32)</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2쪽.

[일광면 설화8]

### 원리의 장사바우

일광면 원리 상리마을에서 달음산 기슭을 올라가면 해먹이라는 낙타등처럼 생긴 능선이 있고, 그 능선 중턱에 골짜기가 있고, 그곳에 장사바우라는 큰 바위가 있다. 장사바위에서 올라가는 곳에 찬물샘이 있고, 그 옆에 집터가 있다. 이곳을 이고 집터라 하고 있다.

신라 석탈해왕 때 이곳에 이고(李古)라는 늙은 부부가 집을 짓고 살면서 장사바우 앞에서 이들을 점지하여 달라고 기원하였다. 달음산의 신령님이 감응하여 쉼 살이 넘은 외로운 늙은 부부에게 옥동자가 탄생하였다. 늙은 부부는 금지옥엽처럼 키우면서 바우라고 불렀다. 바우는 일곱 살이 되자 큰 바위를 번쩍 들고 내던지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빙빙 돌리기도 하였다.

바우장사의 소문이 퍼지게 되자 신라국에서는 자객을 시켜 암살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이곳은 신라국을 괴롭히던 거칠산국이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이다. 위협을 느낀 바우는 부모 앞에 엎드려 신라국의 첩자가 소자를 죽이려 하니 소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피신을 하겠다고 눈물을 흘

32)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4~785쪽에 수록, 「신평 옷판대」.

리며 하직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장사바위에 올라서 왼쪽무릎을 꿇고 오른손가락을 짚고 힘껏 뛰어오르자 양겨드랑이 밑에 비늘나래가 3자나 퍼지면서 독수리처럼 날아 달음산 수리봉(鷲峰)에 앉았다. 수리봉의 날카로운 바위를 평탄하게 다지고 이곳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천마를 타고 북쪽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지금도 장사바위에는 이 바우소년 장사가 왼쪽무릎을 꿇었던 자리와 오른손을 짚었던 흔적이 바위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고, 집터와 샘터가 남아 있다.

그때부터 이 바위를 장사바우라고 하고 애기장사를 바우장사라고 불렀고 집터를 이고 집터라 하고 있다.

그리고 달음산의 수리봉(취봉 鷲峰)은 그 위가 묘하게도 넓이가 20평 정도 평탄하고 잔디가 덮여져 있는데, 이 바우소년 장사가 독수리처럼 날라 올라가서 머문 곳이라 하여 수리봉이라 하고, 한문으로 취봉산(鷲峰山)이라 표기하고 이를 속언으로는 추봉산이라 한다.<sup>33)</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2~303쪽.

#### [일광면 설화9]

### 옥천사(玉井寺)의 옥천(玉泉)

달음산(鷲峰山) 서쪽에 있는 취정사(鷲井寺)에 머물고 계시던 원효대사는 경주(王都)로 가시려고 옥녀봉(玉女峯)을 넘어 동쪽 산기슭에 이르러 동해수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서광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갈증을 느꼈다.

그때 마침 옥녀(玉女)같은 처녀가 웅달샘에서 샘물을 물동이에 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사께서 물을 청하시자 처녀는 표주박 가득히 샘물을 떠올렸다. 대사께서 그 샘물을 마시자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무거운 몸이 흥모처럼 가벼워졌다.

대사께서는 세 번이나 받아 마시고는 처녀에게 “나무관세음보살”을 읊

---

33)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9쪽에 수록, 「원리 장사바우」.

으며 고마운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그 처녀는 몸이 굳어지면서 돌로 변하면서 관세음보살상이 되었다. 대사께서는 그 처녀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였음을 알고 오체투지의 예를 올렸다.

그런 뒤 대사께서는 이곳이 관음도량임을 알고 초막을 짓고 잠시 머무시며 동해 용왕님께 이 옥샘(玉泉)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하고 왕도로 떠나셨다.

그후 이곳은 동해용왕이 지켜 주시는 옥샘이 있고, 관세음보살의 돌부처님이 계신지라 마을 사람들이 암자를 짓고 옥천사(玉泉寺)라 하였다고 한다.

조선왕조 때 승유억불 정책 때문에 취정사(鷲井寺)도 퇴락되고 옥천사(玉泉寺)도 퇴락되자 절터들에 있던 큰 절에 돌부처를 모셨는데 그 큰절도 퇴락되자 그 돌부처는 다시 이곳에 은적하였다. 그래서 다시 이곳에 암자를 짓고 옥정사(玉井寺)라 하였다고 한다.

달음산은 물이 없는 산이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취봉산(鷲峰山)에 취정(鷲井)이 있고 옥녀봉산(玉女峯山)에 옥정(玉井)이 있어 유명(有名)하다.<sup>34)</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2~303쪽.

[일광면 설화10]

### 월명사의 전설

용이 목욕하고 용의 신통 묘력이 있다 하여 일광산 아래에 있는 월명사에서는 지금도 일년에 4차례 용왕제를 봉행(정월 보름날, 삼월 삼짇날, 7월 백중날, 기타 필요한 날)하고 있다.

삼주(三州, 과거세·현재세·미래세)를 호범하는 용왕은 신통 묘력이 있어 월명사에서는 용왕제를 매우 신성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태고에 옥황상제가 미려한 딸을 두어 금이야 옥이야 하고 화목하게 양육하고 있었다. 모든 면에 출중하고 천상에서 제일인 옥황상제의 딸 금

34)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5~786쪽에 수록, 「옥정사 옥샘」.

옥이는 어느새 다 큰 규수로 성장했다. 천상과 하계 인간의 법도를 고루 익힌 금옥이는 그러나 옥황상제의 꽃밭을 훼손하기 일쑤였다.

정숙한 상제의 선녀로서 곱게 자라왔음에도 금옥이는 옥황상제의 엄명을 거역하고 하계의 일광산에 사는 건장한 총각을 연모하고 있었다.

옥황상제는 금옥이를 미워한 나머지 그만 일광산 쪽으로 유배시켜 반성의 길을 닦게 했으나 허사였다. 그러자 상제는 금옥이를 월음산 쪽으로 옮겨 자책과 참회의 기회를 주었으나 밤마다 일광산 총각과 밀애를 거듭했다.

옥황상제는 밤마다 베개 밑이 소란하고 음담패설이 들려 숙면도 못하는 등 옥신이 명쾌치 못했다. 인간세상에서 근신하라고 보냈는데 인간과 함부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하늘의 법도를 짓밟는 짓이라 하여 크게 진노한 옥황상제는 신하들과 의논하여 큰 재앙을 내리게 했다.

상제의 명을 받은 벼락대신은 상제의 딸이 너무도 불쌍하여 일광산 쪽을 향하여 벼락을 내려 보냈다. 월음산과 일광산은 처음 한 덩어리가 된 육중한 산이었으나 벼락으로 갈라서게 되었고 이 때 일광산 아래는 뇌성과 함께 금세 불바다(화전)가 되었으며, 월명사 주변의 시내(용천)와 골짜기(횡계)는 이때부터 생겼다고 한다.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6~787쪽.

[일광면 설화11]

## 달음산 산삼

달음산에는 예로부터 산삼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그런데 달음산 골짜기의 얼음이 녹을 무렵이면 천년 묵은 산삼이 사람으로 화(化)해서 상주(喪主)의 복장을 하고 이 산에서 내려와 좌천장터로 나들이 한다고 하였다. (출처 : 정신득 수필집 <홍시는 늦가을까지 기다려야>)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8쪽.

[일광면 설화12]

### 용천 이무기

용천(龍川)을 미리내라 부른다. 미리내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굽이굽이에 소(沼)를 이루었으니 그 속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하였으나 아직 그를 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미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는가 아니면 그저 전해오는 말인지도 모른다. (출처 : 정신득 수필집 <홍시는 늦가을까지 기다려야>)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8쪽.

[일광면 설화13]

### 원리 팽나무

일광면 원리 509번지 김화익(74세)의 집에는 수령 약 200년 이상 되는 팽나무가 있다. 김씨의 나이 약 16세 쯤 되던 해, 김씨의 모친(송귀아)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팽나무 가지를 베어내려 하고 있었다. 나무가 너무 짙어 마당 채소밭에 햇볕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부친이 출타하고 나자 김씨의 모친은 머슴(총각 주음대)에게 채소밭 위에 있는 나무 가지만을 자르라고 타일렀다. 머슴은 주인마님이 시키는 대로 나무에 올라가 톱으로 가지를 자르고 있었다. 순간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자 머슴은 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머슴이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대로 쓰러졌다고 한다. 놀란 마님이 머슴의 머리를 만져보니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다. 한의원에게 데려가려 해도 부축해 줄 사람조차 없었다.

정신을 가다듬은 주인은 목신(木神)이 노한 것으로 생각하고 두 손을 모아 주술을 외우며 머슴더러 팽나무 밑에 서게 하고는 바가지에 냉수를 떠다가 머슴의 머리에 뿌렸다. 그러자 머슴은 흙 묻은 옷을 훌훌 털고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곧장 걸어 나왔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장가 때문이었는지 총각머슴이 떠

나고 이내 변진석이라는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다.

주인마님은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쳤지만 팽나무의 가지가 농작물에 지장을 주고 있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다시 자르기로 했다. 머슴이 나무에 올라가 한참 가지를 자르고 있는데 이 머슴 역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 그대로 내려오아야 말았다.

두 번 반복되는 일이라 주인마님은 어쩔 줄을 몰랐다. 옛날 머슴에게 한 것처럼 똑 같은 방식으로 벌고 물을 끼얹었더니 얼마 후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집안사람들은 이 나무에 목신이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신성시하고 있다. (도움말 : 원리 김화익)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8쪽.

[일광면 설화14]

### 현감과 좌수

구한말 때 있었던 이야기이다. 당시 신평리에 살고 있던 구배근(具培根)이라는 좌수가 현청에 불 일이 있었다고 한다. 교통편은 말을 타고 육로로 갈 수도 있었으나 평소 배를 좋아한데다 바다마저 잠잠하자 좌수는 하인을 데리고 미역 채취 시 사용되는 본인 소유의 풍선을 타고 갔다.

몸집 때문에 선수(船首)가 선미(船尾)보다 낮자 자기 집 하인(선원)이 말하기를 ‘좌수님, 만약 파도가 치면 큰 일일 텐데 어찌 하시려고요?’ 한다. 그러자 좌수는 ‘해엄치면 되지 걱정인가.’ 하고는 태연하기만 했다. 하인은 평소 좌수의 풍채 있고 여유 있는 모습을 알고 있는지라 안심은 하면서도 갑자기 풍량이 일면 어떡하나 하고 내심 불안해하였다. 한참 노를 젓다가 하인이 좌수에게 물었다. ‘오늘 현청에는 어인 행차시옵니까?’ 좌수는 ‘오늘 현감을 만나 포구어민들의 사정을 전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다행히 파도가 심하게 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무사히 죽성포구에 당도하였다. 왜성이 있는 두호만에는 구좌수의 집안사람들이 알고 한사람씩 찾아왔다. 인사를 나누고 집안사람이 제공하는 소달구지를 타고 좌수와 하인은 곧장 읍내로 향하였다. 현청에는 포졸들이 좌수를 알아보고 다가



와 인사 건네기에 바빴다. 포졸의 안내를 받고 곧장 현령이 집무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침 밖을 내다보고 있던 현령은 좌수의 일거일동을 살살이 살펴보고 있었다. 현감은 순간 좌수에게 농을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때 현감은 저만치 들어오고 있는 좌수를 향하여 큰 소리로 ‘저기 소가 한 마리 들어온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좌수는 더 큰 소리로 ‘어디 마구간이 비좁아 들어가겠는가?’ 하고 되받아 쳤던 것이다.

직위로 보나 여간한 배포가 아니고는 현감 앞에 감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하인과 포졸은 현감보다 한 수 위(?)인 구좌수의 늠름함에 기가 죽어 있었다. 구좌수는 풍채도 당당 하거니와 보기 드문 구변의 달인이었다. (도움말 : 구좌수의 생질 김응빈<金應彬>의 손자 칠암 김진옥)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9쪽.

[일광면 설화15]

### 차양사의 전설

전국의 고찰 중에 빈대로 인하여 폐사된 곳은 더러 있다. 동백천의 상류이자 칠암공동묘지 골짜기 입구에 있었다는 천년고찰 차양사(遮陽寺, 속명은 채인골에 있는 채인사라 함)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이 절에는 이름 있는 스님이 주석하고 있어서인지 신도수가 꽤 많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다 보니 빈대들도 수없이 늘어나 그 후론 신도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스님들도 견디다 못해 한 사람씩 떠나갔다. 개중에 이 절을 찾아 온 스님도 기겁을 하고는 얼마 있지 않아 자리를 옮기곤 했다. 소문은 크게 번졌고 그러다 보니 끝내는 사람 없는 절이 되고 말았다.

3년 전 마지막으로 떠났던 스님이 그 동안 여러 절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이곳을 다시 찾았으나 적막할 뿐 절을 지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한 동안 시달렸던 몸이라 빈대가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

인하고 싶었다. 법당에 올라 천정을 향해 고개를 들자마자 갑자기 서까래 같은 것이 쏟아져 내리는 통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절을 비운 사이에도 빈대들이 얼마나 늘어났던지 사람냄새를 맡자 무더기로 스님 쪽을 향하여 일시에 떨어졌던 것이다.

차양사가 있었던 주변의 돌을 뒤지거나 유물들을 수습하다 보면 지금도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빈대껍질들이 발견된다고 한다. (도움말 : 동백리 구석기, 칠암리 김진옥)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9~790쪽.

[일광면 설화16]

## 양장구

지금으로부터 약 80여 년 전의 일이다. 일광면 동백리에는 지금도 능성 구씨들이 더러 살고 있다. 특히 구귀도의 집안은 윗대부터 지방의 호족 못지않을 정도로 가세가 막강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충청도에서 한 과객이 구귀도의 집을 찾았다. 주인은 과객을 사랑채에 모시고 술잔을 기울리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침 술안주가 들어왔는데 껍질에 가시가 촘촘히 돋아 나 있고 두 조각난 속에는 색깔이 붉거나 옅은 노란색의 알 같은 것이 탐스럽게 들어 있었다. 과객은 밤송이처럼 생긴 생전 처음 보는 해산물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는 두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조각난 두 개를 합쳐보는 등 몹시 신기해했다.

주인은 바닷가에서 잡히는 특이한 생물로서 “양장구”라 하자 과객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양장구라 했소.” 하며 무릎을 치고는 “그것 참 묘한 이름이구나.” 하였다. 주인은 과객이 무릎을 칠 정도로 이름이 묘하다는 말에 “어째서 그렇소.” 하고 진지하게 물었다. 과객은 ‘가운데-양’, ‘감출-장’, ‘입-구’ 즉 ‘물건의 중간에 입이 있고 그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다’는 뜻이니 어찌 신기하지 않소 하며 주인더러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고는 한자로 “央藏口(양장구)”라 써 주었다. 구귀도는 과객의 멋진 표현과 일필휘지의 글씨에 몹시 감탄해 마지않았다. (도움말 : 동백리 구석기)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91~792쪽.

[일광면 설화17]

### 범난골(虎出谷)

칠암 공동묘지가 있는 곳을 문오성의 사람들은 지금도 범난골(虎出谷)이라 하여 무서워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힘이 센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생활하는 나무꾼이었다.

어느 쾌청한 날 장사는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지계에다 나무를 가득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기장고을의 사령(使令)들이었으나 나무꾼은 나무만 하던 사람이라 사령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장사에게 다가서더니 무조건 지계를 내려놓으라고 욕박질렀다.

장사가 왜 그러느냐고 하자 사령들은 보면 모르겠는가 하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나무꾼의 멍살을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한참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밀고 당기는 통에 장사는 지계와 함께 넘어졌고 두 사람들도 나무에 깔리고 말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나무꾼은 일어나자마자 너 이놈들 어디 맞춤 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두 사람의 상투를 잡아 묶더니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고을의 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장사는 오히려 탐관오리 같은 새끼들 잘 걸렸다고 하면서 지계에다 흩어진 나무들을 대충 챙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마을로 내려와 버렸다.

장사는 그 다음날 나무를 하러 가면서 어제 있었던 그 장소로 가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두 사람의 하반신은 온데간데없고 두 눈만 부릅

뜬 채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장사는 이 일이 있고부터는 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마을사람들은 이곳을 범난골이라 불렀다고 전해온다. (도움말 : 칠암리 김봉국)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91쪽.

[일광면 설화18]

## 보름새

성도 이름도 모른다. 단지 일광지역이 낳은 전설적인 인물로만 전해져 올 뿐이다. 그는 약 150여 년 전 광전(藿田 : 미역밭)이 있는 일광지역의 한 갯가에서 태어났으며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임기 응변술과 체세술이 남달랐다. 모르는 게 없었고 그가 나서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그의 천부적인 재주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름새라 불렀던 것은 한 달을 두고 반은 이천리, 반은 칠암리에서 지내면서 새처럼 민첩하고 거침없이 다녔기 때문이다. 그가 사는 마을의 미역밭은 그가 관리하다시피 하였다.

당시 이천마을과 칠암 광암 행사권의 경계는 현 동백리의 남나리 끝이었고 육동(陸洞)인 동백은 광암행사권이 없었다. 보름새가 동백마을 앞의 미역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그러다 보니 미역밭을 두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나서거나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보름새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마을사람들이 알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름새는 무슨 생각을 했던지 살림이 넉넉한 정관의 김한림(한림학사)이라는 집을 찾아갔다. ‘자네, 또 어인 일인가’ 하자 보름새는 ‘서울에 올라가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능청을 부렸다. 전에도 비슷한 일로 찾아온 일이 있었기에 보름새의 속내를 알고 있는 김한림은 순간 집히는 게 있었다.

김한림이 벼슬을 하기 위해 언젠가 서울로 이사갈 무렵 자기가 사는 마을에 역적이 난다 하여 못을 파헤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일이 여의치 못해 고향에 돌아와서는 못을 파헤친 자리에 집을 지은 일이 있

어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놈이 찾아올 때에는 무슨 까닭이 있음을 눈치 챈 김한림은 보름새의 늙름한 무언의 으름장에 ‘알았네’ 하고 돌려 보냈다. 김한림은 즉시 하인을 시켜 소달구지에다 곡식과 나무를 잔뜩 싣고 보름새 집에 갖다 주었다. 그는 천민의 신분이면서도 양반을 골탕 먹이는 일에 남다른 기질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두 마을을 주름 잡던 보름새도 흐르는 세월만은 어쩔 수 없었다. 늘그막에 칠암마을의 책임자가 되어 면임(面任, 면장격임)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면임이 보름새에게 ‘자넨 왜 지각했는가’ 하고 다그치자 보름새는 늙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고 아뢰면서 정신마저 없어 공문을 손에 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 문서를 넣고 다닐 조그만한 홍태기를 한쪽 소매 끝에 달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면임은 보름새의 사정을 듣고는 홍태기를 달도록 승인해 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면 회의가 있었다. 보름새는 이 날도 예외 없이 지각하였다. 면임이 보름새의 처지를 아는지라 나무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뚤어진 자세로 입장하는 보름새의 모습을 보고는 ‘이 보게, 한쪽 어깨가 왜 삐딱한가’ 하고 자세를 나무랐다. 보름새는 하도 잇는 일이 많아 홍태기에 공문이라는 공문은 다 넣고 다니다 보니 몸의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면임은 보름새의 말을 듣고는 공문을 똑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한쪽 소매마저 홍태기를 달게끔 특별히 허가하였다. 고의든 아니든 양쪽에다 홍태기를 달게 됨으로써 보름새는 양반처럼 도포(두르마기)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천민으로서 양반행세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보름새밖에 없었다. 성도, 이름도, 태어난 곳도 모르듯이 그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보름새의 묘는 이동마을 ‘구구지 모티’에 있었으며 보름새를 아는 사람 중에는 간혹 그의 묘소에서 쉬어갔다고 구전되어 오고 있다. (도움말 : 동백리 구석기, 칠암리 김진옥)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91~792쪽.

[일광면 설화19]

## 길흉사를 겸지해 준 여우

학리마을은 육지 중의 섬이라는 비유 못지않게 점점 더 오지(奧地)로 변해가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다. 마을의 진입로에다 수산물 수송을 위해 해안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더 나아갈 길이 없다보니 왔던 길로 되돌아갈 뿐이다. 없던 길은 새로 뚫고, 좁은 길은 넓히는 것이 기본인데도 학리마을만은 그렇지가 못하여 반세기 이전부터 이용하던 길마저도 통행이 금지되고 도로가 차단되어 교통의 불편만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만큼 낙후한 마을로 변모해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백 년 전 마을의 시조께서 이 마을에 정착했을 때에도 생업을 어업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마을 내에서는 변변하게 농사를 지을 만한 농토가 없고 오직 어업에 의존해야 하는 등 어민들의 생활상은 1960년대 이전만 하여도 궁핍함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잡아온 고기를 무겁게 한 짐 머리에 이고 3~4리 길을 걸어 시장이나 마을로 다니며 소리쳐 팔아도 돌아올 땐 고작 쌀 한 되 손에 들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생활고에 쫓기다 보니 자녀들의 교육에는 더더욱 소홀하게 되어 미취학, 중도 퇴교 등으로 문맹자가 많았고, 소형 무동력선으로 무리한 조업 길에 나섰던 어부들이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조난을 당하다 보니 홀로 된 부녀자의 아픔을 지켜보던 시절도 더러 있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어선의 대형화와 함께 동력으로 대체되고, 소득의 향상으로 마을 밖 이웃마을의 농지를 취득하여 식량의 자족화를 이루는 듯 하였으나 바다는 고기의 남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사온합섬 등의 공장 설립과 택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농지를 처분하고 새로운 생존경쟁의 길에 나서야 하는 기로에 서기도 하였다.

학리마을은 지형상 임해지역으로서 북동쪽을 정면으로 하고 있으며 동편, 서편, 남쪽의 낮은 산봉우리들이 마을을 에워싸 가끔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

해방이 되던 해로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1970년까지 학리마을 주

민들의 생활상을 보면 대다수 주민들은 수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마을의 대다수 가구들은 타 소득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미역 꺾기의 행사로 연간 일정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어선마다 소형 무동력이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노를 젓는 미개한 방법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 때로는 생명을 바다에 담보해야 하는 아둔함도 아랑곳없이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 조업에 임해야 했던 처지였으므로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자나 그 가족 중에는 기후의 변화를 천체의 변화(해, 달, 별, 구름)에 의존하거나 신체 구조의 느낌, 동물들의 행동 등에서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마을의 제당을 찾아가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올리기도 하였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앞산과 뒷산에는 그리 크지 않은 어린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으므로 동물들의 활동 영역으로서는 매우 적합하여 산 속에는 여우, 고라니, 노루, 멧돼지, 토끼, 오소리, 살쥬이 등 제법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여우는 매우 영악한 동물이라는 정평 그대로 여우의 식성을 보면 육식 동물이면서도 살아있는 동물은 먹지 아니하고 죽은 동물만을 먹이로 한다고 한다. 여우의 울음소리는 고라니의 울음과 밤하늘을 나는 기러기의 울음소리와 매우 흡사하여 혼란스러울 정도의 느낌이 들기도 하나 자세히 관찰하면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여도 여우의 울음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리마을에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우가 마을 앞산(메짚테기 산)에서 울면 3일 이내에 마을에 초상이 나고, 할아버지 제당이 있는 뒷산(망곡 산)에서 울면 고기를 많이 잡아온다고 소문이 일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산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말없이 함께 지켜보았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가 확인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여우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까지도 여우가 울 때마다 할머니들의 손가락은 무엇을 헤아리는지 쉼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연로한 분부터 손가락을 쬐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 아픈 데가…….”하며 말끝을 흐린 적도 있었다. 또 어느 날은 “니 집 배가

고기를 많이 잡았었다지, 그저께 밤에 뒷산에서 야시가 울더니.” 하고는 “역시 야시가 영물이야.”하며 말문을 흐리던 경우가 가끔 있었다.

여우가 제 아무리 후각이 발달하고 영물이라 하여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앞산, 뒷산을 오가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인지 믿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 후 여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다. 군항지 불발탄처리장에서 불발탄을 폭파시킬 때 발생하는 포음과 화약 냄새는 여우의 생존 환경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며, 또한 1970년 초부터 마을 뒷산 너머에 신양촌이 공장을 건립하고 산 속에다 길을 내면서 여우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학이 서식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학리마을.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 때를 잊지 못한다. 이는 마을사람들이 간직해온 삶의 애환을 쉽게 떨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도움말 : 학리장인수)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92~794.

[일광면 설화20]

### 해창(海倉)의 전설

일광면 문동리에서는 예로부터 나라에서 세운 미곡 창고인 해창(海倉)이 있었다. 기장 현감이 창고를 짓기 위해 택일까지 하고 터를 백방으로 물색하여 보았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현감은 고심 끝에 고을마다 방목을 붙이기로 하였다. 어느 날 밤, 난데없이 방목이 바람에 날려 문상 마을에 떨어졌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기장현감이 현장에 달려와서 보고는 그 자리가 좋다 하여 창고를 지었다고 한다. 건물은 없어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781쪽.



[일광면 설화21]

### 효자 옥종손(玉從孫)

『신동국여지승람』(1530년)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옥종손은 아버지가 기장현청에서 향리로 일하고 있었다. 아무런 보수도 없는 향인 인지라 집안이 몹시도 가난하였다.

옥종손이 11살 되는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현청에 향리 노릇도 못하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병은 깊어만 가고, 가난에 쪼달리게 되었다. 약 한 첩 제대로 복용 못한 아버지는 숨이 끊어질 것 같이 앓고 있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듣다 못해 소년은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손가락을 잘랐다. 단지로써 화약을 만들어 아버지께 올렸더니 신통하게도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아마 그 놀라운 소년의 효심에 하늘이 감응하였으리라.

현청에서 이 효행을 듣고 먹고 살아갈 직업을 마련하여 주었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81쪽.

[일광면 설화22]

### 효자(孝子) 옥종손(玉宗孫, 玉從孫)

조선시대에 미친한 향리의 후손이었다. 열한 살 때 그의 아버지가 무거운 병을 앓고 있어 날이 갈수록 병은 심해져서 이제 그대로 두면 죽게 되었다. 옥종손은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칼로서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약을 만들어 아버지께 드렸다. 열한 살의 어린나이에 이처럼 놀라운 효성을 보인 것이다. 그 약을 받아 자신 아버지의 병은 씻은 듯이 완쾌되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나라에서는 천역을 시키지 않고 양민으로 면천하여 주었다고 한다. 동래부지에도 이 옥종손의 효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면천된 후 기장현에 이사 와서 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군향인회, 1983. 9. 158~159쪽.

[일광면 설화23]

### 효자(孝子) 옥종손(玉從孫)

옥종손은 효행이 극진하였다. 그의 나이 11세였을 때 아버지 석근(石根)이가 나쁜 병에 걸리자 종손은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술에 타 바쳤다. 이에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조선 중종은 1509년(중종 2년) 종손에게 정려(旌閭)와 함께 벼슬(현청의 향리)을 내리고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옥종손의 효행에 대하여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신동국여지승람』, 『조선환여승람』, 『기장현읍지』, 『동래부지』, 『동래군지』, 『삼강행실도』, 『조선명륜록』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동래부지』에는 동래부사로 부임한 두 부사가 옥종손의 효행을 찬하는 시를 남겼다.

그런데 1507년(중종 2)에 옥종손에 대한 정려가 내려졌음에도 임진왜란 때 없어졌는지 정려각과 정려각 안에 있어야 할 명정 현판과 정려기 등이 일체 남아있지 않다(효행에 관해 왕에게 보고되면 반드시 명정을 받게 되어 있다.).

정려비는 동래현청 부근 [동래구 수안동 (『동래부지』 각주에는 칠산동 노변이라 기재되어 있음)]에 세워져 있었으나, 도시계획에 밀려 10여년 전에 철마면 사등골 옥씨 종중 묘터로 옮겨졌으며 현재 일광면 삼성리에 살고 있는 후손 옥규명이 관리하고 있다.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6. 12. 893쪽.

### 3. 장안읍 설화

[장안읍 설화1]

#### 척판암(擲板庵)

장안사가 있는 계곡 옆에 척판암(擲板庵)이라는 암자가 있다. 지금은 그 유서 깊은 전설에 비하여는 초라한 암자로 퇴락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척판암에 얽힌 전설은 근거 없는 전설이 아니라 불교계에서는 실화(實話)로 전하여지고 있다.

신라시대의 그 유명한 원효대사가 이곳에 이름 없는 작은 암자를 지어서는 조용히 수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중국에 있는 장안, 종남산, 운제사(長安, 終南山, 雲際寺)라는 큰 절에서는 천명(千名)이 넘는 많은 스님들이 수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절 앞에 허공 위에 큰 소반 하나가 빙빙 돌고 있었다. 이것을 본 한 스님이 모든 스님들에게 알렸더니 그 많은 스님들이 모두 절 밖으로 뛰어나와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는 그 소반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때 그 절의 큰방 대들보가 부러지며 집이 무너졌다. 그와 동시에 공중에서 돌던 소반도 땅에 떨어졌다. 이 때문에 그 많은 스님들이 밖에 나와 모두 생명을 건졌다. 땅에 떨어진 소반을 주어 보니 「海東 元曉 擲板 救衆」(해동에 있는 원효는 소반을 던져서 많은 스님을 구제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그 천명의 스님들은 매우 신기하게 여기고 해동 신라국에 와서 경남 양산 내원암에서 원효대사를 만나 공부를 배워 모두 도인이 되었으므로 그 산을 천성산(千聖山)이라 하고 그 때 소반을 던졌던 암자를 척판암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당고승전(唐高僧傳)에 수록되어 있다.

「차성가」에 ‘원효대사 던진 판이 척판암이 저기로다’고 표현하였다.

암자는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그저 시골 산기슭에 아무렇게나 지은 평범한 기와집으로 흙벽과 시골문짝을 붙인 초라한 모습이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193~194쪽.

[장안읍 설화2]

### 척반암(擲盤庵)의 유래

장안읍 장안리에 있는 장안사 남쪽 봉우리 밑에 척반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척판암(擲盤庵)이라고 되어 있다. 산봉우리는 왕관처럼 기암괴석이 총립하여 있고, 산기슭은 봄이 되면 철쭉꽃과 산벚꽃이 만개하며 만산홍을 이루고 있다. 신라의 원효대사는 이곳에 암자를 짓고 수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원효성사는 암자에서 산기슭에 만발하고 있는 철쭉꽃을 구경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멀리 북녘 하늘을 응시하며, 천안통으로 중국 땅 장안성을 투시하고 있었다.

그곳 종남산 기슭에 있는 운제사의 대웅전에서는 천 여 명의 승려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이 예불하는 광경을 보고 합장하고 있던 원효대사는 대웅전의 대들보가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성사께서는 그 위급한 사태를 알리고자 옆에 놓여 있던 소반에다 해동 원효 척반구중(海東元曉 擲盤救衆)이라는 여덟 자를 적어서는 북녘 하늘 높이 힘껏 내던졌다. 던져진 소반은 순제사의 대웅전 앞뜰 위에서 웅웅거리며 공중에 맴돌고 있었다.

막 예불을 마친 승려들은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두가 재빨리 대웅전 앞뜰로 나왔다. 이때 굉음과 함께 대웅전이 폭삭 무너지고 공중을 맴돌던 소반도 땅에 떨어졌다. 해동에 있는 원효는 소반을 던져 무리를 구하노라는 여덟 자를 읽은 그곳 승려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은 신라국의 원효선사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장안 성내에 있던 천 여 명의 승려들은 장안성에서 길을 떠나 양산군에 있는 천성산 석굴에 계신 원효성사를 만나 뵙게 되었다. 장안성에서 찾아온 천명의 승려들은 이곳에서 원효성사의 오묘한 법문과 가르침을 받고서 모두가 성인이 되었으며, 모두가 끝내 이곳에서 열반을 하였는데 열반한 육신은 저절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산은 천명의 성인들이 나왔다는 뜻으로 천성산이라 하였고 천성산의 바위들은 그 성인들의 변신이라고 전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원효성사가 여덟 자를 적은 소반을 던졌던 곳에 암자를 지어 기념하였는데

암자를 던질 척(擲)자와 소반 반(盤)자로서 척반암(擲盤庵)이라 하였고, 그 아래쪽에 큰절을 세워 장안사라 하였다고 한다.

이 전설은 당 고승전에 수록되어 있는 실화이다. 천성산 원효암에 올라가면 천길 벼랑위에 그때의 석굴이 그대로 남아있고 영험을 본 신도들이 많이 찾아와 유명한 기도처가 되고 있다.

장안사의 척반암에는 이 전설을 적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원효성사의 신통력이 감돌고 있는 듯하다. 아직은 작은 암자지만 지극한 원력으로 기도를 드리면 불보살과 성사의 가피력을 입고 소원 성취가 된다고들 하여 원근에서 신도들이 많이 찾아 들고 있다.

그런데 암자 이름을 척반암(擲盤庵)이라 하지 않고 척판암(擲板庵)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설대로라면 척반암(擲盤庵)이 옳다할 것이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5~306쪽.

[장안읍 설화3]

**척판암 설화**

장안읍 장암리 불광산 아래쪽에 있는 장안사 서쪽 봉우리 정상부 9부 위치에 동쪽을 향하여 척반암(擲盤庵)이란 아담한 암자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척판암(擲板庵)이라 표기하고 있다.

원효대사께서 장안사(당시는 쌍계사)를 창건하고 수도하다가 절이 점차 번창하여 날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되자, 수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여 장안사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인 이 자리에 조그마한 암자를 새로 세우고 수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천기를 살피다가 서쪽에 있는 멀리 중국 땅 장안성을 투시하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종남산 기슭 운제사의 대웅전에서는 천여 명의 승려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예불하는 광경을 보고 합장하고 있던 원효대사는 운제사가 미구에 뒷산이 무너져 흠더미에 파묻힐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고, 대사는 위급한 사태를 알리고자 옆에 놓여 있던 소반에다 ‘해동원효척반구중(海東元曉擲盤救衆)’이라는 여덟 자를 적어서

하늘 높이 중국 쪽인 서남 방향으로 힘껏 내던졌다. 날아간 소반은 운제사의 대웅전 앞뜰 위에서 윙윙거리며 공중에서 맴돌았다.

예불을 보던 승려들은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두가 대웅전 앞뜰로 나왔다. 소반을 따라 사찰 건물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것이 신기하여 모두들 따라 가는데 어느 만큼 멀어졌을 때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운제사 뒷산이 무너져서 질 건물을 형체도 없이 덮치고 말았다. 그때서야 공중을 맴돌던 소반도 땅에 떨어졌다. ‘해동에 있는 원효가 소반을 던져 무리를 구하노라’는 여덟 자를 읽은 그곳 승려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신라국의 원효선사임을 알게 되었다.

원효대사 덕분에 살아났음을 알고 저마다 이 고승에게 배우고자, 머나먼 해동땅 장안사 척판암으로 찾아들었다. 먼저 천성산 넓은 곳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수도하게 하니, 선사의 오묘한 법문과 가르침을 받고 모두가 정진하여 성인이 되었다.

그 산을 천명의 성인을 길러낸 산이라 하여 천성산이라 이름 지으니, 현재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이 있은 후 암자의 이름을 “원효성사가 여덟 자를 적은 소반을 던졌던 곳에 암자를 지어 기념하였는데, 암자를 던질 척(擲)자와 소반 반(盤)자로서 척반암(擲盤庵)이라” 개명했다.

천 수백 년을 거치면서 여러 번의 개축 끝에 현재는 건물도 제법 넓어졌으며, 원근에서 찾아드는 등산객과 신도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이 암자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의 9부 정상부에 위치하고, 동·서·남 삼방향에 깊은 골자기를 이루고, 북쪽 한 방향만 능선으로 이어져 있음에도 암자 옆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은 물맛도 좋지만, 오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신비롭다. 이 전설은 당(唐) 고승전(高僧傳)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898~899쪽.

[장안읍 설화4]

## 차암(車岩)의 유래

장안읍 효암리에 차암(車岩)이 있다. 그 위에 봉수대가 있는데, 이곳은 예부터 기장과 울산의 지경이 되고 있고 효암리는 접경 마을이다.

「차성가」에 “화철령 높은재는 기울산 지경이라 하미면 버혀내어 북삼면 버렸으니 차암에 새긴 글자 강좌랑의 유적이라” 하였다.

차성의 연혁에서 자세히 밝혀진 바와 같이 2천 년 전부터 화철령을 경계로 기장과 울산이 지경을 이루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후 기장현이 폐지되면서 지금의 장안, 정관, 일광의 일부가 울산에 편입되어 있던 것을 그 당시의 기장현감으로 좌랑벼슬이었던 강유후가 나라에 진소하여 서기 1653년(효종 4년)에 기장현으로 환속 받았다.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바위에 그 사실을 기록하였고, 숙과지(숙과지 참조)에는 기념 비석을 세웠는데, 아직도 기념 바위와 비석을 찾지 못해 그 글귀를 알 수가 없다.<sup>35)</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7쪽.

[장안읍 설화5]

### 선암마을의 신선암(神仙岩)

장안읍 덕선리의 선암마을 남쪽에 작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신선바위가 있다. 『기장현읍지』에 “군(郡)에서 북(北)녘 30리에 있다. 그 아래에 있는 홍류(虹流)가 장관(壯觀)이다. 지상(地上)에 신선(神仙)이 놀았다는 고적(古跡)이 있다. 그 까닭에 선암(仙岩)이라 이름 하였다.” 라 적혀 있다.

이곳 경치가 너무 좋아서 속인(俗人)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고, 신선(神仙)들만 이곳에 와서 언덕 밑을 흐르는 홍류(虹流)를 즐기면서 신선바위에 앉아 장기를 두었다고 한다.

내덕지(內德池)에서 흐르는 계곡과 선암리에서 흐르는 계곡이 합류하여 밑으로 흐르면서 정말 천고(千古)에 변함없는 선경(仙境)을 이루고 있다. 계곡 중류에 선암사(仙岩寺)가 있고 좌동 앞을 흘러 임랑천으로 유

35)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0쪽에 수록, 「차암(車岩)의 유래」.

입되고 있다.

이름 없는 작은 계곡이지만 옛 사람들은 이곳에서 천고(千古)의 신비(神秘)를 느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던 것 같다.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다.<sup>36)</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12. 307쪽.

[장안읍 설화6]

### 좌동리 포구나무(뽕나무)

장안읍 좌동마을 서낭당에 큰 포구나무가 있다. 그 수령은 약 250년이 넘은 고목이다. 이 고목의 나뭇잎이 윤기가 없고 마르면 마을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잎이 푸르게 싱싱하고 윤기가 있으면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의 길흉을 미리 알려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이 당목을 소중히 가꾸고 있다.

약 80년 전에 마을의 달성 서씨가 나뭇가지를 베어 뽕감으로 한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서씨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큰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생기게 되자 주민들은 더욱 이 고목을 잘 보존하고 있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7~308쪽.

[장안읍 설화7]

### 장안사의 청룡등

장안읍 장안리에 있는 장안사는 절 앞에 계곡이 양 갈래로 흐르고 있어서 쌍계사(雙溪寺)라 하였다. 불광산(佛光山)에서 해동(東海)의 일산경(日山景)을 즐기던 원효대사께서는 당나라의 장안에 있는 조남산 운제사(雲際寺) 대웅전이 무너질 것을 혜안(慧眼)으로 꿰어보시고는 소반에

---

36)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0쪽에 수록, 「신선암의 유래」.



해동원효척반구중(海東元曉擲盤救衆)이라 적어 던졌다.

운제사의 승려들이 밖으로 나와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는 소반을 구경하는 사이에 대웅전이 무너져 천명의 승려들이 생명을 보전하였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암굴에 기념으로 척반암을 세우고 이곳에 큰 절을 세우고 쌍계사라 하였다. 쌍계사는 기장현의 사대(四大) 사찰로서 번창하고 있다.

신라 효소왕 때 기장산(機張山=달음산)에 숨어 있던 독룡이 꿈으로 화신하여 주민들에게 큰 해를 입히고 있었다. 당시 혜통국사(惠通國師)께서는 친히 기장산의 독룡을 퇴치하려고 기장현에 오셨다. 독룡은 동해용왕에게 빌고서 이곳 청룡등에 숨어 있었다.

혜통국사께서는 독룡이 청룡등에 숨어있는 것을 알고 밀단법(密壇法)으로서 독룡을 설유하였다. 그러면서 독룡이 다치지 않고 도망칠 수 있도록 청룡 등의 기슭을 헐어주었다. 독룡은 황금 송아지로 변신하여 또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기장산 바위굴에 꿈으로 화신하여 숨어 있는 것을 찾아 꿈에게 불살계의 자비설법으로 단속하였다.

그때 혜통국사께서 청룡등의 기슭을 헐어놓게 되자 두 갈래 쌍계는 한 갈래 계곡수로 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쌍계사를 장안사라고 고쳤고, 장안사는 독룡의 피해를 벗어나고 동해용왕의 가호를 받아 번성하고 있다고 한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8쪽.

[장안읍 설화8]

### 북면의 오룡(五龍)

예부터 기장현 북면에는 다섯 마리의 용이 있고, 다섯 마리의 용이 있는 곳에 다섯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이름도 용 이름을 붙여서 오룡(五龍)이라 하고 있다. 장안읍의 동리 가운데서 기룡리, 반룡리, 용소리, 대룡리와 개천마을이다. 개천마을 앞의 개천 강에도 용이 있다는 것이다. 「차성가」에서도 “개천에 누운 용이 등천하니 대룡이라……”하여 오룡을 읊고

있다.

오룡 중에서 용소리의 용은 등천하였으니 등천룡이고, 개천의 용은 강속에 누워있으니 와룡이고, 반룡리의 용은 등천하려고 몸을 서리고 있는 반룡이고, 대룡리의 용은 큰 바위로 화하였으니 대암룡이고, 기룡리의 용은 강을 기어가고 있으니 복룡이라는 것이다.

이 전설로서 그 마을의 이름을 풀이하고 있다.

용(龍)은 관념상의 동물로서 실제로 있는 동물은 아니다. 주로 중국, 인도 등지에 옛날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파충류이다. 생긴 모양은 큰 뱀과 같고 몸에는 비늘이 있으며, 사슴 뿔, 말 머리에 악어 입, 독수리의 발 같고, 날개가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강, 호수, 바다 속에서 살 때로는 하늘을 날려고 하여 비바람을 일으키는 등으로 믿어지고 있다.

범어에서는 나가라 하여 팔부중(八部衆)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장아함경, 번역명의집 등에 나타난 용에 관한 여러 가지 사상은 본디는 인도의 용종족의 사류 승배의 신화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룡, 사룡 등 5종류가 있다고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교룡(蛟龍) 등 5종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 선악 2종의 용을 상상하여 선룡은 불법을 수호하고 감로를 내려 5곡을 성취시킨다고 믿었다. 한국에서는 예부터 용은 기린, 봉황, 거북과 더불어 4상서(祥瑞)라고 하여 숭상되어 왔으며, 상상도는 고분의 벽화에서 볼 수 있다.<sup>37)</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9쪽.

[장안읍 설화9]

## 불순곡의 빈대절

장안읍 명례리, 장안리와 울주군 운화리와 군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불순곡에 절이 있었다. 옛날 이 절에 빈대가 득실거리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였다. 스님은 참다못해 이 절을 자주 찾아오는 여자 신도들로 하여금

37)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7~908쪽에 수록, 「북면의 오룡(五龍)」.

교대로 빈대를 잡게 하였다.

빈대는 밤중에 나타나는 벌레인지라 밤중에 빈대를 잡았다. 밤중에 빈대를 잡고 있던 여자 신도와 스님은 서로 친밀해져서 그만 불륜의 관계를 맺고 말았다. 두 남녀가 정을 통하고 곤히 잠을 자는데 빈대가 발을 물어뜯는 통에 잠결에 촛불을 발로 찼다. 촛불이 넘어져 그 불이 번져 그 남녀와 함께 절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09~310쪽.

[장안읍 설화10]

### 불당골(佛堂谷)의 빈대절

장안읍 명례리 대명마을과 장안리 상장안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장안천 지류의 발원지인 골짜기를 불당골이라 한다. 이 골짜기 막바지에 규모는 작으나 아직도 옛날 절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떡친 바위’라 하여 떡을 찡던 암반과 돌담 무더기들이 그것인데, 이 불당이 소실된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이 절에는 빈대가 득실거리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스님은 매일 빈대 잡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빈대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극성이었다. 그런데 빈대란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해충으로 낮에는 벽이나 방바닥 또는 기둥 등 틈새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깊숙이 숨어 죽은 듯이 있다가 밤만 되면 활동하는 습성이 있다.

번식력도 강하여 이름 그대로 속이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빈대’ 상태로 수십 년을 사는 지독한 해충이다. 이 빈대가 한번 들면 일반 가정집이나 절간 할 것 없이 완전 퇴치가 어려워져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다.

스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빈대잡기를 감당해 낼 수가 없었지라 자주 찾아오는 여신도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여신도와 눈이 맞아 정분이 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남녀는 사랑을 나누는 뒤 그만 뿔아 떨어져서 잠이 들었다. 빈대는 잠든 남녀에게 달려들어 마구 피를 빨았다. 자연히 남녀는 본능적으로 손과 발을 휘젓다가 그만 켜둔 촛불을 넘어뜨렸다. 불은 방안에 번지고 두 남녀는 절과 함께 타 죽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말에 이 절터에서 작은 불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돌을 뒤집으면 굽어서 몸체가 투명한 흰 빈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1쪽

[장안읍 설화11]

### 삼각산의 기우제

장안읍 장안리에 있는 삼각산(삼각산 참조)은 그 산봉우리가 큰 능처럼 생겨 동쪽으로 가지런히 세 개의 산봉우리가 아담하게 솟아있다.

이 삼각산을 삼신산으로 삼아 인근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린다. 그러면 꼭 단비가 내려 해갈을 하곤 하였다. 삼각산이 이처럼 신산이고 보니 명당자리가 있다 하여 이곳에 몰래 시체를 묻고 묘자리로 하게 되면 부정한 일이 되어 그 해는 가뭄이 들게 되었다.

약 90년 전에 도야마을 사람들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삼각산에 묻힌 묘를 파헤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묘 임자가 마을 사람들을 고발하여 마을 사람들이 옥고를 치루고 큰 곤욕을 당하였다고 한다.<sup>38)</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0쪽.

[장안읍 설화12]

### 아홉 공주가 쌓은 왕릉

장안읍 기룡리 하근마을 기룡천 건너편의 송림 속에 옛날 왕릉이 있었다고 한다. 이 왕릉을 아홉 공주능이라고 전하고 있다.

---

38)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1쪽에 수록, 「삼각산의 기우제」.

옛날에는 큰 고을마다 왕이 있었다. 지금의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에 우시산국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신라국에 정복되어 왕과 왕자는 포로가 되고 왕비는 아홉 공주를 데리고 산속으로 피난하였다. 왕비는 아홉 공주를 데리고 산 속을 헤매다가 이곳에 당도하였다.

왕비와 아홉 공주는 신분을 숨기고 평민으로 가장하여 농사꾼으로 품 팔이를 하면서 겨우 보리죽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신라의 병사들은 이곳 까지 와서 왕비와 공주를 찾고 있었다.

이곳도 거칠산국이라는 작은 왕국이었지만 역시 신라국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왕비와 공주들을 알아보고 보호하여 줄 곳은 못되었던 것이다. 왕비와 공주들은 냉마옷을 입고 농사꾼 노릇도 하였지만 먹을 것이 없어 결식도 하면서 움막집에서 살았다.

너무 가난하여 아홉 공주는 입을 옷이 없어 옷 한 벌로 나들이 할 때마다 번갈아 입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왕과 왕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생사를 알고 싶어 날마다 황철령 고개 넘어 그 북쪽을 살피면서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왕비는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몸에 익지 못한 농사꾼 일에 지쳐 끝내 병을 얻어 숨을 거두었다. 아홉 공주는 어머니를 임종하면서 슬피 울 뿐 어쩔 줄을 몰랐다. 아홉 공주는 정신을 차려 어머니의 시신을 마당에 묻었다. 그리고는 제각기 이웃마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해마다 철쭉꽃이 붉게 필 무렵의 달 밝은 보름날이면 아홉 공주가 이곳에서 만났다. 이곳에서 만난 아홉 공주는 왕비였던 어머니의 무덤을 왕릉답게 큰 봉릉으로 만들려고 치마폭에 흙을 담아 봉분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각자가 장만하여 온 화전과 음식을 차려놓고, 제문을 지어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였다.

해마다 이처럼 치마폭에 담은 흙으로 쌓은 봉분은 세월이 갈수록 큰 봉분이 되어 왕릉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아홉 공주의 변함없는 효심과 자매간의 깊은 우애가 알려져 아홉 공주가 살고 있던 아홉 마을의 부녀들도 그날이 되면 모두 이곳 무덤에 모여서 아홉 공주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리며 축제를 하게 되었다.

부녀자들은 이곳에 모여 아홉 공주의 효성과 우애를 기리는 작문도 하고 작시도 하고 시집살이의 고달픈 사연도 함께 호소하면서 이웃끼리 정

도 두텁게 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풍습은 이곳 이웃마을에서 천오백년이나 끊임없이 이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불과 몇 십년 전까지만 하여도 해마다 음력 3월 15일이 되면 인근 마을 아녀자들이 이곳에 모여 화전놀이를 벌이고 즐겁게 놀면서 시집살이의 고된 일과 기쁜 일을 작문하여 낭송도 하고 시상도 하였다.

계를 모아 그 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였다고 하며 그 당시의 계장부와 작문집도 시집간 어느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좋은 풍습이 계승되지 못하고 전설로만 남게 된 것이 정말 아쉽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0~311쪽.

[장안읍 설화13]

### 판곡마을의 여수바우

장안읍 오리에 딸린 판곡마을 뒷산에 여수바우가 있다. 이 골짜기를 여수더미라고 한다. 옛날 여수바우 밑에 천년 묵은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둔갑을 잘 하는 매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산길에서 둔갑을 하여 흘러서는 간을 파먹고, 무덤을 파헤쳐서 송장을 뜯어 먹기도 하였다.

인근 마을 장정들과 합세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대창과 몽둥이를 들고 여수더미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매구는 그 틈을 타서 텅빈 마을에서 닭을 모두 잡아먹고서는 마을사람으로 변신하여 대창을 들고 따라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힘 센 장사를 데려와서 천년 묵은 여우를 퇴치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장사는 환도를 들고 여수더미로 올라갔다. 매구는 늙은 할망구로 변신하여 산길에 쓰러져 곧 죽는 시늉을 하였다. 장사는 마을에 살고 있는 노파인줄 알고 등에 얹고 마을로 급히 내려오는데 매구는 그 사이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두 눈을 찢러 버렸다. 장사는 비명을 지르면서 앞을 보지 못해 이 산 저 산을 헤매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어느 달 밝은 밤 주막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 젊은 남자를 멀리서 바라보던 여우는 곧 예쁜 처녀로 둔갑하여 접근하였다. 젊은 남자의 몸에서 술 냄새를 맡은 매구는 각각 소리를 지르면서 늙은 여우가 되어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매구가 술 냄새를 맡으면 매구가 되지 못한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 잔치를 벌여 모두 거나하게 술에 취하여 술통을 가지고 여수더미와 마을에 술을 뿌리고 여수바우에는 술통을 놓아두었다. 매구는 술 냄새 때문에 변신을 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다고 한다.<sup>39)</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1~312쪽.

[장안읍 설화14]

### 개천마을의 굴바위

장안읍 오리 개천마을 뒷산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고 이 바위 아래에 큰 굴이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모두 산 속으로 피난을 하였는데, 경주에 살던 해주 오씨들이 어느 백발노인의 안내로 이곳 굴에서 피난을 하게 되었다.

깊은 산속인지라 밤중에는 길을 잃고 해매는 곳이었는데 그 백발노인이 이 바위를 세워주었다. 신기하게도 밤이 되면 이 바위에서 푸른빛을 발하여 쉽게 이곳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 후부터 이 바위는 나라에 큰 변란이 생기거나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 때는 빛을 발하여 미리 알려주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변란을 면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보름날이면 제수를 차려서 백발노인의 은혜를 기리고, 제를 지내고 있다.<sup>40)</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2~313쪽.

39)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3쪽에 수록, 「여우바위」.

40)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4쪽에 수록, 「개천마을의 굴 바위」.

[장안읍 설화15]

### 임랑리의 굴바위

장안읍 임랑리에서 북쪽 500미터 지점에 굴바위가 있다. 옛날 이 굴바위에 집채보다 큰 호랑이가 살고 있으면서 인근 마을의 사람이나 가축을 덮쳐 그 피해가 막심하여 주민들은 낮에도 밖에 다니기를 두려워하였다.

사냥꾼들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그 종적을 감추는 날썰 호랑이를 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냥꾼들이 호랑이에게 희생되었다.

인근 주민들은 의논 끝에 호랑이 먹이로써 늙은 개 몇 마리를 바위굴에 가져가서 먹이로 제공하였다. 그후로는 호랑이는 사람이나 닭 돼지 등 일반 가축을 덮치는 일은 없어졌다고 한다.

그후 이곳에서 절을 세워 호랑이 먹이로 희생된 개의 넋을 천도하였고, 지금은 그 자리에 용두사라는 절을 세우고, 매년 석가탄신일에 천도제를 열고 있다.<sup>41)</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4쪽.

[장안읍 설화16]

### 용소리의 용소

장안면 용소리에 있다. 기장읍지에 “용두대는 기장군에서 북(北)녘 30리에 있다. 산봉우리가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천석이 기려하다. 신룡이 화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까닭으로 용두대라 이름 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신룡이 등천하였다는 전설은 곳곳에 허다히 많지마는 기장현에서는 유일하게 폭포에서 용이 신룡이 되어 등천하였다는 전설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곳 마을 이름도 용못이라 하여 용소리(龍紹里)라 하고 있다.

옛날 명주꾸리 하나를 다 풀어도 그 깊이가 남았다고 하나, 차차 매몰되어 지금은 그렇게 깊고 크지는 않으나 주변의 계곡과 산의 풍치가 좋고

---

41)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2. 904쪽에 수록, 「임랑리의 굴 바위」.



천석(泉石)이 좋아 조용한 놀이터를 찾는 분들에게는 여름 한철 구경할 만한 곳이다. 용이 승천시에 지나간 산골을 용등골(龍登谷)이라 하고 있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3쪽.

[장안읍 설화17]

### 두명리의 용천산

두명리의 동쪽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 용천산이다. 이 산은 갑자기 치솟아 올랐다 하여 솟음피라 하였다.

옛날에 두명리는 넓은 평지로서 논과 밭이 많고 물이 좋아 부자 고을이었다. 세 사람의 부자는 머슴과 종을 많이 거느리고 넓은 평지를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헐뜯고 하였다. 그러자니 머슴과 종들도 세 패로 갈라져 서로 마주치면 떡살을 잡고 싸웠다.

이러던 어느 날 밤에 땅 밑에서 우르렁 소리가 들리고 땅이 흔들거렸다. 새벽이 되어보니 밤새 높은 산이 치솟아 있고 산에 누런 금덩어리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밝은 아침 햇살은 금덩어리에 반사되어 황금산처럼 보였다.

이것을 본 세 사람의 부자들은 하인들을 시켜 금덩어리를 주워 모았다. 황금에 눈이 어두워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소문이 퍼져 인근 마을사람들도 달려와서 흙을 파고 돌을 파고 마구 파헤쳐서 황금산은 벌집처럼 구멍이 생겨 흉하게 변하였다.

그러자 황금빛은 사라지고 황금덩어리도 모두 돌맹이로 변하고 말았다고 한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6쪽.

[장안읍 설화18]

### 덕산마을의 소도대(烏島臺)

정관면 덕산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정관청 냇물 한가운데에 3층으로 된 큰 바위가 깊은 물속에서 우뚝 솟아있어 그 높이는 5미터 정도이고, 직경은 6미터정도로서 기이하게 보였다.

냇물은 이곳에서 큰 폭으로 굽이치면서 큰 소(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늪을 가마소라고 한다. 여름철 큰 비에 하천이 범람할 때는 오도대 바위의 위쪽머리가 까마귀 머리만큼 보인다 하여 오도대라 하였다고 한다.

옛부터 이곳은 주변의 경치가 좋아서 시인묵객들이 오도대의 넓은 대사에서 주연을 베풀고 놀았다고 한다. 근년에 와서는 가마소의 깊이도 사리가 쌓여 많이 매몰되어 물이 얕아져서 볼품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도 휴일이면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옛날 몹시 추운 겨울에 가마를 타고 시집가던 신부가 이곳 깊은 얼음판 위로 지나가다가 가마꾼들과 함께 얼음이 깨져 몰살하였다. 그때부터 비가 오면 까마귀 머리만큼 남은 바윗돌에서 처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곳을 오도대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위에 있던 삼층 큰 바위는 도로공사 때 파손되어 도로에 매몰되고 지금은 그 하단 바위가 남아있을 뿐이고, 또 하천을 정리하여 물이 바로 내려가게 직강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옛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6~317쪽.

[장안읍 설화19]

## 매곡마을의 느티나무

정관면 매곡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5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100년 전 이 나무가 있는 집주인인 해평 김씨가 집에 위험이 되는 이 나무를 베어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씨의 꿈에 목신이 나타나서 나는 느티나무의 목신인데 나무를 베어 버리지 말고 잘 보호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런데도 김씨는 인부를 시켜 톱질과 도끼질을 시작하였더니 고목에서 울음소리와 음산한 바람이 불며 집 뒤에 있는 대나무 밑에서 붉은 물이

피처럼 흘러나오는 등 변괴가 생김으로 인부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쳤다. 지금도 나뭇가지가 고사되어 있어도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7~318쪽.

[장안읍 설화20]

### 덕전마을의 탐골사

정관면 덕전마을 뒤에 석탑사가 있는곳을 탐골이라 한다.

옛날 큰 절이 있었으나 절은 소실되고 석탑만 남아 있다 하여 그 이름이 생겼다. 신라시대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이곳에 와보니 달음산 기슭으로 동해가 훤히 보이고 일출경이 장관이었다. 새벽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비추는 곳을 찾아 갔더니 그곳에서 미륵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림으로 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웠다고 한다. 또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았으나 물이 없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예쁜 아가씨로 화신하여 쪽박에 물을 떠서 주는 것을 마시고는 심신이 맑아지고 물맛이 좋아서 감로수라 하였다고 한다.

최근에 이곳에 큰 절을 세워 탐골사라 하고 있다. 서기 1986년 7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대웅전을 중건하고 있는데 동해바다에서 큰 무지개가 일어나서 무너진 탑 중심 부분을 비추었다. 신기하게 생각되어 그곳을 보니 산미역초라는 풀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이 풀을 캐기 위해 땅을 파보았더니 뜻밖에도 썩은 나무상자가 있기에 열어보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소장되어 있었다. 이 진신사리를 모시는 성대한 봉축제를 올리고 탐골사에서 모시고 있다고 한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8쪽.

[장안읍 설화21]

## 병산리의 베틀바위

정관면 병산리에 있는 마을 뒷산은 동쪽은 큰 덩괴가 있고 북쪽은 연지봉이 있어 그 사이에 금동(錦洞)이라는 비단골이 있다. 이 깊은 계곡은 잡목과 송목이 무성하여 인적이 없는 곳이다.

이 금동(錦洞)계곡 상류(上流)에 있는 계곡 옆에 베틀바위가 있고 이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개보가 있다. 베틀바위는 20척이 넘는 큰 바위가 두 개 직립(直立)하여 있고 그 직립(直立)된 두 바위 상부(上部)에는 또 큰 바위가 실개암(屋蓋石)으로 덮여 있고 그 내부(內部)는 수십 명을 수용(收用)할 수 있는 동굴이 되어 있다. 조개보는 황폐된 전답(田畓)이 있고 그 계곡에 보가 있던 흔적이 있다.

선조 25년(1592년) 4월 말경, 임진왜란으로 인근 마을은 모두 피란하였고, 이 금동(錦洞) 아래에 있는 병산마을에도 적병들이 침입하여 분탕질을 하였기 때문에 마을도 없어졌다. 마을사람들은 제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갈 데가 없는 조가(趙哥) 총각과 구가(具哥) 처녀가 이곳에 피난을 하였다. 이들은 베틀바위 동굴에서 숨어 살다가 서로 정이 들어 부부가 되었다.

정유재란이 끝나는 칠(七)년의 긴 세월을 이곳에서 피난하면서 남편은 전답을 개간하고 수벌(水泐)을 만들어 농사를 짓고, 아내는 동굴에 베틀을 놓고 베를 짜며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보를 남편 성(姓)을 따서 조가벌(趙哥泐)이라 하였고 이 동굴을 베틀바위라 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의 실화인 것 같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8~319쪽.

[장안읍 설화22]

## 금수동의 명필

때는 신라 초기, 어느 한 가정에 늦게까지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갖은 정성을 다 들인 끝에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골격이 장대하고 안광은 빛났다. 그뿐 아니라 양쪽 겨드랑이에 작지만 날개 형태가 뚜렷이 형성되어 있었다. 두 부부는 말없이 마주보며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느꼈다. 이런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어느덧 일곱 칠일(49일)이 지났다. 아기는 그야말로 물외(오이) 크듯 빠른 속도로 무럭무럭 자랐다. 걸음마도 제법이고 겨드랑이 날개 흔적도 완연하게 알아볼 정도로 자랐다. 차일피일 머뭇거리기만 하는 동안 아기는 점점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더 지체할 수가 없어 부부는 결심했다.

아기의 운명은 하늘에 맡기기로 하고 야밤에 도망을 쳤다. 애기와 셋이 밤으로 남의 눈에 뜨일까 경계하면서 여러 날만에 어느 한 곳에 닿았다. 숲은 우거지고 냇물은 맑고 인적도 없는 무인지경인데 냇가에 평평한 큰 바위가 있었다. 부부는 아기를 바위 위에 한 자락 이불과 함께 버려두고 그야말로 운명은 하늘에 맡긴 채 쓰라린 가슴을 눈물로 달래며 그곳을 피해 정신없이 떨어져 갔다.

홀로 버려진 아기는 누가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 하늘의 조화였을까? 무럭무럭 자라나서 현현(軒軒) 장부가 되어 무예도 출중한데 겨드랑이의 날개는 점점 자라 웬만큼 높은 곳에도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아기가 아닌 힘세고 날쎈 장수가 된 것이다. 이때는 불광산 골짜기뿐 아니라 주변 일대가 무인지경이었고, 장안사가 창건되기 7백여 년 전의 일이다. 장수는 매일같이 심신을 단련하고 무예도 익혀, 이제는 남대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현재는 비둘기바위라 하며 삼존불(三尊佛)까지 거뜬히 날아올랐다, 뛰어내렸다 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인간은 누구나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인가? 장수도 이제 이곳에 머무를 의미가 없어졌는지 어느 날 그는 그동안 정 들었던 이곳을 떠나면서 ‘금수동’이라는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갈기고는 정처없이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만약 전해오는 전설이 사실이라면 2천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듯 유려(流麗)하고 뚜렷한 글자가 놀랍고도 신기할 따름이다.

\*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5~906쪽.

[장안읍 설화23]

### 청룡등 절단에 얽힌 전설

장안사는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는데, 초기에는 쌍계사라 하다가 신라 애장왕께서 다녀가신(809년) 후부터 장안사라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처음 창건된 건물은 임진왜란(1592~1599) 때 소실되고, 1658년 원정(元正)스님에 의하여 재건되어 여러 번의 중수(重修)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장안사는 애장왕이 다녀간 후부터 찾아드는 방문객은 물론 치성 드리고 재 올리는 청탁이 날로 늘어나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따라서 식당을 담당하는 부중 취사 전담 말석 스님들은 너무나 바빠 허리 한 번 펼 사이도 없이 종일 식사 뒷바라지에 시달려야 했다. 피곤이 쌓여 몸은 매일 지쳐 있었고 밥 지을 쌀나무도 산에서 채취해 와야 했다.

밥 짓고 반찬 만들고, 그릇 씻고, 그야말로 한시 반시도 쉴 틈이 없으니 몸은 파김치가 되어 손가락 하나도 꿈쩍하기가 싫을 지경이었다. 짜증이 절로 나왔다.

“이놈의 절이 언제쯤이나 망할꼬?”

탄식조로 나오는 녀두리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과객이 늦게야 찾아들어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부중들의 녀두리를 들던 과객이 말했다.

“절을 망하게 할 방책이 한 가지 있기는 한데, 그대들이 과연 그 일을 해 낼 수 있을지?”

은근히 부중들을 충동질하였다. 그러나 부중들은 귀가 번쩍 띄었다. 그들은 정색을 하고 다그쳐 물었다.

“정말로 방책이 있거나 합니까?”

힘없던 눈망울들이 번쩍 빛이 났다.

“어서 좀 일러 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짓인들 못 하겠소.”

부중들의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제야 과객이 방책을 일러주었다. 그것은 바로 절 앞을 감싸고 흐르는 청룡골 개천 물 때문이다. 청룡등(靑龍嶺) 끝자락 잘룩한 부분을 절단하여 똑바로 직선으로 흐르게 하라. 그러면 절은 자연적으로 쇠퇴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청룡등 잘룩한 부분이 비록 가늘기는 하나 장비라고는 썩이와 삽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여간 거창한 공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중들로서는 워낙 시달려왔기에 그런 저런 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당장 그 다음날 밤부터 일에 착수하여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진행시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달 밝은 날 밤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였다. 절단 부위에서 시뻘건 피가 터져 나오더니 이어서 황금송아지가 뛰어나와 슬픈 울음을 세 번 울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서였다. 절로 찾아드는 손님이 하나 둘씩 줄어들더니 마침내 손님의 발걸음이 완전히 끊어지고, 절은 망해버렸다는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 가서 전설을 상기하면서 살펴보면 확실히 인위적으로 절단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만약 절단 부분을 원래대로 살려서 그 냇물을 절 앞을 감돌아 흐르게 하였다면 정말 명지 중에 명당자리 절터가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곳이다.

\*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6~907쪽.

[장안읍 설화24]

## 여근바위

상장안에서 장안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면 왼쪽에 금수동계곡을 내려오는 장안천이 있다. 상장안의 ‘도예향’에서 보면 장안천 건너편에 ‘산중

정원'이 있는데, 산중정원 축대 밑에 하천과 맞물려 삐죽하게 나온 바위가 있다. 지금은 많이 문혀버려서 일부분만 보이지만 돌의 형상이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고 해서 '여근바위'라고 불렀다.

바위 중앙에 항상 물이 고여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여기에 돌을 던져 넣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전해져 왔다. 요즘에는 아들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아직은 아들을 원하는 가정이 많은 것 같다.

깊은 곳에서 물이 샘솟는데 그 물의 신비로움은 옷나무에 옷이 옹은 사람이 피부에 바르면 특효가 있다고 한다.

\*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동 편찬위원회, 2008. 2. 908쪽.



## 4. 정관면 설화

[정관면 설화1]

### 반월성(半月城)의 전설(傳說)

정관면 월평리 근처에 신라시대의 토성으로 보이는 반월성이 있다. 삼국시대 초기 이곳은 갑화랑국이라 하여 동래(부산)의 대중현과 더불어 거칠산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자주 있게 되었다.

신라의 탈해이사금왕 때 신라의 거도장군(居道將軍)은 간(干)으로써 이곳 변경을 정벌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성주(城主)는 오히려 선수를 쳐서 신라를 정벌할 계획을 하였다. 그리하여 근처에 있는 진계등(陳界嶺)에서 맹렬한 군사 훈련을 시키고, 병마를 모집하여 군세를 증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성주에게는 신통술을 부리는 여동생이 있었다.

신단(神壇)을 차려놓고 주문을 외면서 신병(神兵)이 나타나고, 병법에도 달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술에도 능하여 앞날을 훤히 알고 있었다. 성주는 전쟁 준비를 끝내고 곧 정벌군을 출동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여동생은 성주에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니 성 뒤에 있는 대밭에 동이(桶)만한 죽순(竹筍)이 올라오거든 출병하라.”고 극구 만류를 하였다.

그러나 성주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출전하는 대출병이 요사스러운 점술로써 군사의 사기를 떨어지게 한다고 격노하여 신단을 때려 부셔버렸다. 그러자 여동생은 비명을 지르면서 혼절하여 그대로 죽어버렸다.

성주는 그대로 출전하여 신라군과 싸웠으나 여동생의 예언대로 패전하여 나라는 정복되고 말았다. 과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대밭에 동이만큼 큰 죽순이 솟아 올라왔다고 전하여 오고 있다.

이 전설은 필자가 삼국사기 거도전에 맞추어서 약간의 윤색을 가하였다. 이 지방에 고대에는 한 부족이 나라를 세워 성읍국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중요한 설화로 짐작된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227~228쪽.

[정관면 설화2]

## 송씨집 글공부 이야기

1735(영조 11, 을묘)에 정관면 달산리에 송일곤(宋一坤)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릴적부터 마음이 어질고 착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와 일가 간에 우애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추호도 거짓말하는 일이 없으니 마을사람들이 모두 칭찬했다 한다.

집이 구차하여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데 일 년 새경을 받으면 쌀 열 되만 남기고 모두 다 부모에게 올렸다. 남긴 쌀 열 되는 자기 방(머슴방)에 두고 자기에게 오는 손님에게는 안주인에게 자기 쌀을 주어 대접을 했고, 일하다가도 책장사가 지나가면 꼭 책을 사서 머슴방 실근에 달아 두고 하루 세 번씩 그 줄을 흔들었다 한다. 사람들이 왜 그리 하느냐고 물으면 자주 흔들어야 쭈미 붙지 않는다고 하며 나도 성인이 되어 아들자식을 낳으면 글공부 시켜서 과거 보게 한다고 말했다. 과연 성인이 되어 관수(觀洙)란 아들을 낳았다.

차차 살림도 늘어 옛날에는 옥작골(玉作谷)이요 지금에는 부흥골(復興谷)인 여기에 권처사(權處士)와 최진사(崔進士) 두 동래 어른에게 물어서 서당(書堂)을 짓고 글공부를 시켰다.

권, 최 두 어른이 선생이 되어 글을 가르치는데 또 부자간에도 약속을 했다. 너는 글공부만 하고 나는 너의 밥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된다 하고 샷갓(笠) 한 닢과 띠우장 한 개를 사서 기둥 막대에 걸어 두고 비 오는 날 밥 가져다주는 데만 썼다 한다. 그렇게 하여 아들 관수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름이 사방에 전파되니 이웃 동래에서 이 서당으로 글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며 뒷날 훌륭한 선비가 되었다 한다.

관수는 나이 25세, 서기 1782(正祖6: 壬寅)에 장안사 척판암에서 독공부(獨工夫)를 몇 해 동안 작정하고 공부를 하는데 3년 후인 정조 8년 갑진(甲辰)에 처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니 죽은 사람은 죽었고 너는 공부만 할 일이지 왜 왔느냐는 꾸중만 들었다. 밤 척판암으로 돌아온 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였다 한다.

항상 아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사람은 삼체에 망하니 삼체를 조심하라 하였고, 이 삼체는 없는 사람이 있는 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 못한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또 글을 쓸 종이가 없다고 하면 돈이 없을 때는 심지어 자기의 갓(冠)을 잡히고 종이를 사주었다 한다. 그러므로 관수는 학문을 잘하는 선비가 되어 기장 지방에서 이름을 떨쳤다 한다.

\* 양산군 문화공보실 편, 『내 고장 傳說』, 양산군, 1983. 8. 187~188쪽.

[정관면 설화3]

### 장군대와 진계등

옛날 달음산 동쪽기슭에 선 살이 넘은 이씨 부부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달 밝은 밤이면 장사바우에 정화수를 받쳐놓고 신령님께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이씨 부인은 잉태하여 만삭이 되어 사내아이를 낳았다.

갓난 애기는 태어나자 이레만에 말을 하면서 일곱 살이 되자 9척 장신이 되어 장수바우를 두 손으로 번쩍 들었다. 손으로 바위를 눌러서 손자국이 생기고, 맨발로 밭자국이 생겼다. 장사바위골에서 애기장사가 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적군의 첩자들이 애기장사를 해치려고 하였다.

애기장사는 자객을 피해 뒷산 넘어 치마산 등성이에 있는 운장대 아래에 숨었다. 운장대는 낙낙절벽으로 층암이 중첩하여 구름 속에 잠겨 있어 운장대라 하는데 운장대에서 동해의 수평선에 대마도가 보이고 북쪽의 산야가 훤히 바라보여 천작의 신비에 쌓인 절경으로 숨어 살기에 좋았다. 산기슭의 계곡을 끼고 기다랗게 둔덕이 뻗어 있는 진계등은 말을 타고 달리는 말놀이에 적합하였다. 장사가 나면 명마가 난다는 말처럼 치마산에서 천마가 장군대에 나타났다. 애기장사는 이 천마를 타고 진계등을 비호처럼 달리며 말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이 무렵 진계등의 텃골에 고씨 댁 따님이 자라고 있었는데, 태어나자 이레만에 큰방대들보에 매달려서 놀기도 하고, 대문을 넘기도 하고 일곱 살이 되자 뒤뜰 대밭에서 왕대를 휘어잡고 대밭 위를 날기도 하였다. 또 땃잎을 한 움큼 따서 입김으로 불면 땃잎이 신병이 되어 아가씨를 호위

하였다.

어린 이장사와 고씨 아씨는 진계등에서 의중계 놀면서 힘과 기를 겨루기도 하면서 성장하자 부부가 되었다. 장사 부부는 변경의 적병들이 노략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큰 고개 너머에 흙으로 작은 성을 쌓았다. 장사 부부의 풍문이 퍼지자 고을 젊은 장정들은 너도나도 반월성에 모여 왔다. 장사 부부는 장정들을 조련하여 군사로 삼고 장수가 되었다. 적병들은 장토야 벌판에서 말놀이나 하면서 놀고 있을 뿐 전혀 침공할 기색이 없었다. 그러자 이장수는 할일 없이 술이나 마시면서 놀았다.

어느 날 이장수는 술에 만취하여 천마를 타고 반월성에서 진계등까지 달려서는 운장대 큰 바위를 겨냥하여 활을 쏘고 천마로 달렸다. 운장대에 달려와 보니 화살이 보이지 않았다. 이장수는 천마가 화살보다 늦게 달려왔다고 분개하여 단칼에 천마를 베었다. 그때서야 화살이 바위에 꽂히는 것을 본 이장수는 억울하게 죽은 천마를 화장하여 잿들(灰坪)에 뿌려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적병들은 장수 없는 반월성을 급습하여 점령하였다. 이장수는 반월성을 탈출한 군사들을 모아 진퇴고개에서 진을 치고(鎭退嶺) 대치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진계등까지 후퇴하였다.

이장수는 진계등(陣界嶺)을 경계로 하여 천마산 쪽에 진영을 갖추고 적병은 진계등의 서쪽에 포진하였다. 적병의 장수는 신라의 거도장군이였다. 그는 지략이 뛰어난 장수였다.

이장수의 군사는 말이 없는 보병이고 신라의 거도장군은 기마병들이였다. 이장수의 부인 고씨는 만삭이 되어 댕잇으로 신병을 부리는 신통력이 없어졌지만 신라의 기마병은 숲이 무성할 여름에는 기동력이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장수에게 집 뒤에 있는 왕대밭에서 동이(桶)만큼 큰 죽순이 솟아 날 때까지 지구전을 펴는 것이 상책이라고 일렀다.

적의 거도장군은 마술놀이를 잘하는 군사를 뽑아서 말등 뒤에 달라붙게 하여 달리게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이장수는 군졸들에게 달려오는 빈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다. 군졸들은 활과 창을 놓아둔 채 새끼줄을 들고 빈말을 잡으려고 뛰어나갔다. 이를 노리고 있던 신라의 거도장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이장수의 어지러운 진영을 여지없이 쇠살하였다. 천하의 이장수도 온몸에 화살을 맞고 고슴도치처럼 되어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한편, 남편의 전사소식을 듣고 고씨 부인은 진계등을 빠져나와 운장대 큰 바위틈에 올라가서 순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름 속에 높이 솟아 있는 운장대(雲壯臺)의 층암까지 추격한 적병들에게 발각된 고씨 부인은 막 출산한 애기를 안고, 땃줄을 움켜잡고 피를 흘리면서 피신하였으나 비 오듯 날아오는 화살에 맞고 애기와 함께 죽었다. 지금도 그 땃줄이 길게 화석이 되어 있고, 핏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어 그 옛날의 처절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장수가 어릴 때 놀았던 바위를 장사바위라고 하게 되었고, 치마산에서 천마가 나타났다가 하여 치마산을 천마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운장대를 장군대라 부르게 되었고, 천마를 화장하여 그 재를 뿌린 곳을 잿들이라 하게 되었고, 고씨 댁이 있던 곳을 텃골이라 하여 근처에 지금도 왕대가 자생하고 있다.

적군과 아군의 진영(陣營) 사이에 그 경계(境界)를 이루었던 둔덕이라 하여 진계등(陣界嶺)이라 하였다. 이장수가 쌓은 성은 언덕배기를 이용하여 반달처럼 토성을 쌓았으므로 아반월성(阿半月城)이라 하였고, 성이 있는 마을은 아월(阿月)이라 약칭하였는데 지금의 월평리에 있다. 반월성에서 고개 넘어(嶺)에 진(陳)을 후퇴(後退)한 고개를 진퇴령(陳退嶺)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진계등은 진개울 등성이라는 이곳 방언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인데 이는 긴개울 등성이[長溪川嶺]가 된다.<sup>42)</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4~316쪽.

[정관면 설화4]

### 두명리의 송천산

두명리의 동쪽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 송천산이다. 이 산은 갑자기 치솟아 올랐다 하여 솟음피라 하였다.

옛날에 두명리는 넓은 평지로서 논과 밭이 많고 물이 좋아 부자고을이

42)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57~459쪽에 수록, 「장군대와 진계등」.

었다. 세 사람의 부자는 머슴과 종을 많이 거느리고 넓은 평지를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혈뜬고 하였다. 그러자니 머슴과 종들도 세 패로 갈라져 서로 마주치면 멱살을 잡고 싸웠다.

이러던 어느 날 밤에 땅 밑에서 우르렁 소리가 들리고 땅이 흔들거렸다. 새벽이 되어보니 밤새 높은 산이 치솟아 있고 산에 누린 금덩어리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밝은 아침 햇살은 금덩어리에 반사되어 황금산처럼 보였다. 이것을 본 세 사람의 부자들은 하인들을 시켜 금덩어리를 주워 모았다.

황금에 눈이 어두워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소문이 퍼져 인근 마을사람들도 달려와서 흙을 파고 돌을 파고 마구 파헤쳐서 황금산은 벌집처럼 구멍이 생겨 흉하게 변하였다. 그러자 황금빛은 사라지고 황금덩어리도 모두 돌맹이로 변하고 말았다고 한다.<sup>43)</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6쪽.

[정관면 설화5]

### 덕산마을의 오도대(烏島臺)

정관면 덕산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정관천 냇물 한가운데에 3층으로 된 큰 바위가 깊은 물속에서 우뚝 솟아 있어 그 높이는 5미터 정도이고, 직경은 6미터 정도로서 기이하게 보였다. 냇물은 이곳에서 큰 폭으로 굽이치면서 큰 소(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늪을 가마소라고 한다. 여름철 큰비에 하천이 범람할 때는 오도대 바위의 위쪽머리가 까마귀 머리만큼 보인다 하여 오도대라 하였다고 한다.

예로부터 이곳은 주변의 경치가 좋아서 시인묵객들이 오도대의 넓적한 대상에서 주연을 베풀고 놀았다고 한다. 근년에 와서는 가마소의 깊이도 사리가 쌓여 많이 매몰되어 물이 얕아져서 볼품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도 휴일이면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옛날 몹시 추운 겨울에 가마를 타고 시집가던 신부가 이곳 깊은 얼음

43)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63쪽에 수록, 「두명리의 용천산」.

판 위로 지나가다가 가마꾼들과 함께 얼음이 깨져 몰살하였다. 그때부터 비가 오면 까마귀 머리만큼 남은 바윗돌에서 처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곳을 오도대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위에 있던 삼층 큰 바위는 도로공사 때 파손되어 도로에 매몰되었고 지금은 그 하단 바위가 남아있을 뿐이고, 또 하천을 정리하여 물이 바로 내려가게 직강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옛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sup>44)</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4~316쪽.

[정관면 설화6]

### 매곡마을의 느티나무

정관면 매곡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5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100년 전 이 나무가 있는 집주인인 해평 김씨가 집에 위험이 되는 이 나무를 베어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씨의 꿈에 목신이 나타나서 나는 느티나무의 목신인데 나무를 베어 버리지 말고 잘 보호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런데도 김씨는 인부를 시켜 톱질과 도끼질을 시작하였더니 고목에서 울음소리와 음산한 바람이 불며 집 뒤에 있는 대나무 밑에서 붉은 물이 피처럼 흘러나오는 등 변괴가 생김으로 인부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쳤다.

지금도 나뭇가지가 고사되어 있어도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7~318쪽.

[정관면 설화7]

### 덕전마을의 탑골사

44)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67~468쪽에 수록, 「덕산 마을의 오도대(烏島臺)」.

정관면 덕전마을 뒤에 석탑사가 있는 곳을 탑골이라 한다. 옛날 큰 절이 있었으나 절은 소실되고 석탑만 남아 있다 하여 그 이름이 생겼다.

신라시대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이곳에 와보니 달음산 기슭으로 동해가 훤히 보이고 일출경이 장관이었다. 새벽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비추는 곳을 찾아 갔더니 그곳에서 미륵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림으로 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웠다고 한다.

또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았으나 물이 없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예쁜 아가씨로 화신하여 쪽박에 물을 떠서 주는 것을 마시고는 심신이 맑아지고 물맛이 좋아서 감로수라 하였다고 한다.

최근에 이곳에 큰절을 세워 탑골사라 하고 있다. 1986년 7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대웅전을 중건하고 있는데 동해바다에서 큰 무지개가 일어나서 무너진 탑 중심 부분을 비추었다. 신기하게 생각되어 그곳을 보니 산미역초라는 풀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이 풀을 캐기 위해 땅을 파보았더니 뜻밖에도 썩은 나무상자가 있기에 열어보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소장되어 있었다. 이 진신사리를 모시는 성대한 봉축제를 올리고 탑골사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8쪽.

[정관면 설화8]

## 병산리의 베틀바위

정관면 병산리에 있는 마을 뒷산은 동쪽은 큰 덩괴가 있고 북쪽은 연지봉이 있어 그 사이에 금동(錦洞)이라는 비단골이 있다. 이 깊은 계곡은 잡목과 송목이 무성하여 인적이 없는 곳이다.

이 금동계곡 상류에 있는 계곡 옆에 베틀바위가 있고 이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개보가 있다. 베틀바위는 20척이 넘는 큰 바위가 두 개 직립(直立)하여 있고, 그 직립(直立)된 두 바위 상부(上部)에는 또 큰 바위가



옥개석(屋蓋石)으로 덮여 있고, 그 내부(內部)는 수십 명을 수용(收用)할 수 있는 동굴이 되어 있다. 조개보는 황폐된 전답(田畝)이 있고 그 계곡에 보가 있던 흔적이 있다.

1592년(선조 25) 4월 말경, 임진왜란으로 인근마을은 모두 피란하였고, 이 금동(錦洞) 아래에 있는 병산 마을에도 적병들은 침입하여 분탕질을 하였기 때문에 마을도 없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제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갈 데가 없는 조가(趙哥) 총각과 구가(具哥) 처녀가 이곳에 피란을 하였다. 이들은 벼들바위 동굴에서 숨어 살다가 서로 정이 들어 부부가 되었다.

정유재란이 끝나는 칠(七)년의 긴 세월을 이곳에서 피란하면서 남편은 전답을 개간하고 수보(水洑)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아내는 동굴에 벼들을 놓고 베를 짜며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보를 남편 성(姓)을 따서 조가보(趙哥洑)라 하였고 이 동굴을 벼들바위라 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의 실화인 것 같다.<sup>45)</sup>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8~319쪽.

[정관면 설화9]

### 속녀(玉女)와 선비의 사랑

옛날 물래(勿來)라는 젊은 선비가 고향인 충청도를 떠나 영남에서 제일 명당에다 경치까지 좋다는 정관면 제석천 옆 산에다 막을 치고서 역학공부를 하고 있었다. 선비는 낮에 공부를 하고 또 밭을 일구어 농작물을 심었으며 달 밝은 밤이면 그가 좋아하는 통소를 갖고 병산으로 올라가는 개울가 옆 바위에 앉아 세상사를 탄식하는 슬픈 곡을 울리곤 하였다.

어느 달 밝은 밤 선비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작은 폭포를 이루는 바위에 올라 앉아 통소를 불고 있었다. 가냘프고 구슬프게 구곡간장이 녹아나듯 산중의 적막을 깨뜨리면서 흘러가는 통소 소리는 졸고 있는 못 새들과 동물들 그리고 강 속의 고기떼가 모두 슬픔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45)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66~467쪽에 수록, 「병산리의 벼들바위」.

달 밝은 밤이면 빠짐없이 인간 세상에서 천상으로 올려 퍼지는 이 통소소리를 듣던 하늘의 옥녀는 옥황상제의 허락을 받고서 이날 밤 하계하여 제석천 옆에 이르렀다. 지긋이 눈을 감고 꺼질 듯 이어질 듯 탄식하듯 옥이 굴러가듯이 통소를 불고 있던 선비는 개울가 옆에 섰는 옥녀를 뒤늦게 보게 되었다. 잠깐 소리를 멈춘 그는 건너 개울가 옆에 섰는 옥녀가 하늘의 선녀임을 직감하고서 운을 띄운다.

“천상의 옥녀가 제석천에 서니 물고기가 떼지어 예를 올리네. 만약 옥황상제의 노여움이 없다면 그대와 함께 이 밤을 즐겁게 보내고 싶건만…….”

그러자 옥녀 또한 화답하였다.

“인간 세상 어지럽다 하여 올라 말까 망설였으나 내 마음 앓아간 통소소리의 임자를 어찌 만나지 않으리오.”

이렇게 하여 이들은 밤새껏 하늘나라의 이야기와 이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밤을 새웠다. 그러면서 옥녀는 아버지 옥황상제와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선비와 함께 산막 안에서 살고 말았다. 이들은 매남바위를 거쳐 달음산까지 놀러 다니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들일을 나간 사이에 옥황상제가 딸을 기다리다 지쳐 하계를 내려다보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옥녀가 오두막 같은 곳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옥황상제는 옥녀에게 지체 없이 하늘로 올라오라는 불호령을 내렸다. 누구의 엄명인데 추호도 망설일 수 없었다. 옥녀는 승천하는 옷을 입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말았다.

한편, 들일을 마치고 막에 돌아와 선비는 옥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며칠을 두고 찾고 또 기다렸으나 끝내 옥녀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아마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으리라는 추측뿐이었다. 기다리다 지친 선비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꿈에라도, 아니 죽어서 저 세상의 하늘로 가 옥녀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마음 먹고서 높고 높은 매남바위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옥녀를 몇 차례 부르다 백 척이나 넘는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옥녀는 날마다 치솟아 오르는 선비에 대한 그리움을 억제하지 못해 옥황상제께 사정사정을 하였다. 하늘로 올라올 때 선비께 하직 인사도 못하고 왔다면서 한 번만 더 인간 세상으로 다녀오겠다고 매달렸다. 가엾은 딸의 청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었던 상제는 “그럼 다녀오너라”고 했

다.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온 선녀는 산막으로 향했다.

그런데 제석천에서 으레히 들려야 할 통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을 갖고 산막에 들어간 옥녀는 그만 실망했다. 선비는 간 곳 없고 ‘이미 하늘로 올라갔으리라는 옥녀의 뒤를 쫓아 매남바위로 간다’는 글귀만 남겨 있었다. 옥녀는 허겁지겁 매남바위로 올라갔다. 바위 위에는 선비의 짚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바위 아래로 내려와 시신을 찾으려 했으나 시신은 없고 수없는 철쭉꽃만 산을 덮고 있었다.

옥녀는 하늘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선비의 혼과 함께 살 것을 다짐하고 제석천 위에 있는 병산리 뒷산 베틀바위 안에서 배를 짜면서 살게 되었다.

한편, 매남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선비는 학이 되어 매남바위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았다. 어느 날 선비학은 베틀바위 앞 계곡에서 먹이를 찾다가 옥녀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옥녀도 학이 선비인 줄 직감할 수 있었다. 선비학은 날이 새면 매남바위를 떠나 옥녀가 있는 베틀바위를 찾아 배를 짜는 옥녀 옆에서 마냥 즐겁게 놀다 저녁이면 둥지로 돌아가곤 했다. 옥황상제는 옥녀가 하계하여 사는 일을 날 날이 보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애처로워 학이 된 선비를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옥녀에게 학과 함께 승천하라고 하였다.

옥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옥녀는 매남바위로 단숨에 달려갔다. 옥녀는 선비학을 타고서 흰 구름이 아름답게 수놓은 산등선을 넘어 유유히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 뒤 세상 사람들은 선비학이 있었던 매남바위를 소학대(巢鶴臺)라 부르고, 학이 흰 구름을 헤치고 승천하던 산을 백운산(白雲山), 그리고 막을 치고 살았던 야산을 산막(山幕)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들이 달음산에 올라 놀았던 왼쪽바위를 옥녀봉(玉女峯), 마주 보고 있는 바위를 물래봉(勿來峯)이라 불렀다고 한다.

\*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59~461쪽.

[정관면 설화10]

### 용천산과 사기검

옛날 지금의 정관면 백운산 기슭에 아월이라는 효성이 지극한 처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릇을 만드는 도공으로서 몇 사람의 인부를 거느리고 있었고 딸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돕고 살았다. 그런데 수 년 전부터 도공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었다. 일 잘하는 인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감쪽같이 실종되고 있는가 하면 만들어 둔 사기그릇이 자꾸 줄어들고 있었다.

인부를 구해다 놓으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지 밤중에 없어지고 만들어 둔 사기그릇이 자꾸만 없어지는 일이 계속되자 아월이는 산신령님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뒷산에 올라가 빌기 시작했다.

산신령께 기도한 백일째 되는 날 밤 꿈에 흰 도복을 한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이 말하기를 “너의 집에 있는 인부는 밤중에 화장실에 갔다 올 때면 이웃 바다 건너에 있는 왜적들이 숨어 있다가 납치해가며, 많은 그릇이 없어지는 것들이 또한 그들의 소행이라”고 일러 줬다. 그래서 아월이는 이에 대한 예방책을 물었다.

산신령은 “너의 집에서 일할 때 나오는 연기를 멀리서 보이지 않게끔 동쪽에 산을 하나 만들고 또 어떤 소리도 멀리 안 들리게끔 해주겠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뒷날 대(大)씨란 총각이 일하려고 찾아오거든 서슴지 말고 신랑으로 맞이하라고 일러 줬다. 잠에서 깨어난 아월이는 이상한 꿈도 있구나 하면서 집안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가는 동안 이상한 일이 생겨났다. 동창이 밝음에 새벽이라 알고 일어났던 자신과 도공들이 자꾸만 늦잠 아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작업시간에도 지장이 있는가 하면 애써 만들어 불에 구워 만드는 노(爐)에 사고가 생겨 그릇을 못 쓰게 되는 것이 허다해졌기 때문이다. 왜 새벽이 늦게 올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연을 항상 그대로 보고 무엇을 못 느끼고 살았던 아월이는 집 동쪽에 커다란 산이 생긴 것을 그때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산은 날이 갈수록 자꾸만 높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월 처녀는 산을 찾아 다시 기도를 올렸다. 그러면서 부지깽이로 산을 두드렸다. ‘그만 솟아올라라. 그만하면 됐다’하면서 애원했다.

그날 이후 산은 더 높아지지 않았다고 하며, 사람들은 이 산을 용천산(聳天山)이라 불렀다. 즉, 솟을 용(聳), 하늘 천(天), 뫼 산(山) 이를테면 산이 하늘로 솟아오른다는 뜻으로 정관면에 있는 명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얼마 후 산신령의 말대로 도공의 집에 대씨 성을 가진 건장한 총각이 일 하러 들어 왔는데, 그의 성실한 품행을 칭찬하던 아월의 아버지는 얼마 후 그를 사위로 삼았다. 그런데 사위되는 사람은 흠일하는 것보다 쇠를 만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도공은 사위에게 칼과 창, 호미, 괭이 등 무기류와 농기구를 만드는 일을 시켰다. 사위인 대 서방이 만드는 무기류 가운데 방패는 천하일품이었다 한다.

이 같은 소문이 나자 많은 부족국가들의 우두머리 등이 찾아와 든든한 방패와 무기들을 골라 물물교환을 해 갔으며 농민들은 나름대로 낫과 괭이 등을 교환해 가는 등 가정이 그런대로 나아져 부자의 소리(부명, 富鳴)를 듣게 되어 갔다.

쇠 다루는 소리도 그릇 굽는 연기도 전혀 동해의 연안으로 알려지지 않아 잠시 동안 왜적들의 침입이 없었는데, 어느 해 가을 바다를 건너와 농작물을 훔치러 이웃 서창 농촌에서 벼를 훔쳐가던 왜적(오랜 옛날부터 이 같은 일이 잦았다는 기록이 있음)이 달아나다 길을 잃어 도공의 집 앞에 머물게 되었다. 이들 일당 10여 명은 도공의 집에 침입하여 눈이 부시게 만들어져 있는 그릇을 보고 탄복하여 말에 싣기 시작했다.

마침 창을 다듬고 있던 대서방이 이를 보고 그냥 넘길 리 없었다. 대서방은 그가 자랑하던 방패와 창을 들고 왜적과 싸움을 시작하였다. 나름대로 해외로 도적질 하러 나온 왜적의 정예군들은 단칼에 대서방을 죽일 줄 알았는데 예상은 빗나갔다. 10여 명이 칼과 창을 들고 덤벼들었으나 대서방이 막는 방패에 이들의 창과 칼은 무참히 부러지고 망가지는가 하면 이를 놓칠세라 쩍쨍하게 날아가는 대서방의 창 아래 모두가 꼬꾸라졌다.

이후부터 쇠를 달구고 두드려서 농기구를 만드는 곳을 대장간이라 하며 그릇을 만들었던 그곳을 현지 주민들은 사기점이라 불러오고 있다. 사기점이라 하는 그 곳에는 지금도 받을 파다 보면 깨어진 사기그릇이 군데군데 나온다고 전한다.

\*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61~462쪽.

[정관면 설화11]

## 당대에 천 석한 신희(辛禧)

공(公)의 휘(諱)는 희(禧), 자(字)는 의관(義寬) 1761년 2월 1일 출생하여 1834년 7월 16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73년 동안 맨주먹으로 천 석 재산을 일구었다고 전해오는 분이다. 공은 기장현 안내동(현 기장읍 교리)에서 출생하여 자라면서 생활이 어려워 피땀 흘려 노력하는 대가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

어느 날 어떤 지사(地師)가 공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가난하여도 의종게 사는 신씨 가족들을 보고 삼동 멸골이란 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살면 당대에 부자가 될 것이라 하였다. 공은 그 지사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란 것을 직감하고 그 지사를 집으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고 하룻밤 지낸 다음날 지사를 보시고 삼동 멸골(지금의 정관면 매곡)로 갔다. 그곳은 무인지대로서 청림(靑林)만 우거진 곳으로, 신라 말엽 고씨(高氏)들이 이곳에서 사병을 양성 역모를 하다가 신라군에 멸망한 뒤 멸골이라 하여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무서워 수백 년 동안 황무지가 된 채 방치된 곳이었다.

지사는 그 숲속(현 정관면 매곡리 122번지 일대)에 들어가 집 자리를 지정해 주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에 부로란 말을 들을 것이라는 예언만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신공(辛公)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죽을 결심을 하고 기장에서 가족 동반이주하여 임시초막을 짓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심고 가축도 기르며 열심히 일을 하였다. 하늘이 복을 쏟아 주는 것 같이 무엇을 심든 무슨 가축을 기르든 예상 외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특히 팔 한 줌 심은 것이 가을에 거두니 8두(斗)가 되고 닭 한 쌍을 수 년 길러 상곡들은 14두락을 샀다고 한다.

가축을 길러도 사고 없이 상상 외로 번식하였으니, 부인 나주 정씨(羅州 丁氏)의 근검절약하는 내조의 힘을 얻어 당대에 천 석 살림을 일구었다 한다.

\*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62~463쪽.

[정관면 설화12]

### 조가보 도랑

임란 후의 전설이다. 병산리에서 뒷산으로 조금 올라가면 큰 바윗돌이 자연적으로 굴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십여 척 바위가 벽과 같이 양편에 붙어 있고 위는 뚜껑돌이 집의 천장과 같이 되어 있다. 중앙에는 열 사람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평평한 돌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고 뒤편에는 자연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혼란 상태에 빠졌다. 한 처녀가 바위 근처 산골로 피난하여 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건너편 산골은 조씨 총각이 피난하여 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처녀는 산나물을 캐러 갔고 조 총각 또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둘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인간이 그리워 반가워하였으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어 바위 안에서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다. 부인은 베를 짜고 남편은 논과 밭을 경작하여 매일 매일 쉬지도 않고 일을 하였으며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산을 개간하는데 물이 필요하므로 산기슭 중턱을 막아 보를 만들어야 했는데, 보가 완성될 무렵에 보의 중간에 큰 바윗돌이 버티고 있어 난감하게 되었다. 바위는 워낙 커서 이동할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조가는 바위 밑으로 흙을 파서 구멍을 뚫기로 하고 며칠간 땅을 파고 굴을 팠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땅을 파는데 정신이 팔려 큰 바위가 넘어지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그만 바위에 깔려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이곳 주민들은 이 도랑을 조가보 도랑이라 하여 조가의 죽은 넋을 위로하였다 한다.

\*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64쪽.

[정관면 설화13]

### 경주 손(孫)씨와 삼치

경주 손씨(慶州 孫氏)가 정관면 예림에 입향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해 살고 있는 후손들이 11-12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임진란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과 정확한 연대는 모르나 지금으로부터 200-300여 년 전 궁술에 능한 손씨 할아버지가 예림에 살고 있었다. 마을 뒤 당산나무(귀목나무)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었다.

손씨 할아버지는 활로 구렁이를 쏘아 몸통에 화살을 정확히 꽂았다. 구렁이는 즉시 죽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살아 다녔다. 이후 큰 홍수가 나자 구렁이의 자취는 없어졌다.

하루는 장안 임랑에서 고기 장수가 삼치를 팔러 왔다. 할머니께서 삼치를 사서 끓여 할아버지와 가족에게 드렸다. 할아버지가 국을 드시기 전에 국그릇을 순갈로 저으니 전에 구렁이를 쏘아 몸통에 맞힌 활촉이 나왔다. 얼른 본인의 국과 가족들의 국을 먹지 않고 집 뒤 밭둑에 버렸다.

이듬해 봄에 밭둑에서 딸기가 돌아나 빨갭게 먹음직스럽게 열렸다. 손씨 할아버지는 딸기를 뽑아서 불에 태워버렸다. 구렁이가 활로서 자기를 쏜 할아버지와 가족 후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홍수 때 임랑 바다로 내려가 삼치로 변했든지 아니면 삼치 먹이가 되어 뱃속에 활촉으로 남은 채 예림 할아버지 댁에 고기장수를 통해서 전해졌으나 먹지 않고 버리니 버린 곳에 딸기가 되어서까지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손씨 할아버지와 가족은 물론 후손들도 지금까지 삼치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64~465쪽.

[정관면 설화14]

### 반월성(半月城)

정관면 월평리 근처에 신라시대의 토성으로 보이는 반월성이 있다. 삼국 초기 이곳은 갑화양곡(甲化良谷)이라 하여 동래의 대중현과 함께 거칠산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



문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자주 있게 되었다.

신라의 탈해니사금(脫解尼斯今) 때 거도장군(居道將軍)은 정병(精兵) 천(千)으로써 이곳 변경을 정벌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성주는 오히려 선수를 쳐서 신라를 정벌할 계획을 하였다. 그리하여 근처에 있는 진계등(陣戒磴)에서 맹렬한 군사훈련을 시키고, 병마를 모집하여 군세를 증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성주에게는 신통술을 부리는 여동생이 있었다. 신단을 차려 놓고 주문을 외면 신병이 나타나고, 병법에도 달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술에도 능하여 앞날을 훤히 알고 있었다. 성주는 전쟁 준비를 끝내고 곧 정벌군을 출동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여동생은 성주에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니 성 뒤에 있는 대밭에 동이만한 죽순이 올라오거든 출병하라”고 극구 만류를 하였다. 그러나 성주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출전하는 대출병이 요사스러운 점술로써 군사의 사기를 떨어지게 한다고 격노하여 신단을 때려 부셔 버렸다. 그러자 동생은 비명을 지르면서 혼절하여 그대로 죽어버렸다.

성주는 그길로 출정하여 신라군과 싸웠으나 여동생의 예언대로 패전하여 나라는 정복되고 말았다. 과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대밭에 동이만큼 큰 죽순이 솟아올라 왔다고 전하여 오고 있다.

이 지방에 고대에는 한 부족이 나라를 세워 성읍국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중요한 설화로 짐작된다. 반월성은 정관면 월평리 큰 도로 변에 있다. 꼭 경주 반월성과 비슷하게 생긴 토축성이다. 토축성은 반달 같은 반원형이고 둘레는 800척 높이는 12척 정도이다. 원형은 많이 훼손되었으나 형태는 뚜렷이 남아 있다.

반월성에 대하여는 『기장현읍지』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고 구전되어 오는 전설만이 있다. 이곳은 예부터 기장과 울산의 경계지점이었다. 옛날 어떤 연유로 누가 축성하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단지 「차성가」에 “반월성 돌아드니- 입석에 말을 매고- 우리 벗님 보내는데 그 아니 송정자가-”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곳은 신라와 거칠산국의 국경지대였고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었을 때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거칠산국이 이곳을 수비하지 못하면 동쪽으로는 지금의 정관면·장안읍 일대가 위협하고, 이곳 월평을 위시하여 영천강변의 임기, 입석,

송정 등지는 물론 본거지인 동래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신라가 거칠산국을 정복한 후라면 이곳은 군사적으로 성을 쌓을 아무런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동 편찬위원회, 2000. 9. 459~461쪽.

## 5. 철마면 설화

[철마면 설화1]

### 철마(鐵馬) 이야기

기장 철마면에 철마산이 있는데, 옛날에는 백운산(白雲山)이라 했다 한다.

하늘에 옥황상제(玉皇上帝)의 아드님이 천마(天馬)를 타고 천마는 백운을 타고 하늘에서 여기에 내려왔다 한다. 그때 온 산이 백운으로 뒤덮여서 백운산이라 이름 했고, 옥황상제의 아드님이 다시 상천할 때 천마는 기념으로 두고 가셨는데 철마로 변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백운산이 철마산으로 바뀌고 면 이름이 상서면(上西面)에서 철마면으로 고쳐졌다. 철마는 새끼 망아지만 했고, 철마산 정상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이 말이 있었다. 왜놈들도 이 철마에는 손을 대지 않아 잘 보존되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편수(片手)가 쇠가 탐이 나서 이 쇠말을 훔쳐다가 연장을 만들어 팔았더니 그뒤 전 가족이 병들어 눕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탐하면 처음은 좋지만 종말은 몇 갑절의 해를 입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서는 종전 같은 쇠말을 만들어 놓고 무수히 빌었다 한다. 현재 또 그 말이 없어졌다. 모든 사람들은 이 쇠말의 전설을 잘 지켜야 할텐데 하고 걱정들이다.

\* 양산군 문화공보실 편, 『내 고장 전설』, 양산군, 1983. 8. 192쪽.

[철마면 설화2]

### 철마산(鐵馬山)의 철마(鐵馬)

철마면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철마(鐵馬)는 철마산에서 유래되었다. 철마면의 장전천(長箭川)은 선동천(仙洞川)의 상류가 되어 있고 수영강(水營江)의 상류이다. 큰 홍수로 산사태가 생겨서 장전천 하류가 막혀 버려 웅천리 마을은 물론이고 철마산의 상봉까지 물바다가 되었다.

옛날 수영만에서 큰 해일이 생겨 바닷물이 수영강을 거슬러 올라와 구칠마을의 미역바위(곽암, 藿岩)까지 넘쳤다. 그 바위에 미역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철마산의 상봉은 겨우 소머리만큼 물 위에 보였으며, 거문산(巨文山)의 상봉은 겨우 곱의 짧은 꼬리만큼 물 위에 솟아 있었다.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제는 이곳의 어진 사람들이 일시에 집과 논밭을 잃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딱한 실정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동해용왕에게 구출하여 주라는 부탁을 하였다. 동해용왕은 용마장군에게 거북부대를 이끌고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용마장군은 장전천 하류를 막아 버린 산사태를 깨끗이 치우고 막혔던 물이 빠지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미역덤 아래 용굴로 철수하는데 물이 너무 빨리 빠져버렸다. 그래서 용굴에는 물이 없어 용궁과 통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거북부대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바위로 굳어져 생거북바위가 되어버렸다. 대장 거북은 철마산을 넘어 임기천(林基川) 선바위 아래에서 큰 거북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 용마장군은 철마산 상봉까지 올라갔으나 물이 없어 몸은 점차 말라 버려서 쇠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쇠말(鐵馬)처럼 되어 그 곳에 남게 되었다. 후세 사람들이 이를 기리기 위하여 철마가 있는 곳에 사당을 세우고 쇠신당(鐵神堂)이라 하였다.

이곡(耳谷)마을 위에 있는 용굴은 지금은 막혀 버리고 그 동굴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미역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던 바위를 미역바위(藿岩)라 하고 그 마을은 곽암동(藿岩洞)이라 하였다.

구림(龜林)마을은 그 거북이 굳어져도 살아 있었다 하여 생거북바위라 하였다. 철마는 높이가 1자 정도이고 길이는 1자 2치 정도로, 왼쪽 앞발은 치켜들고 꼬리를 뺀어 마치 하늘을 향해 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철마는 검은 흑갈색의 청동이고 반(半)자 높이의 청동좌대에 고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철마를 참배하는 사람은 공양미나 엽전을 놓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 가지 종류의 풀을 놓았다. 이 진귀한 철마는 1930년경까지 있었다.

그 철마를 본 일본인들은 모두 경탄하고 탐을 내었다.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 사는 편수(工匠)가 이를 훔쳐 일본인에게 넘겨주고 거액을 받았다. 편수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서 백석부호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

게도 장성한 아들 넷이 잇달아 급사를 하게 되자 편수는 철마를 훔친 벌을 받았다고 뉘우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 주철로써 망아지만한 철마를 만들어서 쇠신당에 안치하였다.

이를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조잡한 가짜 철마를 외면하였다. 1940년경 2차 세계대전으로 주철이 희귀하게 되자 어느 옛장수가 가짜 철마를 훔쳐갔다. 철마가 없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어느 주민이 다시 철마를 만들어 세웠으나 지금은 없어졌다.<sup>46)</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170~172쪽.

[철마면 설화3]

생거북바위(구림마을)

철마면 연구(蓮龜)리 구림마을의 연봉산 기슭에 생거북바위가 있다. 마을에 살고 있던 농부가 어질고 착하게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늘 가난하여 처자식이 배를 굶주리고 있는 것이 한이 되었다. 그래서 연봉산 신령님께 부자가 되도록 도와 달라고 빌었다.

어느 날 꿈에 신령님이 ‘연봉산 기슭에 있는 거북바위는 보통바위와는 달리 살아있는 거북이가 돌로 변해 있으니, 이를 잘 보살피라. 그리고 그 거북바위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집을 지어 열심히 일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몽한 대로 하였더니 하루가 다르게 살림이 일어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자 양반 행세를 하려고 손님을 줄줄이 청하였고, 그래서 과객들이 그의 집에 득실거렸다.

어느 날 이 집 며느리가 손님들의 뒤치다거리에 지쳐 과객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 과객은 불평을 듣고 떠나가면서, 손님을 대접하기가 싫으면 생거북의 목을 잘라 버리면 될 것 아니냐고 하였다.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머슴을 시켜 생거북바위의 목 부분을 깨뜨리게 하였다. 깨뜨려진 바위목에서 생혈이 번졌다고 한다.

그런 뒤부터 이 집은 과객이 없어지고 살림이 가난하여졌다고 한다.

46)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9~320쪽에 수록, 「철마산(鐵馬山)의 철마(鐵馬)」.

그 농부가 살았던 집터에 차(車)씨 일가가 마을을 이루어 살면서 매년 제주를 정하여 정월 15일 새벽에 제사를 정성껏 모셨다.<sup>47)</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57쪽.

[철마면 설화4]

### 개좌산(開佐山)의 전설(傳說)

철마면에 개좌산이라는 산이 있다. 옛날은 철마면에서 부산으로 갈려면 이 산 고개를 넘어서 다녔는데 험한 산길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부터는 이곳 장정들은 모두 부산에 있는 각 진영에 입방군(入防軍)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었다.

이곳 연구리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서홍인(徐弘仁)도 부산성의 입방군(入防軍)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자기 집에서 부산성까지는 60리가 넘는 먼 거리다. 그는 이런 먼 길을 걸어서 낮에는 입번을 하고 밤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극진한 효도를 하였다.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산길이 막히고, 폭우로 길이 없어져도 한 번도 빠짐없이 60리 길을 내왕하였다.

그러자니 그는 혼자 다니기가 외로워서 누렁개 한 마리를 길동무로 삼아 데리고 다녔다.

어느 해 이른 봄철이었는데 이 날도 서홍인은 여느 때와 같이 입번을 마치고는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하여 60리 길을 걸어서 이곳 개좌산 고갯길까지 왔던 것이다. 이제 집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지라 잠깐 쉬어 갈려고 들고 있던 횃불을 돌 위에 놓고는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그 사이에 횃불이 풀섶에 번져 곤히 잠든 서홍인은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를 본 누렁개는 멍멍 짖으면서 주인의 옷자락을 물고 빙빙 돌았지만 피곤에 지쳐버린 주인은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누렁개는 산 밑에 있는 개울까지 달려가서는 몸에 물을 묻혀 달

---

47)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12쪽에 수록, 「구립 마을의 생거북바위」.

려와서 주인이 잠든 주위에 뒹굴어서 마른 풀솜을 적셔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러기를 수십 차례나 되풀이하였든 누렁개는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지쳐버려 끝내 쓰러져 연기 속에 질식사하여 죽고 말았다.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난 서홍인은 이 광경을 보고 충성스러운 누렁개가 자기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그 효자에 그 충견이라 하여 모두가 칭송하였고 부산침사는 서홍인의 군역을 면하게 하여 주었고, 연구리에는 효자비를 세웠는데 그 비석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으며 그 일이 있던 후 『기장현읍지』에 서홍인의 효행록이 이와 비슷한데 충견의 전설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설 집에 주인의 생명을 구한 충견의 전설은 몇 가지 있지만 이처럼 실감나게 하는 전설은 찾아볼 수 없다. 귀중한 전설이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226~227쪽.

[철마면 설화5]

### 개좌고개의 항구

개좌(開座)고개는 옛날 철마에서 부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산길이었다. 이 개좌고개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연구동에 서홍인(徐弘仁)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이 끝나자 서홍인은 부산성에 있는 입방군의 군졸이 되었다. 노부모가 계신지라 입번을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봉양하는 효자였다. 서홍인은 날이 밝기 전에 연구동에서 개좌고개를 넘어 부산성까지 가서 입번을 마치고 다시 밤늦게 집에 돌아오곤 하였다. 이렇게 60리가 넘는 먼 길을 통근하였던 것이다. 그러자니 산길을 혼자 다니기가 외롭고 위험하여 누렁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다.

어느 봄날이었다. 입번을 마치고 어느 때와 같이 누렁개를 데리고 개좌고개티까지 와서 잠깐 쉬었다. 밤길을 60리나 걸어왔고 봄철이라 노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바위 너설에 걸터둔 햇불이 풀솜에 번져 불이 났다. 이를 본 누렁개는 멍멍 짖기도 하고, 주인의 옷자

락을 물고 끌어당기고 발톱으로 활기도 하였다.

그러나 잠에 굶아떨어진 주인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자 누렁개는 계곡까지 달려가서 온몸에 물을 적셔 달려와서는 주인이 잠든 주위에 뒹굴었다. 이렇게 마른 풀밭에 물을 적셔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번 되풀이한 누렁개는 지칠대로 지쳐 더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누렁개는 주인을 껴안고, 제 몸으로 번지는 불을 방지하고서 불에 타 죽고 말았다.

한참 뒤에 잠에서 깨어난 주인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반이나 불에 그을려 죽어 있는 누렁개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털은 불에 타버렸다. 특히 등이 불에 까맣게 탔다. 주인 대신 누렁개가 제 몸을 불에 태워 목숨을 바쳐 희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주인은 그 자리에 누렁개의 시체를 고이 매장하고 방성통곡을 하였다. 이 충성스러운 누렁개의 희생을 전해 듣고 이 고개를 개가 생명을 보살피 준 고개라 하여 개좌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기장현읍지』의 효자 서홍인의 전기에 의하면 이 효성을 가상히 여겨 균역을 면제하고 부모를 부양하도록 부산참사가 특별히 은전을 베풀었다 한다.<sup>48)</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58쪽.

#### [철마면 설화6]

### 옥서계(玉書契)의 망령(亡靈)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일이다. 동래에 옥서계란 고을 관속이 있었다. 계서라는 벼슬은 관리의 징계를 맡아보는 관직으로 동래부사도 파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직책이었다.

그런데 이 옥서계가 병들어 누워 보지도 못하고 하루 아침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옥서계의 급사에 놀란 고인의 친구들이 저녁 때 상가에 찾

48)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1~322쪽에 수록, 「개좌고개의 항구」.



아가느라고 지금의 동래군청 뒷길을 지나가니 죽었다는 옥서계가 별안간 친구들 앞에 나타났다.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은,

“영감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헛소문이었군요. 저희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로 어디로 가시는 길이옵니까?”

하고 물어보자,

“친구들 고맙소. 나는 분명히 죽은 몸이오. 그러나 내 소실로 삼고 있던 계집이 나의 삼오도 지내기 전에 오늘 저녁 다른 남자의 품으로 살리간다고 하니 분통이 아니 터지겠소. 나는 그런 계집을 그냥 두고 저승길을 택할 수 없어 그녀를 죽이러 가는 길이오.”

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놀란 문상객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저희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술이나 한잔 나누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라고 권하니 옥서계는 분명히 마시긴 하는데 그릇의 음식은 그대로 남아 줄어들지를 않았다. 문상객들은,

“영감님, 담배나 태우시며 서서히 소실 이야기나 들어 봅시다.”

라고 하니,

“나는 지금 몹시 바쁜 몸입니다. 이만 실례하겠소.”

라고 한 마디 남겨두곤 일어서기가 바빴다.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문상객들은 그의 뒤를 밟고 따랐다. 옥서계는 복천동에 있는 조그만 집에 들어섰다. 정말 그곳엔 한 젊은 여인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뒤 이 여인이 부엌에 들어서며 식도를 손에 잡자마자 갑자기 배를 두 손으로 부들켜 안도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이 여인의 급사를 본 문상객들이 그 집으로 다가섰을 땐 이미 옥서계는 어디인가 간 곳이 없었다.<sup>49)</sup>

\*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5. 173~174쪽.

[철마면 설화]

### 옥서계의 슈령

49) 부산직할시동래구, 『동래향토지』, 동 편찬위원회, 1993. 12. 147~149쪽에 수록, 「옥서계의 망령」.

임진왜란이 끝나고 기장고을은 폐현이 되어 동래에 합속되었다. 당시 기장현 하서면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옥(玉)씨는 동래부의 관속이 되었는데 서계(書契)라는 관직이었다. 벼슬아치들의 비행을 조사하는 감찰직으로서 그 직책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살림도 넉넉하고 안면도 넓어 널리 알려졌던 것이다.

옥서계는 동래부의 북천동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예쁘고 젊은 여자를 첩으로 삼아 그곳에서 기거하였고, 본가에는 잘 가지도 아니하였다. 무리하였던 탓인지 병이 갑자기 위중하여 본가로 돌아가 병치료를 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부고를 받은 동래부의 젊은 아전들이 문상하러 간다고 여러 명이 동래 북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죽었다는 옥서계가 북문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모두들 놀라서 옥서계님의 부고를 받고 문상하러 가던 참이었는데 뜬소문이었으니 술이나 같이 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옥서계는 “여보게들 고맙네만 나는 빨리 고 녀를 찾아 저승길에 같이 데려가야겠네”라고 말하며, “내 첩년이 다른 놈 품에 안겨 있으니 그년을 그냥 두고 저승으로 갈 수 없어 그 녀를 죽이러 간다”고 하였다. 문상객들은 다시금 놀라고, 술집에 같이 가서 술대접을 하였더니 분명히 술을 받아 마시고 안주를 먹는데 술잔과 그릇에는 술과 안주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옥서계는 그길로 북천동에 있는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문상객들도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젊은 여자가 누구에게 대접하려고 정성들여 음식을 장만하고 있더니, 부엌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는 피투성이가 된 채 죽고 말았다. 그런데 옥서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후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sup>50)</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59쪽.

50)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2쪽에 수록, 「옥서계의 유령」.

[철마면 설화8]

### 올바우(안평리)

안평(安平)마을 동남쪽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를 올바우라 하였다. 옛날 이곳에 큰 홍수가 생겨 수영강에서 해일이 거슬러 올라와서 안평리 마을은 바다가 되어 버렸다.

그때 마을사람들은 물론이고 산짐승과 새들도 올바위에 피난을 하였다. 그해 추석에 이르자, 범람한 홍수는 점차 물이 빠졌다. 몇 달간이나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바위에는 조개가 붙고 온갖 산짐승, 날짐승이 붙어서 울부짖고 있었다.

이 홍수와 해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울었다. 그래서 이 큰 바위를 올바우라 하였다 한다.<sup>51)</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59~460쪽.

[철마면 설화9]

### 송정리의 송정자

철마면 송정(送亭)리는 옛날 교통의 요충지로서 각 고을에서 지나가는 과객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수려한 철마산의 서남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송정리의 넓은 들녘에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큰 소나무와, 포구나무, 팽나무가 우람한 가지를 펴고 있어서 여름철 과객들에게는 훌륭한 정자목이 되었다.

이곳은 기장, 동래, 양산 고을의 경계지점에 있고, 이 세 고을을 통하는 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정든 사람이나 친한 벗님들을 떠나보낼 때에는 이곳까지 따라왔다. 그리고 이곳 정자나무 밑에서 마지막 석별의 술잔을 나누고 떠나는 사람을 송별하였다. 세 고을의 관원들도 새로 부임하거나 임지를 떠날 때도

51)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33쪽에 수록, 「안평리의 올바우」.

이곳까지 와서 송별을 하였다.

이같이 송별하는 정자가 있는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송정(送亭)이라 속칭하였다. 옛날에 말밭이라 하여 말전동(末田洞)이라는 공식명은 송정이라는 속명에 밀려 잊혀지고 끝내 송정동(送亭洞)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의 소나무와 포구나무가 그대로 우람하게 가지를 펴고 있다. 그리고 그때의 주막은 주택으로 변해 있다. 오가는 나그네들을 상대로 벌였던 정자 시장은 아직도 5일장으로 남아 있다.<sup>52)</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0쪽.

#### [철마면 설화10]

### 석길마을의 자석바위

철마면 석길(石吉)마을 뒷산에 자주색깔의 아름다운 큰 바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석같이 찬란하고 빛나는 이 바위를 사랑할 자(慈)와 돌석(石)으로 자석(磁石)이라 불렀다.

옛날 해질 무렵 자석바위 앞에서 일편단심으로 사랑의 소원을 하게 되면 짝이 될 총각이나 처녀의 모습이 이 바위에 나타나고, 은밀히 만나기를 소원하면 짝이 될 총각이나 처녀가 소원하는 곳에 실제로 나타나서 사랑을 속삭이게 된다. 그리고 과부와 홀애비도 이 자석바위에 소원하면 짝이 나타나 주었다. 이런 자석바위의 소문이 퍼지게 되자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찾아와 마을의 풍기가 문란해졌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자석바위 둘레에 탱자나무 울타리를 하였다. 그리고 자석바위를 자석(磁石)이라 하지 않고 자색(紫色)바위라고 개명을 하였다. 그렇지만 사랑을 소원하는 젊은 남녀들을 탱자나무 울타리와 개명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다.

마을 어른들은 논의 끝에 석수를 데려와서 자석바위를 산산이 파괴하여 버렸다. 그 후로는 마을을 찾는 사람도 없어지고 마을은 한산하고 빈

---

52)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3~324쪽에 수록, 「송정리의 송정자」.

곤해졌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논의하여 자석(石)으로 인하여 길(吉)하게 되어 달라고 마을 이름을 석길(石吉)이라 개명하였다고 한다.<sup>53)</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0~461쪽.

[철마면 설화11]

### 선바위와 거북바위

철마면 임기리의 임기천 중턱에 선바위가 있다. 임기천 절벽위에 꼭 사람이 만들어 세운 비석같이 생긴 이 거대한 바위는 높이 4미터 폭 1.5미터로서 사람처럼 서 있는 바위 같다 하여 선바위(立岩)라 한다.

이처럼 절벽위에 우뚝하게 치솟아 서 있는 바위 앞에 사람들은 저절로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게 된다. 이처럼 이 선바위는 경건하게 하는 신비한 영기가 감돌고 있다. 그래서 이 선바위를 절을 하게 하는 돌이라 하여 배석(拜石)이라 하기도 하였다. 선바위가 있는 바로 밑 계곡에 거북바위가 있다. 꼭 거북처럼 생긴 이 큰 바위는 예부터 선바위의 신령을 지켜 주는 거북이라 하였다.

선바위에서 임기천의 상류에 상곡 마을이 있다. 상곡마을은 백운산 줄기가 뻗어 내린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은 철마산의 거봉이 앞을 막고 있다. 상곡마을 앞 철마산 기슭에 배석사(拜石寺)라는 큰 절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배석사에는 선녀(仙女)라는 여승이 주지를 하고 있었다. 동래의 소산역 전쟁에서 부상당한 부상병들이 왜병들의 추적을 피하여 깊은 계곡인 임기천 상류로 피신하여 배석사에 모였다. 부상병을 추적하던 왜병들은 선바위 앞까지 와서는 그 거대한 바위에 머리를 숙이고 이곳이 임기천 계곡의 끝인 줄 알고 되돌아갔다.

선바위에서 얼핏 보면 지금의 지장암이 있는 곳에서 철마산의 실개천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상곡마을 쪽 계곡은 산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다. 부상병들은 선바위의 위력 때문에 모두 무사히 배석사로 피신되었던 것

53)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4쪽에 수록, 「석길마을의 자석바위」.

이다. 배석사에 주석한 선여승은 그 많은 부상병들의 식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웠다. 밀교승이었던지라 비밀진언을 염송하여 절에 있는 샘물에서 필요한 만큼 쌀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배석사는 백운산 산정 바로 옆에 있었던 선여사(船餘寺)의 말사이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선여사에서 어느 탐욕이 많은 스님이 주석하였는데 본사의 통도사와 선여사에서 간섭이 많고, 객승이 많이 와서 항상 괴롭히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못된 술객의 말을 듣고, 통도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북바위를 통도사로 향하게 돌려놓고, 객승들이 잠을 못 자게 객승들이 머물든 요사에 빈대를 놓아두게 하였다. 그리고 쌀이 흘러나오는 샘물구멍을 넓게 하여 쌀이 많이 흘러나오도록 욕심을 부렸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샘물에서는 쌀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고 빈대가 들끓어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고, 통도사와 선여사에서는 돌보지 않게 되어 배석사는 허물어지고, 빈대만 득실거리게 되자 빈대절이라고 하게 되었다.

지금도 거북바위를 살펴보면 바위에는 돌머리를 돌린 작업흔적이 남아 있고, 배석사 자리에는 돌조각마다 빈대껍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달리 전하는 말로는 배석사의 배를 배 선(船)으로, 돌 석(石)을 설이라 풀이하어 배설이라 하였고, 선여사(仙餘寺)의 이름도 배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곳의 지리가 배설임으로 그 배의 뜻의 역할을 하는 입석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한말 대원군이 천주교도를 학살하게 되자 인근의 교인들이 선바위가 있는 상곡마을 쪽으로 피신하여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5~326쪽.

[철마면 설화12]

## 선바위

철마면 임기(林基)리의 임기천들피 지장암 남쪽 산중턱을 안고 절벽

위에 선바위가 있다. 꼭 사람이 만들어 세운 비석같이 생긴 이 거대한 바위는 높이 4m, 폭 1.5m로 사람처럼 서 있는 바위같다 하여 선바위라 한다.

이처럼 절벽 위에 우뚝하게 치솟아 서 있는 바위 앞에 사람들은 저절로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게 된다. 이처럼 이 선바위는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신비한 영기가 감돌고 있다. 그래서 이 선바위를 절을 하게 하는 돌이라 해서 배석(拜石)이라 하기도 하였다.

선바위에서 임기천의 상류에 상곡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백운산 줄기가 뻗어 내린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은 철마산의 거봉이 앞을 막고 있다. 상곡마을 앞 철마산 기슭에 배석사(拜石寺)라는 큰 절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배석사에는 선녀(仙女)라는 여승이 주지로 있었다. 동래의 소산역(蘇山驛)전쟁에서 부상당한 부상병들이 왜병들의 추적을 피하여 깊은 계곡인 임기천 상류로 피신하여 배석사에 모였다. 부상병을 추적하던 왜병들은 선바위 앞까지 와서는 그 거대한 바위에 머리를 숙이고 이곳이 임기천 계곡의 끝인 줄 알고 되돌아갔다.

지금도 선바위에서 얼핏 보면 지장암이 있는 곳에서 철마산의 실개천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상곡마을 쪽 계곡은 산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다. 부상병들은 선바위의 위력 때문에 모두 무사히 배석사로 피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배석사의 선여승은 그 많은 부상병들의 식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웠다. 밀교승이었던지라 비밀진언을 염송하여 절에 있는 샘물에서 필요한 만큼의 쌀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배석사는 백운산 산정 바로 옆에 있었던 선여사(船餘寺)의 말사이다.

달리 전하는 말로는 배석사의 배를 배(船)로, 돌 석(石)을 설이라 풀이하여 배설이라 하였고, 선여사(仙餘寺)의 이름도 배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곳의 지리가 배설임으로 그 배의 뜻의 역할을 하는 입석을 세웠다는 것이다.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1~462쪽.

[철마면 설화13]

### 자래바위(거북바위)

자래바위(거북바위)는 지장암 바로 밑돌미안골에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이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선여사에는 어느 탐욕이 많은 스님이 주석하였는데, 본사인 통도사와 선여사에서 간섭이 많고 객승이 많이 와서 항상 괴롭히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못된 술객의 말을 듣고 통도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북바위를 통도사로 향하게 돌려놓고, 객승들이 잠을 못 자도록 객승들이 머물던 요 사이에 빈대를 놓아두게 하였다. 그리고 쌀이 흘러나오는 샘물 구멍을 넓게 하여 쌀이 많이 흘러나오도록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샘물에서는 쌀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고 빈대가 들끓어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었다. 통도사와 선여사에서 돌보지 않게 되어 배석사는 허물어지고, 빈대만 득실거리게 되자 빈대절이라고 하게 되었다.

지금도 거북바위를 살펴보면 바위에는 돌머리를 돌린 작업 흔적이 남아 있고, 배석사 자리에는 돌조각마다 빈대껍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2~463쪽.

[철마면 설화14]

### 미역덤(이곡마을)

철마면 이곡(耳谷)마을 북쪽산 중턱에 큰 석벽이 있는데, 이를 미역바위, 미역덤이라 하고 또는 곽암(藿岩)이라 한다.

태고시절 큰 해일이 생겨 수영만의 바닷물이 수영강을 거슬러 밀려왔다. 그래서 장전천이 범람하여 산사태로 하가 막혀 바닷물이 오랫동안 호수처럼 잠겨 버렸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어느 착한 농부는 농토에 바닷물이 넘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이를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모두가 피난하고 아무도 그 농부를 도와 바닷물을 막으려고 하지 아니 하



였다. 바닷물은 점차 밀려와서 미역바위까지 잠기려 하였다. 농토와 가축을 모두 잃은 그 농부는 허리까지 물에 잠겨 오도 가도 못하여 곧 죽게 되었다. 그때 미역바위 밑에 있던 용굴에서 용마가 치솟아 올라와서 그 농부를 태워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때 이 바위벽에 바다의 미역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고 하여 미역바위라고 하였다.

지금도 그때 미역이 매달려 있던 흔적과 조개껍질이 있고, 바위에는 용마의 발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으며, 용굴은 오랜 세월로 막혀 버렸다고 한다. 이 전설에 따라 마을이름도 곽암리(藿岩里)라 하였다. 그때 바다에서 큰 거북이 올라와서 거북이 많았다고 한다. 이리하여 생거북바위의 전설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sup>54)</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3쪽.

[철마면 설화15]

**비음골(와셔마을)**

철마면 와여(瓦余)리에 비음골이 있다. 이곳에는 쥐바위, 고양이바위, 개바위 등의 바위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해주(海州) 오(吳)씨 일족이 이곳에 터전을 잡아 살면서 2만 석의 거부가 되었고, 해방 후까지도 그 세력이 대단하였다. 옛날 어느 노승이 이곳에 해주 오씨 부부를 안내하여 산기슭에는 부모의 산소로 쓰고, 10여 채의 초가집이 있는 한가운데에 큰 기와집을 지어 살면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음택으로 정하여 땅속을 파헤치자 그 속에서 이상한 빛이 나더니 새 세 마리가 나와서는, 두 마리는 부모의 음택 자리에 앉고 한 마리는 마을의 양택 자리에 앉아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두 마리의 새가 앉아 가리키는 곳에는 부모의 산소로 정하였으나 한 마리의 새가 가리키는 집자리는 여러 채의 집이 모여 있어 그 집들을 헐어 버리지 않고는 새로이 저택을 짓지 못할 사정이었다. 그해 겨울에 불이 나서 10여

54)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6~327쪽에 수록, 「이곡마을의 미역담」.

채의 집들이 모두 불타 버렸다. 오씨 부부는 그곳에 저택을 지어 살게 되자 하루가 다르게 재산이 불어나 한때는 소작료만으로 2만석이 넘었다고 한다.<sup>55)</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3~464쪽.

[철마면 실화16]

### 삼정자(三亭子)와 삼장사(三壯士)

철마면 구칠리 점티마을 서쪽 개울가에 삼정자라는 정자가 있었다. 지금은 정자는 없어지고 커다란 바위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옛날 조선시대 이곳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몸은 장대하고, 힘은 장사였다. 모두 겨드랑에 작은 날개 같은 비늘이 붙어 있어 아무도 그들의 힘을 헤아릴 수 없었다. 이들은 큰 산이라도 들러 뽑을 힘을 가진 장사들이었지만, 미천한 신분 때문에 무과에 응시할 수도 없고 무사가 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삼형제는 울분을 참지 못해 이곳 개울가에 바위를 뽑아서는 집어던지면서 치솟는 힘을 풀었다.

그러나 맏형은 결코 힘자랑을 하지 않았다. 반면 동생들은 늘 힘자랑을 하였다. 한번은 이 자리에서 동생 둘이서 바위 들어올리기 내기를 하였다.

셋째 동생이 큰 바위를 들어 올리고, 둘째는 그보다 배나 되는 것을 들어 올렸다. 보고 있던 맏형은 ‘원 고걸 가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나.’ 하더니 둘째보다 배나 되는 바위를 번쩍 들어서는 저만큼 던졌다. 이를 본 아우들은 평소에 형이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던 만큼 매우 놀랐으며 또한 한없이 부끄러워하였다. 그러자 맏형은 동생들에게 우리가 시절을 잘못 만나 힘을 펴지 못하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냐고 하면서 은인자중하였다고 한다.

후세사람들이 삼장사를 기념하기 위해 삼정자를 지었다고 전하여 오고

---

55)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7쪽에 수록, 「와여 마을의 비읍골」.

있다. 옛날에는 마을 어귀에 큰 돌을 놓아두고 마을 장정들의 힘겨루기와 수련에 이용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유습인 것 같다.<sup>56)</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4~465쪽.

[철마면 설화17]

### 선돌(입석마을)

철마면 송정리 입석(立石)마을 앞 아래쪽에 선돌이 있다. 입석마을은 철마산 서쪽 기슭에 농촌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북쪽 기슭은 백운산(白雲山)의 남쪽 기슭과 맞대어 깊은 계곡을 이루고 있다.

예부터 이 지방의 지세가 배(船)의 형국인데 이를 지사(地師)들은 배설이라 하였다. 그래서 백운산에 선여사(船餘寺)라는 배(船)자를 붙인 큰 사찰을 세웠다.

그리고 그 배설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 배의 돛대를 상징한 선돌(立石)을 높게 세웠다. 이 선돌이 의연하게 우뚝 솟아 있는 한 이 마을은 순풍에 돛 단듯이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선여사는 없어지고 그 절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선여사가 재건될 때 이 마을은 보선(寶船)이 되어 보물처럼 소중한 곳이 될 것이라고 한다.<sup>57)</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5쪽.

[철마면 설화18]

### 범바위굴

철마면 웅천(雄川)리 서쪽에 있는 거문산 기슭에 큰 바위굴이 하나 있다. 옛날 이 근처 마을에 젊은 부부가 와병 중에 있는 부친을 극진히 봉

56)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7~328쪽에 수록, 「삼정자(三亭子)의 삼장사(三壯士)」.

57)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8쪽에 수록, 「입석마을의 선돌」.

양하고 있었다. 낮에는 온갖 약초를 캐어 와서 달여 올리고, 밤이면 이곳 바위굴에 와서 정성껏 신령님께 쾌차를 기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 부부에게 늑대와 여우들이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 부인은 놀라서 기절하였다. 젊은 부부는 신령님께 짐승들의 범접을 막아 달라고 기원하였다. 그러자 신령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신령님을 세 번 불러라. 그러면 남편은 범으로 변한다. 치성이 끝나거든 다시 신령님을 세 번 불러라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 온다. 그러나 부인은 그동안 눈을 감고 범이 된 남편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기를 백일 동안 기도하면 영험이 있으리라.’ 하였다.

신령님의 분부대로 젊은 부부는 매일 밤 기도를 드렸다. 짐승들은 범이 된 남편을 보고는 범접을 못하고 도망하였다. 아버지의 병도 쾌차를 보이고 백일이 가까워졌다. 젊은 부인은 범 모습을 한 남편을 한번 보고 싶은 호기심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백일기도의 마지막 밤은 보름달이 밝고 고생도 끝나는 날이라 범 모습을 한 남편을 이때 못 보면 영영 못 보게 된다. 그래서 부인은 마지막으로 신령님을 세 번 부르면서 살짝 반눈을 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 신령님을 세 번 불러도 범이 된 남편은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굴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인은 범이 된 남편과 함께 이 굴속에서 함께 살았다고 한다.<sup>58)</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6쪽.

[철마면 설화19]

### 열녀 김씨(烈女 金氏)

김씨는 아직 벼슬을 얻지 못한 선비 송상덕의 부인이었다. 열일곱 살 되던 해에 송상덕과 결혼하여 시집살이를 하였다. 시부모님께 극진히 효성을 다하고, 집안 어른들을 공경하며, 예의를 다하였다. 결혼한 지 얼마

58)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8~329쪽에 수록, 「범바위굴」.

되지 않은 정사년 가을에 그만 그의 남편이 죽고 말았다. 게다가 시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여 곧 운명할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찢어질 듯한 아픔을 참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였다. 미음죽을 끓여 들고 약을 달여 드렸다. 이렇게 슬픔과 피곤에 지쳐 곧 쓰러질 듯한 몸을 겨우 움직이면서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였으나 시아버지마저 잇따라 돌아가시고 말았다. 김씨의 효성도 아무런 보람 없이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김씨도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할 생각을 하였다. 자결을 함으로써 죽은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 한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경도가 없어졌다. 그래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자결할 것을 단념하였으나 태기는 없었다. 그러저럭 남편의 장례일이 다가왔다. 김씨는 집안사람들과 이웃할머니들에게,

“나는 오늘 내 목숨을 끊어 남편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죽어서 남편과 한구덩이에 같이 묻히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집안어른들이 그날 밤 방문을 열어 보았더니 김씨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독약을 마시고 숨져 있었다.

그래서 김씨는 남편과 같이 한 무덤에 묻혔던 것이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나라에서는 온갖 조세와 부역을 면하게 하여주고, 열녀비와 정여를 세워주었다.

최근에 철마면 구칠리로 가는 마지동리 구노실 길가에 김씨의 열녀비를 세웠다. 수절과부도 비난 받는 이때에 과연 찬양받을 생각할 문제이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161~162쪽.

[철마면 설화20]

### 열녀 김씨(宋尙德 夫人)

열녀 김씨에 관하여는 『기장현읍지』와 열녀비문에 의하면, 경주 김씨로서 같은 고향인 기장현 상서면(철마면)에 살고 있던 여산 송씨 18세손 되는 송상덕(宋常德)공에게 1732년(영조 8) 경술년(庚戌年)에 시집을 와

서는 시부모님을 효성으로 섬기고, 부부간에 화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였다.

결혼한 지 7년만인 정사년(丁巳年) 윤 9월에 가화로서 남편이 죽고 말았다. 김씨는 남편이 죽었을 때 뒤따라 자결할 생각이었으나 때마침 월경이 없어 태기가 있는가 싶어 연명하였으나 경도가 불순하여 태기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결할 뜻을 굳혔지마는 곧이어 무술년 봄에 시아버님께서 별세를 하였다.

장사를 치를 때 평일과 같이 태연히 음식을 장만하고 담소를 하면서 주위에서 눈치를 채지 않도록 하고서는 조노파를 불러서 “가장이 죽으면 아내는 그 뒤를 따라 죽는 것이 도리인데도 시아버님의 병환이 있었고, 태기가 있는 듯하여 희망을 가졌는데 모두 허사가 되었으니 남편의 뒤를 따라 죽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시숙님께 내가 죽으면 남편 무덤에 같이 묻어 달라고 말하여 놓았다고 하였다. 그날 밤, 시아버님의 초상준비를 마치고 자기 방에서 곱게 단장을 하고 약을 마시고 자결한 것을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되었다. 마침내 그 소원대로 월곡의 남편 옆에 합장되었다.

그러자 그해(무술년)에 나라에서는 예조판서를 시켜 비석을 세우고 정여를 세우고, 온갖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여 주는 복호(復戶)를 하였다.

지금도 비석과 정여가 마을 앞에 세워져 있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84쪽.

[철마면 설화21]

## 열녀 김씨(연구리)

열녀 김씨(송상덕(宋尙德)의 부인)에 관하여는 『기장현지』, 『기장군지』 등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현·읍지 등 열녀비문에 따르면 부인은 월성 김씨로 1732년(영조 8)에 같은 마을에 살던 송상덕(여산 송씨 18세손)공과 결혼하였다. 시부모와

남편에게 효성이 지극했으며 또한 열녀로서 춥고 더움을 가리지 않고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짜증과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다.

헌데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보지 못해 애를 태워오다 그만 남편이 중병을 얻어 눕게 됐다. 백방을 찾아다니며 약을 구해다 먹였는가 하면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다 보였으나 모두가 헛일이 되고 그해 사별을 하고 말았다.

김씨 부인은 남편의 초상이 끝나면 자결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식의 주검에 시아버님이 화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게 됐다. 김씨 부인은 좋다 하는 약은 거의 구해다 다녔으며 때에 따라선 얼음을 깨고 붕어를 잡아다 약으로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영양 있는 음식과 효험 있다는 약을 찾아 다녔으며 좋은날을 택해 목욕재계하고 북두칠성에 시아버님의 수(壽)를 빌기도 했다.

하늘은 이 같은 열녀의 염원을 등지고 그 이듬해 그만 시아버지가 세상을 버리게끔 했다. 김씨 부인은 정성껏 장례를 마치고 시숙님과 이웃들에게 ‘행여 내가 자결하면 남편 옆에 꼭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며칠 뒤 자결했다. 김씨 부인은 유언대로 연구리 월곡산에 있는 그의 남편 무덤 옆에 묻혔다.

1738년 기장현감의 장계의 의하면, 영조는 예조판서를 시켜 효행에 따른 비석을 세우고 가문에 온갖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내렸다. 김씨 열녀비각은 현재 철마면 연구리 보덕사 입구에 있는데 해마다 후손들과 학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6~467쪽.

[철마면 설화22]

### 효자 김순적(金順迪)(17

김순적은 조선시대에 기장현 하서면 사람으로 지금의 철마면 임기리에 살고 있었다. 김순적이 겨우 열세 살 때 일이었다. 그의 어머니를 큰 호

랑이가 한입에 물고서는 끌고 갔다. 이를 본 어린 김순적은 용감하게 한쪽 손으로는 호랑이의 긴 꼬리를 잡고 또 한쪽 손으로는 물려가는 어머니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호랑이에게 매달려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또 큰 산을 넘으면서도 끝까지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 그 큰 호랑이도 힘이 빠져 어쩔 수 없이 그의 어머니를 놓아두고 달아났다.

이 대담하고 용감무쌍한 어린이의 호행이 알려지자 나라에서는 온갖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 용감한 소년의 후손으로 효자 김련(金鍊)이가 있고, 그 후손에 효자 김봉의(金鳳儀)가 있고 그 후손에 효자 김상제(金商濟)가 있어 일가 사대(四代)가 효자로서 지금도 사효묘(四孝廟)가 이 동리에 있으며 이분들의 후손이 이곳에 살고 있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159~160쪽.

[철마면 설화23]

### 효자 김순적(金順迪) (2)

김순적은 조선조 중엽에 하서면 임기촌(철마면 임기리)에서 자랐다. 겨우 열세 살 되는 어린 시절이었다. 대낮에 난데없이 집채 같은 호랑이가 마을에 들어와서는 집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를 한입에 물고 뒷산으로 끌고 갔다. 이를 본 마을사람들은 겁에 질려 방문을 잠그고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쥐 죽은 듯이 꼼짝 하지 아니하였다. 평소 담력 있고 힘자랑 하던 남정네들도 오금을 펴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어머니가 처참한 호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자 벼락같은 고통을 지르면서 호랑이 뒤를 쫓았다. 소년이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몸이 날쌔어서 곧장 호랑이와 맞붙었다. 한 손으로 호랑이 꼬리를 잡고 또 한손으로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 힘껏 잡아 당겼다. 이 무서운 기갈에 놀란 호랑이는 꼬리를 잡힌 채 달아나기만 하였다.

이렇게 산과 계곡을 넘고 냇굴 속을 뒹굴면서 호랑이 꼬리에 매달려 가던 소년은 잽싸게 큰 소나무 등치를 안으면서 호랑이 꼬리를 나무에 휘감



아 잡았다. 앞으로 내닫던 호랑이는 나무에 긴 꼬리가 감기게 되자 꼬리가 빠지는 아픔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지르면서 물고 있던 어머니의 몸을 놓고 경충거렸다. 소년은 옆에 있던 큰 돌로 호랑이를 내리치자 산속 깊이 달아났다.

나라에서 이 대담무쌍한 효행을 듣고, 큰 상과 함께 나라에 바치는 여러 가지 조세를 면제하여 주고, 부역을 면제하여 주었다.

효자 김순적의 후손에 역시 효자 김련이 있고, 그 후손에 효자 김봉의가 있고, 그 후손에 효자 김상제가 있어 한 집안에 4대가 효자로서 지금도 사효묘(四孝廟)가 이 마을에 있고 그 후손들이 근처에 살고 있다.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는 속담이 이 4대에 걸친 효행록에서 생겼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78~279쪽.

[철마면 설화24]

### 효자 김봉의(金鳳儀)

효자 김봉의(金鳳儀)는 호를 백원당(白源堂)이라 하였으며 앞에서 기술된 효부 강씨(姜氏)와 효자 김련(金鍊)의 아들이다. 부친 김련(金鍊)이 중병으로 백약이 효험이 없어 병은 자꾸 위중하여 깊어 갔다.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 주므로 현몽된 곳을 찾아보니 과연 산삼이 그 곳에 있었다. 이 산삼을 복용하고 아버지는 회복을 하였다.

또 아버지의 종기가 심하여 이를 근심하던 중 엄동설한에 두꺼비가 나타나므로 이를 약으로 만들어 부치니 즉시 종기가 없어졌다.

또 아버지의 임종 시에는 손가락을 잘라 생혈을 수혈하였다는 효행이 나라에 알려져 역시 잡역을 면하여 주고, 직첩을 주었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80~281쪽.

[철마면 설화25]

### 효자 김상계(金商濟)

효자 김련(金練)의 손(孫)이요 효자 김봉의(金鳳儀)의 아들이다. 호를 삼묵재(三默齋)라 하였다.

중병에 신음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겨울에 잉어를 잡수겠다고 하였으므로 강가에 나가서 잉어를 구하지 못하여 눈물로써 신령님께 호소하였다.

그러자 얼음 위로 큰 잉어가 뛰어 나왔다. 이를 아버지께 드렸더니 병이 없어졌다.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병석에 있을 때 극진한 효심으로 항상 그 분미를 맛보고 병의 차도를 짐작하였다 하여 임종 때는 단지하여 생혈을 드렸더니 잠깐 소생하였다고 한다.

국상이 있자 3년간 상복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역시 증직되고, 면세 면천을 받았다고 한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325~326쪽.

[철마면 설화26]

### 효자 서홍인(徐弘仁)(17)

서홍인은 이조시대에 기장현에 살고 있었다. 늙으신 부모님을 피시고 있으면서 부산방군의 군졸로 복무하게 되었다.

낮에는 기장에서 육십리가 넘는 먼 길을 걸어가서 입번을 들고, 밤이 되면 부산에서 기장까지 또 되돌아와서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였다. 이처럼 밤낮으로 육십리 길을 한 번도 어김없이 내왕하면서 극진히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였던 것이다.

나라에서 이 효행을 알고 군졸의 신분을 면천하여 주고 효자비와 정여문을 세웠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159쪽.

[철마면 설화27]

효자 서홍인(徐弘仁)(2)

조선시대 중엽이 되는 시절에 상서면 연귀동(철마면 연구리)에 살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부산성에 있는 입방군의 군졸로 소집되었다. 당시 기장현이 폐지되어 동래부에 합속되었기 때문에 부산성으로 소집된 것이었다.

서홍인은 노부모가 계시고 아무도 봉양할 사람이 없는 딱한 처지라 부모를 내버려 두고 군영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에서 부산성까지 통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집에서 부산성까지는 험한 산길을 걸러 다녀도 60리가 훨씬 먼 엄청난 거리였다.

그런데 서홍인은 낮에는 군영에서 입번을 하고 밤에는 60리가 넘는 밤길을 그것도 험한 산길을 걸어서 다녔다. 밤에 집에 와서는 그 다음날 저녁상 준비까지 하여 놓고 극진히 부모를 봉양하였다. 잠도 제대로 잘 틈 없이 다시 어두운 밤길을 걸어 부산성으로 가서 입번을 하였으니 왕복 120리 산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내왕하였다.

이 사실을(이) 널리 알려지자 나라에서는 그 직위를 올려 입번을 면하게 하여주고 효자상을 주고 그 효행을 기려 정려각을 세웠는데 연구동 부락 앞에 그 효자비가 있다. 개좌고개와 누령개 전설의 주인공인 것 같다.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82~283쪽.

[철마면 설화28]

효자 서홍인(연구리)

효자 서홍인(徐弘仁)은 조선 중엽(1628년) 때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서홍인은 부산성의 입방군의 군졸로 소집되어 근무하게 됐다. 상서면 연귀동(현 철마면 연구리)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살던 그는 부모님을 현지에 버려두고 부산성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연귀동에서 부산까지 통근하기로 하고 매일 육십리 길을 내왕

하였다. 새벽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밤늦게 집에 도착하여 노부모님을 봉양하는 등 그 효행이 지극했었다. 그는 혼자서 맹수가 날뛰는 험한 산길을 다니기가 어려워 누렁이란 개를 데리고 다녔다. 어느 해 겨울 부산성에서 입방을 마치고 횃불을 들고 산길을 넘어오던 서홍인은 집을 얼마 남기지 않은 개좌골에서 잠시 쉬어 간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매일 산길을 넘어 육십 리 길을 오가다 보니 피곤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것은 이 겨울에 횃불을 옆에 두고 잠이 들었으니 말이다. 마른 풀과 나무에 횃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서홍인 옆에 있는 누렁이는 당황했다. 누렁이는 앞 개울가로 순식간에 달려가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셔서 달려와 주인 옆에 번지고 있는 불을 끄면서 연방 일어나라고 짚었다. 그래도 영문을 모른 채 개주인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수십 번을 개울가로 왔다 갔다 하던 누렁이는 주인을 구하고 끝내 지쳐 쓰러졌다.

서홍인의 효행심과 누렁이의 이날 밤 일들이 현대로 소문이 퍼져 현감은 상부에 보고하고, 이같은 전설적인 이야기는 연구리에 효자각이 세워져 지금껏 전해 오고 있다.<sup>59)</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8~469쪽.

[철마면 설화29]

**효부 강(姜)씨와 효자 김련(金練)**

강씨는 기장현 하서면이었던 지금의 철마면에서 자란 처녀였다. 지금의 철마면 임기리에 살고 있던 효자 김련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다.

몹시도 더운 여름철에 시아버지가 이질에 걸려 푹푹 앓다가 몸이 극도로 쇠약하여져서 곧 죽게 되었다. 며느리 되는 강 씨는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흐르는 피를 시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었다. 이 지극한 효성으로 시아버지의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다.

59)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82~283쪽에 수록, 『효자 서홍인(徐弘仁).』

효자 김련은 부인이 이와 같이 효부이고 남편 역시 효자였다. 이분은 행실이 착실하고 효성이 지극할 뿐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여 학덕을 겸비한 선비였다. 그의 부친의 병이 위독하여 이제는 백약이 무효가 되었다. 의원님은 병을 치료하려면 생당귀(生當歸)라는 약초가 있어야 되는데 겨울철에 생당귀를 구할 수가 없으니 약을 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김련은 생당귀를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겨울에 죽순을 구하는 일과 같다. 그날 밤은 큰 눈까지 내릴 것 같은 캄캄한 밤이었고 깊은 산속인지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쳐서 쓰러졌다.

그리하여 방성통곡을 하면서 밤새껏 목을 놓아 울었다. 울면서 큰 바위 밑을 살펴보니 난데없이 커다란 생당귀가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여름철에만 있는 생당귀가 겨울철에 있으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김련은 이 생당귀를 캐어서 약을 지어 드렸더니 아버지의 병은 씻은 듯이 쾌차하였다. 그러나 본래 약질이요 병이 깊어 아버지는 끝내 기력이 쇠잔하여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기절을 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 한 것처럼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흐르는 피를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어 다시 소생시켰다.

이 지극한 두 부부의 효성에 모두 감복하였고, 나라에서는 온갖 세금과 부역을 면하게 하여주고 상도 주었다.

\* 박연주,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162~163쪽.

[철마면 설화30]

### 효자 김련과 효부 강씨(임기리)

김련(金鍊)은 효자로서 크게 이름이 나있는 사람이다. 그는 효자 김순적의 후손이다. 효부 강씨(姜氏)는 효자 김련의 처가 된다. 조선 중엽 때 상서면 임기동(지금의 철마면 임기리)에 살고 있었다.

김련은 학문을 좋아하여 매일 책과 씨름을 한 끝에 훌륭한 선비가 되어 이웃에 살고 있던 강씨와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몄다. 호사다마라 할까 이렇게 금슬이 좋은 가정에 그만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됐다.

천식과 이질병에 걸려 위급한 상태에 놓이자 며느리인 강씨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낸 후 이를 마시게 했다. 피를 마신 시아버지는 며칠 만에 병세가 호전되었으나 천식은 여전히 계속되어 밤마다 그 고통을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래서 김련은 이웃 한의사를 찾았다. 한의사는 여러 번 치유를 했으나 완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야생초인 생당귀를 캐어 다려 먹이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이날부터 김련은 산이란 산은 무조건 찾아 헤매었다. 어느 해 겨울 여름에만 볼 수 있다는 생당귀를 찾으려고 산을 헤매다 지쳐 큰 바위 아래서 쉬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하얗게 덮인 계곡 건너 바위 아래 양지 바른쪽에 생당귀가 파랗게 자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흰 눈에 긴 잎을 내놓고 있는 생당귀를 손에 넣은 김련은 하늘과 산신령께 수없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생당귀를 첩약으로 지어 마신 아버지의 병환은 호전되어 갔다.

이같은 부부의 효행이 알려지자 관에서는 이들에게 효행상을 내리고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줬다.<sup>60)</sup>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동 편찬위원회, 2007. 5. 467~468쪽.

---

60)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279~280쪽에 수록, 「효자 김련(金練)과 효부 강씨(姜氏)」.

## 참고문헌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기장읍지』, 2005. 5.
- 박연주, 『고향(상)-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 박연주 외 13인, 『구기장군향토지』, 재부구기장군향인회, 1992. 12.
-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5.
- 부산직할시동래구, 『동래향토지』, 1993.12.
- 양산군 문화공보실 편, 『내 고장 전설』 (양산군), 1983. 8.
-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2006. 12.
-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2008. 2.
- 정관지편찬위원회, 『정관지』, 2000. 9.
- 철마면지편찬위원회, 『철마면지』, 2007. 5.
-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7.
-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중 부산광역시 편 (조사책임자 : 박경수)의 디지털 자료(구비누리 홈페이지 : <http://gubi.aks.ac.kr>).

## 제 보 자

### ■ 기장읍

- 강무순(여, 1917년생, 대변리 무양마을)
- 강영열(여, 1933년생, 동부2리)
- 김말복(여, 1933년생, 동부1리)
- 김말순(여, 1930년생, 대라리 사라마을)
- 김문연(여, 1951년생, 연화리 신암마을)
- 김복수(여, 1934년생, 청강리 덕밭1리)
- 김성관(남, 1951년생, 시랑리 동암마을)
- 김원수(남, 1937년생, 청강리 무곡마을)
- 김소순(여, 1934년생, 석산리 석산마을)
- 김정숙(여, 1938년생, 서부리 서부마을)
- 노명준(남, 1933년생, 시랑리 동암마을)
- 노차선(여, 1932년생, 서부리 서부마을)
- 모소순(여, 1932년생, 동부1리)
- 손정조(여, 1929년생, 동부1리)
- 신태근(남, 1942년생, 청강리 무곡마을)
- 이묘숙(여, 1932년생, 교리1리)
- 이순자(여, 1935년생, 동부1리)
- 정옥숙(남, 1935년생, 청강리 무곡마을)
- 정임순(여, 1935년생, 동부1리)
- 지순애(여, 1925년생, 동부1리)
- 최말년(여, 1937년생, 내리 소정2구마을)
- 최상연(여, 1938년생, 석산리 석산마을)

### ■ 일광면

- 김성남(여, 1935년생, 이천리 이동마을)
- 김윤덕(여, 1936년생, 원리 상리마을)
- 김정자(여, 1937년생, 용천리 대리마을)
- 안옥남(여, 1941년생, 원리 상리마을)
- 유봉님(여, 1933년생, 용천리 대리마을)
- 허 석(남, 1946년생, 용천리 대리마을)



■ 장안읍

- 김근수(남, 1928년생, 명례리 도야마을)
- 김분순(여, 1933년생, 용소리 용소마을)
- 김석권(남, 1938년생, 장안리 하장안마을)
- 김영경(남, 1932년생, 반룡리 구기마을)
- 김영순(여, 1936년생, 기룡리 하근마을)
- 김옥이(여, 1925년생, 오리 대룡마을)
- 문봉연(여, 1931년생, 명례리 도야마을)
- 방정자(여, 1938년생, 반룡리 반룡마을)
- 오정숙(여, 1936년생, 길천리 길천마을)
- 안귀순(여, 1927년생, 장안리 상장안마을)
- 이두애(여, 1930년생, 기룡리 기룡마을)
- 손봉주(여, 1930년생, 용소리 용소마을)
- 정주선(여, 1941년생, 용소리 용소마을)
- 주윤례(여, 1932년생, 반룡리 반룡마을)
- 최분순(여, 1934년생, 용소리 용소마을)
- 최 전(여, 1928년생, 반룡리 반룡마을)

■ 정관면

- 구여미(여, 1932년생, 매학리)
- 김을순(여, 1935년생, 월평리 월평마을)
- 남영순(여, 1935년생, 방곡리 덕산마을)
- 박화진(남, 1928년생, 두명리 두명마을)
- 서영복(여, 1935년생, 두명리 두명마을)
- 심말라(여, 1925년생, 매학리 매곡마을)
- 옥귀순(여, 1932년생, 두명리 두명마을)
- 이경수(여, 1921년생, 월평리 월평마을)
- 이말순(여, 1932년생, 월평리 월평마을)
- 이필원(여, 1920년생, 병산리 병산마을)
- 정인순(여, 1933년생, 예림리 서편마을)
- 조차영(여, 1927년생, 임곡리 임곡마을)

■ 철마면

- 강순남(여, 1935년생, 구칠리 점현마을)
- 김명근(남, 1940년생, 장전리 장전마을)
- 김복근(남, 1938년생, 백길리 백길마을)
- 김명조(남, 1937년생, 장전리 대곡마을)
- 김문수(남, 1939년생, 연구리 구림마을)
- 김석태(남, 1923년생, 임기리 임기마을)
- 김성수(남, 1929년생, 구칠리 점현마을)
- 김수중(남, 1937년생, 구칠리 점현마을)
- 김일영(남, 1938년생, 장전리 장전마을)
- 김오출(남, 1930년생, 백길리 백길마을)
- 김의호(남, 1930년생, 백길리 백길마을)
- 류홍순(여, 1923년생, 와여리 와여마을)
- 문병갑(남, 1944년생, 웅천리 석길마을)
- 박호순(여, 1931년생, 임기리 임기마을)
- 성순이(여, 1925년생, 송정리 입석마을)
- 송사현(남, 1939년생, 송정리 입석마을)
- 송이조(남, 1935년생, 장전리 대곡마을)
- 안애자(여, 1942년생, 고촌리 사등마을)
- 안임덕(남, 1932년생, 장전리 장전마을)
- 오재화(남, 1926년생, 연구리 마지마을)
- 정문영(남, 1938년생, 구칠리 신리마을)
- 정상학(남, 1928년생, 고촌리 고촌마을)
- 정희수(남, 1926년생, 구칠리 점현마을)
- 진정이(여, 1927년생, 백길리 백길마을)
- 차두철(남, 1935년생, 연구리 구림마을)
- 최경채(남, 1929년생, 이곡리 이곡마을)
- 최복득(여, 1938년생, 와여리 와여마을)
- 최순금(여, 1928년생, 웅천리 석길마을)

## 찾아보기

|  |     |  |          |
|--|-----|--|----------|
| (ㄱ)  |     | 거북부대   | 370      |
| 가마등  | 239 | 거지   | 13       |
| 가마소  | 356 | 거지보다   | 13       |
| 가재   | 296 | 거짓말  | 4        |
| 가평   | 126 | 거칠산국   | 366      |
| 간뎨이  | 35  | 검정마우   | 311      |
| 갈치고개   | 147 | 개  | 51       |
| 갈치재  | 177 | 결혼   | 9        |
| 갈치제  | 147 | 경주 김씨  | 387      |
| 갑화양곡   | 366 | 경주 손씨  | 365      |
| 강피   | 94  | 경주 최씨  | 117      |
| 개 14, 30, 114, 116, 128, 155,<br>158, 179, 180, 209, 221, 267,<br>290, 342 |     | 계곡리  | 164      |
| 개무덤 182, 186, 263, 267   |     | 고개   | 88       |
| 개바위 383  |     | 고려   | 294      |
| 개좌고개 373, 374, 393   |     | 고려장  | 38, 110  |
| 개좌골 155, 158, 179, 180   |     | 고승   | 332      |
| 개좌산 128, 130, 158, 180, 182,<br>186, 262, 267, 372                         |     | 고양이바위  | 159, 383 |
| 개천마을 341   |     | 고촌   | 257      |
| 개화부인 127   |     | 공덕   | 123      |
| 거도장군 351   |     | 공동묘지   | 321      |
| 거무산 148, 180   |     | 공주   | 307      |
| 거문산 142, 148, 385  |     | 꽃감 52, 88, 105   |          |
| 거미 142   |     | 과객 131, 152, 160, 175, 188,<br>199, 251, 254, 320, 371 |          |
| 거북바위 259, 260, 269, 371, 379,<br>380, 382                                  |     | 과부 16, 64, 83  |          |
|  |     | 곽암 272, 273, 370, 382                                  |          |
|  |     | 곽암마을 157   |          |
|  |     | 곽전 322   |          |

|       |                        |       |                         |
|-------|------------------------|-------|-------------------------|
| 관기    | 196, 289               | 기우제   | 282, 338                |
| 관세음보살 | 315                    | 기장    | 158, 280                |
| 교룡    | 303                    | 기장군   | 130, 144                |
| 교리    | 283                    | 기장산   | 301, 303                |
| 교촌    | 42                     | 기장현   | 303, 327                |
| 교촌마을  | 41                     | 기장현감  | 277, 282, 326           |
| 구노실   | 129, 155               | 기장현청  | 283, 289, 327           |
| 구령이   | 8, 9, 168, 366         | 길흥사   | 324                     |
| 구로곡   | 129                    | 김련    | 390, 391, 392, 394, 395 |
| 구림    | 186, 187, 269          | 김봉의   | 390, 391, 392           |
| 구림마을  | 129, 158, 171, 370     | 김상제   | 390, 391, 392           |
| 구명    | 81, 140                | 김순적   | 389, 390, 391, 395      |
| 구박    | 58                     | 김한림   | 322                     |
| 구배근   | 318                    | 김해    | 18                      |
| 구칠    | 174                    | 김해 김씨 | 254                     |
| 구칠리   | 133, 174, 177          | 까마귀   | 357                     |
| 국시당   | 309                    | 까치    | 166, 168                |
| 군목    | 144                    | 꼬마    | 37                      |
| 굴바위   | 341, 342               | 꼬부랑   | 42                      |
| 굿     | 41                     | 꽤     | 52, 119, 121, 165       |
| 굿바위   | 176                    |       |                         |
| 권세    | 37                     | (ㄴ)   |                         |
| 권시량   | 282                    | 나름골   | 159                     |
| 권적    | 24, 213, 214, 277, 280 | 나물    | 220                     |
| 귀신    | 29, 117, 204, 212, 242 | 나주 정씨 | 146, 364                |
| 귀향    | 126                    | 낙향    | 213                     |
| 그림    | 29                     | 남근바위  | 133                     |
| 극락    | 8                      | 남편    | 52, 78, 121, 226        |
| 글공부   | 352                    | 남평 문씨 | 157                     |
| 금수동   | 346                    | 남골당   | 242                     |
| 금씨    | 178                    | 낭패    | 51, 84, 86              |
| 기생    | 25                     | 내기    | 245                     |

|   |               |                                |          |
|---|---------------|--------------------------------|----------|
| 내리  | 296           | 덕산마을                           | 343, 356 |
| 내안골   | 162           | 덕전마을                           | 345, 357 |
| 노루골   | 178           | 도공                             | 363      |
| 노부부   | 245           | 도깨비 92, 98, 103, 224, 237, 240 |          |
| 누나  | 136           | 도깨비불 89, 126, 224, 240, 249    |          |
| 느티나무  | 344, 357      | 도둑                             | 18, 120  |
| 능성 구씨   | 320           | 도라지꽃                           | 95       |
| 늦둥이   | 102           | 도랑                             | 365      |
|   |               | 도마뱀                            | 8        |
| <b>(ㄷ)</b>  |               | 도사                             | 16       |
| 단종애사  | 294           | 도사와                            | 16       |
| 단지  | 30            | 도승                             | 70       |
| 단칸방   | 32            | 독룡                             | 303, 335 |
| 달래고개  | 19            | 돈                              | 86       |
| 달성 서씨   | 158, 271, 334 | 돌                              | 140, 265 |
| 달음산 46, 74, 81, 90, 105, 152,<br>181, 220, 246, 303, 310,<br>313, 314, 316, 353 |               | 돌문                             | 164      |
| 닭   | 247           | 돌용골                            | 301      |
| 닭소리   | 86            | 동굴                             | 278      |
| 당대  | 364           | 동냥                             | 123      |
| 당사리   | 298           | 동네                             | 215, 256 |
| 당산나무 70, 143, 366   |               | 동래                             | 183      |
| 당산할매  | 308           | 동래 정씨                          | 157      |
| 당산할배  | 148           | 동래부                            | 293      |
| 당제  | 34            | 동래부사                           | 158      |
| 당집  | 148, 308      | 동래성                            | 182, 268 |
| 대라(大羅)리   | 294           | 동래시장                           | 186      |
| 대명  | 337           | 동래헌                            | 186      |
| 대접  | 136           | 동래현청                           | 328      |
| 대화  | 11            | 동리                             | 335      |
| 덕길  | 89            | 동면                             | 164      |
|   |               | 동백리                            | 320, 322 |
|   |               | 동부리 회나무                        | 283      |

|            |                     |      |   |
|------------|---------------------|------|---|
| 동생         | 136                 | 매곡마을 | 344, 357  |
| 동서         | 12, 13              | 매구   | 300, 340  |
| 동계         | 197                 | 매남바위 | 360   |
| 동해용왕       | 315                 | 매남산  | 81, 105, 246  |
| 동헌         | 293                 | 매바우  | 196, 197  |
| 돼지         | 11                  | 매바위  | 178, 193, 194, 197, 199,<br>200, 284, 285, 290, 296,<br>297, 299              |
| 두 동네       | 229                 | 맥    | 72  |
| 두꺼비        | 6, 47, 76, 110, 135 | 머슴   | 64, 138, 150  |
| 두명         | 89                  | 메밀레종 | 109   |
| 두명리        | 343, 355            | 메주콩  | 3, 203  |
| 두모포        | 284                 | 머느리  | 14, 33, 51, 55, 76, 90, 92,<br>100, 121, 163, 201, 215,<br>216, 217, 225, 243 |
| 두부         | 11                  | 면장   | 249   |
| 두호         | 289, 299            | 명당   | 118, 134, 165, 349  |
| 두호마을       | 284                 | 명례리  | 336   |
| 두호만        | 318                 | 명주실  | 207   |
| 딸          | 22, 243             | 명필   | 346   |
| 떡          | 135                 | 목    | 258   |
| 떡진바위       | 72                  | 목넘개  | 250   |
| 떡친 바위      | 337                 | 목숨   | 106, 116, 123, 267  |
| <b>(ㄇ)</b> |                     | 목신   | 317, 344, 357   |
| 마누라        | 290                 | 목화밭  | 230   |
| 마이산        | 79                  | 못골   | 162   |
| 마지마을       | 156                 | 뒤탈   | 7   |
| 막내딸        | 9                   | 뒬자리  | 146, 152  |
| 만석꾼        | 264                 | 묘    | 134, 146, 159, 163, 248, 264  |
| 만화동        | 253                 | 묘비   | 268   |
| 말          | 3, 27, 79           | 무곡   | 287, 294  |
| 망덕사        | 303                 | 무곡마을 | 40  |
| 망령         | 374                 |      |   |
| 망신         | 226                 |      |   |
| 맞돈         | 11                  |      |   |

|            |   |      |                         |
|------------|---|------|-------------------------|
| 무외삼장       | 302                                       | 백동마을 | 5                       |
| 문동리        | 326                                       | 백련암  | 71                      |
| 문둥이        | 257                                       | 백발노인 | 341                     |
| 물          | 17, 46                                    | 백양산  | 90                      |
| 물래봉        | 361                                       | 백여우  | 88, 185                 |
| 미랑대        | 280                                       | 백운산  | 362, 369, 380, 381, 385 |
| 미리내        | 317                                       | 뱀    | 112, 228                |
| 미역         | 157, 272                                  | 뱀사골  | 111                     |
| 미역땀        | 382                                       | 버드나무 | 303                     |
| 미역바위       | 157, 272, 370, 382, 383                   | 버룻   | 102                     |
| <b>(ㅂ)</b> |   | 벌레   | 120                     |
| 바다         | 35  | 범    | 93, 164, 219            |
| 바보         | 18, 20, 60                                | 범굴   | 287                     |
| 바우장사       | 313                                       | 범난골  | 321, 322                |
| 바위         | 171, 175, 181, 186, 187,<br>253, 256, 260 | 범바위굴 | 385                     |
| 바위 구멍      | 17  | 범불   | 173                     |
| 바위 머리      | 253                                       | 범산   | 180                     |
| 박정희        | 177                                       | 범어사  | 159, 161                |
| 반월성        | 351, 366, 367                             | 범당터  | 162                     |
| 밥          | 14, 117                                   | 멍어리  | 11, 33                  |
| 방구         | 218                                       | 메틀바위 | 104, 346, 358, 359      |
| 방귀         | 55, 63, 76, 77, 92, 100, 200,<br>201      | 면소   | 229                     |
| 방모산        | 65, 74                                    | 별신굿  | 312                     |
| 배          | 27  | 병    | 50                      |
| 배서낭        | 26, 27                                    | 병산리  | 346, 358                |
| 배석         | 381                                       | 보고   | 195                     |
| 배석사        | 379                                       | 보덕사  | 389                     |
| 배설         | 385                                       | 보름새  | 322                     |
| 백길마을       | 143, 148                                  | 보리타작 | 154                     |
|            |   | 보림   | 271                     |
|            |   | 보은   | 230, 286                |
|            |   | 북    | 96                      |

|                                       |                         |                             |                 |
|---------------------------------------|-------------------------|-----------------------------|-----------------|
| 복숭아                                   | 98                      | 빨당골                         | 337             |
| 복천동                                   | 376                     |                             |                 |
| 본처                                    | 58                      | (入)                         |                 |
| 봉덕이                                   | 109                     | 사과나무                        | 101             |
| 봉사                                    | 11, 12, 106             | 사기점                         | 361             |
| 봉수대                                   | 333                     | 사돈                          | 15, 18          |
| 봉양                                    | 4, 43, 62, 74, 113, 156 | 사돈집                         | 227             |
| 봉오골                                   | 236                     | 사등마을                        | 170             |
| 부부                                    | 11, 82, 86              | 사라                          | 294             |
| 부산                                    | 162, 178, 394           | 사람                          | 212, 248, 249   |
| 부산성                                   | 393, 394                | 사랑                          | 359             |
| 부인                                    | 4, 52, 78               | 사리암                         | 17, 140         |
| 부자                                    | 6, 20, 150, 157, 248    | 사위                          | 18, 138         |
| 부자집                                   | 199, 269                | 사주                          | 138             |
| 북면                                    | 335                     | 사촌동생                        | 213             |
| 불                                     | 155, 158, 179, 180      | 사촌형                         | 5               |
| 불개미                                   | 150                     | 사통팔달                        | 377             |
| 불공                                    | 123                     | 사효묘                         | 390             |
| 불광산                                   | 331, 334                | 산                           | 61, 72, 79, 264 |
| 불국사                                   | 109                     | 산곡                          | 125, 172        |
| 불운곡                                   | 336                     | 산미역초                        | 345             |
| 붕어                                    | 294                     | 산삼                          | 316             |
| 비                                     | 118, 126                | 산삼동자                        | 50              |
| 비단장사                                  | 101                     | 산소                          | 184             |
| 비련                                    | 282                     | 산수곡                         | 45, 172         |
| 비오개                                   | 282                     | 산신령                         | 234, 362, 391   |
| 비음골(와여마을)                             | 383                     | 살                           | 271             |
| 빈대 71, 72, 125, 159, 160, 319,<br>337 |                         | 삼                           | 156             |
| 빈대절                                   | 336, 337, 382           | 삼각산                         | 74, 338         |
| 빈대절터                                  | 125, 160, 170           | 삼국유사                        | 301             |
| 빨당골                                   | 72                      | 삼장사                         | 384             |
|                                       |                         | 삼정자 173, 176, 265, 266, 384 |                 |



|       |                         |        |                             |
|-------|-------------------------|--------|-----------------------------|
| 삼정재   | 133                     | 선장     | 112                         |
| 삼치    | 365                     | 설화     | 331                         |
| 삼형제   | 260, 265                | 성주     | 126                         |
| 삼형제바위 | 133                     | 소 도적   | 291                         |
| 상객    | 15                      | 소금     | 19                          |
| 상리    | 313                     | 소금배    | 298                         |
| 상장안마을 | 71, 337                 | 소금장수   | 178                         |
| 상주    | 316                     | 소나무    | 309                         |
| 새 것   | 49                      | 소복     | 205                         |
| 새끼    | 20                      | 소정     | 296                         |
| 새마을운동 | 324                     | 소학대    | 361                         |
| 새바위   | 285                     | 손님     | 253                         |
| 샘     | 206                     | 숫을산    | 90                          |
| 생거북바위 | 130, 258, 371, 383      | 송곳대 놀이 | 82                          |
| 생당귀   | 395, 396                | 송등옹덩이  | 75                          |
| 생암    | 130                     | 송상덕    | 386, 387, 388               |
| 서근담   | 105, 219                | 송씨집    | 352                         |
| 서낭당   | 334                     | 송일곤    | 352                         |
| 서흥    | 129, 155, 182, 262, 267 | 송정동    | 378                         |
| 서흥인   | 372, 373, 392, 393      | 송정리    | 377, 385                    |
| 석공    | 297                     | 송정자    | 377                         |
| 석길마을  | 140, 144, 378           | 송정천    | 298                         |
| 석탈해왕  | 313                     | 솔      | 233                         |
| 석탑사   | 358                     | 쇠말뚝    | 236                         |
| 선녀    | 104, 296                | 쇠신당    | 370                         |
| 선돌    | 125, 164, 385           | 수달피    | 301                         |
| 선바위   | 294, 370, 379, 380, 381 | 수리봉    | 314                         |
| 선비    | 8, 9, 13, 14, 94, 359   | 수박     | 23                          |
| 선암마을  | 333                     | 수영부사   | 129, 263                    |
| 선암사   | 333                     | 수행승    | 278                         |
| 선여    | 379                     | 술      | 28                          |
| 선여사   | 380, 381, 382, 385      | 스님     | 16, 17, 51, 61, 71, 73, 81, |

|          |   |       |                        |
|----------|---|-------|------------------------|
| 111, 172 |   | 신평마을  | 312                    |
| 습성       | 220   | 신희    | 364                    |
| 시        | 36  | 실수    | 15, 227                |
| 시동생      | 226   | 심선골   | 254                    |
| 시랑       | 280   | 심술    | 171                    |
| 시랑대      | 24, 25, 206, 207, 213,<br>214, 277, 278, 280, 297 | 쌀     | 17, 81, 140            |
| 시랑리      | 277, 280  | 쌀장사   | 205                    |
| 시릿대      | 170   | 쌍계사   | 334                    |
| 시아버지     | 50, 90, 163, 243                                  | 쌍다리재  | 293                    |
| 시어른      | 271   | 쌍바위   | 307, 308, 309          |
| 시어머니     | 43, 62, 74, 78, 113,<br>121, 233                  | 쌍암    | 308                    |
| 시주       | 299   | 씨리덤   | 105                    |
| 시집       | 225, 243  |       |                        |
| 시집살이     | 3, 33, 55, 76, 92                                 | (○)   |                        |
| 신라       | 156, 295, 302, 347                                | 아가씨   | 242                    |
| 신라국      | 313   | 아금포   | 239                    |
| 신라군      | 367   | 아낙    | 94                     |
| 신라시대     | 24, 208, 278, 329, 348,<br>351, 366               | 아내    | 112                    |
| 신랑       | 60  | 아들    | 4, 29, 66, 82, 84      |
| 신령       | 234, 371, 379, 386                                | 아반월성  | 355                    |
| 신룡       | 342   | 아버지   | 32, 84                 |
| 신리       | 174   | 아이    | 98, 206, 218, 257      |
| 신병       | 351   | 아홉 공주 | 338                    |
| 신선       | 114   | 아홉산   | 5, 35                  |
| 신선바위     | 333   | 안내동   | 364                    |
| 신선불      | 9   | 안산    | 81                     |
| 신선암      | 333   | 안적사   | 25, 206, 208, 288, 295 |
| 신통술      | 367   | 안태    | 207                    |
| 신평리      | 312, 318  | 안평마을  | 42                     |
|          |   | 암캐    | 222                    |
|          |   | 암행어사  | 196                    |
|          |   | 양장구   | 320                    |

|            |                                      |      |  |
|------------|--------------------------------------|------|--|
| 애기소        | 204, 205, 306                        | 오랑대  | 25                                     |
| 애기장사       | 353                                  | 오룡   | 335                                    |
| 애운애기       | 57                                   | 오신마을 | 286                                    |
| 앵립산        | 286, 296                             | 오해   | 33                                     |
| 약물샘        | 39, 294, 295                         | 옥고   | 338                                    |
| 약효         | 28                                   | 옥녀   | 279, 359                               |
| 양산         | 147                                  | 옥녀봉  | 303, 314, 361                          |
| 양산군        | 164                                  | 옥녀직금 | 279                                    |
| 어머니        | 83, 257                              | 옥샘   | 315                                    |
| 어부         | 312                                  | 옥서계  | 374, 375                               |
| 어사바위       | 193                                  | 옥종손  | 327, 328                               |
| 어사암        | 284, 289, 290, 300                   | 옥천   | 314                                    |
| 여          | 387                                  | 옥천사  | 314                                    |
| 여근바위       | 349, 350                             | 옥황상제 | 278, 360, 369                          |
| 여근산        | 133                                  | 옹녀산발 | 248                                    |
| 여산 송씨      | 132, 156, 157, 264,<br>272, 387, 388 | 옷나무  | 174, 177, 350                          |
| 여수더미       | 340                                  | 옷마우  | 311                                    |
| 여수마우       | 340, 341                             | 옷마위  | 311, 312                               |
| 여우         | 186, 300, 310, 324, 325, 386         | 왕릉   | 338                                    |
| 여자         | 79                                   | 왜가리  | 297                                    |
| 연구리        | 155, 372, 393                        | 왜병   | 143                                    |
| 열녀         | 132                                  | 왜장이  | 312                                    |
| 열녀 김씨      | 386, 387                             | 왜적   | 363                                    |
| 열녀 김씨(연구리) | 388                                  | 외동딸  | 308                                    |
| 열녀각        | 132                                  | 외동아들 | 137                                    |
| 염불         | 8                                    | 요령바위 | 41                                     |
| 영감         | 31, 123, 224                         | 욕심   | 81                                     |
| 영동할매       | 171                                  | 욕쟁이  | 91                                     |
| 예림         | 366                                  | 용    | 45, 71, 75, 206, 208, 223, 317,<br>336 |
| 오딩치        | 3                                    | 용곡실  | 178                                    |
| 오도대        | 343, 344, 356, 357                   | 용궁   | 278, 281                               |

|       |                     |          |  |
|-------|---------------------|----------|--|
| 용궁사   | 208                 | 응당이      | 71, 294                                |
| 용녀    | 281                 | 응천       | 140                                    |
| 용두대   | 342                 | 원리       | 313, 317                               |
| 용두사   | 342                 | 원수       | 120                                    |
| 용두암   | 75                  | 원앙대      | 277, 280, 281, 282, 283                |
| 용등골   | 343                 | 원한       | 109                                    |
| 용마    | 383                 | 원효       | 208, 330, 331, 334, 335, 345, 348, 358 |
| 용마장군  | 370                 | 원효대사     | 60, 69, 73, 295, 329                   |
| 용머리   | 299                 | 월매       | 195, 196, 289                          |
| 용소    | 65, 71, 73, 79, 342 | 월명사      | 315, 316                               |
| 용소계곡  | 303                 | 월성 김씨    | 132, 156, 388                          |
| 용소골   | 29, 204, 205        | 월송       | 271                                    |
| 용소리   | 342                 | 월평리      | 351, 355                               |
| 용소바위  | 303                 | 유래       | 220, 222, 246, 330, 332                |
| 용신    | 301                 | 유령       | 375                                    |
| 용왕    | 25, 281, 297, 315   | 웃판대      | 312                                    |
| 용왕제   | 312, 315            | 은진 송씨    | 184                                    |
| 용천    | 45, 222, 223, 317   | 은행나무     | 40                                     |
| 용천강   | 300, 301            | 은혜       | 47, 76, 110, 168                       |
| 용천동   | 301                 | 음택       | 383                                    |
| 용천산   | 343, 355, 361, 363  | 의붓어미     | 58                                     |
| 우봉 김가 | 146                 | 의상       | 345, 358                               |
| 우봉 김씨 | 132, 157            | 의상(義湘)대사 | 295                                    |
| 우시산국  | 339                 | 의성       | 162                                    |
| 운문사   | 140                 | 의적       | 290                                    |
| 운장대   | 353, 354            | 의형제      | 66                                     |
| 운제사   | 331, 334            | 이곡       | 382                                    |
| 운화리   | 336                 | 이도재      | 193, 195, 289                          |
| 울바우   | 377                 | 이무기      | 317                                    |
| 울바위   | 165                 | 이방       | 165                                    |
| 울산    | 18, 66              | 이수자      | 106                                    |
| 움막집   | 278                 |          |  |

|       |   |      |  |
|-------|---|------|--|
| 이승    | 211   | 자루바우 | 161  |
| 이야기   | 23, 42, 43, 120, 226, 227,<br>228, 229, 237, 245, 260,<br>352 | 자석바위 | 145, 378   |
| 이유    | 220   | 자손   | 184  |
| 이장    | 254   | 자식   | 50, 83   |
| 이장을   | 254   | 잔치   | 28   |
| 이천    | 322   | 장가   | 256  |
| 인곡    | 250   | 장개   | 226, 230   |
| 인불    | 126   | 장군대  | 353, 355   |
| 일광    | 157   | 장사   | 181, 185, 303, 321                                   |
| 일광면   | 172   | 장사바우 | 313  |
| 일광산   | 307, 308, 310, 315, 316                                       | 장사바위 | 313, 314   |
| 일제강점기 | 338   | 장수   | 125  |
| 임기    | 125, 157, 162, 380  | 장안리  | 71, 330, 336   |
| 임기리   | 389, 394  | 장안사  | 61, 69, 70, 71, 329, 330,<br>331, 334, 335, 348, 349 |
| 임기천   | 379   | 재치   | 64, 84, 257  |
| 임기촌   | 390   | 저승   | 6, 31, 57, 209, 210                                  |
| 임란    | 365   | 저승사자 | 48   |
| 임랑리   | 342   | 저주   | 297  |
| 임진왜란  | 143, 148, 288, 292, 294,<br>312, 346, 359, 373, 376,<br>382   | 전봇대  | 36   |
| 입방군   | 372   | 전설   | 315, 319, 326, 348, 351, 372                         |
| 입석    | 380   | 절    | 72, 81, 123, 125, 156, 159,<br>160, 170              |
| 입석마을  | 125   | 절단   | 348  |
|       |   | 점쟁이  | 137, 210   |
|       |   | 점지   | 324  |
|       |   | 점티마을 | 384  |
|       |   | 점현   | 174, 261   |
|       |   | 점현마을 | 159, 176   |
|       |   | 점현부락 | 133  |
|       |   | 정관   | 89, 104, 181, 242, 248, 322                          |
|       |   | 정관면  | 152, 249, 268  |
| (ㄷ)   |   |      |  |
| 자궁 모양 | 264   |      |  |
| 자궁산   | 133   |      |  |
| 자기    | 271   |      |  |
| 자라바위  | 73, 79  |      |  |

|   |               |        |                     |
|---|---------------|--------|---------------------|
| 정려  | 328           | 죽성리    | 284                 |
| 정려각   | 129, 155, 328 | 죽순     | 351                 |
| 정마수   | 11            | 죽음     | 86                  |
| 정봉서   | 290, 292      | 줄방귀    | 217                 |
| 정승  | 37, 244       | 중      | 16, 51, 161         |
| 정씨  | 258           | 중광리    | 211                 |
| 정씨 부인   | 259           | 중종     | 328                 |
| 정자나무  | 174           | 취마위    | 383                 |
| 정장군   | 185           | 지네     | 77, 111             |
| 정팔동   | 285           | 지네장터   | 110                 |
| 제동당   | 24            | 지령이    | 4                   |
| 제사  | 117           | 지령이국   | 43, 62, 74, 78, 113 |
| 제석천   | 360           | 지리산    | 111                 |
| 조가벌   | 346           | 지명     | 222                 |
| 조가보   | 359, 365      | 지신풀이   | 239                 |
| 조래  | 234           | 지팡이    | 70                  |
| 조상  | 146           | 지혜     | 233                 |
| 조상 묘  | 254           | 지혜로운 딸 | 227                 |
| 조선  | 294           | 진계등    | 353                 |
| 조선시대  | 327           | 집      | 211, 216            |
| 조심  | 200           | 집안     | 130, 197, 253, 254  |
| 중   | 109, 169      | 짚신     | 251                 |
| 중남산   | 330, 331      |        |                     |
| 좌동리 포구나무  | 334           | ( ㉮ )  |                     |
| 좌수  | 318           | 차성     | 277, 280            |
| 좌천  | 205           | 차성가    | 329, 333            |
| 좌천장   | 5             | 차암     | 332                 |
| 좌천장터  | 316           | 차양사    | 319, 320            |
| 주문  | 307           | 찬물샘    | 313                 |
| 주인 114, 116, 128, 155, 158,<br>179, 180, 186, 262 |               | 참개구리   | 118                 |
| 주인 딸  | 150           | 참샘     | 28, 304             |
|   |               | 채룡단    | 277                 |

|        |                                     |            |                   |
|--------|-------------------------------------|------------|-------------------|
| 책      | 94                                  | 칠암리        | 311               |
| 처      | 123                                 |            |                   |
| 처녀     | 65                                  | <b>(ㄱ)</b> |                   |
| 처녀할매   | 148                                 | 콩          | 3                 |
| 처자     | 40, 73                              |            |                   |
| 척반암    | 330                                 | <b>(ㄷ)</b> |                   |
| 척사대    | 312                                 | 탈해         | 351               |
| 척관암    | 60, 69, 73, 329, 330, 331,<br>352   | 탐골사        | 345, 357          |
| 천 석    | 364                                 | 뗏줄         | 207, 278, 281     |
| 천석     | 152                                 | 탱자나무골      | 144               |
| 천석바위   | 298, 299                            | 탱주나무골      | 140               |
| 천성산    | 329, 330                            | 토          | 135               |
| 철마     | 29, 143, 157, 158, 174, 369,<br>371 | 토끼         | 93, 119, 135, 166 |
| 철마면    | 128, 157, 186, 369, 372             | 토끼의        | 135               |
| 철마산    | 143, 180, 248, 369, 379,<br>381     | 토성         | 351               |
| 철마체육공원 | 158, 171                            | 통도사        | 382               |
| 청도     | 140                                 | 통만         | 157               |
| 청룡동    | 348                                 | 통소         | 359               |
| 청룡등    | 334, 335, 348                       |            |                   |
| 총각     | 106, 242, 251, 256                  | <b>(표)</b> |                   |
| 최개똥    | 286                                 | 판곡마을       | 340               |
| 최영     | 34                                  | 팔자         | 137               |
| 최장군    | 286                                 | 패철         | 7                 |
| 충견     | 182, 186, 262, 373                  | 팽나무        | 317               |
| 취봉산    | 314                                 | 편지         | 32                |
| 취정사    | 314                                 | 포구나무       | 334               |
| 칠바우    | 311                                 | 포줄         | 292               |
| 칠성제    | 312                                 | 표주박        | 314               |
| 칠암     | 312, 321, 322                       | 풍수         | 7                 |
|        |                                     | 풍어         | 312               |
|        |                                     | 풍어제        | 197               |
|        |                                     | 풀(팔)       | 231               |

|            |   |        |   |
|------------|---|--------|---|
| <b>(ㅎ)</b> |   | 현 것    | 49  |
| 하근마을       | 338                                       | 헛거불    | 126   |
| 하늘         | 118                                       | 혀      | 154   |
| 하룻밤        | 60  | 현감     | 318   |
| 하장안마을      | 71  | 형무소    | 18  |
| 학          | 5   | 혜통     | 301, 302, 303, 335  |
| 학리         | 309, 310, 311                             | 호랑이    | 29, 52, 88, 105, 141, 167,<br>172, 189, 203, 211, 218,<br>220, 230, 286, 296, 342,<br>390 |
| 학리마을       | 324                                       | 호랑이 새끼 | 287   |
| 학바위        | 299                                       | 호랑이불   | 173   |
| 학사암        | 277                                       | 호식     | 22, 220   |
| 학송         | 309, 310                                  | 호양바위   | 65  |
| 한 동네       | 229                                       | 호젓이    | 126   |
| 한탄강        | 141                                       | 호젓이불   | 126   |
| 할마이        | 234                                       | 혼불     | 173   |
| 할매나무       | 144                                       | 혼사     | 41  |
| 할머니        | 22, 31, 203, 209, 210, 245                | 혼신     | 66  |
| 할배         | 202, 228                                  | 혼인     | 64, 150   |
| 할배나무       | 144                                       | 홀어머니   | 294   |
| 할아버지       | 91, 172, 245                              | 홍류정    | 140   |
| 함박산        | 105, 181                                  | 홍수     | 247   |
| 합방         | 121                                       | 화적떼    | 258, 259  |
| 항구         | 373                                       | 화전놀이   | 340   |
| 해동수원지      | 128                                       | 환생     | 114, 120  |
| 해룡단        | 279, 280                                  | 활빈당    | 162   |
| 해송         | 309                                       | 황금     | 343   |
| 해일         | 46, 105, 273, 377                         | 황금산    | 356   |
| 해주 오씨      | 132, 133, 157, 159,<br>254, 264, 341, 383 | 황룡     | 300   |
| 해창         | 195, 289, 326                             | 황상제    | 315   |
| 해평 김씨      | 249, 344                                  | 황소     | 160   |
| 향리         | 327                                       |        |   |



|  |          |       |                              |
|--|----------|-------|------------------------------|
| 황토섬                                      | 126      | 효암    | 236                          |
| 황학대                                      | 299      | 효자    | 129, 155, 234, 267, 327, 328 |
| 회룡                                       | 223      | 효자 김런 | 395                          |
| 회룡마을                                     | 222      | 효자각   | 263                          |
| 효부 43, 50, 62, 74, 113, 156,<br>163, 271 |          | 효행    | 295, 327, 328                |
| 효부 강씨                                    | 394, 395 | 흥     | 3                            |
| 효부                                       | 74       | 흥내    | 86                           |
| 효소왕                                      | 302      | 힘겨루기  | 260, 265                     |

■ 현장조사자

● 현장조사 1팀

책임자 : 박경수(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사자 : 강아영(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공유경(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현장조사 2팀

책임자 :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조사자 : 정혜란(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강미지(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편집위원

위원장 : 강대민(경성대학교 교수)  
위 원 : 김동철(부산대학교 교수)  
위 원 : 박은경(동아대학교 교수)  
위 원 : 김강식(동서대학교 교수)  
위 원 :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위 원 : 홍연진(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구술문화총서Ⅰ

동부산 문화권(Ⅰ) 기장군편

---

---

발행인 강창석  
편저 박경수·황경숙  
편집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표용수  
발행일 2012년 10월 31일  
인쇄 성진시스템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8-89-964675-8-8  
978-89-964975-9-5(세트)

---

---

(비매품)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 051) 888-3467 / FAX : 051) 888-3469

자료검색 (www.busan.go.kr)

부산시홈페이지 > 해양수도부산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